포탄 파편

L’Éclat d’obus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1916년 발표 · 프랑스어 원문 번역 · 2026-06-12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Maurice Leblanc, « L’Éclat d’obus » (1916)

저자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원전 출처

fr.wikisource — L’Éclat d’obus (퍼블릭 도메인)

번역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2

번역 정책

> 프랑스어 원문에서 곧장 옮겼으며, 가독성을 우선해 요즘 독자가 쉽게 읽도록 다듬되 20세기 초 신사 도둑 이야기 특유의 위트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땅에서, 그와 마주친 적이 있다니요."

에리자베트는 파울 델로즈를 바라보았다. 신부다운 연민과 경외가 섞인 눈빛이었다. 사랑하는 남자의 말 한마디에 그녀가 느끼는 경탄이 그대로 드러났다.

"프랑스에서 빌헬름 2세를 직접 보셨다고요?"

"내 눈으로 직접 봤소. 그 만남의 모든 정황이 아직 생생하단 말이오. 잊을 수가 없소. 비록 그때가 꽤 오래전 일이지만."

그는 갑자기 무거운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가장 고통스러운 생각들이 깨어난 듯했다.

에리자베트가 물었다.

"파울, 그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이야기해 드리죠. 비록 그때 저는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그 일은 제 인생에 비극적으로 얽혀 있어서 생생한 세부사항까지 모두 말씀드려야만 마음이 놓입니다."

그들은 내려갔다. 기차는 코르비니 역에 멈춰 섰다. 이 역은 지방 소선 노선의 종점이었는데, 이 노선은 현청 소재지에서 출발해 리세론 계곡을 지나 국경 여섯 리 앞, 바반이 그의 회고록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반달형 요새"로 둘러싸인 작은 로렌의 도시 언덕 아래에서 끝이 났다.

역은 극도로 분주했다. 군인들이 많았고, 장교들도 부지기수였다. 수많은 여행자들이 승강장에 모여 있었다. 부르주아 가정, 농부, 노동자들, 그리고 인근 온천 도시로 가는 열차인 코르비니 역을 이용하는 피서객들이 줄을 서 있었다. 그들은 짐 더미 한가운데서 수도로 가는 다음 열차의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칠월 마지막 목요일이었다. 동원령이 내려지기 직전의 목요일이었다.

엘리자베트는 불안한 심정으로 남편에게 바짝 다가가 몸을 의지했다.

"오, 폴. 떨리네요. 전쟁은 없기를 바랄 뿐이에요."

"전쟁? 무슨 생각이에요."

"하지만 다들 떠나고 있잖아요. 국경에서 멀어지는 가족들도 많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증거가 되지 않아요."

"아니요, 지금 방금 신문에서 다 읽으셨잖아요. 소식은 매우 안 좋습니다. 독일이 준비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계산해 둔 거예요… 아, 폴, 우리가 헤어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제가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게 되면… 그리고 당신이 부상을 입으면… 그리고…"

그녀가 그의 손을 꽉 쥐었다.

"두려워하지 마요, 엘리자베트.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려면 누군가가 선전포고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 끔찍한 결정을 감히 내릴 악당이나 광인이 있겠어요?"

"저는 두렵지 않아요. 설령 당신이 떠나야 한다면 저는 매우 용감하게 대처할 거라고 확신해요. 다만… 다만,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잔인한 일이 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남편과 부부는 오늘 아침에 막 맺었잖아요."

그토록 최근의 결혼, 그리고 깊고 오래갈 기쁨이 가득했던 그 약속을 떠올리자, 그녀의 금발에 금빛 곱슬머리가 빛나는 예쁜 얼굴에는 이미 가장 신뢰에 찬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속삭였다.

"오전 중에 결혼했어요, 폴. 그러니까요, 제 행복의 양은 그리 많지 않아요."

군중이 술렁였다. 사람들은 모두 출구 쪽으로 몰려들었다.

한 장군이 두 명의 고위 장교와 함께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마차로 기다리고 있는 광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군악대가 연주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기차역 앞大通로를 보병대대가 행진하고 있었다.

그 뒤로는 포병들이 이끄는 16마리의 말이 끄는 거대한 포가 지나갔다. 포신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긴 포신 덕분에 전체적인 실루엣은 오히려 가볍게 보였다.

그리고 소 떼가 그 뒤를 따랐다.

손가방 두 개를 든 폴은 직원을 찾지 못한 채 인도에 서 있었다. 그때 가죽 장화를 신은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거친 초록색 벨벳 바지와 뿔 단추가 달린 사복 재킷을 입고 있었다.

남자는 모자를 벗으며 물었다.

"파울 델로즈 씨, 맞습니까? 저는 성의 경비원입니다."

그 얼굴은 기개와 정직함이 서려 있었다. 햇볕과 추위에 피부는 단단해졌고, 머리카락은 이미 회색이었다. 그는 어떤 구식 하인 특유의 거친 분위기를 풍겼는데, 이는 자신의 직위가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었다.

그는 엘리자베트의 아버지인 당드빌 백작을 위해, 코르비니 위쪽에 있는 오르네킨 대저택을 지난 17년 동안 살며 관리해 왔다.

"아, 제롬이시군요!" 폴이 외쳤다. "좋아요. 안드빌 백부인이 보내신 편지를 받으셨네요. 우리 하인들이 도착했습니까?"

"아저씨, 세 명 모두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성을 정리하며, 귀부인과 백부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엘리자베트에게 인사를 했다. 그녀가 물었다.

"제롬, 나를 알아봐 주시는군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엘리자베트 님은 네 살이었죠. 귀부인이 다시 성에 오지 않으실 거라는 소식을 듣고, 제 아내와 저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백부인도 이미 돌아가셨으니, 백부님도 함께 오시지 못하셨죠. 그래서 백부님도 올해는 잠시 들르시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롬.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수년이 흘렀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깊은 슬픔에 잠겨 있어요."

제롬은 가방들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코르비니에서 불러온 마차로 옮겼다. 그는 마차를 앞쪽으로 당겼다. 큰 짐들은 농장의 수레를 이용해 옮겨야 했다.

날씨는 화창했다. 마차의 천막을 올렸다.

폴과 그의 부부가 자리에 앉았다.

"길은 그리 길지 않아요," 간수장이 말했다. "사 리에 불과해요. 하지만 오르막길이 있죠."

"성채는 대체로 살만합니까?" 폴이 물었다.

"에이, 살기 좋은 저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접 보시면 알 겁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부인도 주인님들이 오신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지금 바로 현관 계단 아래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섯 시 반, 늦어도 일곱 시쯤 오실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그들이 자리를 뜨자, 폴이 엘리자베트에게 말했다.

"참 착한 분인데, 말할 기회가 많지 않은 모양이군. 그래서 그런지 말이 많네."

그 길은 코르비니의 높은 지대를 가파르게 올라가며, 도시 한가운데서 상점과 공공 건물, 호텔들이 늘어선 양쪽으로 뻗어 나갔다. 그날은 평소와 달리 유난히 많은 군중이 몰려 있어 거리는 북적거렸다.

그리고 길은 다시 내려가, 바반의 고대 요새들을 둘러쳤다. 이어 평야를 가로지르며 작은 요새와 큰 요새가 좌우를 감시하는 사이로 잔잔한 구불거림을 그리며 이어졌다.

파울 델로즈는 이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을 따라, 양옆에 늘어선 포플러나무들이 만들어낸 그늘진 돔 아래로 오트와 밀밭 사이를 지나며 돌아왔다. 그는 그 길 위에서 엘리자베트에게 약속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 에피소드를 떠올렸다.

"엘리자베트, 내가 말했잖아. 이 일은 끔찍한 비극과 이어져 있어. 기억 속에서 그 사건과 이 에피소드는 완전히 하나밖에 될 수 없지. 그 비극은 당시에도 많이 회자됐고, 아버지의 친구이셨던 당신의 아버지는 신문을 통해 그 일을 알게 됐어. 만약 아버지가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내 부탁 때문이었어. 그리고 내가 가장 아픈 이 일을 직접 당신에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지."

그들의 손이 서로 맞닿았다. 그는 자신의 말이 열렬한 공감으로 받아들여질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누구에게나 호감을 자아낼 뿐만 아니라, 깊은 우정을 얻어냈던 분이야. 열정이 넘치고 관대했으며, 매력이 있고 항상 기운이 넘쳤지. 아름다운 이상과 멋진 광경에 항상 열광했고, 삶을 사랑하며 서두르듯 그 즐거움을 누렸어."

"1870년, 자원입대해 전장에서 중위 계급장을 땄어. 군인의 영웅적인 삶이 아버지의 성품에 꼭 맞았나 봐. 다시 한번 자원입대해 토끼성에서 싸웠고, 세 번째로 마다가스카르 정복을 위해 떠났지."

"그 원정에서 돌아왔을 때, 대위 계급과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은 아버지는 결혼했어. 그리고 6년 뒤, 아버지는 과부가 되었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겨우 네 살이었다. 아버지는 아내의 죽음을 깊게 슬퍼하셨기에, 나를 향한 사랑과 보살핌은 더욱 각별했다.

아버지는 내 교육을 직접 시작하기로 하셨다. 신체 단련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셨다. 나를 튼튼하고 용감한 소년으로 키우기 위해 온갖 방법을 고안하셨다.

여름에는 해변으로, 겨울에는 사부아 산맥의 눈과 얼음 위를 누비며 함께했다. 나는 아버지를 온 마음으로 사랑했다. 지금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열한 살那年, 나는 그를 따라 프랑스 전역을 돌았다. 그는 그 여행을 수년째 미뤄왔다. 내가 그와 함께할 나이가 되어, 여행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 '혹독한 해'에 전투를 치렀던 곳,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순례를 떠났다.

그 날들은 끔찍한 비극으로 끝났다. 하지만 그 여정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로아르 강변, 샹파뉴의 평야, 보즈 산맥의 계곡, 그리고 무엇보다 알자스의 마을들에서였다. 그가 흘리는 눈물을 보며 나도 함께 울었다.

그가 희망찬 말을 건넬 때면, 나는 순진한 희망에 가슴을 두근거렸다.

"파울, 그 친구가 내게 말했지. 언젠가 너도 내가 맞서 싸웠던 그 적과 마주치게 될 거라고. 지금부터라도, 너들이 듣게 될 평화의 아름다운 말들에 흔들리지 말고, 그 적을 온전히 증오하라고.

누가 뭐라고 하든, 그는 야만인이야. 오만한 폭군이고, 피와 약탈을 즐기는 자지. 그는 처음 우리를 짓밟았어.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파울, 그 날이 오면 우리가 함께 걸어온 모든 단계를 기억해라. 네가 앞으로 밟게 될 발자국은 승리의 발자국이 될 거야. 나는 확신해.

하지만 잊지 마라, 파울. 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이름들을. 승리의 기쁨이 이들을 지워버리지 않도록. 프뢰슈빌러, 마르라투르, 생프리바, 그리고 수많은 다른 이름들 말이다. 잊지 마라, 파울…"

그는 미소 지었다.

"내가 왜 걱정해야 하겠는가? 그 자신이 잊혀진 자들과 보지 못한 자들의 마음속에 증오를 깨울 것이다. 그가 변할 수 있겠는가? 보게, 폴. 내가 뭐라 하든 끔찍한 현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괴물들이야."

폴 델로즈는 입을 다물었다. 그의 부인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버지께서 너무 최근의 기억에 영향을 받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독일에서 많이 여행했고, 심지어 머무른 적도 있습니다. 그때의 정서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말씀 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 말씀들은 저를 자주 불안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 기묘하지 않습니까!"

마차는 속도를 늦췄다. 길은 리세롱 계곡을 내려다보는 언덕 쪽으로 완만하게 올라갔다. 해는 코르비니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짐을 잔뜩 싣여간 마차가 지나갔고, 이어서 여행자와 화물을 가득 실은 자동차 두

대가 스쳐 지나갔다. 기병대 한 무리가 들판을 가로질러 말달리고 있었다.

"걸어가겠습니다." 폴 델로즈가 말했다.

그들은 마차를 따라 걸었고, 폴이 다시 입을 열었다.

"엘리자베트,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기억 속에 매우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구분해 내는 것처럼요.

여행의 한 부분이 끝난 후, 우리는 스트라스부르에서 흑림 쪽으로 향해야 했다는 사실만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일정이 바뀌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스트라스부르 기차역에 서 있었고, 보스산맥 쪽, 정확히는 보스산맥을 향해 달리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방금 받은 편지를 읽고 또 읽고 계셨는데, 그 편지가 아버지를 기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 편지가 아버지의 계획을 바꾸게 했을까요? 저도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행 도중 점심을 먹었습니다. 폭풍우 전처럼 무더웠고, 저는 잠이 들어 버렸죠. 그래서 기억나는 것은 작은 독일 도시의 중심 광장 하나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전거 두 대를 빌렸고, 짐은 역의 수하물 보관소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모든 것이 흐릿합니다… 우리는 기억에 남는 인상 하나 없이 낯선 땅을 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 폴, 우리가 국경을 넘었군. 이제 우리는 프랑스 땅이야."

"그리고 얼마 후, 정확히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길을 묻기 위해 농부를 멈춰 세웠다. 농부는 숲 한가운데로 이어지는 지름길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 길은 무엇이었을까? 그 지름길은 또 무엇이었을까?

"제 머릿속은 이제 완전히 안개 속이다. 제 생각은 모두 묻혀버렸다.

"그런데 갑자기 안개가 걷힌다. 놀라울 정도로 또렷하게, 한 폭의 그림이 펼쳐진다. 숲속의 작은 벌판, 키 큰 나무들, 벨벳처럼 부드러운 이끼, 그리고 낡은 작은 예배당.

"그곳으로 굵은 빗방울이 점점 더 거세게 쏟아져 내린다. 아버지가 나에게 말한다."

"'폴, 우리 피난처로 가자.'"

"그 목소리가 내 귀에 또렷이 울린다! 습기로 벽이 푸르스름하게 변한 그 작은 예배당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진다. 제단 뒤쪽, 지붕이 조금씩 처져 있는 곳. 우리는 그곳에 자전거를 숨겨 두었다. 그때 안쪽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고, 옆문으로 문이 열리며 낑낑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누군가 밖으로 나서는가 싶더니, 독일어로 말했다.

"'아무도 없다. 빨리 끝내자.'

"그때 우리는 예배당 옆을 돌아서 그 문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뜻밖에도, 앞서 걷던 내 아버지가 바로 그 독일어를 했던 남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양쪽에서 동시에 한 발짝 물러서는 소리가 났다. 낯선 남자는 몹시 당황한 기색이었고, 아버지는 뜻밖의 조우에 경악해 있었다.

그들은 아마도 일초, 이초쯤 서로를 마주 보고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때 아버지의 입에서 나직한 중얼거림이 들려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황제라니…"

그 말에 나도 깜짝 놀랐다. 카이저의 초상을 자주 봐왔기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남자는 바로 독일 황제였다.

"독일 황제가 프랑스에!"

그는 고개를 푹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모가 난 모자 챙까지 덮을 만큼 큰 페리나(외투)의 벨벳 칼라를 세웠다. 그는 예배당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한 부인이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녀 뒤로는 내가 별 관심 없이 흘겨본 하인 격의 남자가 따라나섰다. 부인은 키가 크고 아직 젊었으며, 꽤나 아름다운 갈색 머리의 소유자였다.

황제는 분노에 찬 어조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말을 던지며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었다. 그들은 우리가 지나온 길, 곧 국경으로 이어지는 길을 다시 걸었다. 하인은 숲속으로 뛰어들어 그들을 앞서고 있었다.

"사건이 참으로 기이하군."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게오르크 2세는 왜 하필 그곳을 찾았을까? 게다가 한낮에 말이야. 그 예배당이 예술적으로 특별한 가치가 있는 걸까? 가보자, 폴. 함께 갈래?"

우리는 안으로 들어섰다. 더럽고 거미줄이 잔뜩 낀 검은 유리창을 통해 간신히 빛이 새어 들어올 뿐이었다. 하지만 그 미약한 빛만으로도 우리는 굵직한 기둥과 맨벽만 남은 예배당 내부를 볼 수 있었다. 아버지의 표현을 빌리면, 황제의 방문을 받을 만한 가치는 전혀 없어 보였다. 아버지는 이렇게 덧붙였다.

"게오르크 2세가 이걸 구경하러 온 것은 관광객처럼, 우연히 들른 셈이지. 그리고 이번 도주 행각이 발각되어 당황하고 있을 거야. 아마도 그와 함께 온 여인이 아무런 위험도 없다고 안심시켜 주었을 테고. 그래서 그는 그 여자에게 화를 내고 비난하는 거겠지."

"엘리자베트, 참 신기하지 않소? 내 나이의 아이에게는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사소한 일들인데, 나는 그것들을 꼼꼼히 기록해 두었

소. 반면 훨씬 중요한 일들은 기억에 남지 않았는데 말이오. 하지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마치 눈앞에서 그 장면이 다시 펼쳐지는 듯, 또 귀에 그 목소리가 또렷이 울려 퍼지는 듯하오.

지금도 나는 그 순간을 또렷이 보고 있소. 우리가 예배당을 나서던 순간과 똑같이 선명하지. 황제의 동행자가 다시 돌아와서, 허겁지겁 숲속의 빈터를 가로질러 가는 모습이요. 그리고 그녀가 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소.

'말씀 하나만 여쭤도 될까요, monsieur?'

그녀는 숨이 턱 막힌 듯했다. 무언가를 급히 달리고 온 모양이오. 그리고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곧이어 덧붙였소."

"만나고자 하시는 분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여자는 프랑스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사소한 억양 하나 없이 말입니다."

"아버지는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오히려 그녀를 격분시켰습니다. 자신을 보낸 사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모욕처럼 느껴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거절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왜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안에 담긴 조급함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명령도 받지 않았습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면담에 동의합니다. 저는 이 곳에서 그분의 호출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녀는 분노한 듯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당신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내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군요. 내가 기다려주는 쪽으로 국경을 넘어야 한다는 뜻이겠지. 모든 사정은 이만저만 아닙니다, 마담. 하지만 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분께서 제 누설을 두려워하신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폴, 갈까?”

아버지는 모자를 벗고 낯선 여인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여인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니요, 아니요.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침묵을 약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어쨌든 이 일은 매듭지어야 합니다. 그러니 ……”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정면에 섰습니다. 적대감으로 가득 찬, 격렬한 태도였죠. 얼굴이 일그러지

며 정말 사나운 표정이 됐습니다. 그 모습이 무서웠습니다. 아, 왜 그 때 예상을 못 했을까요… 하지만 저는 너무 어렸어요. 그리고 일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향해 다가가자, 아버지는 마치 나무 한 그루 발치까지 몰려간 듯했습니다. 예배당 오른쪽에 있는 큰 나무 말입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위협하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죠. 그리고 순식간에, 즉각적으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칼 한 방에 — 아, 어둠 속에서 빛나던 그 칼날을 제가 갑자기 보았죠! — 어머니는 아버지의 정가운데를 두 번 찔렀습니다. 두 번, 정확히 가슴 한복판을요. 아버지는 쓰러졌습니다."

폴 델로즈는 멈춰 섰습니다. 범죄의 기억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 엘리자베스가 헐떡이며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가 살해당하셨다고요… 불쌍한 폴, 불쌍한 친구여…"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다. 숨이 턱 막힐 듯한 공포에 떨며.

"그래서, 폴, 그 후 어떻게 됐소? 당신도 비명을 지르셨나요…?"

"네, 저도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달려갔죠. 하지만 냉혹한 한 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나무 숲에서 튀어나온 그 남자, 하인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낚아챈 거죠. 저는 그의 칼이 제 머리 위로 들어올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엄청난 충격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도 쓰러졌습니다."

차에는 에리자베트와 폴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언덕에 올라서자 길가 가장자리에 앉아 쉬었다.

리세론 계곡이 부드럽게 굽이치는 푸른 풍경으로 그들 앞에 펼쳐졌다. 구불구불한 작은 강을 따라 흰색 도로 두 개가 강물처럼 따라가고 있었다.

뒤쪽으로는 해빛 아래 코르비니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그곳을 고작 백 미터 정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 리(약 4킬로미터)쯤 더 앞쪽에는 오르네캉의 첨탑과 오래된 성터의 폐허가 우뚝 솟아 있었다.

젊은 여자는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 폴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무서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아, 폴. 이 모든 게 너무 끔찍하네요. 당신은 많이 고생하셨나요?”

“그 순간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날까지, 아니 그날 아침까지 아무것도요. 저는 낯선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의 먼 친척인 노파와 수녀님이 저를 돌보고 있었죠.”

“그곳은 벨포르와 국경 사이에 있는 여관이었습니다. 여관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이었어요.”

"그로부터 열이틀 전, 아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여관주가 밤새 누군가 가져다놓은 두 개의 시체를 발견한 거죠. 피투성이가 된 두 개의 시체요."

"첫 번째 검사에서 그는 그중 하나가 얼어붙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의 시체였습니다."

"저는 숨을 쉬고 있었지만, 그 숨결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회복 과정은 매우 길었습니다. 재발과 고열 발작이 끊이지 않았고, 환각에 사로잡혀 도망치려 하기도 했죠.

저를 지켜준 건 단 한 명뿐인 친척, 즉 늙은 고모였습니다. 그녀는 헌신과 배려로 저를 돌봤습니다.

두 달 후, 상처는 거의 낫았지만 고모는 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그 끔찍한 상황으로 인해 저는 깊은 상흔을 입었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되찾는 데는 몇 년이 더 걸렸죠.

그리고 그 비극의 진실은……"

"그래요?" 엘리자베스가 물었다. 그녀는 남편의 목을 감싸 안으며 열정적인 보호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다.

"글쎄, 파울이 말했다. '결국 그 수수께끼를 파헤치는 건 불가능했어요. 형사들도 열성과 세심함으로 수사했지만, 제가 제공한 정보만 믿고 확인 작업을 했죠. 하지만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무엇보

다 그 정보들이 너무 모호했거든요. 숲속의 빈터에서, 그리고 예배당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외에는 제가 뭘 알 수 있겠어요? 그 빈터가 어디 있는지, 예배당이 어디에 있는지, 그 비극이 벌어진 나라가 어디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이 나라로 오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스트라스부르를 떠난 순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물론 그 단서는 간과하지 않았소. 프랑스 사법당국은 독일 측의 협력을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최고의 형사들을 현지에 파견했거든. 하지만 나중에 내가 사리를 분별할 나이가 되었을 때, 가장 의아했던 점은 바로 그거였소. 스트라스부르에 우리 가족이 머물렀다는 흔적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 말이오. 단 하나도요?"

"알겠소. 단 하나도."

"하지만 나는 확신했소. 우리 가족이 스트라스부르에서 최소 이틀 동안 먹고 자며 머물렀다는 것을. 사건을 담당하던 부장판사는 내 기억이 '상처받고 혼란스러운 아이의 착각'일 뿐이라고 결론 내렸지. 하지만 나는 아니라고 알았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실을 알고 있소."

"그럼 그 후, 폴?"

"그래서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 쉽게 확인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는 사실들, 즉 두 프랑스인이 스트라스부르에 머물렀다는 점, 기차여행을 했다는 점, 짐을 맡겼다는 점, 알자스의 한 마을에서 자전거를

대여했다는 점 같은 것들이 완전히 지워졌다는 사실과, 이 사건에 황제가 직접, 말 그대로 직접 관여했다는 근본적인 사실 사이에서 어떤 연관성을 찾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관성, 폴, 그건 당신뿐만 아니라 판사의 머릿속에도 당연히 떠올랐을 텐데요."

"물론이죠. 하지만 판사나 제 진술을 들은 다른 법관들, 그리고 관료들은 그날 알자스에 황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독일 신문이 같은 시각 프랑크푸르트에 그가 있다는 소식을 전했거든요."

"프랑크푸르트라니!"

"물론이지. 그 존재는 그가 명령하는 곳에만 나타나고, 그가 나타나길 원치 않는 곳에는 결코 나타나지 않아. 어쨌든 이 점에서도 나는 실수했다는 오해를 받았고, 수사는 갖가지 장애물과 불가능한 상황, 거짓말, 그리고 알리바이에 부딪혔어. 나에게 그것은 한없이 막강한 권위의 지속적인 작용을 보여주는 것이었지. 이 설명 말고는 다른 게 불가능해."

"자, 생각해 봐. 프랑스인 두 명이 스트라스부르의 호텔에 묵었을 때, 호텔 등록부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 수 있겠어? 그런데 만

약 그런 등록부가 압수당했거나, 해당 페이지가 찢겨 나갔다면?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 증거도, 단서도 없어."

"호텔이나 식당의 주인과 하인들, 역의 판매원, 철도 직원, 자전거 대여업자까지. 모두 하급자일 뿐이야. 하지만 그들은 공범들이지. 모두 침묵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단 한 명도 그 명령을 어긴 사람이 없어."

"하지만 그 이후에는, 폴, 직접 찾아보셨겠죠?"

"물론이죠!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사춘기 이후로 네 번이나 국경을 누볐습니다. 스위스에서 룩셈부르크까지, 벨포르에서 롱위까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지형을 분석했죠. 특히 뇌리 깊숙이 박힌 그 사소한 기억 하나를 끄집어내 해답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는 새로운 빛이 없었습니다. 다만 과거의 두꺼운 안개 너머로 세 가지 이미지만 떠올랐을 뿐입니다."

"무슨 이미지죠?"

"첫째, 살인이 자행된 현장의 풍경입니다. 숲속의 한가운데로 이어지는 길, 숲 가장자리의 나무들, 그리고 오래된 예배당. 그 모든 것이 범인의 행적을 증언했죠."

"둘째는?"

"황제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폴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리고 마지막은… 살인을 저지른 여성의 이미지입니다."

폴은 목소리를 낮췄다. 그의 얼굴이 고통과 증오로 일그러졌다.

"아, 그 일이라면 내가 백 년을 살아도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소. 마치 모든 디테일이 밝은 빛 아래에 있는 연극을 보는 것처럼 말이오. 입술의 형태, 시선의 표정, 머리카락의 빛깔, 걸음걸이의 독특한 특징, 손짓의 리듬, 실루엣의 윤곽선.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요. 그저 의도적으로 떠올리는 환상이 아니라, 제 존재 자체를 이루는 일부처럼 말이오."

"정신이 혼미했던 시절, 제 마음속의 신비로운 힘들이 이 끔찍한 기억들을 완전히 흡수하려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거처럼 병적인 집착으로 괴롭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어떤 순간에는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해가 지고 제가 혼자 있을 때 말이죠."

"제 아버지는 살해당했고, 그를 죽인 여자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처벌받지 않고, 행복하게, 부유하게, 존경을 받으며 지내고 있지요. 그녀는 증오와 파괴의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파울, 그 여자를 알아볼 수 있겠소?"

"물론이지. 천 명, 만 명 중에서도 알아볼 수 있어. 비록 세월이 그 얼굴을 주름지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늙은 여자의 주름 아래에는 젊은 여자의 얼굴이 분명히 남아 있을 거야. 그 여자가 내 아버지를 살해한 그날, 바로 그 얼굴이지. 9월의 어느 오후였지.

그 여자를 모를 리가 없잖아. 심지어 그녀가 입었던 옷 색깔까지도 기억하고 있어. 놀랍지? 회색 드레스에 어깨에는 검은 레이스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어. 그리고 가슴 부분에는 브로치 대신, 금으로 만든 뱀이 감싸고 있는 무거운 카메오가 달려 있었지. 뱀의 눈은 루비로 만들어졌어.

엘리자베트, 내가 잊지 않았고, 결코 잊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지?"

그는 말을 멈췄다. 엘리자베트는 울고 있었다. 남편처럼, 그 과거는 그녀를 공포와 쓴맛으로 감싸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품에 끌어당겨 이마에 키스했다.

그녀가 말했다.

"파울, 잊지 마. 범죄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해. 하지만 너의 삶이 그 증오의 기억에 묶여선 안 돼. 이제 우리는 둘이서 함께야, 서로를 사랑하잖아. 미래를 바라봐."

오르네캉 성은 16세기 양식의 아름답고 단아한 건물이다. 네 개의 작은 탑이 뾰족한 지붕을 이고 있고, 톱니 모양의 첨탑이 있는 높은 창문들이 있다. 1층에서는 얇은 난간이 돌출되어 있다.

정사각형의 중정을 둘러싼 규칙적인 잔디밭은 광장을 이루고, 좌우로 정원, 숲, 과수원으로 이어진다. 잔디밭 한쪽 끝에는 리종 계곡을 내려다보는 넓은 테라스가 있고, 그 위에는 성의 축선에 맞춰 위엄 있는 사각형 망대 유적이 자리 잡고 있다.

전체적으로 위용이 대단했다. 농장과 밭으로 둘러싸인 이 영지는 잘 손질될 때만 그 진가를 발휘했다. 그것은 방대하고 치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었다. 이 지역에서는 손꼽히는 넓은 영지였다.

열일곱 해 전의 일이다. 마지막 오르네캉 남작이 죽고 난 뒤, 그의 영지가 경매에 부쳐졌다. 엘리자베트의 아버지인 안드빌 백작은 아내의 바람에 따라 그 땅을 사들였다.

그는 기병대 장교직을 사임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지내기로 했다. 결혼한 지 오 년째 되던 해, 부부는 여행을 떠났다. 우연히 오르네캉을 방문했을 때, 마침 그 땅이 경매에 부쳐지려는 참이었다. 지역 신문에 barely 광고가 실린 직후였다.

안드빌의 아내 에르미느는 그 땅에 열광했다. 백작은 한가한 시간을 보낼 농장을 찾고 있었다. 그는 법률가를 통해 그 땅을 손에 넣었다.

그 후 겨울 내내 그는 파리에서 옛 주인이 방치해 둔 성의 복원 공사를 지휘했다. 그는 살기 편한 집이 되기를 원했고, 동시에 아름다운 집

도 원했다. 그래서 파리에 있는 저택에 걸려 있던 온갖 잡동사니와 태피스트리, 미술품, 명화들을 모두 성으로 보냈다.

그들은 8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곳에 정착할 수 있었다. 그들은 사랑하는 여섯 살짜리 엘리자베트와 막 태어난 아들 베르나드, 덩치가 큰 그 아이와 함께 몇 주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에게 온통 마음을 쏟는 에르미느 드랑드빌은 공원을 벗어나지 않았다. 백작은 자신의 농장들을 돌보고, 경호원 제롬과 함께 사냥터를 누볐다.

그러던 중 10월 말, 백작 부인이 감기에 걸렸다. 그로 인해 생긴 몸조짐이 생각보다 심각해지자, 안드빌 백작은 부인과 아이들을 남쪽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틀 뒤, 부인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었다. 사흘 만에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백작은 온갖 희망이 끊긴 채 깊은 절망에 빠졌다. 삶이 끝났음을 깨닫고, 앞으로는 기쁨도, 위안도 다시는 누리지 못할 것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살았지만, 그것은 아이들을 위한 삶이 아니었다. 죽은 부인을 향한 경외심을 간직하고, 이제야 그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된 그 기억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한 삶이었다.

그는 오르네캉 성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곳에서 누렸던 행복이 너무도 완벽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남들이 그곳에 머무는 것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제롬에게 성문과 창문의 판자를 닫고, 영부인의 부엌과 침실을 영영 잠그라고 명했다. 아무도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이다.

또한 제롬에게 농장들을 농부들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오라는 임무도 맡겼다.

파란을 끊어낸 그 사건으로 백작의 삶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상하게도, 그는 아내의 기억 속에만 살아남은 존재였다. 아내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 익숙한 사물, 살던 집, 그리고 풍경까지 모두 그에게는 고통이었다. 심지어 아이들조차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 감정을 어떻게든 극복하려 애썼지만, 실패했다.

그는 지방 샤몽에 살던 언니에게 아이들을 맡겼다. 언니는 과부였다. 백작은 딸 엘리자베트와 아들 베르나르를 그녀에게 맡긴 뒤, 여행을 떠났다.

아라인이라는 이모 밑에서 엘리자베트는 유년기를 보냈다. 아라인은 의무와 희생으로 가득한 여성이었다. 엘리자베트의 어린 날은 따뜻하면서도 진지했고, 공부에 매진하는 시간이었다. 그 시절 그녀의 마음은 지성과 인격이 자라나듯 함께 성장해 갔다. 그녀는 튼튼한 교육을 받았고, 도덕적 규율은 매우 엄격했다.

그녀는 스무 살에 이미 키가 크고 용감하며 두려움을 모르는 소녀였다. 본래 다소 우울해 보였던 얼굴이 가끔 가장 순진하고 다정한 미소로 빛나곤 했다. 운명이 그녀에게 안겨줄 시련과 기쁨이 이미 그 얼굴에 새겨진 듯했다.

그녀의 눈은 항상 촉촉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감동하는 듯했다. 창백한 곱슬머리는 그녀의 표정에 활기를 더했다.

안드빌 백작은 여행 사이에 그녀 곁을 지날 때마다, 딸의 매력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래서 그는 이듬해 겨울, 두 해 동안 연속으로 그녀를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데려갔다.

이렇게 로마에서 그녀는 폴 델로즈를 만났다. 그리고 나폴리에서 다시 만나고, 시라쿠사에서도 만났다. 긴 시칠리아 여행 내내 그들은 함께했다. 그리고 그 친밀감은 그들을 서로에게 단단히 묶었다. 그 힘은 그들이 헤어지는 순간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엘리자베트처럼 폴도 지방에서 자랐다. 그는 헌신적인 친척 집안에서 자랐는데, 그곳의 여인은 그의 어린 시절 비극을 잊게 하려 애썼다. 정성과 애정으로 그를 돌보며 말이다.

비극을 완전히 잊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적어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폴을 바르고 착한 소년으로 키웠다. 그는 일을 사랑했고, 교양도 넓었다. 행동하는 것을 좋아했고, 삶에 대한 호기심도 가득했다.

중앙공과학교를 졸업한 후, 군복무를 마친 폴은 이 년 동안 독일에서 지냈다. 그곳에서 그는 특히 열정을 쏟던 산업 및 기계 관련 문제들을 현지에서 공부했다.

키가 크고 몸매가 잘 잡혔다. 검은 머리는 뒤로 넘겼고, 얼굴은 약간 야위었으나 의지가 강한 턱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힘과 에너지가 넘치는 인상을 주었다.

엘리자베트와의 만남은 그에게 그동안 외면해 왔던 감정과 감동의 세계를 온전히 드러내 보였다. 두 사람 모두에게 그것은 놀라움이 섞인 일종의 취기와도 같았다. 사랑은 그들 안에 자유롭고 가벼운 새로운 영혼을 만들어 냈다. 열정과 자아실현은 엄격했던 그들의 기존 생활 방식이 강요한 습관과 사뭇 달랐다.

프랑스로 돌아온 그는 곧장 소녀의 청혼을 했다. 허락은 금방 내려졌다.

결혼 삼 일 전, 혼인 계약식에서 드랑드빌 백작은 엘리자베트의 지참금에 오르네성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두 젊은이는 그곳에 정착하기로 했고, 폴은 이 지역의 공업 지대에서 자신이 인수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들은 7월 30일 목요일, 쇼몽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전쟁 이야기가 떠도는 와중이었지만, 안드빌 백작은 자신 있는 정보에 근거해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덕분에 결혼식은 아주 소박하고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증인들이 모인 가족 점심 식사 자리에서 폴은 엘리자베트의 남동생, 베르나르 안드빌을 처음 만났다. 열일곱 살의 중학생이던 베르나르는 방학이 시작되던 참이었다. 그는 활기차고 솔직한 성격으로 폴의 마음에 들었다.

베르나르는 며칠 뒤 오르네캉에서 두 사람에게 합류하기로 했다.

드디어 오후 한 시, 엘리자베트와 파울은 기차로 쇼몽을 떠났다.

손을 꼭 잡은 채, 그들은 성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의 결합 첫해가 흘러갈 것이었다. 어쩌면 눈이 부신 연인들이 바라보는 그 행복하고 평온한 미래 전체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저녁 식사 전, 서둘러 정원을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성을 견학했다.

그때가 오후 여섯 시 반쯤 되어서였다. 계단 아래에서 제롬의 아내, 로잘리를 마주쳤다. 그녀는 볼이 붉고 표정이 밝은, 건강미 넘치는 단골 하인이었다.

에리자베트는 안도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기억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녀는 어딘지 모르게 자신이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일부를 다시 발견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어머니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그곳에서 마지막 행복한 날들을 보냈다는 사실만은 확실해 보였다. 그녀에게 있어 고인의 그림자는 길가의 굽이마다 함께 걷고 있는 듯했다.

넓은 초록 잔디밭에서는 특이한 향기가 풍겨 나왔다. 나뭇잎들은 바람에 살랑거렸고, 그 소리는 마치 그녀가 그곳에서, 같은 시간대에,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들었던 그 목소리처럼 들렸다.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에리자베트?” 폴이 물었다.

"슬프지는 않지만, 마음이 흔들리네요. 우리 어머니께서 이 안식처에서 우리를 맞이하시거든요. 어머니는 여기서 살고자 꿈꾸셨고, 우리 역시 같은 꿈을 안고 도착했죠. 그런데 조금 불안감이 밀려와요. 마치 남의 땅에 발을 들인 낯선 사람, 평화와 휴식을 방해하는 침입자처럼 느껴져요. 생각해보세요. 어머니는 그 성에 얼마나 오래 사셨는지요. 그곳에서 어머니는 혼자가셨어요. 아버지는 그곳에 오기를 거부하셨고, 우리도 남의 일에 무관심한 채 그곳에 들어와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파울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엘리자베트,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은 그저 새로운 땅에 하루의 끝을 맞이할 때 느끼는 그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모르겠어요. 아마도 당신이 옳을 거예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어요. 제 성향과 정반대죠. 폴, 당신은 직감을 믿나요?"

"저는 믿지 않아요. 당신은요?"

"저도요."

그녀가 웃으며 입술을 내밀었다.

그들은 성의 거실과 방들을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다. 사람이 끊이지 않고 살아온 집처럼 공기가 차 있어 있었기 때문이다.

백작의 지시에 따라 모든 것은 먼 옛날, 에르민 드랑드빌이 살던 시절 그대로의 배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옛날 소품들은 제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자수 작품들, 레이스 조각들, 미니어처 그림들, 18세기 양식의 아름다운 안락의자, 플랑드르 벽지, 그리고 백작이 과거에 집을 장식하기 위해 모아들인 가구들까지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그들은 단숨에 매력적이고 아늑한 삶의 공간 속으로 들어섰다.

저녁 식사 후, 그들은 정원으로 돌아갔다. 서로를 꼭 안은 채, 말없이 거닐었다.

테라스에서는 어둠으로 가득 찬 계곡이 내려다보였다. 그 어둠 속에도 몇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오래된 성탑은 푸석한 하늘을 배경으로, 그윽한 잔해들을 우뚝 세우고 있었다. 하늘에는 아직 희미한 해의 빛이 남아 있었다.

"폴," 엘리자베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성 안을 돌아볼 때, 큰 자물쇠로 잠겨 있는 문 하나를 지나쳤던 기억 나요?"

"대복도 한가운데 있죠," 폴이 답했다. "당신의 방 바로 옆에 있던 문, 맞죠?"

"네. 그곳은 내 불쌍한 어머니가 쓰던 부두어였어요. 아버지는 그 방과 연결된 침실까지 모두 닫아두라고 명하셨고, 제롬은 자물쇠를 채워 키를 아버지께 드렸죠. 그래서 그 이후로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곳은 그때 그대로예요. 어머니가 쓰시던 물건들, 진행 중이던 바느질, 자주 읽던 책들까지 모두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벽에는 어머니의 초상화가 걸려 있어요. 두 개의 창문 사이에,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요. 아버지가 그해 한 해 전에 친구인 유명한 화가에게 의뢰해 그린 거예요. 전신 초상화였는데, 어머니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했다고 들었어요. 옆에는 어머니의 기도대가 있었죠. 오늘 아침, 아버지가 부두어의 열쇠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기도대에 무릎을 꿇고, 그 초상화 앞에서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자, 엘리자베트."

젊은 부인의 손이 남편의 손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복도 전체에 등불이 켜져 있었다. 두 사람은 멈춰 섰다.

문은 넓고 높았다. 두꺼운 벽에 뚫린 문 위에는 금박으로 입힌 트뤼모가 장식되어 있었다.

"열어요, 폴." 엘리자베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열쇠를 건넸다. 폴은 자물쇠를 풀고 문고리를 잡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남편의 팔을 꽉 쥐었다.

"폴, 잠깐만요. 제 마음속이 너무 요동쳐요. 생각하세요, 이제야 처음으로 어머니를, 어머니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함께 계시고요, 사랑하는 사람."

그녀는 속삭였다.

"제 어린 시절의 모든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응, 어릴 적부터 그랬어." 그가 그녀를 열정적으로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건 네가 여성으로서의 삶이기도 해……"

그녀는 그의 포옹에 위로를 얻은 듯 몸을 빼내며 속삭였다.

"들어갈게요, 사랑하는 폴."

그가 문을 밀어 열자, 다시 복도로 나가 벽에 걸린 등불 중 하나를 챙겨 돌아왔다. 그리고는 작은 원탁 위에 등불을 올려놓았다.

에리자베트는 이미 방 안을 가로질러 초상화 앞에 서 있었다.

어둠 속에 가려진 어머니의 얼굴을 밝히기 위해, 그녀는 등불의 각도를 조정했다.

"엄마, 정말 아름답다, 폴!"

그가 다가와 고개를 들었다. 기절할 듯 주저앉던 에리자베트는 무릎을 꿇었다. 잠시 후, 폴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녀는 그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그는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눈은 가장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사람처럼 크게 벌어져 있었다.

"폴! 뭐야, 너?"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그는 카운트 에르미네의 초상화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문 쪽으로 물러서기 시작했다. 술에 취한 사람처럼 몸이 비틀거리며, 팔을 허공으로 휘저었다.

"이 여자…… 이 여자가……"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떨렸다.

"폴! 네 말이 대체 뭐야?" 에리자베트가 애원하듯 물었다.

"이 여자가 내 아버지를 죽였어."

끔찍한 고발이 내려앉자, 공기가 얼어붙을 듯 고요해졌다. 남편을 정면으로 바라선 에리자베트는 아직 그 말이 가진 참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단어들이 깊은 상처처럼 그녀를 찔렀다.

그녀는 두 걸음 그를 향해 다가섰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들릴 듯 말 듯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파울, 방금 뭐라고 한 거야? 너무 끔찍한 소리야!"

그는 같은 어조로 대답했다.

"그래, 정말 끔찍해. 나조차 아직 믿고 싶지 않아. 믿고 싶지 않다고."

"그럼…… 네가 잘못 본 게겠지? 틀렸어. 인정해."

그녀는 절박한 마음으로 그를 애원했다. 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듯했다.

그는 아내의 어깨 너머로 다시 저주받은 초상화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전율했다.

"아, 바로 그 여자가 맞다." 그는 주먹을 쥐며 단언했다. "바로 그 여자야. 나는 알아봤어. 그녀가 죽였지."

젊은 여성은 격렬한 반발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세게 내리쳤다.

"내 어머니라니! 내 어머니가 살인을 저질렀다니! 아버지께서 흠모하시던 분, 지금도 흠모하고 계신 분! 예전엔 나를 안아주시며 재우시고, 입맞추시던 분! 나는 그녀에 대해 많은 것을 잊었지만, 그 손길과 입맞춤의 감정은 잊지 못했소. 그런데 그분이 살인자라니!"

"그분 맞소."

"아, 폴!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지 마시오!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오래도록, 당신이 어떻게 단정할 수 있소? 당신은 그때 어린아이였고, 그 여자를 그렇게 본 적도 없었소. 고작 몇 분뿐이었잖소."

"그녀를 본 건 제가 유일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오직 저만 본 거예요." 폴이 힘차게 외쳤다. "범행이 일어난 순간부터 그 이미

지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때때로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처럼, 그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이미지, 바로 이 그림이 벽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서 있다는 사실만큼 확실합니다. 이십 년이 지나도 당신의 얼굴을 알아보는 것처럼, 저는 그 얼굴을 알아봅니다. 바로 그녀예요. 자, 보세요, 꼭 보세요. 그녀의 가슴에 뱀 모양의 금 장식이 감겨 있는 브로슈가 있죠. 카메오입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뱀의 눈은 루비입니다. 어깨를 감싼 검은 레이스 스카프까지! 바로 그녀예요. 제가 본 그 여자예요."

점점 커지는 격분이 그를 흥분시켰고, 그는 에르미느 당드빌의 초상화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했다.

"말해, 엘리자베스가 외쳤다. 그녀의 말마다 고통이 깊어졌다. "말해, 내가 금지한다…"

그녀는 그의 입을 막아 침묵시키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파울은 아내의 접촉을 거부하듯 몸을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 움직임은 너무도 갑작스럽고 본능적이어서, 그녀는 흐느낌과 함께 주저앉고 말았다.

반면 그는 격분했다. 고통과 증오가 그를 채찍질했고, 그는 끔찍한 환각에 사로잡힌 듯 했다. 그 환각은 그를 문 쪽으로 후퇴하게 만들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저기 있잖아! 저 나쁜 입술, 저 용서하지 않는 눈빛! 저 사람은 살인을 생각하고 있어. 내가 봐, 내가 봐! 저 사람이 내 아버지를 향해 다가

서! 저 사람이 아버지를 끌어당겨!… 팔을 들어!… 저 사람이 아버지를 죽여!… 아, 불쌍한 놈!”

그는 도망쳐 나갔다.

그날 밤, 폴은 공원에서 밤을 새웠다. 그는 미친 듯이 달렸고, 어둠이 짙게 깔린 길들을 제멋대로 헤매었다. 혹은 초록빛 잔디밭에 쓰러져, 숨이 턱턱 막히도록 울었다. 그는 끝없이 울었다.

폴 델로즈는 그 범죄의 기억 때문에 고통을 겪어 왔다. 그 고통은 누그러지기도 했지만, 어떤 순간에는 날카로워져 마치 새로운 상처가 타오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고통이 너무도 심하고, 너무도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다. 평소의 자제력과 이성적인 균형이 무너졌다. 그는 정말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의 생각, 행동, 태도, 밤하늘을 향해 외친 말들. 모두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것이었다.

그의 혼란스러운 뇌속에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뒤섞여 돌고 있었지만, 오직 한 가지 끔찍한 생각만 반복해서 떠올랐다.

“나를 죽인 아버지의 범인을 나는 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바로 그 여자의 딸이라니!”

그는 여전히 엘리자베스를 사랑하고 있을까? 물론 그는 깨진 행복을 위해 절망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엘리자베

스를 사랑하고 있었는가? 에르미느 드안드빌의 딸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새벽이 밝아올 때, 그가 돌아와 엘리자베스의 방 앞을 지나쳤을 때 그의 심장은 평소보다 더 빨리 뛰지 않았다. 살인자에 대한 그의 증오는 그 안에 남아 있던 사랑이나 욕망, 연민, 나아가 단순한 인간적인 동정심조차 모두 짓밟아 버렸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무감각한 상태는 그의 신경을 다소 이완시켜 주었지만, 마음가짐에는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의식하지 못한 채, 엘리자베트를 만나려는 자신의 의지를 더 강하게 억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반드시 알고 싶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모두 수집한 뒤, 오직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만 자신의 인생을 뒤바꿀 그 거대한 드라마의 결말을 내려야 했다.

먼저 제롬과 그의 아내를 심문해야 했다. 그들이 안드빌 백작부인을 알고 지냈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의 증언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어 날짜와 관련된 몇몇 질문들은 즉시 해결될 수 있었다.

그들은 별장 안에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몹시 초조한 기색이었다. 제롬은 신문을 한 손에 쥔 채였고, 로잘리는 놀란 듯 손짓하며 떠들고 있었다.

"됐습니다, 선생님." 제롬이 외쳤다. "선생님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곧 일어날 일입니다."

"뭐가?" 파울이 물었다.

"동원령이요! 선생님, 보시면 알 겁니다. 친한 친구인 헌병들을 만났어요. 그 친구들이 미리 알려주더군요. 포스터도 다 준비됐다고."

파울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쳤다.

"포스터는 늘 준비되어 있는 법이지."

"네, 하지만 곧 그들을 붙잡게 될 겁니다. 주인님도 보시게요. 그리고 주인님, 신문을 좀 읽어보십시오. 그 돼지들—주인님, 죄송하지만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네요—그 돼지들은 전쟁을 원합니다. 오스트리아는 교섭에 응할 의사가 있지만, 그 사이 그들은 동원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며칠째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게 그 증거죠. 더구나 어제, 여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그들은 프랑스 역을 폭파하고 선로를 날려버렸습니다. 주인님, 직접 읽어보십시오!"

파울은 마지막 순간의 전보들을 눈으로 훑었다. 그 내용들이 지닌 중대감을 그는 느꼈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그에게 너무도 믿기 어려운 일이라 잠시 주의 깊게 읽을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은 해결될 겁니다." 그가 결론을 내렸다. "그들이 그런 식으로 대화하는 거죠. 칼집에 손을 얹은 채로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주인님, 그게 잘못이에요." 로잘리가 속삭였다.

그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비참한 운명만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 제롬에게 필요한 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궁리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는 과감하게 그 이야기를 꺼냈다.

"제롬, 당신도 알다시피, 저와 부인은 장기간 단속된 안드빌 백작부인의 방에 들어갔소."

이 말은 경호원인 제롬과 그의 아내에게 놀랄 만한 충격을 주었다. 오랫동안 손대지 못했던, 그들이 '부인의 방'이라 부르던 그곳에 함부로 들어간 것은 신성모독이나 다름없어 보였다.

"세상에, 정말요?" 로잘리가 헛간거렸다.

제롬이 덧붙였다.

"아니요, 아니요. 제가 백작님께 자물쇠의 유일한 열쇠, 보안용 열쇠를 보내드렸거든요."

"어제 아침에 주셨어요." 폴이 말했다.

그는 부부倆의 놀란 표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물었다.

"두 창문 사이에 안데빌 백작부인의 초상화가 걸려 있죠. 그 그림은 언제 가져와서 어디에 걸었나요?"

제롬은 바로 답하지 않았다. 그는 생각에 잠긴 듯했다. 아내를 힐끗 바라보더니, 잠시 뒤 입을 열었다.

"아주 간단합니다. 백작님께서 안치 전에 가구의 대부분을 성으로 보냈을 때였죠."

"그게 무슨 뜻이죠?"

폴은 답을 기다리며 서 있었다. 삼사 초 동안 그의 불안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이 대답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어때요?" 그가 재촉했다.

"1898년 봄이었습니다."

"1898년!"

"이 말."

파울은 낮고 굵은 목소리로 그 단어를 되뇌었다.

1898년. 바로 그해, 아버지가 피살당한 해였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계획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려는 심문 판사의 차가운 침착함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안드빌 백작 부부가 여기 도착한 게군요?"

"백작과 백작부인은 1898년 8월 28일에 성에 도착해, 10월 24일 남부로 떠났습니다."

이제 파울은 진실을 알았다. 아버지가 피살당한 날이 9월 19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진실을 둘러싼 모든 정황이, 주요한 세부 사항들을 설명하거나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파생된 것들이, 한순간에 그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아버지가 안드빌 백부와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냈다. 아버지가 알자스 여행을 하던 중, 로렌에 머물고 있던 안드빌 백부 소식을 들었을 터이고, 그래서 그를 깜짝 놀라게 하려고 방문을 계획했을 거라 추측했다.

오르네캉에서 스트라스부르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보았다. 기차로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과 딱 들어맞는 거리였다.

그가 물었다.

"여기서 국경까지 얼마나 되나요?"

"정확히 일곱 킬로미터입니다, 선생님."

"저쪽에는 가까운 독일의 작은 마을이 하나 있지요?"

"네, 에브르쿠르입니다, 선생님."

"국경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나요?"

"국경까지 절반쯤은 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 공원 위쪽의 작은 길이요."

"숲을 통해?"

"백작님의 숲을 지나가는 길이죠."

"그리고 그 숲 안에는……"

그제야 모든 의심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었다. 단순한 추론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만큼 현실이 된 사실들 말이다. 남은 건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것뿐이었다.

'그 숲 한가운데 마당이 있고, 그 중앙에 작은 예배당이 있지 않나요?'

왜 폴 델로즈는 그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질문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사냥꾼이 이미 대화의 성격만으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생각과 추측을 하게 만들까 봐 두려웠던 걸까?

"그럼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안드빌 백작 부인이 오르네캥에 머물던 두 달 동안, 여행이라도 하셨나요? 며칠 정도 짧은 외출이라도 하셨다면요."

"아니요, 전혀요. 백작 부인은 자신의 영지를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으셨죠."

"아, 그러니까 공원 안에만 계셨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각하. 백작께서는 오후마다 거의 마차를 타고 코르비니 쪽이나 계곡 쪽으로 나가셨지만, 백작 부인은 공원이나 숲 밖으로 나가지 않으셨어요."

파울은 자신이 알고 싶은 사실을 모두 확인했다. 제롬과 그의 아내가 무엇을 생각하든 상관없었다. 겉보기에 서로 무관해 보이는 기이한 질문들을 연달아 던진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정원을 나서려 했다.

그는 수사 끝에 도달하려는 조급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 밖에서 진행하려던 조사는 미루기로 했다. 마치 그는 마지막 증거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했다. 하지만 우연히 이미 수많은 증거를 얻은 지금, 그 마지막 증거는 사실 별 쓸모가 없었다.

그는 성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점심 시간이 되자, 피할 수 없는 엘리자베스와의 대면을 받아들일 결심을 했다.

하지만 하녀가 살롱으로 올라와, 여주인이 그에게 사죄한다고 전했다. 몸이 좀 편치 않아서, 자기 방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온전히 자유롭게 두고 싶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자신이 존경하는 어머니를 위해 그를 간청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의 결정에 미리 복종하는 태도를 보였다.

점심을 혼자 먹으며, 그를 모시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는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그의 인생은 이미 끝났고, 에리자베트와 그는 결혼식 당일부터 서로 원수가 되어버렸다. 둘 다 책임질 수 없는 상황 탓이었다. 이제 그들을 다시 가까이 붙일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다.

물론 그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죄를 그녀에게 돌리지 않았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는 그녀를 탓했다. 그 어머니의 딸이기 때문이었다.

점심 후 두 시간 동안 그는 초상화 방에 혼자 갇혀 있었다. 살인자를 마주하려는 비장한 각오였다. 저주받은 그 얼굴을 눈 가득 담고, 자신의 기억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으려던 것이었다.

그는 사소한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살폈다. 날개를 활짝 편 백조가 새겨진 카메오, 금으로 된 뱀이 둘러싼 테두리의 세공, 루비의 간격, 어깨를 감싼 레이스의 흐름, 입술의 형태, 머리카락의 빛깔, 그리고 얼굴의 윤곽선까지.

그는 확신했다. 바로 그 여자였다. 지난 9월 어느 밤에 본 그 여자가 틀림없었다.

그림 한쪽 구석에는 화가의 서명이 있었고, 그 아래로 작은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H 백작부인 초상화'. 아마도 이 그림은 전시되었던 모양이었다. 그리고 전시회에서는 '에르민 백작부인'이라는 정중한 호칭만 사용했을 것이다.

폴이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 몇 분만 더 가면, 모든 과거가 살아날 거야. 범인은 이미 찾아냈어. 이제 남은 건 사건 현장만 찾으면 되지. 만약 그 예배당이 정말 숲속에 있다면, 진상은 완전히 밝혀지는 거야."

그는 그 진실을 향해 단호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으니, 오히려 두려움은 덜했다. 하지만 심장은 고통스럽게 쿵쿵 뛰었고, 그 길은 16년 전 아버지가 걸었던 바로 그 길이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끔찍한 압박으로 다가왔다.

제롬이 손짓으로 가리킨 방향을 따라 그는 공원을 건넜다. 국경 쪽으로 향하며 왼쪽으로 꺾어 나갔다. 작은 별장 하나를 지나쳤다.

숲 입구에는 긴 전나무 길이 열려 있었다. 그는 그 길로 들어섰다. 500보를 더 걸으니 길은 세 갈래로 갈라졌다.

그는 두 길을 따라가 봤지만, 끝은 엉킨 덤불로 막혀 있었다. 세 번째 길은 언덕 정상으로 이어졌다. 그는 다시 왼쪽으로 꺾어 다른 전나무 길을 따라 내려왔다.

그리고 이 길을 택한 이유를 깨달았다. 전나무 길의 모양과 배열이 낯익은 기억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어떤 유사한 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기억이 그의 발걸음을 이끄는 듯했다.

길은 처음엔 제법 길게 곧게 이어졌다. 그러다 큰 너도밤나무 숲 한가운데서 갑자기 꺾였다. 가지와 잎이 서로 맞닿아 우산을 만든 듯 하늘을 가렸다.

길은 다시 곧게 뻗어 나갔다. 어두운 터널 끝에서 폴은 빛이 번져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원형 광장이 열렸다는 신호였다.

정말 무서운 기운이 그의 다리를 후려쳤다. 그는 몸을 움직이기 위해 애를 썼다.

여기가 바로 아버지가 치명상을 입었던 광장일까?

빛이 비치는 공간이 조금씩 더 드러날수록, 그는 더 깊은 확신에 사로잡혔다. 초상화 방에서 느꼈던 것처럼, 과거가 다시 살아나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바로 현실 그 자체였다.

그곳은 바로 그 광장이었다. 주변을 둘러싼 나무들은 이전과 같은 풍경을 이루었고, 풀과 이끼로 덮인 바닥은 같은 길들이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있었다. 하늘의 한 조각은 요란한 나뭇가지들 사이로 잘려 나왔다.

그리고 그 왼쪽, 파울이 알아본 두 개의 전나무가 지키고 있던 곳. 그곳이 바로 예배당이었다.

성당! 그 작고, 낡고, 묵직한 성당! 그 선은 젊은 남자의 뇌리에 깊은 흠집처럼 새겨져 있었다.

나무는 자라고, 넓어지고, 모양을 바꾼다. 숲속의 한 공간인 '클레르'의 모습도 달라진다. 그 안을 지나는 길들도 서로 엉키며 새로운 형태로 이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잘못 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 화강암과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은 불변의 존재다. 돌 위에 시간이 남긴 흔적, 즉 회녹색의 색조를 띠게 하려면 수백 년이 걸린다. 그리고 한번 형성된 그 녹청 같은 빛깔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여기에 서 있는 성당은 바로 그 성당이었다. 먼지가 낀 스테인드글라스가 있는 로즈 윈도우가 파인 정면 장식을 자랑하던 곳. 바로 그 성당에서 독일 황제가 나타나, 10분 뒤에는 살인을 저지르는 여자를 뒤따랐다.

폴은 문 쪽으로 걸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자신에게 말을 건넸던 그 장소를 다시 보고 싶었다. 감격이 밀려왔다. 자전거들을 덮어주던 그 작은 지붕은 여전히 뒤쪽으로 삐져나와 있었고, 녹슨 철물지가 달린 낡은 나무 문도 그대로였다.

그는 유일한 계단을 올랐다. 빗장을 들어 올렸다. 문을 밀었다. 그런데 정확히 그 순간, 오른쪽과 왼쪽 그림자에 숨어 있던 두 남자가 그를 향해 덤벼들었다.

한 명이 총구를 그의 정면으로 겨누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폴은 총열을 식별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적시에 몸을 숙여 총알을 피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 남자를 밀쳐냈고, 총을 빼앗으려 했다. 동시에 다른 공격자가 칼로 그를 위협했다. 그는 후퇴하며 예배당을 빠져나왔다. 팔을 뻗고 권총을 겨누며 그들을 제지했다.

"손 들어!" 그가 외쳤다.

그가 명령한 동작을 기다리지 않고, 본능적으로 두 번 방아쇠를 당겼다. 두 번 모두 '딸깍' 하는 소리만 났다. 총성은 없었다. 하지만 그가 쏜 것만으로도 두 악당들은 겁에 질려 즉시 방향을 틀고 발길질하며 도망쳤다.

폴은 잠시 주저했다. 덫이 이렇게 갑자기 터져 나온 데 놀라 얼어붙은 듯했다.

그리고는 곧바로 다시 도망치는 자들을 향해 총을 쏘았다. 하지만 무슨 소용이랴? 총은 아마도 두 발밖에 장전되지 않았을 터였다. 방아쇠를 당겨도 총구는 쾅 하고 울릴 뿐, 총성은 나지 않았다.

폴은 추격자들을 따라 그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났다. 예전 황제와 그의 연인이 예배당에서 멀어질 때, 바로 그 방향, 즉 국경 쪽으로 향했던 것을.

곧 추격자들은 폴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숲속으로 들어섰다. 나무들 사이로 슬쩍슬쩍 몸을 숨겼다. 하지만 폴은 더 민첩했다. 그는 이미 이들을 앞서 나가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장미나리와 가시덤불이 어지럽게 깔린 오목한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폴은 그 우회로를 피해 더 빠른 속도로 그들을 따라잡고 있었다.

그 순간, 그 중 한 명이 날카로운 휘슬을 불었다. 동맹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신호였을까? 얼마 뒤, 그들은 울창한 관목 숲 뒤로 사라졌다. 그 선을 넘자, 파울은 백 보 앞에서 높은 담이 숲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남자들은 중간 지점에 있었고, 파울은 그들이 담의 낮은 작은 문 쪽으로 곧장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파울은 그들이 문을 열기 전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더욱 힘을 냈다. 벌판은 그가 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게 해주었고, 남자들은 분명히 지친 듯 속도를 늦추고 있었다.

"이제 잡았군, 이 도둑놈들아."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드디어 내가 알게 되겠군…"

휘파람 소리가 또 한 번 울렸다. 이어 거친 비명이 터졌다. 그는 이제 그들로부터 서른 걸음도 떨어지지 않은 곳. 그들의 대화 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잡았다. 내가 잡았어."

그가 거친 환호를 터뜨리며 중얼거렸다.

그는 한 명에게는 권총 총구로 얼굴을 후려치고, 다른 한 명의 목을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벽에 닿기도 전에, 문이 밖에서 밀려났다. 세 번째 인물이 나타나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폴이 권총을 떨어뜨렸다. 그의 돌진 속도는 놀라울 정도였고, 그는 엄청난 힘을 발휘해 문을 붙잡고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문이 열렸다. 그가 본 광경은 너무도 끔찍해서 그는 뒤로 물러서고, 새로운 공격에 맞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세 번째 남자가 칼을 들어 그를 노리고 있었다. 끔찍한 악몽 같았다. 정말로 악몽이 아닐 리가 없었다.

그 남자의 얼굴을 폴은 알고 있었다. 예전에 본 얼굴과 똑같은 형태였다. 남자의 얼굴이었지만, 여성이 가진 그 특유의 얼굴형이었다. 틀림없이 같은 종류였다.

십육 년이 더 흐르고, 표정은 더 단단하고 더 악의적으로 변했지만, 얼굴의 형태는 동일했다. 같은 종류였다.

그 남자는 폴을 내리쳤다. 과거의 어느 여인이 그랬듯, 그리고 이미 죽은 그 여인이 폴의 아버지를 때렸을 때처럼.

폴 델로제가 비틀거린 것은, 이 유령 같은 존재의 모습에서 느낀 신경성 충격 때문이었다. 칼날이 재킷의 드레스 원단 어깨장식을 고정하는 단추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칼날은 산산조각 났다.

어지러워진 폴은 안개가 낀 듯 흐릿한 시야로 주변을 파악했다. 문소리가 들렸고, 이어 자물쇠에 끼워진 열쇠가 돌아가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벽 너머에서 자동차가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폴이 비몽사몽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늦었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남자와 두 동조자는 이미 도망간 뒤였다.

지금 당장 폴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은, 과거의 그 인물과 현재의 그 인물 사이에 존재하는 이해할 수 없는 유사성의 수수께끼였다. 그는 오직 이 생각뿐이었다.

'안드빌 백작부인은 이미 죽었다. 그런데 지금, 과거의 그녀가 현재 그녀의 나이와 꼭 닮은 남자의 모습으로 부활한 것이다. 가족의 얼굴일까? 알려지지 않은 형, 혹은 쌍둥이 형제의 얼굴일까?'

그는 다시 생각했다.

'과연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겪고 있는 발작 때문에 환각에 사로잡힌 것은 아닐까? 과거와 현재 사이에 조금의 연관성도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나에게는 증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증거가 바로 폴의 손에 들어와 있었다. 그 증거가 너무도 확실해서, 그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다.

그는 풀밭에 떨어진 칼 부스러기를 발견하고, 칼자루를 주워 들었다.

칼자루 뿔 부분에는 뜨거운 쇠로 새긴 듯 네 글자가 khắc되어 있었다. H, E, R, M.

H. E. R. M.... 에르미네의 이름 앞 네 글자였다.

그가 그 글자들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그런 의미를 지닌 것을 깊이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파울은 결코 잊지 못할 그 순간—가까운 교회 종소리가 이상한 방식으로 울리기 시작했다. 규칙적이고 단조로우며 끊이지 않는 종소리였지만, 어딘지 경쾌하면서도 너무도 감동적인 울림이었다.

"종소리로군." 그가 중얼거렸다. 그 말에 담긴 무거운 의미는 생각하지 못한 채.

그는 덧붙여 말했다.

"아마도 화재일 거야."

열 분 후, 폴은 가지가 넘치게 드리운 나무를 이용해 벽을 넘었다.

그 너머로는 다른 숲이 이어졌고, 그 사이로 숲길이 나 있었다. 그는 그 길을 따라 자동차 자취를 쫓았다. 한 시간도 채 안 되어 그는 국경에 닿았다.

말뚝 아래에는 독일 헌병대가 진을 치고 있었다. 하얀 도로 위로는 울란병들이 행진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너머에는 붉은 지붕과 정원이 어지럽게 모여 있었다. 그곳이 예전에 아버지와 함께 자전거를 빌렸던 작은 도시, 에브르쿠르였을까?

슬픈 종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소리가 프랑스에서 온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 프랑스 어딘가에서 또 다른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리종 쪽에서도 세 번째 종소리가 들렸다. 세 종소리는 모두 같은 조급함으로 울려 퍼지며, 마치 절박한 신호를 보내는 듯했다.

그는 불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대피 종소리…… 대피 종소리…… 이 종소리가 교회에서 교회로 이어지고 있는 건가…… 혹시 이것이……?"

하지만 그는 그 끔찍한 상상을 떨쳐냈다. 아니, 아니었다. 그는 잘못 들었을 것이다. 아니면 한 종소리가 계곡 사이를 반사하며 울려 퍼지고, 평야를 가로질러 굴러가는 에코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는 작은 독일 마을에서 뻗어 나가는 하얀 도로를 바라보았다. 이어지는 기마대들의 물결이 그곳에서 몰려와 시골로 퍼져 나가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또한 프랑스 용기병 한 부대가 언덕 정상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장교는 쌍안경으로 수평선을 살폈다. 그리고는 병사들과 함께 다시 떠났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던 폴은 다시 자신이 넘었던 벽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벽이 숲과 공원을 포함해 전체 영지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한 노농부로부터 이 벽이 약 12년 전에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덕분에 폴은 국경선을 따라 탐험할 때 한 번도 예배당을 찾아내지 못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한 번, 누군가 폐쇄된 사유지 안쪽에 예배당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폴이 그것을 어찌 걱정했겠는가?

그는 성곽을 따라 걸으며 오르네캉 마을로 다가갔다. 숲 사이로 난 틈새 너머로, 갑자기 마을의 성당이 시야에 들어왔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들리지 않던 종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오르네캉의 종이었다. 그 소리는 가늘고 찢어질 듯 날카로워 비명 같았다. 급하고 가벼운 타종이었지만, 죽음을 알리는 장송곡보다 더 엄숙하게 들렸다.

파울은 종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게르라늄과 데이지가 만개한 예쁜 마을이 성당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마을 사무실 벽에 붙은 하얀 포스터 앞에, 침묵한 채 모여 선 사람들이 있었다.

파울이 다가가 내용을 읽어 보았다.

만약 일생의 다른 시기에 이런 말을 들었다면, 그 말이 지닌 위압적이고도 음울한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위기는 너무도 강력했다. 큰 감정이 들어설 틈이 없었다.

그는 이 새로운 소식의 피할 수 없는 결과조차, 겨우 인정할 뿐이었다.

그래, 동원령이 내려진 것이다. 그날 밤 자정이 되면 동원의 첫날이 시작된다. 그리고 각자는 제 갈 길을 가야 한다. 그는 떠날 것이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모든 사소한 의무와 개인의 필요를 압도하는, 절박한 '의무'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오히려 그는 외부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지시하는 명령을 받아들이면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주저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

의무는 명확했다. 떠나는 것.

떠나자? 그렇다면 왜 당장 떠나지 않는가? 성으로 돌아가 엘리자베트를 다시 만나고, 고통스럽고 헛된 해명을 구하며, 아내가 구하지도 않는 용서를 베풀거나 거절해야 하는가? 하르미느 드랑드빌의 딸인 그 여자에게 용서는 어울리지 않았다.

주요 여관 앞에 '이 행선지'라고 적힌 마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몇몇 승객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사건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었으니까. 그는 마차에 올랐다.

코르비니 역에서, 그의 기차는 반 시간 뒤에야 출발한다고 했다. 더 이상 다른 열차는 없었다. 밤행 급행열차와 연결되는 저녁 열차도 이미 운행이 중단된 상태였다.

폴은 표를 예매한 뒤, 필요한 정보를 입수해 다시 시내로 돌아갔다. 그는 자동차 대여점을 찾아다녔고, 결국 두 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한 업체를 발견했다.

그는 그 대여점 주인과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곧장 오르네캉 성으로 가장 큰 차를 보내, 폴 델로즈 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그는 아내에게 짧은 편지를 썼다.

사정이 그리 중대해져서, 당신에게 오르네캉을 떠나 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소. 기차 여행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으니, 오늘 밤 바로 차를 보내 샤모의 당신의 숙모 댁으로 모시겠소. 하인들이 당신을 따라오려 할 것이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비록 저는 여전히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제롬과 로잘리는 성문을 닫고 코르비니로 물러날 것이오.

나도 내 부대로 돌아가겠소. 장차 어떤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든, 엘리자베트, 나는 나의 약혼자이자 내 이름을 지닌 그대를 잊지 않겠소.

아홉 시가 되자, 그 위치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대령은 분노에 차 있었다.

자정이 훨씬 지난 시각이었다.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8월 22일 밤의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연대를 세 갈래 길이로 갈라지는 교차로까지 이끌고 갔다. 그중 한 길은 벨기에의 룩셈부르크에서 뻗어 나왔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적군은 약 12킬로미터 떨어진 국경선 일대를 점령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휘관 장군의 엄명대로, 연대는 정오까지 적을 막아내야 했다. 즉, 연대 전체가 합류할 때까지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다. 연대를 돕기 위해 75밀리 포 한 개 대대가 함께 배치되어 있었다.

연대장은 병사들을 지형의 굴곡진 곳에 숨겨 배치했다. 포대 역시 마찬가지로 위장했다. 그런데 해가 뜨자마자 적군은 연대와 포대를 발견했다. 그리고는 거센 포격으로 그들을 덮쳤다.

우리는 오른쪽으로 이백 미터쯤 떨어진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오 분도 지나지 않아 포탄이 떨어졌고, 병사 여섯 명과 장교 두 명이 숨졌다.

다시 자리를 바꾸었다. 십 분 뒤, 또다시 공격이 시작되었다. 대령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단 한 시간 만에 전사자만 서른 명이나 나왔다. 포대포 한 대도 망가졌다.

그리고 시각은 아직 아홉 시였다.

"미친놈들 같으니라니! 도대체 어떻게 우리 위치를 정확히 알아낸다는 거야? 이건 마술이 틀림없어!"

그는 지휘관들과 함께, 포병 대위와 연락병 몇몇을 데리고 언덕 뒤로 숨었다. 언덕 너머로는 구불구불한 고원이 넓게 펼쳐져 시야가 탁 트였다.

왼쪽 가까운 곳에는 버려진 마을이 하나 보였다. 앞쪽에는 흩어진 농가들이 있고, 이 황량한 땅 전체를 뒤덮는 총탄과 포격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적군은 보이지 않았다. 이 포격이 어디서 날아오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단서는 아무것도 없었다.

75mm 포가 몇몇 지점을 향해 사격을 시도해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적의 사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세 시간만 더 버텨야 해." 중령이 투덜거렸다. "우린 버티겠지만, 연대의 4분의 1은 여기서 사라질 거야."

그때 포탄이 소리를 내며 장교들과 연락병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포탄은 땅바닥에 꽂혔다.

모두 폭발할 것을 예상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런데 한 병사, 하사관이 앞으로 돌진해 포탄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자세히 살폈다.

"당신 미쳤나, 하사관!" 대령이 고함을 질렀다. "그것을 놓으라고, 얼른."

하사관은 포탄을 조심스럽게 구멍 속에 다시 넣었다. 그러곤 재빨리 대령 앞으로 다가가 발을 모으고, 모자에 손을 올렸다.

"용서하십시오, 대령님. 포신에 적 포병의 거리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5킬로미터 250미터입니다. 이 정보는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차분함에 대령은 깜짝 놀라 외쳤다.

"천벌이다! 만약 터졌다면?"

"하하, 대령님. 아무도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물론이지. 하지만 좀 과감한 행동이었어. 이름이 뭐야?"

"델로즈, 폴. 제3중대 병장입니다."

"좋아, 델로즈 병장. 네 용기를 칭찬한다. 곧 상사 계급도 거머쥐게 될 걸세. 당분간은 한 가지 충고를 들어주게. 그런 무모한 짓은 다시는 하지 마."

그가 말을 마치기 전에, 바로 근처에서 포탄이 터졌다. 날아온 파편이 한 병사의 가슴을 꿰뚫고 그를 쓰러뜨렸고, 흙먼지가 뒤섞인 토사가 한 장교를 덮치며 그는 비틀거렸다.

"자, 이제 질서가 돌아왔군." 대령이 말했다. "폭풍우 앞에서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 각자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인내하자."

폴 델로즈가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용서해 주십시오, 대령閣下. 제 일이 아닌데도 끼어드는 게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포탄을 피한다? 물론이지. 내가 한 번 더 위치만 바꾸면 되겠지. 하지만 우리 위치가 곧 드러나겠군. 자, 아이야. 제 자리로 돌아가라."

파울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아마도 대령, 우리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적의 사격을 바꾸는 게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오호?" 대령은 살짝 비꼬는 투였지만, 파울의 차분한 태도에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너, 그 방법을 알고 있나?"

"네, 대령."

"설명해 봐라."

"20분만 주십시오, 대령. 20분 뒤면 포탄이 다른 방향으로 날아갈 겁니다."

대령은 참지 못하고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럼 너는 그 포탄을 원하는 곳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말이냐?"

"네, 대령."

"저기 당근밭 쪽이요? 오른쪽으로 천오백 미터쯤?"

"네, 대령."

대화를 엿들은 포병 대위가 농담조로 끼어든다.

"참고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하사. 이미 거리 정보는 주셨고, 방향도 대략 알고 있으니, 방향을 좀 더 정확히 알려주실 수 없나요? 그래야 포격을 정확히 조율해서 독일군 포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겠지요?"

"그건 시간이 훨씬 더 걸리고 훨씬 더 어렵습니다, 대위."

파울이 답했다.

"하지만 시도해 보겠습니다. 정오 열한 시 정각에, 국경 쪽 지평선을 잘 살펴봐 주십시오. 제가 신호를 보낼 테니까요."

"어떤 신호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아마 로켓 세 발이겠지요…"

"하지만 그 신호는 적 진지 위까지 올라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저는 알겠습니다."

"그곳에 도달해야 하는데…"

"저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파울은 경례를 하고 발을 돌려 돌았다. 장교들이 찬성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틈도 없이, 그는 언덕 가장자리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가시덤불로 뒤덮인 좁은 오솔길로 왼쪽으로 꺾어들어가더니, 순식간에 모습을 감추었다.

"참 이상한 녀석이다." 중위가 중얼거렸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그런 결정과 그 용기는 그를 젊은 병사에게 호의적으로 만들었다. 비록 그는 이 작전의 성공에 대해 그리 큰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장교들과 함께 허술한 건초더미 뒤에서 보낸 그 몇 분 동안 여러 차례 시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끔찍한 시간들이었다. 지휘관은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생각하는 순간조차 없었다. 오직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마치 자식들처럼 여기는 모든 이들의 위험만을 생각했을 뿐이다.

그들은 자신 주변에 누워 있었다. 이엉 덮인 땅 위에 드러누워 머리만 모자 자루로 가린 이도 있었고, 덤불 속에 웅크린 이도, 땅의 오목한 곳에 숨어 있던 이도 있었다.

철제 폭풍이 그들을 노리고 몰아쳤다. 우박처럼 거친 폭격이 재빠르게, 그러나 확실하게 파괴의 임무를 완수하려는 듯 쏟아져 내렸다.

사람들이 공중에서 뒤집히다시피 하다가는 다시 땅바닥에 떨어졌다. 움직이지 않는 몸짓, 부상자의 비명, 서로를 부르는 병사들의 외침, 심지어는 농담 소리까지 들렸다. 그 모든 소음 위에 끊임없는 포격의 천둥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갑자기 정적. 완전하고도 영원한 침묵이었다. 공간과 땅 위 모두에 무한한 평화가 찾아왔고, 형언할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다.

대령은 기쁨을 참지 못하고 큰소리로 웃어댔다.

"크리스티! 델로즈 하사는 말 그대로 고집불통이야. 만약 그 beet(사탕무) 밭이 그에게 약속한 대로 다시 물을 뿌리게 된다면, 그건 정말 한 수 위야."

그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오른쪽 1,500미터 지점에서 폭탄이 터졌다. 하지만 그것은 사탕무 밭이 아니라 그 앞쪽을 향해서였다. 두 번째 폭탄은 너무 멀리 날아갔다. 그러나 세 번째 폭탄이 떨어지는 순간, 목표 지점은 정확히 확인되었다. 그리고 '물뿌리기'가 시작되었다.

하사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는 놀라울 정도로 기적적인 요소와 동시에 수학적인 정밀함이 공존했다. 그래서 대령과 그의 부관들은 거의 의심의 여지 없이, 하사가 이 임무를 끝까지 완수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들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해진 신호를 보내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숨 가쁘게 쌍안경으로 지평선을 뒤졌다. 적군은 근대무기로 무장한 채 사탕무 밭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열한 시 오 분, 붉은 신호탄이 하나 떠올랐다.

그것은 예상보다 훨씬 오른쪽 하늘에 나타났다.

이어 두 발이 더 쏘아 올렸다.

대포 중위는 망원경을 들고 적을 쫓았다. 곧이어 그는 안개 낀 계곡 틈으로 교회 첨탑이 살짝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발견했다. 계곡의 깊이는 구릉지대의 물결 같은 지형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첨탑은 너무 낮아 멀리서 보면 외로운 나무로 오해할 정도였다.

지도에 따라 확인해 보니, 그곳은 브루모이 마을이었다.

하사가 분석한 포탄 파편을 통해 독일 포병대의 정확한 거리를 알고 있던 중위는 즉시 전화기를 들었다.

반 시간 뒤, 독일군의 포성이 멈췄다. 네 번째 신호탄이 하늘로 치솟자, 75mm 포는 교회와 마을, 그리고 그 주변을 향해 계속 포격을 가했다.

정오 직전, 연대는 사이클리스트 한 중대와 합류했다. 그들은 부대를 앞서 나가고 있었다. 명령은 명확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진해야 했다.

브루모이에 가까워지자, 적 후방 부대가 몇 발의 총성으로 연대를 막았다. 하지만 연대는 거의 방해받지 않고 전진했다. 적의 후방 부대는 물러나고 있었다.

폐허가 된 마을에는 불길에 타오르는 집들이 여전했다. 시체와 부상자, 쓰러진 말, 부서진 대포, 찢긴 탄약차와 수송차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한 부대가 완전히 정돈된 줄 알고 출발 준비를 하던 참이었다. 그때 갑자기 그들 앞에 기습이 떨어졌다.

하지만 교회 탑 위에서 비명이 들려왔다. 본당과 정면 벽체는 무너져 내렸고, 그곳은 더 이상 형태를 잃은 폐허일 뿐이었다. 오직 시계탑만 간신히 서 있었다. 몇 개의 보가 타오르며 검게 그을렸지만, 기적처럼 균형을 잡은 채 탑 꼭대기의 가느다란 돌 첨탑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 첨탑에서 반쯤 몸을 내밀고 한 농부가 팔을 휘저으며 외쳤다. 시선을 끌기 위한 비명이었다.

장교들은 그 남자가 파울 델로즈라는 것을 알아봤다.

조심스럽게 잔해 사이를 헤치고, 탑의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올랐다.

그곳, 첨탑에 뚫린 작은 문 옆에는 독일군 시체 여덟 구가 쌓여 있었다. 문은 부서져 가로로 쓰러져 길을 막고 있었다. 파울을 구해 내기 위해 도끼로 문을 부수어야 했다.

오후가 저물어 적의 추적이 너무 큰 장애물에 부딪혔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대령은 연병장에 연대를 집결시켰다. 그리고 델로제 하사를 끌어안았다.

"먼저, 상금부터 주마."

대령이 말했다.

"나는 군사 훈장을 요청할 거야. 그만한 공적이니 너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제, 내 친구, 너는 설명해야 해."

파울은 각 중대 장교들과 계급장을 단 병사들이 둘러싼 원형 중앙에 서서 질문에 답했다.

"대단히 간단한 일입니다, 대령."

"물론이지. 하지만 그 간첩은 누구고, 어디에 숨어 있었단 말인가?"

"대령, 우연히 단서를 얻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점령했던 자리 옆, 왼쪽에 교회 하나가 있는 마을이 있었죠?"

"그래. 하지만 내가 도착하자마자 그 마을을 비우고, 교회 안에도 아무도 없게 했어."

"교회 안에 아무도 없었다면, 왜 종탑 꼭대기의 닭 모양 풍향계가 서풍이 불 때 동쪽을 가리켰을까요? 또 우리가 위치를 바꿀 때마다, 그 풍향계가 우리를 향해 방향을 틀지 않았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대령. 허락을 얻은 뒤, 저는 망설이지 않고 교회로 숨어들어 시계탑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가능한 한 조용히 말입니다.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고생 끝에 간신히 그를 제압했죠."

"역적! 프랑스 사람인가?"

"아닙니다, 대령. 농부로 변장한 독일인이었습니다."

"총살할 것이다."

"아닙니다, 대령. 저는 그에게 목숨은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대령, 그가 어떻게 적에게 정보를 흘리는지 알아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 그건 별것 아니었습니다. 교회 정면에는 북쪽을 향하는 시계가 하나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시계 바늘을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편이 내부에서 바늘을 조작한 겁니다. 큰 바늘을 세 자리나 네 자리 숫자 위를 오가게 놓아,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정확한 거리를 알려주도록 했죠. 방향은 수탉 방향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저도 직접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적군은 제 신호에 맞춰 사격을 보정했고, 철저하게 비트 뿌리밭을 연사했습니다."

"맞습니다." 대령이 웃으며 말했다.

"나에게 남은 일은 두 번째 감시 지점으로 가는 것뿐이었다. 그곳에서 간첩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 간첩은 이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 적 포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게 될 터였다. 그래서 나는 이곳까지 달려갔다. 그리고 막 도착해서야, 감시소로 쓰던 교회 바로 아래에 적 포대와 독일군 한 부대가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것은 미친 듯이 무모한 행동이었군요! 그들이 당신을 향해 사격하지 않았나요?"

"소령, 저는 그 독일 정탐꾼의 옷을 입었습니다. 독일어도 할 줄 알았고, 암호도 알고 있었죠. 그 정탐꾼을 알고 있던 사람은 관찰 장교 한 명뿐이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이 저를 간파했다는 소식과, 제가 간신히 탈출했다는 말을 듣자, 지휘 장군은 의심 없이 저를 그 장교 앞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감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소령. 게다가 저는 모든 카드를 쥐고 있었죠. 그 장교는 전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시를 보내는 탑의 플랫폼에 다다랐을 때, 그를 제압하고 침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임무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해진 신호를 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다였나요? 여섯 천, 일천 명의 병사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였습니다, 대령. 시각은 열한 시였습니다."

"그 플랫폼에는 낮이나 밤이나 신호를 보내기 위한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었죠. 어찌 그 기회를 놓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신호탄 하나를 쏘아 올렸다.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탄들은 모두 우리 조준을 그 시계탑에 맞추라는 경고였던 겁니다! 바로 그대 계신 곳으로 우리가 포격을 가한 것입니다!"

"아, 장군님, 그런 생각은 정말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성당을 향해 날아온 첫 포탄이 오히려 반갑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적군은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이 곧장 탑을 넘었습니다. 반쯤은 반쯤은 revolver로 처치했지만, 그 후에도 공격은 계속 이어졌죠. 결국 저는 첨탑을 막는 문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이 그 문을 무너뜨리자, 저는 그 문짝을 방패 삼아 진을 쳤습니다. 처음 공격해 온 적군들로부터 빼앗은 무기들과 탄약이 충분했고, 저는 접근조차 불가능할 만큼 높은 곳에 숨어 있었죠. 그래서 정면 공방전처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75mm 포가 적을 포격하고 있었죠."

"75밀리 포탄이 저를 구해 주었습니다, 대령. 교회 건물이 무너지고 뼈대까지 불타자, 누가 감히 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령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렸을 뿐입니다."

폴 델로즈는 아주 평범한 어조로,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대령은 그를 다시 한번 치하하며 상사 진급을 확실히 알려주었다.

"무엇이든 요청할 것은 없습니까?"

"있긴 합니다, 대령. 제가 저쪽에 묶어 둔 독일 간수를 심문하고 싶고, 동시에 숨겨둔 제 군복도 찾아오고 싶습니다."

"좋소. 우리와 함께 저녁을 드신 뒤, 자전거를 한 대 주겠소."

저녁 일곱 시, 폴은 다시 첫 번째 교회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깊은 실망뿐이었다. 스파이는 사슬을 끊고 이미 도망쳐 버린 뒤였다.

폴은 교회 안은 물론 마을 전체를 뒤졌지만, 결과는 헛수고였다. 하지만 그는 계단 한쪽 돌계단에서 한 가지 물건을 주워 들었다. 바로 그가 스파이를 덮쳤던 곳과 가까운 곳이었다. 그건 스파이가 자신을 찌르려던 단검이었다.

그 단검은 정확히 세 주 전, 오르네캉 숲의 작은 문 앞에서 풀밭에서 주워 들었던 단검과 똑같았다. 같은 삼각형의 날. 같은 갈색 뿔로 만든 손잡이. 그리고 손잡이에는 네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H. E. R. M.

그리고 아버지 살해자이자 에르민 드랑드빌과 너무나 닮은 여자로, 그리고 정탐꾼이었던 두 사람은 같은 무기를 사용했다.

다음 날, 폴이 소속된 연대가 속한 부대는 공세를 계속해 적을 무너뜨리고 벨기에로 진격했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장군은 후퇴 명령을 받았다.

철수가 시작되었다. 모든 이에게 고통스러운 그 퇴각은, 특히 승리로 시작했던 우리 병사들에게 더 참혹했을 것이다. 파울과 제3중대 동료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벨기에에서 보낸 반나절 동안, 그들은 독일군에게 완전히 파괴된 작은 도시의 폐허를 목격했다. 총살당한 여인 여든 명의 시체, 발로 매달린 노인들, 더미처럼 쌓인 채 목이 베인 아이들도 보았다. 그런데도 이런 괴물들 앞에서 물러서야만 했던 것이다!

벨기에 군인 몇 명이 연대에 합류해 있었다. 그들은 지옥 같은 광경에 질린 얼굴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털어놓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물러서야 했다. 분노에 찬 마음과 총을 쥐고 있는 손을 굳게 쥐어 부러뜨릴 듯한 복수심과 함께 물러서야만 했던 것이다.

"왜 후퇴하는 거지?"

패배가 아니었다. 병사들은 질서를 유지하며 물러났고, 혼란에 빠진 적을 향해 돌연 정지했다가 격렬한 역공을 가했다. 하지만 숫자의 압력은 모든 저항을 무너뜨렸다. 야만인 같은 적들의 물결은 다시 모였다. 살아있는 병사 두 명이 죽은 자 한 명을 대체했고, 우리는 계속 밀려났다.

어느 날 밤, 파울은 일주일치 낡은 신문을 통해 이 후퇴의 원인 중 하나를 알게 되었다. 그 소식은 그에게 고통으로 다가왔다.

8월 20일, 도대체 어떤 조건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설명할 수 없는 포격이 몇 시간 이어진 뒤, 코르비니가 함락되었다. 이 요새가 적어도 며칠은 버텨줄 것으로 기대했기에, 그 방어는 우리 군의 좌측 측면 작전에 더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었다.

이렇게 코르비니는 패배했다. 오르네캉 성은 아마도 폴 자신도 원했을 테지만, 제롬과 로자리가 버리고 떠난 뒤 이제 폐허가 되었다. 약탈당하고, 유린당하고, 완전히 무너졌다. 야만인들이 파괴의 여정에 들이던 그 잔인한 정교함과 방법론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쪽에서도 광란의 군중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8월 말의 암울한 날들이었다. 프랑스가 겪었던 그 어떤 날들보다도 비극적이었을 것이다. 파리가 위협받고 있었다. 열두 개 주가 침략당했다. 용감한 국민 위에 죽음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런 날들 중 한 날 아침, 폴은 뒤에서 자신을 부르는 즐거운 목소리를 들었다. 젊은 병사들 무리 속에서였다.

"폴! 폴! 드디어 내가 원하던 곳에 도착했어! 정말 행복해!"

이 젊은 병사들은 자원입대한 이들이었다. 그들은 한 부대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중에서 폴은 즉시 엘리자베트의 오빠인 베르나르 드앙드빌을 알아봤다.

폴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첫 번째 충동은 돌아서서 피하는 것이었지만, 베르나르가 이미 그의 두 손을 잡고 있었다. 베르나르는 그 손을 부드럽고도 친근하게 쥐고 있었는데, 그 모습으로 보아 젊은이는 폴과 아내 사이의 이별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래, 폴, 바로 나야." 그가 경쾌하게 말했다. "너에게 '너'로 말해도 되겠지? 맞다, 바로 나야. 놀랐지? 상상해 봐, 천운 같은

만남, 흔치 않은 우연이잖아. 두 사위가 같은 부대에 있다니! … 하지만 아니야, 이건 내 강력한 요구 때문이었어. '저는 의무이자 기쁨으로 입대합니다. 하지만 체육 선수이자 모든 체조 및 군사 준비 협회의 수상자로서, 제 사위인 폴 델로제 하사의 부대로 즉시 전선에 보내주길 바랍니다'라고 했거든. 그들이 저의 도움이 필요했으니, 이렇게 보낸 거지. … 그런데 뭐, 너는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파울은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찼다.

'이 아이는 에르미느 당드빌의 아들이군. 지금 내 손을 잡고 있는 이 아이는, 나를 죽이려 했던 여자의 아들이다.'

하지만 베르나르의 얼굴에는 거짓 없는 정직함과, 순진한 기쁨이 넘쳐 흘렀다. 파울은 결국 입을 열었다.

"그래, 그래… 하지만 넌 너무 어리잖아."

"저요? 저는 이미 아주 늙었어요. 입대하던 날 만 열일곱 살이었거든요."

"하지만 너의 아버지는?"

"아빠가 허락해 주셨어요. 아니, 사실은 제가 먼저 허락해 줘야 했죠. 그래야 저도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뭐라고?"

"네, 맞아요. 아빠도 입대하셨어요."

"그 나이에?"

"아빠는 아직 젊으세요. 입대하던 날 만 오십 살이었답니다. 영국 참모부에 통역관으로 배정받았죠. 온 가족이 총을 들고 나섰다고 보면 돼요… 아, 그렇구나. 엘리자베트씨가 당신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지."

폴이 몸이 떨렸다. 그는 지금까지 시누이에게 그 젊은 여자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는 편지를 받으며 중얼거렸다.

"아, 그녀가 너에게 이것을 줬구나…"

"아니야. 그녀가 오르네캥에서 우리에게 보냈어."

"오르네캥에서? 말이 안 돼. 엘리자베트는 동원령이 내려진 날 밤에 떠났어. 그녀는 샤모에 있는 그녀의 이모 댁으로 갔지."

"전혀 아니야. 나는 우리 이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어. 그녀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엘리자베트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거든. 게다가 봉투를 봐. '파리, 안드빌 씨 각하, 폴 델로즈'라고 적혀 있어… 그리고 우표는 오르네캥과 코르비니에서 찍혔어."

폴은 봉투를 본 뒤 더듬거렸다.

"맞아. 우편 날짜가 우표에 찍혀 있잖아. 8월 18일. 18일이라니…… 코르비니가 독일군에게 잡힌 건 그 사흘 뒤인 8월 20일이었지. 그러니까 엘리자베트는 아직 그 집에 있었어."

"아니, 아니, 그건 아니야!" 베르나르가 소리쳤다. "엘리자베트는 아이가 아니잖아. 국경에서 불과 십 보 떨어진 곳이면 독일군이 다가오는 걸 보고도 기다렸겠어? 그쪽에서 총성이 들리자마자 성을 떠났을 거야. 그리고 그걸 네게 알리려고 편지를 보낸 거지. 자, 파울, 편지나 읽어봐."

파울은 편지를 읽고 나면 자신이 무엇을 배우게 될지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었다.

엘리자베트는 이렇게 썼다.

"오르케랭을 떠날 수 없어요. 저를 붙잡아 두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 의무를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바로 어머니의 명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파울, 제 말을 잘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는 저에게 가장 순수한 분입니다. 제 품에 안아 주셨고, 아버지가 여전히 깊은 사랑을 바치는 분을, 그분까지 의심하다니요. 하지만 당신은 그분을 비난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분을 당신으로부터 지키려 합니다."

"믿기 위해 증거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당신을 설득하기 위해 증거를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아마도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머물겠습니다."

"제롬과 로잘리도 함께 남습니다. 비록 적의 접근이 알려졌지만 말이에요. 그들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혼자 있지 않으니까, 당신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울은 편지를 다시 접었다. 그의 얼굴은 매우 창백해져 있었다.

베르나르가 물었다.

"그녀는 이제 저기에 없죠, 맞죠?"

"아니요. 여전히 그곳에 있어요."

"미친 소리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그런 괴물들과 함께라니요! 외딴 성이라니요! 자, 자, 폴! 그녀는 자신에게 닥칠 끔찍한 위험을 모를 리 없잖아요! 도대체 뭐가 그녀를 붙잡고 있는 거죠? 아, 정말 끔찍하다니!"

폴은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주먹을 꽉 쥐고 그대로 침묵을 지켰다.

삼 주 전, 전쟁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폴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즉각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결의가 솟구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갈망이었다.

그의 인생에 닥친 재앙, 그가 근본적으로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여성과의 결혼이라는 공포, 그리고 오르냉 성에서 얻은 확실한 사실들. 이 모든 것이 그를 너무도 크게 뒤흔들어 놓아, 이제 죽음은 더없이 좋은 선물로 보였다.

그에게 전쟁은,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인 죽음으로 다가왔다.

그가 처음 몇 주간의 사건들에서 감동적이고 엄숙하며, 위로가 되고 장엄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동원 명령의 완벽한 질서, 병사들의 열

정, 프랑스의 놀라운 단결, 그리고 국민 영혼의 각성—은 그의 시선을 끌지 못했다.

그의 내면 깊숙이, 그는 운명조차도 자신을 구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반드시 저지르리라 다짐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는 첫날부터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교회 첨탑에 숨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간첩을 체포하고, 적군 진영 한복판으로 깊숙이 들어가 그들의 위치를 알리는 것. 그것은 자명사살의 길이었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길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용기와 신중함을 모두 발휘했다. 죽는 것도 좋았다. 다만 성공한 뒤에 죽어야 했다.

그는 행동하는 내내, 그리고 성공을 거둔 뒤에도 뜻밖의 기쁨을 느꼈다.

그 스파이가 사용했던 단도를 발견한 사실은 그를 크게 흔들었다.

그는 그 남자와 자신을 공격하려 했던 자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또 그들과 16년 전에 죽은 안드빌 백작부인 사이에는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

게다가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폴이 그 정황을 눈치챈 배신과 간첩 행위의 같은 그림자 속에 함께 묶여 있는 걸까?

하지만 엘리자베트의 편지가 그에게 가한 타격은 더욱 치명적이었다.

그 젊은 여자가 바로 저기, 포탄과 총탄이 날아다니는 곳, 성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전투 현장, 승자들의 광기와 분노가 가득한 곳, 불길과 총격, 고문과 잔혹함이 펼쳐지는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웠고, 거의 혼자서, 아무런 방어 수단도 없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바로 그에게, 폴이 그녀를 다시 만나 함께 데려올 용기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게 된 것이었다.

그런 생각들은 폴에게 우울증 발작을 일으켰다. 그러던 그가 어느 순간 깨어나면, 곧장 위기를 향해 달려나갔다. 무슨 일이 생기든 끝까지 그 미친 듯한 모험을 이어갔고, 그 모습은 동료들에게 놀라움과 경외감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차분한 용기와 야성적인 집념이 그를 지탱했기 때문이다.

그가 이제 죽음보다 더 갈구한 것은, 죽음에 맞설 때 느끼는 그 알 수 없는 황홀함 아니었을까.

9월 6일, 그날이 왔다.

기적 같은 날이었다. 위대한 지휘관이 불멸의 구호를 외치며, 드디어 자신의 군대에 적을 향해 돌진하라고 명령한 날.

오랜 기간 치열하게 버텨온, 그러나 너무나도 잔인했던 후퇴가 마침내 끝났다.

하루 종일 두 배의 적과 맞서 싸우며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잠을 잘 시간도, 먹을 시간도 없었다.

그들은 마치 기적처럼,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할 만큼의 극한의 노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왜 길가의 도랑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지 않는지, 그 이유조차 모른 채로.

그런 그들에게 명령이 떨어졌다.

"멈춰! 방향을 돌려라! 이제 적을 향해 직진하라!"

그들은 다시 방향을 틀었다. 죽어가던 자들이 힘을 되찾았다.

가장 낮은 신분의 병사부터 가장 유명한 장군까지, 모두 자신의 의지를 모았고, 프랑스의 운명이 오직 자신 한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싸웠다.

병사 한 명마다, 위대한 영웅이 있었다.

그들은 승리하거나 죽음을 맞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했다.

그들 중 가장 대담했던 폴은 단연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그가 해낸 일과 견뎌낸 고통, 시도하고 성취해 낸 것들은 그 자신도 현실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느꼈다.

6일, 7일, 8일, 그리고 11일부터 13일까지. 그는 극도의 피로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수면과 식량 부족 속에서도 오직 한 가지 감각만 느꼈다. 전진하는 것, 다시 전진하는 것, 그리고 끝없이 전진하는 것뿐이었다.

마른 강가에서든 아르덴의 좁은 길에서든, 북쪽이나 동쪽으로 국경지대의 부대를 지원하러 갈 때든, 그는 오직 앞으로만 나아갔다.

그는 어둠 속이든 햇살 아래든, 쟁기질한 밭에서 엎드려 기어 다니든, 혹은 일어서서 백병전을 치든 마찬가지였다. 그는 전진했고, 한 걸음은 해방이었고, 한 걸음은 승리를 의미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증오는 더 깊어졌다. 아, 아버지가 그들을 저주하신 게 얼마나 옳았는지! 지금 폴은 그들의 실체를 눈앞에서 보고 있었다.

어디를 보나 어리석은 파괴와 이유 없는 소멸뿐이었다. 불길과 약탈, 그리고 죽음. 인질 총살, 여인들의 무의미한 학살, 그저 재미삼아 저질러진 살인들.

성당도, 성채도, 부자의 집도, 가난한 이의 초가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 폐허조차 파괴되었고, 시신들은 훼손되었다.

이런 적을 물리치니 얼마나 즐거운지! 병력이 절반으로 줄어든 데도 불구하고, 파울이 이끄는 연대는 사냥개 떼처럼 풀려나 포효하는 맹수를 끝없이 쫓았다. 적군은 국경에 가까워질수록 더 사나워지고 무서워 보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적을 향해 돌진했다. 마지막 일격을 가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서였다.

그리고 어느 날, 두 개의 길이 갈라지는 곳에 서 있는 표지주에 파울은 이렇게 적힌 것을 읽었다.

코르비니! 오르네캉!

그는 이 뜻밖의 지명을 읽으며 온몸이 떨렸다. 평소 그는 격렬한 전투와 여러 가지 걱정으로 정신이 팔려, 지나가는 마을 이름을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 이름들은 그저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오르네캉 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다.

코르비니. 거리는 불과 14킬로미터.

프랑스군들이 과연 코르비니로 향하고 있는 걸까? 그 작은 요새는 독일군이 기이한 방식으로 습격해 점령한 곳이었다.

그날 아침부터 우리는 적과 교전 중이었다. 적의 저항이 평소보다 약해 보였다.

파울은 소대장을 이끌고 있었다. 대위가 그를 블레빌 마을까지 보냈다. 명령은 간단했다. 적이 물러났다면 마을로 진입하라. 하지만 더 이상 진격하지 말라.

파울은 마을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방향 표지판을 발견했다.

그때부터 파울은 불안해졌다. 타우베기가 하늘을 가로질렀기 때문이다. 적이 함정을 파놓았을 가능성이 컸다.

"마을로 돌아가자." 파울이 말했다. "적의 공격을 기다리며 방어 태세를 갖출 때까지 머물자고."

하지만 그 순간, 코르비니 쪽으로 길을 막고 있는 숲이 우뚝 선 언덕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이내 또렷해졌다.

잠시 후 파울은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아챘다. 거대한 엔진 소음이었다. 분명 자동차였다. 아니, 기관총을 탑재한 장갑차일 가능성이 높았다.

"도랑으로 들어가! 나뭇더미 뒤에 숨어라. 총검을 장전해라. 그리고 아무도 움직이지 마라!"

그는 위기를 감지했다. 마을을 가로지르며 중대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이 자동차가 파문을 일으키고, 이내 다른 길로 빠져나가려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재빨리 금이 간 오래된 참나무 줄기를 올라갔다. 가지 사이에 몸을 숨긴 그는 도로 위를 몇 미터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거의 즉시, 자동차가 나타났다. 그것은 확실히 장갑차였다. 강철 갑옷으로 뒤덮인 그 거대한 괴물은 다소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강철 판 위로는 병사들의 투구와 얼굴이 드러나 보였다.

차량은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위급상황이 생기면 곧장 뛰어내릴 준비를 한 채였다. 남자들은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폴은 그중 여섯 명쯤을 세었다. 기관총 포신 두 개가 밖으로 드러나 있었다.

폴은 소총을 어깨에 메고 운전수를 겨누었다. 운전수는 뺨이 벌겋게 달아오른 큰 체격의 독일인이었고, 얼굴빛이 피를 연상케 했다. 그러고는 차분하게, 그리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 방아쇠를 당겼다.

"들어가, 야들아!"

그는 나무에서 내려다보며 외쳤다.

하지만 돌격할 필요조차 없었다. 가슴을 맞은 운전수는 정신을 차려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멈출 수 있었다. 자신들이 포위당했음을 깨달은 독일인들은 손을 들었다.

"카메라드! 카메라드!"

그중 한 명이 총을 던져버리고 차에서 뛰어내려 폴을 향해 달려들었다.

"알자스 출신, 중사입니다! 스트라스부르에서 왔다고요! 아, 중사님, 이 순간을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남편들이 죄수들을 마을로 데려가는 사이, 파울은 재촉하듯 알자스인 중사에게 물었다.

"차 어디에서 왔소?"

"코르비니에서요."

"코르비니에 사람이 많소?"

"별로 없습니다. 바덴군 후위부대, 많아야 이백 오십 명 정도죠."

"요새에는요?"

"거기서도 비슷한 정도예요. 포탑 수리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surprise를 당했어요. 지금 방어선을 유지할지, 국경 쪽으로 철수할지 고민 중이죠. 그래서 정찰대를 보냈습니다."

"그럼 우리도 진격할 수 있겠소?"

"네, 하지만 당장이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큰增援, 사단 두 개가 도착해요."

"누가 오죠?"

"내일입니다. 정오쯤 국경을 넘을 거예요."

"아니, 시간이 없군!" 폴이 말했다.

차량과 기관총을 점검하고, 포로들을 무장 해제하고 수색하는 사이, 폴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마을에 남아 있던 병사 중 한 명이 달려와 프랑스군 분대가 도착했다는 보고를 했다. 그 분대를 이끄는 것은 한 명의 소위였다.

폴은 그 장교에게 상황을 빠르게 설명했다. 지금의 상황은 즉각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포획한 그 차량으로 정찰을 나가겠다고 자원했다.

"좋소." 장교가 말했다. "나는 이 마을을 점령하고, 가능한 한 빨리 사단에 알리겠소."

자동차는 코르비니 쪽으로 달렸다. 여덟 명이 빽빽하게 타고 있었다. 그중 두 사람은 기관총을 맡아 기계 구조를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알자스 출신의 포로는 서서, 어디서든 그의 투구와 제복이 잘 보이도록 했다. 그는 지평선을 주시했다.

이 모든 일은 몇 분도 채 안 되어 결정되고 실행되었다. 논의도 없이, 계획의 세부 사항에 얽매이지도 않았다.

"신의 이름으로!" 핸들을 잡은 폴이 외쳤다. "여러분, 이 모험을 끝까지 함께하시겠습니까, 친구들?"

"물론입니다, 상사." 곁에서 그가 아는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는 엘리자베트의 오빠, 베르나르 안드빌이었다. 베르나르는 제9중대에 소속되어 있었다. 폴은 그들과 만난 뒤로 그를 피하거나, 적어도 말을 걸지 않으려 애써 왔다. 하지만 그 젊은이가 싸움터에서 얼마나 용감한지 폴은 잘 알고 있었다.

"아, 너였구나."

"살아있는 그대로 여기 있구려!" 베르나르가 외쳤다. "나도 중위와 함께 왔어. 자네가 차에 올라타서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들을 태우는 모습을 보고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지 않았나?"

그는 어딘지 어색한 어조로 덧붙였다.

"자네 지휘 아래 멋진 일을 해내고, 자네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라니… 사실 나는 지금까지 운이 없었어… 자네가 나랑 함께 있을 거라 기대했던 건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았거든."

"아니, 그렇지 않아. 다만…" 폴이 말을 이었다. "생각할 일이 있어서…"

"엘리자베트 일이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뭔가 어색한 기류가 흐르는 건 설명이 안 되네요."

그때 알자스인이 명령조로 말했다.

"들켜선 안 돼… 우흘란 기병이야!"

수풀 너머 나뭇길에서 한 정찰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을 지나치며 알자스인이 소리쳤다.

"저리 가, 친구들! 대열을 정비해! 프랑스군이 온다구!"

폴은 이 상황을 이용해 시누이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속도를 더 높였고, 자동차는 천둥소리 같은 굉음을 내며 경사를 오르고, 토네이도처럼 내리달았다.

적 부대는 점점 더 많아졌다. 알자스인은 그들을 향해 외치거나, 손짓으로 즉각적인 후퇴를 권유했다.

"저들을 보는 게 정말 재밌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를 뒤쫓는 격렬한 추격전이군요."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경사, 이대로 가면 코르비니에 그대로 떨어질 걸세. 그걸 원하나?"

"아닙니다. 경사. 마을이 보이는 곳에서 멈출 겁니다."

"만약 포위당하면?"

"누구한테? 어쨌든 우리 귀환을 막을 수는 없는 도망자 무리들이야."

베르나르 드앙드빌이 말했다.

"폴, 넌 귀환 따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지. 넌 무서워?"

"오, 무슨 나쁜 말이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폴이 다시 말을 이었다. 목소리에는 이전의 거친 기색이 덜 섞여 있었다.

"베르나르, 네가 온 걸 후회하네."

"위험이 나보다 너나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가?"

"그럼, 후회하지 말라는 내 호의를 받아주게."

알자스 출신의 남자는 여전히 서서, 경사 위로 몸을 굽혔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어디를 가리켰다.

"저 앞 성당 첨탑이 나무 장막 뒤에 보이는 곳, 바로 코르비니야. 왼쪽 고지로 우회하면 도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볼 수 있을 거야."

"직접 들어가면 훨씬 더 잘 보일 거야." 폴이 말했다. "다만 위험이 따르지. 특히 너 같은 알자스 사람은 더위험해. 포로가 되면 총살당해. 코르비니에 도착하기 전에 너를 내려보내는 게 좋겠어?"

"선배, 나를 제대로 보지 못했군요."

길은 철도 선로와 합류했다. 이어 외곽의 첫 집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몇몇 군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 앞에서는 절대 입을 열지 마." 폴이 명령했다. "그들을 놀라게 해서는 안 돼.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등을 노출하지 않고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는 기차역을 알아보고, 그곳이 매우 혼잡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마을로 올라가는 대로 따라, 뾰족한 투구를 쓴 병사들이 오갔다.

"앞으로!" 폴이 외쳤다. "군대가 모인다면, 그것은 광장밖에 없을 거야. 기관총은 준비됐어? 소총은?"

"버나드, 내 총을 준비해 줘. 그리고 첫 신호만 들어오면, 마음껏 쏴!"

자동차가 광장 한복판으로 거침없이 진입했다. 그가 예상한 대로, 약 백 명의 병사가 교회 현관 앞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총검을 든 채 한데 뭉쳐 있었다. 교회는 이제 폐허 더미에 불과했고, 광장 주변의 거의 모든 집들은 폭격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장교들은 그 차를 보고 환호성을 지르며 손을 흔들었다. 그 차는 바로 그들이 정찰을 위해 보낸 것이었다. 장교들은 이 차가 돌아올 때까지 도시 방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터였다.

아마도 연락 장교들이 합류한 듯, 그들은 수를 불리고 있었다. 키가 큰 한 장군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몇 차가 떨어진 곳에는 다른 자동차들이 멈춰 서 있었다.

길은 포장되어 있었지만, 보도는 없었다. 차는 광장 한복판의 땅과 바로 맞닿아 있었다.

파울은 차를 몰아 그 길을 따라갔다. 그리고 장교들로부터 스무 미터쯤 떨어진 지점에서 핸들을 급격히 돌렸다.

소름 끼치게 무거운 차가 그 무리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사람을 쓰러뜨리고 짓이긴 뒤, 차는 살짝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총부리들이 일렬로 늘어선 곳으로 곧장 파고들었다. 그는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한 덩어리처럼 분대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갔다.

죽음이었다. 혼란이 일었고, 사람들은 미쳐 날뛰듯 도망쳤다. 고통과 공포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다.

"자유 사격!"

파울이 차를 세우며 외쳤다.

그리고 광장 한복판에 갑자기 나타난 그 무적의 벙커에서 총격전이 시작되었다. 두 대의 기관총에서 날카롭고 불길한 총소리가 연달아 터져 나왔다.

오 분도 채 되지 않아 광장에는 시체와 부상자가 널브러졌다. 장군과 여러 장교들이 제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쓰러져 있었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도망쳤다.

"사격을 멈춰라!"

파울이 명령했다.

파울은 자동차를 내려다보이는 철도역 쪽 끝까지 몰아갔다. 총소리에 이끌려 역의 병력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기관총 사격 몇 발로 그들을 흩뜨렸다.

파울은 세 번에 걸쳐 고속으로 광장을 한 바퀴 돌며 접근로를 살폈다. 사방에서 적군이 국경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오솔길을 통해 도망치고 있었다. 동시에 코르비니 주민들도 집 밖으로 나와 기쁨을 드러냈다.

"부상자를 일으켜 치료하게 하시오. 그리고 교회 종소리를 치는 사람, 아니면 종소리를 칠 줄 아는 사람을 부르시오. 긴급한 일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나타난 노년 성직자에게는 이렇게 명령했다.

"종소리를 치시오, 친구여. 팔이 닳도록 종소리를!"

"피곤하면 동료가 대신하게 하시오. 가시오. 쉬지 말고 종소리를!"

이는 폴이 프랑스 대위와 미리 약속했던 신호였다. 작전의 성공과 진격의 필요성을 부대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두 시였다.

다섯 시가 되면 참모부와 한 개 연대가 코르비니를 점령하고, 우리 75밀리 포가 몇 발의 포격을 가할 예정이었다.

저녁 열 시가 되자, 나머지 부대들이 합류했다. 독일군은 그랑조나와 땡조나에서 쫓겨나 국경 앞쪽으로 몰려들었다.

새벽이 되면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기로 결정했다.

"폴, 내게 말해."

버나르는 저녁 소집 후 형부인 폴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정말 궁금한 거야. 아주 수상한 일이라니, 네가 직접 판단해 봐라."

"방금 전, 교회 근처 작은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다가왔어. 처음엔 어둠이 짙어서 얼굴이나 옷차림이 잘 안 보였지. 하지만 구두 소리가 들리길래 농부 여인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농부 여인치고는 좀 의외였어."

"'친구, 혹시 나에게 정보를 줄 수 있을까?'"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자, 그녀는 이렇게 시작했다."

"이제야 알겠네요. 저는 이 근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어요. 방금 전, 당신의 군단이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왔어요. 그 군단에

속한 군인을 만나고 싶어서요. 하지만 그의 연대 번호는 모르겠어요. 네, 군단 편성이 바뀌면서…… 그의 편지가 안 오는 건지도 몰라요. 제 편지는 당연히 받지 못했을 거고…… 혹시 그분을 아시나요? 정말 착하고 용감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대답했다.

"운이 따라줄 수도 있겠네요, 마담. 그 군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들로즈입니다. 하사관 폴 들로즈."

폴이 놀라며 외쳤다.

"뭐?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단 말인가?"

"바로 당신 문제였어요, 폴. 그 우연이 너무 기묘해서, 저는 우리 사이를 밝히지 않은 채 당신의 연대와 중대 번호만 알려줬죠."

"아, 그렇군요." 그녀가 말했다. "그 연대가 코르비니에 있나요?"

"네, 방금 전부터요."

"그리고 당신도 그 사람을 아시나요? 폴 델로즈?"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정작 내가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그리고 이후로 놀라움을 숨기며 대화를 이어갔는지 나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가 중사로 진급했고, 훈령에도 올랐대요. 그래서 그 이름을 들었어요. 제가 알아봐서 만나주실래요?"

"아직은 안 돼요." 그녀가 말했다. "아직은요.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요."

"감정이 과잉이었나? 그건 점점 더 의심스러워 보였지. 너를 그토록 간절히 찾고, 너를 만나려는 순간을 미루던 그 여자를 말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분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매우요.'

'그분은 당신의 가족일까요, 아니면?'

'내 아들이오.'

'당신의 아들?'

물론 그 순간까지 그녀는 내가 그녀를 심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경악은 너무 컸습니다. 그녀는 방어 태세를 갖추려는 듯 그림자 속으로 물러서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항상 휴대하던 작은 전등불을 꺼내 들었다. 스프링을 누르며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고, 그녀 쪽으로 다가가려 했다.

그런 내 기색을 그녀는 당황했다. 몇 초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머리를 가리던 스카프를 뒤집어쓰고는, 예상치 못한 힘으로 내 팔을 내리쳤다. 나는 전등불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리고 즉시, 그리고 완전히 고요해졌다.

그녀는 어디에 있었을까? 내 앞이었나? 오른쪽이었나? 왼쪽이었나? 어떻게 해서든 그녀의 존재나 도망친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을까?

전등불을 다시 찾아 켜고 보니, 땅바닥에 그녀가 도망치기 위해 벗어둔 두 짝의 나무신이 놓여 있었다. 그제야 그 의문이 풀렸다.

그 후로 나는 그녀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헛수고였다. 그녀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폴은 매형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깊은 관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가 물었다.

"그래, 그 여자의 얼굴을 똑똑히 봤다는 거야?"

"물론이지. 아주 또렷하게 봤어. 기개가 느껴지는 얼굴이었지. 검은 눈썹에 검은 머리, 그리고 악의가 서려 있는 표정이었어. 옷차림은 농부의 여인 같았지만, 너무 깨끗하고 치장한 느낌이 들어. 속이 드러난 가식적인 옷차림이었지."

"대략 나이는?"

"사십 살쯤."

"다시 보면 알아볼 수 있겠어?"

"물론이지. 망설임 없이 알아볼 수 있어."

"네가 스카프 이야기를 했잖아. 무슨 색이었지?"

"검은색이었어."

"어떻게 매었어? 매듭으로?"

"아니, 핀으로 고정했지."

"카메오 핀?"

"그래. 금 테두리가 두른 큰 카메오 핀이었어. 어떻게 그걸 알아?"

폴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러곤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내일 오르네캉 성의 한 방에서, 네게 다가온 여자와 놀라울 정도로 닮은 초상화를 보여줄게. 아마 두 사람은 자매일 거야… 아니면…"

그는 팔을 잡아당겨 동서와 함께 방으로 향했다.

"들으시오, 베르나르. 우리 주변에는,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놀라울 정도로 무서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제 삶과 엘리자베트의 삶, 그리고 결국 당신의 삶까지도 짓누르고 있죠.

어둠이 짙게 깔린 가운데, 저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없는 적들이 스무 해째 저를 쫓아다니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이 싸움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제 아버지는 살해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게 화살이 향하고 있죠. 당신의 자매와 저의 인연은 끊어졌고, 다시는 서로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당신과 저 사이에도, 우리가 기대했던 우정과 신뢰는 다시는 찾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베르나르,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더 이상 알고자 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리고 저는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왜 제가 침묵을 요구하는지 알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새벽이 밝자 피리 소리에 깨어난 폴 델로즈였다. 곧이어 포격이 시작되자, 그는 즉시 그 소리를 구별해 냈다. 짧고 날카로운 프랑스제 75mm 포의 목소리와, 거칠게 짖어대는 독일제 77mm 포의 울림이었다.

"폴, 올래?" 베르나드가 불렀다. "아래층에서 커피 나왔어."

두 사위는 와인 상점 위층에 방 두 개를 얻어 묵고 있었다. 든든한 아침 식사를 하며 폴은 어제 밤에 얻어온 정보를 털어놓았다. 코르비니와 오르네퀴가 점령되었다는 내용이었다.

8월 19일 수요일, 코르비니 사람들은 큰 안도감 속에 전쟁의 참혹함이 자신들을 피해 지나갈 것이라고 믿었다. 알자스와 낭시 앞에서는 치

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벨기에에서도 전쟁이 한창이었다. 하지만 독일군의 주력 공격은 침략로로 명명된 리제론 계곡 쪽을 우회하고 있었다. 비록 그 길은 좁았고 겉보기에 전략적 가치가 낮아 보였지만 말이다.

코르비니에서는 프랑스군 한 부대가 적극적으로 방어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그랑 조나와 푸티 조나 요새는 콘크리트 돔 아래에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저 기다릴 뿐이었다.

"오르네캥은요?" 베르나르가 물었다.

"오르네캥에는 보병 사냥꾼 연대 한 개 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장교들은 성에 머물렀죠. 그 대대는 용기병 한 개 분대의 지원을 받으며 국경선을 따라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순찰을 돌았습니다."

만약 경보가 울리면, 지시는 바로 요새에 알리고 저항하며 퇴각하라는 것이었다.

수요일 밤은 완전히 고요했다. 독일의 작은 도시 에브르쿠르가 시야에 들어올 때까지 국경 너머로 드래곤 기병대 열두 마리가 질주했다. 하지만 그쪽에서는 군대의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에브르쿠르로 이어지는 철도 라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밤은 평화로웠다. 총성 하나 들리지 않았다.

자정 이후 두 시가 되어서야 독일 병사 한 명도 국경을 넘지 않았음이 입증되었다. 그런데 정확히 두 시에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그 뒤로 매우 짧은 간격을 두고 네 번의 폭발이 더 이어졌다.

이 다섯 번의 폭발은 420밀리미터 포탄 다섯 발이 터진 결과였다. 포탄은 단번에 그랑 조나스의 돔 세 개와 딸티 조나스의 돔 두 개를 파괴했다.

"뭐라고? 코르비니는 국경에서 24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데, 420밀리미터 포탄은 그 정도 거리까지 날아가지 못해!"

"그래도 코르비니에는 거대한 포탄 여섯 발이 떨어졌어. 모두 교회와 광장 한가운데로."

"그 포탄들은 경보가 울린 지 20분 뒤, 즉 코르비니 주둔군이 광장에 집결했을 때 떨어졌지. 실제로도 그랬고,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거야."

"좋아, 인정할게. 하지만 국경이 24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아. 그 정도 거리라면 우리 군대가 재편성하고 포격을 예고한 공격에 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거야. 적어도 세 시간에서 네 시간은 더 있었지."

"십 분도 채 안 됐어요. 포격이 끝나기도 전에 공격이 시작됐죠. 공격? 아니에요. 코르비니 부대나 두 요새에서 달려온 부대나, 우리 군대는 이미 반쯤 궤멸되고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저항의 흔적조차 남기기 전에 적들에게 포위당해 학살당하거나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설치했는지 알 수 없는 투광등이 눈부신 빛을 쏟아냈을 때였죠. 그리고 결과는 즉각적이었

습니다. 열 분도 채 안 되어 코르비니는 적에게 점령당하고, 공격당하고, 완전히 장악당했습니다."

"그런데 적들은 어디서 왔나요? 어디에서 나타나던가요?"

"모릅니다."

"그럼 국경의 야간 순찰대는요? 감시초소는요? 오르네캉 성에 주둔했던 중대는요?"

"아무것도 없어. 소식 하나 없었지. 경계와 보고를 맡았던 그 삼백 명의 병사들 중에는, 절대, 절대 소식이 없었어. 이해가 가? 코르비니 요새의 병력을 다시 채우려면, 도망친 병사들이나 주민들이 확인해 묻은 시신들 중 하나를 쓰면 돼. 하지만 오르네캉의 사병 삼백 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도망친 자도, 부상당한 자도, 시신도 없었어. 아무것도."

"믿을 수 없군. 너는 조사했나?"

"어제 밤 열 명. 한 달 동안, 코르비니 경을 지키는 몇몇 지상군 병사들조차 방해가 되지 못한 채, 이 모든 쟁점들을 치밀하게 조사해 온 열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설득력 있는 가설 하나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이 사건이 오랜 기간, 세세한 부분까지 준비되었다는 점입니다. 요새와 돔, 교회, 광장이 정확히 정찰되었고, 공성

포들이 미리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포수는 열한 발의 포탄이 열한 가지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하도록 조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미스터리입니다."

"오르네캉 성은요? 그리고 엘리자베트는?"

파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팔수가 아침 소집을 알리는 신호를 불었다. 대포 소리는 더욱 격렬해졌다. 두 사람은 광장을 향해 걸었다. 파울이 말을 이었다.

"여기서도 신비는 놀라울 지경입니다. 오히려 더하죠. 코르비니와 오르네킨 사이 평원을 가로지르는 한 도로가 적에게 경계선으로 지정됐습니다. 이곳 누구도 그선을 넘으면 사형에 처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때문이군요?" 베르나르가 말했다.

"모르겠소. 더 이상 아는 게 없소. 죽음을 암시하는 그 그림자가 모든 사물과 사건 위에 드리워지는 게 무섭기만 하오. 소문으로는——그 출처를 확인할 길이 없어서 믿지는 못하겠지만——성채 근처에 있는 오르네킨 마을이 아예 사라졌다고 하오. 마을 전체가 완전히 파괴됐을 뿐만 아니라, 아예 존재 자체가 지워졌다고. 주민 사백 명이 모두 포로로 끌려갔다고."

파울이 목소리를 낮추며 떨리는 입으로 이어서 말했다.

"그렇다면 성채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성채는 여전히 눈에 들어오오. 멀리서 그 작은 탑들과 벽을 볼 수 있소. 하지만 그 벽 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엘리자베트는 어떻게 되었을까?"

"대략 네 주가 다 되어가는데, 그녀는 그 무리들 한가운데서 혼자 지내고 있소. 모든 모욕과 폭력에 노출된 채로. 불쌍한 아이 말이오…"

해가 막 뜨려 할 때 그들은 광장에 도착했다. 파울은 대령의 호출을 받아, 사단장을 비롯한 장성들로부터 뜨거운 축하를 전했다는 말을 들었다. 또한 중위 진급과 훈장 수여가 제안되었으며, 이미 소대장의 지휘권을 맡게 되었다는 통보도 받았다.

"그게 다입니다." 대령이 웃으며 덧붙였다. "혹시 다른 소원이 있으십니까?"

"두 가지 있습니다, 대령."

"말해 보시오."

"첫째, 지금 함께 있는 내 처남 베르나르 드앙드빌을 제 소대에 하사로 배치해 주십시오. 그는 그 자격이 충분합니다."

"좋소. 그리고 둘째는?"

"둘째는, 지금 우리가 국경 쪽으로 이동할 때 제 소대를 도로변에 있는 오르네캉 성으로 보내 주십시오."

"공격 대상이 바로 성 itself라는 뜻인가?"

"공격 대상이요?" 폴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적군은 성에서 여섯 킬로미터 떨어진 국경선을 따라 집결해 있소."

"어제까지만 해도 그랬지. 하지만 실제로는 적군이 오르네캉 성에 집결했어. 그곳은 방어에 아주 유리한 위치라, 적군은 증원군이 올 때까지 절망적으로 버티고 있는 거야."

"그걸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적의 반격이야. 저기, 오른쪽 저쪽을 봐. 저 포탄이 터지는 거… 그리고 더 멀리서 쉐프넬이 두 개, 세 개가 터지는 걸 볼 수 있지? 바로 저 적들이 우리가 고지에 설치한 포대를 찾아냈고, 성심껏 쏘아대는 거야. 적군은 대략 포대 스무 개를 거느리고 있을 거야."

"그럼, 우리 포병대의 사격은……"

파울은 끔찍한 생각에 사로잡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당연히 그들을 향하고 있지요."

장교가 차갑게 대답했다. "우리 75밀리 포가 오르네캉 성을 한 시간째 쏘아대고 있단 말입니다."

파울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령? 오르네캉 성이 포격당하고 있다니요?"

그 곁에 있던 베르나르 드앙드빌도 안도 섞인 목소리로 되물었다.

"포격을 당했다니, 정말일까요?"

의외라는 듯 장교가 물었다.

"그 성을 아십니까? 혹시 당신 소유입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여전히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신다구요?"

"제 아내가 있습니다, 대령."

파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감정을 억누르려 몸짓을 굳게 가다듬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턱은 경련처럼 움직였다.

그랑조나스 섬 위에서는 리마요 중포 세 문이 트랙터에 의해 끌려 올라가 포성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75미리 포가 끈질기게 이어온 공격에 그 포격까지 더해지자, 폴 델로즈의 발언 이후 그 의미는 더욱 참혹해졌다.

대령과 그 주변에는 그 면담에 동석했던 장교들이 있었지만, 모두 침묵을 지켰다. 전쟁의 운명이 비극적인 공포로 분출하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자연의 힘보다도 더 강대했고, 자연처럼 맹목적이고 불공평하며 용서하지 않는 것이었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사람들 중 그 누구도 포격의 중단이나 강도 약화를 위해 간청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폴 역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가 속삭였다.

"적의 포화가 약해지는 것 같군. 아마 후퇴 중일지도 몰라."

그런 희망도 잠시. 교회 뒤쪽, 마을 아래에서 세 발의 포탄이 터졌다.

대장은 고개를 저었다.

"후퇴? 아직은 아니지. 그들에게 이 요새는 너무 중요해. 증원을 기다리는 거야. 우리 연대가 합류할 때까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순간은 멀지 않았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장에게 진격 명령이 전달되었다. 연대는 도로를 따라 진격해 우측 평원으로 전개할 예정이었다.

"갑시다, 여러분." 대장이 부하 장교들에게 말했다. "델로제 하사의 분대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하사, 진격 방향은 오르네캉 성으로 정합니다. 두 군데의 지름길이 있으니, 그곳을 이용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대령."

폴의 모든 고통과 분노가 거대한 행동 욕구로 타올랐다. 그는 부하들과 함께 길을 나서며 끝없는 힘을 느꼈다. 혼자서도 적의 진지를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

그는 목동이 양떼를 몰듯이 피로할 줄 모르는 속도로 부하들 사이를 누볐다. 조언과 격려를 마다하지 않았다.

"자네, 내 친구, 자네는 건장한 놈이야. 잘 알아. 자네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자네도 마찬가지야. 다만 자네는 자기 목만 너무 걱정해서 투덜거리고 있어. 그런데 지금은 장난치듯 가볍게 놀아야 해. 아이들아, 재밌게 놀자, 그렇지? 한 방 먹일 때가 왔어. 뒤돌아보지 말고 전격적으로 밀고 들어가자, 알겠지?"

그 위를 포탄들이 하늘을 가르고 지나갔다. 휘파람 소리, 비명, 폭발음. 총알과 철조각들이 마치 천장처럼 그들을 덮었다.

"고개 숙여! 누워!"

파울이 소리쳤다.

그는 여전히 서 있었다. 적의 포탄에는 무관심한 듯했다. 하지만 우리 편 포탄이 날아오는 소리를 들을 때면, 그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후방과 주변 언덕에서 쏘아 올려져, 전방으로 파괴와 죽음을 안겨 가는 포탄들이었다. 저 포탄은 어디에 떨어질까. 저 포탄은 어디서 죽음을 뿌리는 총알과 파편을 흩뜨릴까.

그는 여러 차례 중얼거렸다.

"엘리자베트! 엘리자베트!"

그의 머릿속은 부상당해 죽어가던 아내의 모습으로 가득 찼다. 이미 며칠째, 아니 그날 이후로 계속였다. 엘리자베트가 오르네캉 성을 떠

나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부터였다. 이제 그는 그녀를 생각할 때 더 이상 반발이나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끔찍했던 과거의 기억과 사랑의 아름다운 현실을 섞지 않았다. 어머니에 대한 혐오스러운 기억이 떠올라도, 딸의 이미지는 그의 마음속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무관한, 완전히 다른 종족의 존재들이었다.

엘리자베트는 용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높은 가치라고 믿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파울에게 그녀는 특별한 고귀함을 지닌 여성으로 보였다. 그녀는 그가 사랑하고 아끼던 여인이었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여인이었다.

폴은 발을 멈췄다. 그는 병사들과 함께 적의 기관총 사격이 집중되는, 더 넓고 노출된 지형으로 들어선 것이었다. 몇몇 병사들이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

"멈춰! 모두 엎드려!"

그가 명령했다.

그는 버나드를 잡아끌었다.

"어서 엎드려, 아이야! 왜 불필요하게 몸을 노출시키지? 거기 그대로 있어… 움직이지 마…"

그는 친근한 제스처로 버나드를 땅에 눌러 앉혔다. 버나드의 목을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마치 사랑하는 엘리자베트를 향한 깊은 정서를 형제에게도 전하고 싶은 듯했다.

그는 전날 밤 버나드에게 내뱉었던 날카로운 말들을 잊고 있었다. 대신 전혀 다른, 자신의 사랑을 부정했던 따뜻한 애정을 담은 말들을 쏟아냈다.

"가만 있어, 아이야. 볼 수 있나? 너를 데리고 이 지옥 같은 불바다로 끌고 온 게 내 잘못이었어. 네가 내 책임이라는 걸 알잖아. 그러니…… 너는 다치지 않았으면 해."

불기운이 조금 잦아들었다. 남자들은 기어 다니며 두 줄로 늘어서 있는 포플러나무에 다다랐다. 그들은 나무 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고, 그 길은 완만한 경사로 이어져 오목한 도로가 있는 언덕 꼭대기로 이어졌다.

폴은 흙둑을 기어 올랐다. 오르네캉 평원을 내려다보니, 멀리서 마을의 폐허가 보였다. 무너진 교회당, 그리고 더 왼쪽으로는 돌과 나무 더미 사이로 벽면 일부가 드러난 폐허가 있었다. 그곳이 바로 성이었다.

주변은 온통 농가, 곡식 더미, 창고들이 불타고 있었다.

후방에서는 프랑스 군대 각지로 흩어지고 있었다. 한 포대 근처 숲 그늘에 자리 잡은 뒤 멈추지 않고 사격을 가하고 있었다. 파울은 저 멀리 성곽 위와 폐허 사이로 포탄이 터지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 광경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는 다시 자신의 분대 선두에 서서 달리기 시작했다. 적의 대포 소리는 멈췄다. 아마도 침묵을 강요당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오르네캥에서 삼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다다랐을 때, 총알이 그들을 스쳐 지나갔다. 파울은 멀리서 오르네캥으로 퇴각하면서도 사격을 가하는 독일군 한 부대를 발견했다.

75미리 포와 리마유포는 여전히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참으로 끔찍한 상황이었다.

파울은 버나드의 팔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내게 불행이 닥친다면, 엘리자베스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전해주게. 내가 그녀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정말로 용서를 구한다고…"

그는 갑자기 운명이 아내와 다시 만나게 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리고 자신이 아내에게 용서할 수 없는 잔인함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내를 죄인처럼 내몰아, 저지르지 않은 죄를 뒤집어씌우고는 모든 궁핍과 고통에 내버려둔 것이다.

그는 빠르게 걸었다. 뒤에서는 병사들이 멀리서 그를 따랐다.

하지만 지름길이 도로로 이어지는 곳, 리제롱이 보이는 곳에서 한 자전거 탄 사람이 그를 따라잡았다. 대령은 부대가 여단 전체의 공격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것이 가장 혹독한 시련이었다.

폴은 점점 고조되는 열정에 사로잡혀, 열과 분노로 몸이 떨리고 있었다.

"자, 폴, 자네 너무 격앙되지 말게. 우리는 제시간에 도착할 거야." 베르나르가 말했다.

"제시간에요? 무슨 목적으로요? 그녀가 죽거나 다친 채로 발견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아예 발견조차 못 하게요? 그리고 어쨌든요, 우리 저주할 대포들은 조용할 수가 없나요? 적군이 아무런 반격도 하지 않는데도 지금 그 대포들은 무엇을 폭격하고 있는 거죠? 시체들뿐이죠. 무너진 집들뿐이라고요."

"독군의 후방을 덮고 있는 우리 후위부대는요?"

"글쎄, 우리가 여기 있지 않소? 보병들이 말이지. 우리 임무야. 정찰병들을 배치하고, 총검으로 한 번 치고 올라가면 돼."

드디어 부대가 재출발했다. 제3중대 나머지 병력이 합류했고, 대위가 지휘를 맡았다. 기수대 한 부대가 말소리를 높이며 마을 쪽으로 달렸다. 도망치는 자들을 막기 위해서였다. 중대는 성을 향해 방향을 틀었다.

정면에는 죽음을 부르는 적막이 깔려 있었다. 혹시 함정이었을까? 적군이 요새처럼 단단히 진을 치고 성문을 막고, 최후의 항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 안뜰로 이어지는 옛 도토리나무 길에는 수상한 기색이 없었다. 그림자 하나, 소리 하나 없었다.

파울과 베르나르가 여전히 선두에 섰다. 총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린 채, 그들은 숲속 어스런 빛을 날카롭게 훑어냈다. 바로 옆에 있는 담장 너머로는, 거대한 구멍이 난 채 무너져 가고 있는 성벽 위로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끔찍한 신음소리가 그들의 귀를 찢었다. 독일군 부상자들이었다.

그때 갑자기 땅이 울렸다. 마치 지구의 내부에서 거대한 재앙이 일어나 지각을 갈라놓은 듯했다. 벽 너머에서는 쩌렁쩌렁한 폭발음이 터져 나왔다. 한 번이 아니었다. 연이은 폭음이었다. 마치 천둥이 연속으로 치는 듯했다. 모래와 먼지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고, 그 속에서 온갖 파편과 잔해들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다. 적이 성을 폭파한 것이었다.

"이건 분명히 우리를 노린 거야." 베르나르가 말했다. "우리도 함께 날아갈 예정이었지. 계산이 잘못됐나 보다."

그들이 철문을 지나자, 황폐해진 마당과 뚫린 작은 탑, 무너진 성채, 불타는 부속 건물들,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부상자들, 쌓인 시체들이 그들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그 광경에 그들은 놀라 뒤로 물러서려 했다.

"앞으로! 앞으로!"

말을 몰아 달려오는 대령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군대들이 숲을 가로질러 빠져나갔을 거야."

폴은 몇 주 전, 비극적인 상황에서 이 길을 걸었던 기억이 있었다. 그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돌덩이와 뿌리째 뽑힌 나무들 사이를 달렸다. 하지만 작은 별장이 숲 입구에 서 있는 곳을 지나려다 그는 발이 땅에 박힌 듯 멈춰 섰다. 베르나르와 다른 병사들도 그 모습을 보고 경악하며 꼼짝도 못했다.

이 정자의 벽에는 두 시체가 서 있었다. 같은 사슬로 허리를 감아 벽의 고리에 묶인 채였다. 시신은 사슬 위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팔은 땅까지 늘어져 있었다.

남자와 여자의 시체였다. 폴이 제롬과 로잘리를 알아봤다.

총살당한 것이었다.

그들 옆으로 사슬이 이어졌다. 벽에는 세 번째 고리가 박혀 있었다. 석고에는 피가 얼룩져 있었고, 총알 자국도 뚜렷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세 번째 희생자가 있었지만, 시체는 이미 사라졌다.

파울이 가까이 다가가자, 석고 벽면 깊숙이 박힌 포탄 파편이 눈에 들어왔다. 구멍 가장자리, 석고와 파편 사이로 금빛 빛깔을 띤 금발 몇 가닥이 보였다. 바로 엘리자베트의 머리에서 뽑힌 머리카락이었다.

절망과 공포보다 더 강렬하게, 파울은 즉각적인 복수심을 느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아야 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공원에서 죽어가는 부상자 전원이 그 끔찍한 살인의 죄인인 양 보였다.

"비겁한 자들! 살인자들!"

"정말 그래? …" 베르나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엘리자베트의 머리카락이 맞는지, 정말 확신해?"

"물론이지. 저놈들도 저 두 명처럼 총살했어. 둘 다 알아. 경비병과 그 아내야. 불쌍한 것들아…"

폴이 풀 위에 기어 다니는 독일 병사의 머리를 향해 총검 손잡이를 들어 올렸다. 곧바로 내려치려던 순간, 그의 대령이 다가왔다.

"어떻게 된 일이야, 델로즈? 네 중대는?"

"아, 대령님, 그걸 아셨으면…"

폴이 상관을 향해 돌진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고, 총을 휘두르며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저들이 죽였어요, 대령님. 네, 제 아내를 총살했어요. 저 벽 옆에, 그녀를 모시던 두 사람과 함께요. 저들이 쏴 죽였어요. 스무 살이던 아이였어요, 대령님. 저놈들을 개처럼 다 죽여야 해요…"

하지만 베르나르가 이미 그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폴. 싸우는 자들을 상대로 복수합시다. 저쪽에서 총성이 들리네요. 포위당한 병력들이 있을 겁니다."

폴은 자신의 행위가 무엇인지 거의 의식하지 못했다. 분노와 고통에 취한 그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십 분 후, 그는 자신의 중대에 합류했다. 그리고 작은 예배당을 눈앞에 두고, 아버지가 칼에 찔린 교차로를 지나쳤다. 조금 더 앞서, 예전에 작은 문이 있던 벽 자리에는 넓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성채로 향하는 보급 물자가 드나들기 위해 뚫린 자리였다.

여기서 800미터 떨어진 평야, 길과 주요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서는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도망자들은 몇십 명에 달했다. 그들은 뒤따라온 후사르들 사이를 비집고 빠져나가려 애썼다.

파울의 소대가 뒤에서 습격하자, 그들은 나무와 덤불이 무성한 한곳으로 피신해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맹렬한 저항을 펼쳤다.

한 명씩 쓰러져 가면서도,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왜 저항하는 거지?" 파울이 중얼거렸다. 그는 쉬지 않고 총을 쐈지만, 격렬한 전투의 열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시간을 벌려는 것 같아."

"봐." 베르나르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어딘지 흔들리고 있었다.

나무 아래, 국경 쪽에서 독일군으로 가득 찬 자동차가 모습을 드러냈다. 병력 지원인가? 아니었다.

자동차는 제자리에서 거의 회전하듯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작은 숲의 마지막 전투원들과 차 사이에는 회색 긴 코트를 입은 한 장교가 서 있었다. 그는 손에 권총을 쥔 채 저항을 독려하면서도, 자신을 구하러 온 차 쪽으로 후퇴하고 있었다.

"보아, 폴, 보라고." 베르나드가 거듭 말했다.

폴은 깜짝 놀랐다. 베르나드가 자신의 주의를 끌었던 그 장교는…… 아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폴이 물었다.

"무슨 뜻이야, 베르나드?"

"같은 얼굴이야." 베르나드가 속삭였다. "어제 그 얼굴, 알지, 폴. 어젯밤 너에 대해 나에게 질문하던 그 여자의 얼굴이잖아, 폴."

파울은 망설임 없이 그 정체를 알아챘다. 공원의 작은 문 근처에서 자신을 죽이려던 그 수수께끼의 인물. 아버지를 죽인 여인, 초상화의 여인, 에르미느 당드빌, 그리고 엘리자베스와 베르나드의 어머니와 너무나도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베르나드는 소총을 어깨에 메고 조준했다.

"아니, 쏘지 마!"

파울은 그 행동에 놀라 소리쳤다.

"왜?"

"살려서 붙잡자고."

그는 분노에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이미 그 오프시어는 차까지 달려갔다. 독일군 병사들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를 차 안으로 끌어올렸다.

파울은 총을 쐈다. 핸들을 잡은 병사를 명중시켰다.

오프시어는 차가 나무에 부딪히려는 순간 핸들을 잡았다. 그는 차를 바로 세웠다. 그리고 뛰어난 운전 솜씨로 장애물 사이를 빠져나갔다. 차는 지형의 굴곡 뒤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국경 쪽으로 향했다.

그는 구원받았다.

총알이 닿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자, 아직 싸우던 적군들도 즉시 항복했다.

폴은 할 수 없는 분노로 몸이 떨렸다. 그에게 그 존재는 모든 형태의 악 그 자체였다.

그토록 길고도 끔찍한 비극의 첫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살인, 간첩, 테러, 배신, 총격전이 같은 방향, 같은 정신으로 이어지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동안, 그는 범죄의 영혼처럼 보였다.

폴의 증오를 가라앉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존재의 죽음뿐이었다. 그는 의심의 여지 없이, 바로 그 괴물이 엘리자베트를 총살하게 했다고 믿었다.

아, 그 비열함이여! 엘리자베트가 총에 맞았다는 그 지옥 같은 광경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저자는 누구인가? 어떻게 그 정체를 알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에게 다가가 고문하고 목을 베어 죽일 수 있단 말인가?"

"감옥의 죄인 중 한 명을 심문해 보시오." 베르나르가 말했다.

대위의 명령에 따라, 더 이상 진군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대위는 중대가 여단 본부와 연락을 유지하며 후퇴했다. 폴은 자신의 분대를 이끌고 성을 점령하며 포로들을 인도할 임무를 특별히 부여받았다.

도중, 폴은 두세 명의 지휘관과 몇몇 병사들에게 서둘러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그들은 코르비니에서 전날 도착해 성에서 하룻밤을 묵고 지나간 것에 불과했다. 그래서 얻은 정보는 매우 모호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그들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회색 긴 코트를 입은 장교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를 그저 '소령'이라고만 불렀을 뿐이었다.

"하지만…… 하지만, 폴은 고집스럽게 물었다. 그 장교는 당신의 직접적인 지휘관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속한 후방 부대 지휘관은 오버레우트나트라는 계급의 장교였는데, 탈출 중 지뢰 폭발로 다쳤습니다. 우리는 그를 데려가려 했죠. 하지만 대위가 극렬하게 반대했고, 권총을 꺼내들고는 우리 모두를 앞세워 행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신을 버리는 자가 있으면 즉결 처형하겠다고 위협하며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전투가 벌어졌을 때요? 그는 우리보다 열 발짝 뒤에서 권총을 겨누며 우리를 방어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 총탄에 우리 세 명이 죽었습니다."

"그는 자동차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었군요?"

"네, 그리고 우리를 모두 구해 줄 증원군도 올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온 것은 자동차 하나뿐이었고, 그것은 오직 그 장교 한 명만 구해 주었을 뿐입니다."

"오버릴트nants가 그 이름을 알고 있겠지? 부상 상태는 어떤가?"

"오버릴트nants? 다리가 부러졌소. 공원의 별장 하나에 누워 있다."

"총살을 당했던 그 별장 말인가?"

그들은 마침 그 별장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겨울이면 식물들을 안으로 들여보내던, 작은 온실 같은 곳이었다. 로잘리와 제롬의 시체는 이미 치워진 뒤였다. 하지만 처참한 사슬은 여전히 벽을 따라 매달려 있었고, 세 개의 철환에 고정된 채였다.

파울은 오한이 일 듯이 떨며 총알 자국을 다시 보았다. 그리고 벽 plaster에 끼어 있던 엘리자베트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있던 작은 포탄 파편을 발견했다.

프랑스 포탄이었다. 이 사실은 이미 끔찍했던 살인의 참혹함에 또 다른 공포를 더했다.

그렇구나. 어제 밤, 내가 자동차를 나포하고 코르비니까지 감행한 과감한 기습으로 프랑스군의 진격로를 열어주었으니, 그 일이 바로 아내의 죽음을 부른 사건이었다.

적은 내가 물러난 것을 빌미로 성채 주민들을 총살한 것이다.

엘리자베트는 벽에 붙어 사슬에 묶인 채 총알을 맞았다.

그리고 끔찍한 아이러니도 있었다. 그녀의 시체는 이미 밤이 깊기 전, 코르비니 인근 언덕에서 프랑스 대포가 쏘아 올린 첫 포탄들의 파편을 그대로 받아냈던 것이다.

폴은 포탄 파편을 들어 올리고, 그 위에 달린 금고리를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그는 그것을 소중히 챙겨 넣은 뒤, 버나드와 함께 작은 별채 안으로 들어섰다. 안에는 이미 간호사들이 임시 구급대를 차려놓은 상태였다.

베드에서는 오버뢰트난트가 짚단 위에 누워 있었다. 그는 꼼꼼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안정되어 있었다.

한 가지 사안이 매우 명확하게 드러났다. 오르네캉 성에 주둔했던 독일군과, 전날 코르비니와 인접 요새 앞에서 철수했던 부대 사이에는 사실상 아무런 접촉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마치 성 점령 기간 중 벌어진 일에 대한 누설을 막기라도 하듯, 전투 부대가 도착하는 즉시 주둔군은 즉시 철수했다.

"그때였습니다." 오버레우트남트가 말했다. 그는 그 후퇴 부대 중 하나에 속해 있었다.

"저녁 일곱 시가 되자, 우리 75mm 포는 이미 성채를 포착하고 있었다. 남은 건 장군들과 고위 장교들 몇몇뿐이었다. 그들의 짐마차들은 이미 떠났고, 자동차들도 시동을 걸고 대기 중이었다.

저는 최대한 오래 버티다가 성채를 폭파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미 대위가 모든 준비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 대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는 젊은 장교 한 명과 함께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장군들조차 존경하는 태도로 대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 젊은 장교가 저를 불러내어, 대위의 명령을 황제에게 복종하듯 따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젊은 장교는 누구였습니까?"

"콘라드 공작이었습니다."

"카이저의 아들 중 한 명입니까?"

"네. 어제 저녁 무렵 성을 떠났습니다."

"소장은 여기서 밤을 새웠다는 뜻이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오늘 아침에는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는 광산에 불을 붙이고 떠났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파빌리온 근처, 벽 근처에서 부상을 입었으니까요."

파울은 자신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총살당한 세 프랑스인이 있던 벽 맞은편이오, 그렇지?"

"언제 총살했소?"

"어제 저녁 6시쯤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코르비니에서 도착하기 직전이요."

"누가 총살명령을 내렸소?"

"소장이었습니다."

폴의 이마와 목덜미로 땀방울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그는 틀리지 않았다. 엘리자베트는 이름도 얼굴도 기억하기 싫은 그 인물의 명령으로 총살당했다. 그 인물의 얼굴은 엘리자베트의 어머니인 에르미느 드 랑디빌의 얼굴과 너무나도 흡사해, 오해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폴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럼, 프랑스인 세 명이 총살당했다는 거야? 정말 확실해?"

"네, 성에 살던 사람들이요. 그들은 배신자가 되었죠."

"남자 한 명과 여자 두 명, 맞지?"

"그런데 정자에 묶여 있는 시체는 두 구뿐인데?"

"맞아, 두 구야. 콘라드 공의 명령으로, 대령이 성의 부인을 묻었지."

"대령은 그걸 말해 주지 않았어."

"하지만 아마 그녀가 왜 총살당했는지 당신은 알겠지?"

"그녀가 아주 중요한 비밀을 엿들었다는 거야, 하던데."

"감옥에 가두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

"물론이지. 하지만 콘라드 공작은 이제 그녀를 원치 않았어."

"뭐라고?"

파울은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장교가 미묘한 미소를 띠며 말을 이었다.

"알다시피 그 공작은 누구지. 집안에서 가장 유명한 도니 후안이야. 성에 몇 주 동안 머물면서 그녀를 유혹할 시간도 충분히 있었겠지. 그

리고 결국 지겨워진 거야. 더구나 대령은 그 여자랑 하인 두 명이 공작을 독살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때?"

그는 말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파울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그에게 다가가 목을 조르며 으르렁거렸다.

"한 마디만 더 하면 너를 죽여 버릴 거야. 다친 게 행운이야. 안 그랬으면… 안 그랬으면…"

버나드도 분노한 나머지 파울을 밀쳐냈다.

"그래, 너 정말 운이 좋구나. 그리고 알잖아, 콘라드 공작이라니, 그 녀석은 그냥 돼지일 뿐이야… 내가 직접 그 얼굴을 보고 그 사실을 말해주겠어. 그 돼지는 온 가족이 다 그래, 너희 모두나 마찬가지라고."

그들은 오버료이트nants를 완전히 당황시킨 채 그 자리를 떴다. 그는 갑자기 터져 나온 그 분노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밖으로 나온 파울은 절망에 사로잡혔다. 긴장하던 신경이 풀리자, 그의 분노와 증오는 끝없는 무기력함으로 변해버렸다. 그는 눈물을 겨우 참으며 서 있었다.

"자, 파울, 그러지 마." 베르나르가 외쳤다. "그 말 한 마디도 믿지 마."

"아니, 천번이라도 아니라고!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가는 갑니다. 그 무식한 병사 같은 왕자가 엘리자베스 앞에서 멋을 부리려다,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이용해 먹은 거죠. 생각해보세요. 혼자서 아무런 방어 수단도 없는 여자, 정복하기 딱 좋은 상대였겠지요. 불쌍한 여자가 얼마나 고초를 겪었을까요? 얼마나 모욕을 당했을까요? 매일매일의 투쟁, 협박, 잔혹함…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녀의 저항에 대한 벌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죠."

"저를 위해 갇혀 있었어요, 폴." 베르나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반드시 복수할 거예요."

"물론이지. 하지만 내가 그녀를 이곳에 머물게 했다는 사실, 내 잘못으로 인해 그녀가 이곳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영원히 잊을 수 있을까? 나중에 내가 설명할게, 그러면 너도 내가 얼마나 가혹하고 불공평했는지 이해할 거야… 그런데도…"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소장의 모습이 그를 괴롭혔고, 그는 다시금 말했다.

"그런데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있군."

오후 내내 프랑스군 부대는 리제론 계곡과 오르네캉 마을을 통해 몰려들어, 적의 재공격을 막아냈다. 파울 소대는 휴식 중이었기에, 그는 베르나르와 함께 성당 터와 성채 잔해 곳곳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엘리자베트의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 알려줄 단서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오후 다섯 시쯤, 그들은 로잘리와 제롬에게 마땅한 장례를 치러주었다. 꽃이 흩뿌려진 작은 언덕 위에는 두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다. 사제

가 와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올렸다. 파울은 충성심 때문에 목숨을 잃은 두 신하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은 감회에 잠겼다.

그에게도 파울은 복수를 다짐했다. 복수에 대한 갈망은 그를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로 몰아세웠다. 그는 그 장교의 혐오스러운 모습을 떠올렸다. 이제 그 이미지는 안드빌 백작부에 대한 기억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되어 있었다.

그는 베르나드를 데리고 나섰다.

"당신, 장교와 코르비니에서 당신을 심문한 가짜 농부 사이에서 무언가 연결고리를 찾았다고 했죠? 그 추리가 틀리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오십시오. 제가 여자 초상화에 대해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보시고 첫인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울은 폭탄과 포격에도 불구하고, 에르민 드랑드빌의 침실과 소파실이 있는 성의 한쪽 구석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어쩌면 그 소파실은 원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계단이 이미 사라졌기에, 그들은 무너진 벽돌을 타고 올라야만 1층에 도달할 수 있었다. 복도는 일부 구간에서만 윤곽이 드러날 뿐이었다. 문들은 모두 뜯겨 나갔고, 방들은 처참한 혼란으로 가득했다.

"여기입니다." 파울이 말했다. 그는 기적적으로 버티고 서 있는 두 벽면 사이의 빈 공간을 가리켰다.

그곳은 확실히 에르미네 당빌의 작은 거실이었다. 벽은 헐어내고 바닥은 조각난 석고와 파편으로 어지럽혀졌지만, 제법 알아볼 만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결혼식 날 밤에 잠깐 본 가구들이 그대로 채워져 있었다.

창문의 닫개는 낮빛을 가렸지만, 완전히 어두운 것은 아니었다. 충분히 밝아 반대편 벽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파울은 곧장 외쳤다.

"초상화가 사라졌어요!"

그에게 이는 큰 실망이었다. 동시에 상대가 이 초상화에 얼마나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지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다. 초상화를 치워버린 것은,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베르나르가 말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일이 제 의견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대령과 농부 여자에 관해 제가 가진 확신은 변함없습니다."

"코르비니는 감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 초상화는 대체 뭐였죠?"

"이미 말했지만, 여자였어."

"어떤 여자였나요? 아버지가 컬렉션에 넣었던 그림 중 하나였나요?"

"바로 그거예요."

폴은 처형의 마음을 돌리려는 듯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커튼 중 하나를 치우고 벽을 살펴봤다. 예전에 그림이 걸려 있던 자리, 그 큰 사각형 자국이 맨 벽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어떤 세부 사항들을 보니, 그림을 가져가는 과정이 매우 급박했던 것 같았다.

예를 들어, 액자에서 뜯겨 나간 장식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다.

폴은 재빨리 그것을 주워 들었다.

남편이 글씨가 새겨진 부분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그가 패널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있을 때, 베르나르가 다른 쪽 커튼도 치워버렸다.

폴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무슨 일이야?" 베르나르가 물었다.

"여기… 보시오… 벽에 적힌 이 서명… 그림이 걸려 있던 자리 바로 그곳에. 서명과 날짜가 있군요."

그것들은 연필로 적힌 것이었다. 두 줄의 글씨가 사람 키 높이의 하얀 벽지를 가로질렀다. 날짜는 1914년 9월 16일 수요일 밤. 서명은 '헤르만 대령'이었다.

헤르만 대령!

폴은 그 사실을 의식하기도 전에, 그 글줄 전체의 의미를 집약해 놓은 듯한 한 가지 디테일에 시선이 고정되었다. 베르나르도 몸을 굽혀 함께 바라보았다. 폴은 끝없는 놀라움을 담아 속삭였다.

"헤르만… 에르민…"

거의 같은 글귀였다!

하르민은 벽에 새겨진 계급 뒤에 붙은 이름이나 성의 첫 글자와 똑같은 글자로 시작했다. '마요르 하르만'! '하르민 백작부인'!

H.E.R.M.

그 네 글자는 그를 죽이려던 단도 칼날에 박혀 있었다. 바로 그 단도였다.

H.E.R.M.

그리고 그는 한 교회 첨탑에서 포로로 잡은 간첩의 단도에도 같은 네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떠올렸다.

버나르가 말했다.

"제 생각엔 이 글씨는 여자의 필체입니다. 하지만 그럼…"

그는 생각에 잠긴 듯 말을 이었다.

"그럼 결론은?"

"어쨌든 어제가 아니라 어제 밤의 그 농부 여자와 마요르 헤르만은 실은 같은 인물일 겁니다. 즉, 그 농부 여자는 남자고, 마요르는 여자인 셈이죠. 아니면…"

"아니면?"

"아니면,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인물, 한 여성과 한 남성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비록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 초자연적인 닮음새가 있더라도 말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같은 인물이 어제 밤 이곳에 서명하고, 프랑스군 진지를 넘어, 농부 여자로 변장해 코르비니에서 저를 만나고, 이튿날 아침 다시 이곳에 마요르 헤르만으로 변장해 돌아와 성을 폭파하고, 도주하고, 몇몇 병사를 죽인 뒤, 자동차로 사라졌다고요?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파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옆방으로 들어섰다. 그 방은 부인 엘리자베스가 살았던 아파트와 작은 거실을 나누는 공간이었다.

아파트는 완전히 무너져 폐허가 돼 있었다. 하지만 중간에 있는 방은 그다지 심하게 손상되지 않았다. 세면대와 어지럽게 널린 시트가 덮인 침대를 보니, 이 방이 지금도 방으로 쓰이고 있으며 전날 밤 누군가 여기서 잤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탁자 위에는 독일어 신문과 프랑스어 신문이 놓여 있었다. 프랑스어 신문은 9월 10일 자였다. 마른 강 전투 승리를 알리는 공보문은 붉은 연필로 두꺼운 선을 그어 지워져 있었고, 옆에는 '거짓! 거짓!'이라는 글씨와 'H.'라는 서명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확실히 헤르만 대령의 집에 왔군." 파울이 버나드에게 말했다.

"마요르 헤르만은 어제 밤에 유혹적인 내용을 담은 서류들을 태워버렸소." 베르나르가 말했다. "벽난로 안에 재가 쌓인 것을 보시오."

그는 몸을 숙여 반쯤 타버린 봉투와 종이를 몇 장 주웠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어지는 문장도, 일관된 내용도 없었다. 그저 단편적인 단어들과 엉킨 문장들뿐이었다.

그런데 운명인지 몰라도, 그의 시선이 침대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침대 시트 아래 숨겨져 있거나, 급히 떠나는 바람에 잊고 둔 옷뭉치를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끌어당기더니마자 외쳤다.

"아, 이건 좀 심하군!"

"무슨 소리야?" 옆에서 방을 뒤지고 있던 폴이 물었다.

"이 옷들…… 농부 여자의 옷이지. 코르비니에서 본 여자가 입었던 바로 그 옷이야. 틀림없어. 저 갈색 빛깔과 거친 모직감은 똑같아. 그리고 아까 말한 그 검은 레이스 스카프도 있잖아."

"뭐라고?"

파울이 달려들며 외쳤다.

"그래, 너도 봐. 이 스카프는 꽤 오래된 거야. 얼마나 낡고 찢어졌는지 봐라. 그리고 여기, 내가 말한 그 브로치가 박혀 있지 않아? 보이니?"

파울은 처음부터 그 브로치를 눈여겨보았다. 얼마나 놀랐던지! 마요르 헤르만의 방, 그리고 에르미네 당드빌의 부두아르 근처에서 의류가 발견된 사실에 이 브로치가 어떤 끔찍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알 수 있었다.

부채를 펼친 백조가 새겨진 카메오. 눈이 루비로 된 금빛 뱀이 이를 감싸고 있었다.

파울은 어릴 적부터 이 카메오를 알고 있었다. 아버지를 죽인 여자의 코르셋에 달려 있는 것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에르미네 백작부의 초상화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 카메오가 여기 있다. 검은 레이스 치마에 꽂혀 있고, 코르비니의 농부 의류와 섞여 있으며, 마요르 헤르만의 방에 잊혀져 있었다.

베르나르가 말했다.

"증거는 이제 확실해. 옷이 여기 있다는 건, 나를 찾아와 당신에 대해 묻던 여자가 오늘 밤 다시 이곳에 돌아왔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그 여자와 그녀의 쌍둥이처럼 닮은 그 장교 사이에는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나를 찾아와 당신 이야기를 묻던 그 여자는, 두 시간 전 엘리자베트를 총살하던 그 사람과 정말 같은 인물일까? 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과연 어떤 살인자들과 스파이들의 무리와 마주친 것인가?"

"독일인들일 뿐이야." 폴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에게는 살인과 간첩이 전쟁의 자연스럽고 허용된 형태야. 그리고 그 전쟁은 그들이 평화가 보장된 시기에 먼저 시작했지. 내가 이미 말했지, 버나르. 그 전쟁 때문에 우리는 거의 20년째 피해자 신세야. 내 아버지가 피살당한 것이 바로 그 비극의 시작이었어. 그리고 지금은 우리 가엾은 엘리자베스를 잃었지.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야."

"하지만 도망쳤잖아." 버나르가 말했다.

"우린 또 만날 거야. 그건 확신해. 만약 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찾아가겠지. 그리고 그 날이 오면……"

방 안에는 의자 두 개가 놓여 있었다. 폴과 베르나르는 그곳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다. 서둘러 복도 벽에 두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

폴은 부하들과 합류해, 아직 남아 있는 마구간과 부속 건물들의 설치를 점검하러 나섰다. 그곳에서 그의 부하병으로 붙어 있던, 게리플루르라는 이름의 정직한 오베르뉴 출신 병사가 다가와 보고했다.

그는 경비원용 별장 근처 작은 집 구석에서 깨끗한 이불 두 벌과 매트리스를 찾아냈다고 했다. 침대 준비는 끝난 셈이었다.

폴은 이를 받아들였다. 게리플루르와 그의 동료 한 명이 성으로 가서, 그 두 의자를 차지하기로 한 것이다.

밤은 경고 없이 흘렀다. 하지만 폴에게는 잠들 수 없는 고통의 밤이었다. 엘리자베트의 기억이 그를 쫓아다녔기 때문이다.

아침이 되자 그는 깊은 잠에 빠졌다. 악몽이 그를 괴롭혔고, 갑자기 알람 시계의 소리가 잠을 깨웠다.

베르나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집은 성의 안뜰에서 이루어졌다. 파울은 자신의 부하 제리플루르와 동료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자고 있는 모양이군. 베르나드, 우리가 깨워주자."

그들은 폐허 사이를 지나 다시 1층으로 올라가는 길을 되짚었다. 허물어진 방들을 지나치며.

마요르 헤르만이 머물렀던 방에서 그들은 침대에 쓰러진 제리플루르를 발견했다. 그는 피투성이로 변해 죽어 있었다. 한쪽 구석의 안락의자에는 그의 동료 역시 이미 죽어 누워 있었다.

시체 주변에는 아무런 혼란도, 싸움의 흔적도 없었다. 두 병사는 잠들었던 사이, 즉 자는 동안에 죽임을 당한 것이 분명했다.

파울은 즉시 그 무기를 발견했다. 나무 손잡이에 H.E.R.M.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단도였다.

연이은 비극적 사건들이 가장 치밀한 인과관계로 연결된 이 연쇄 살인사건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공포와 비참함이 너무도 가득 차 있었다. 두 젊은이는 말도 하지 못했고, 몸도 움직이지 못했다.

전장에서 이미 여러 차례 죽음의 숨결을 느껴본 그들에게, 죽음은 이번만큼이나 음산하고 추악하게 다가왔다.

죽음! 그들은 죽음을 우연히 닥쳐오는 사악한 재앙으로 보지 않았다.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어 적을 엿보고, 적절한 순간을 노려, 뚜렷한 의도로 팔을 내리치는 망자로 여겼다.

그리고 그 망자는 그들에게 바로 헤르만 소령의 모습과 얼굴을 하고 있었다.

파울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둠의 악한 힘을 불러일으키는 듯, 둔탁하고 놀란 듯한 어조를 띠고 있었다.

"그가 오늘 밤에 찾아왔어요. 우리 이름이 벽에 적혀 있었죠. 베르나르 드앙드빌과 폴 델로즈. 그에게 이 이름은 두 적의 이름이었죠. 그는 그 기회를 이용해 그 두 적을 처리하기로 한 거예요. 이 방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랑 당신이라고 확신한 채로, 그는 공격을 가했어요. 그리고 그 공격을 받은 건 바로 불쌍한 제리플루르와 그의 친구였죠. 그들은 우리 대신 죽어간 거예요."

오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그들은 내 아버지가 죽었던 방식과 똑같이 죽었어요. 엘리자베스도 그랬고, 경관과 그의 아내도 그랬죠. 같은 손이, 같은 손이 그 일을 저질렀어요. 알겠어요, 베르나르! 아니,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나의 이성은 그걸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칼을 쥐고 있는 손은 바로 그 손이에요. 옛날의 칼이든, 지금의 칼이든."

베르나르가 총을 살폈다. 그리고 네 글자를 본 그가 말했다.

"하르만, 맞지? 하르만 대위?"

"네, 맞습니다." 폴이 재촉하듯 대답했다. "그가 진짜 이름이 뭐고, 정체가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범죄를 저지른 자는 분명히 H. E. R. M. 이 네 글자로 서명하는 인물입니다."

파울은 소속 부대원들에게 경보를 올리고, 신부장과 주치의에게도 알린 뒤, 자신의 대대장에 면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리고 엘리자베트의 처형과 두 병사의 살해 사건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모든 비밀을 털어놓으려 했다.

하지만 대대장과 그의 연대는 국경 너머에서 전투 중이었다. 제3중대는 급히 소집되었고, 델로즈 하사가 지휘하는 일부 부대만 성에 남아 있었다.

파울은 결국 직접 부대원들과 함께 수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털어놓지 않았다. 살인자가 어떻게 공원 담장을 넘어, 이어 폐허 안으로, 그리고 마침내 방 안까지 침입했는지 단서 하나도 찾지 못했다.

시민은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중죄를 저지른 범인은 제3중대 소속 병사 중 한 명일까?

분명히 그렇지 않다. 하지만 그 외에는 어떤 추측도 할 수 없었다.

파울도 아내의 죽음과 그녀가 묻힌 장소에 대해 아무 단서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다.

독일군 부상자들도 마찬가지였다. 포로들처럼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한 남자와 두 여자가 처형되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처형이 언제 일어났는지, 점령군이 떠난 후의 일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이미 사건이 끝난 뒤에야 그 장소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파울은 오르네캉 마을까지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이라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주민들이 성의 여주인, 그녀의 성에서의 삶, 그녀가 겪은 고난과 죽음에 대해 들은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르네캉은 텅 비어 있었다. 젊은 여성도, 노인도 한 명 없었다. 독일군이 주민들을 모두 독일로 이주시켰던 것이다. 아마 전쟁 초기부터 그랬을 것이다. 그들의 분명한 목적은 점령 기간 동안의 자신의 행적을 목격할 사람을 없애고, 성 주변을 황폐화시키는 데 있었다.

이렇게 파울은 헛된 수색에 사흘을 바쳤다.

"하지만 말입니다, 베르나르에게 그는 말했다. 엘리자베트는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만약 그녀의 무덤을 찾지 못한다 해도, 그녀가 여기서 보냈던 흔적 하나쯤은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녀는 여기서 살았고, 여기서 고통받았습니다. 그녀에 대한 기억 하나만으로도 저는 얼마나 큰 위안을 얻을까요!"

그는 그녀가 머무르던 방의 정확한 위치를 마침내 복원해냈다. 심지어 폐허 한가운데, 그 방의 흔적으로 남은 돌무더기와 석고 부스러기 더미의 자리까지도 정확히 짚어냈다.

그것은 지하실의 살롱 잔해들과 섞여 있었다. 1층 천장이 무너져 내려 그 위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벽이 가루가 된 잔해와 부스러기가 된 가구 더미 아래, 어느 날 아침 그는 깨진 작은 거울 하나를 주웠다. 이어 상아 빗, 은식 칼, 가위 세트까지. 모두 엘리자베트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를 더 크게 흔들린 것은 두꺼운 달력장을 발견한 일이었다. 그는 안다. 이 젊은 부인이 결혼 전까지 지출 내역이나 할 일 목록, 때로는 더 사적인 일기 같은 것들을 여기에 적어두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일기장에는 1914년이라는 연도와 1월부터 7월까지의 페이지만 남아 있었다. 나머지 다섯 달의 분량은 뜯겨 나간 것이 아니라, 제본을 묶고 있던 실을 하나하나 풀어서 빼낸 것이었다.

파울은 즉시 이렇게 생각했다.

"그것은 엘리자베트가 여유 있게 떼어낸 거야. 아무도 그녀를 재촉하거나 불안하게 하지 않았을 때, 그냥 일기처럼 매일 쓰는 용지로 쓰려다 남은 페이지였지. 뭘? 뭐라든, 예전엔 회계 장부 사이사이에 요리법 같은 사적인 메모를 적곤 했잖아.

그런데 내가 간 뒤로는 더 이상 장부도 필요 없었어. 그녀의 삶은 가장 끔찍한 비극으로 변했으니까. 아마 그 사라진 페이지에 그녀의 고통을, 불평을, 그리고 나에 대한 반항까지 모두 털어놓았겠지."

그날, 버나드가 없자 폴은 더 열심히 일했다. 그는 모든 돌멩이 밑과 구멍들을 뒤졌다. 불에 그을린 대들보를 들어 올렸고, 찢어진 카펫과 구부러진 샹들리에, 깨진 대리석 조각들까지 모두 살펴보았다. 그는 몇 시간 동안 끈질기게 매달렸다.

파편들을 구역으로 나누어 차례로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파편들은 그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폴은 공원에서 다시 한 번 꼼꼼한 수색을 시작했다.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다. 폴은 그 무용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엘리자베트는 그 페이지들을 너무 소중히 여겼을 터였다. 없애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숨겼거나 말이다.

아니면……

'아니면, 누군가 그녀에게서 빼앗았을지도 모른다.' 폴은 혼자 중얼거렸다. 소령은 그녀를 끊임없이 감시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누가 알겠는가……?

파울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농부의 옷과 검은 레이스 스카프를 발견한 뒤,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방 침대 위에 그대로 둔 상태였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다. 두 병사를 살해한 그 밤, 마요르가 옷을 다시 가져오려 왔거나, 적어도 주머니 속 내용을 확인하려 왔을 가능성은 없을까?

하지만 그는 실패했다. 병사 제리플루르가 그 옷 위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몸이 옷을 완전히 가려서, 마요르는 아무것도 건질 수 없었다.

그런데 파울은 기억해냈다. 그 농부의 치마와 저고리를 펼칠 때, 주머니 안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그것은 엘리자베트의 일기장이었다. 마요르 헤르만이 훔쳐간.

폴은 살인 사건이 벌어진 방으로 뛰어가 옷가지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는 뒤지기 시작했다.

"아, 찾았군!"

그가 환호성을 지르며 말했다.

일기장에서 찢어낸 쪽지들은 큰 노란 봉투 안에 들어 있었다. 쪽지들은 서로 붙어 있지 않고 따로따로였다. 여기저기 구겨지고 찢어진 자국도 있었다.

폴은 한눈에 상황을 파악했다. 이 쪽지들은 오직 8월과 9월의 기록뿐이었다. 게다가 그 두 달 중에도 몇 장이 빠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엘리자베트의 글씨체를 확인했다.

처음부터 세밀하게 쓰인 일기장은 아니었다. 그저 슬픔이 절절히 배어 있는, 초라한 메모들이었을 뿐이다. 때로는 길어져서 별도의 한 장을 더 추가해야 할 정도였다.

낮이든 밤이든, 펜이든 연필이든 그날그날의 감정에 따라 즉흥적으로 적어 내려간 글이었다. 가끔은 읽을 수도 없을 정도로 흐릿했다. 손이 떨리고, 눈은 눈물로 가려진 채, 절망에 빠진 한 인간이 남긴 흔적처럼 보였다.

그것은 폴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울렸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읽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그런 편지를 쓰지 말았어야 해. 너무 잔인하단 말이야. 게다가 왜 나를 오르네캉에서 떠나라고 제안하지? 전쟁?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해서, 내가 이곳에 남아 의무를 다할 용기가 없으리라고 생각한 거야? 그는 나를 너무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는 내가 겁쟁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 불쌍한 어머니를 의심할 수도 있다

고 보는 거지……. 파울, 내 사랑하는 파울, 너는 나를 떠나지 말았어야 했어…….”

가난한 하인들은 모두 떠난 뒤부터, 제롬과 로잘리는 나에게 더 각별한 정성을 들이기 시작했다. 로잘리는 내게도 같이 떠나라고 간청했다.

“로잘리, 당신도 함께 갈 거야?” 내가 물었다.

“오, 우리는 그냥 작은 신세라 두려울 게 없어요. 게다가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니까요.”

나도 내 자리가 여기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녀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았다.

제롬을 만날 때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곤 했다.

“제 의무라니? 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 의무를 저버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죠. 하지만 그 의무를 어떻게 다해야 할까요? 진실을 어떻게 밝혀야 할까요?”

그녀는 용감했지만, 눈물만 멈추지 않았다. 마치 할 일이 없어서 우는 것 같았다.

“저는 주로 폴이 걱정돼요.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오늘 아침 제롬이 전쟁이 선포됐다고 했을 때,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폴이 싸우게 된 거예요. 부상을 입을지도 모르고, 죽을 수도 있어요!"

"아, 주님! 제 자리가 바로 그 옆, 그가 싸우는 곳 근처 도시였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여기서 무엇을 바라야 할까요?"

"네, 알아요. 제 의무, 어머니를 모시는 거죠. 아, 엄마,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알아요, 저는 그를 사랑하고 그의 무사함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계속 눈물뿐이에요. 점점 더 불행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 제가 더 이상 슬퍼져야 한다면, 저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설령 더 큰 비극이 닥쳐온다 해도요.

게다가, 그가 저를 원하지도 않고 편지 한 통 보내지 않는데, 어떻게 그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의 사랑? 그가 저를 미워한다는 걸 알아요! 저는 그에게 있어 용서할 수 없는憎惡의 대상인 여자의 딸이니까요.

아, 너무 끔찍해요! 정말일까요? 만약 그가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제가 이 임무를 실패한다면, 그는 다시는 저를 볼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이것이 제가 맞이해야 할 운명일까요?"

"저는 제레롬과 로잘리에게 어머니에 대해 많이 물어봤어요. 그들은 어머니를 몇 주 동안만 알았지만, 기억은 또렷해요. 그들이 들려준 이

야기는 저에게 큰 기쁨이었죠. 어머니는 정말로 착하고 아름다우셨대요. 모든 분이 어머니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녀는 늘 밝지만은 않았어요. 로잘리가 그랬어요. 이미 병이 그녀를 갉아먹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녀가 웃을 때면 마음이 뭉클해졌죠."

"내 불쌍한 어머님!"

"오늘 아침, 멀리서 대포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로부터 열 리 떨어진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답니다."

"방금 전 프랑스군 병사들이 지나갔어요. 저는 리제롱 계곡을 지나는 병사들을 테라스 위에서 자주 지켜보곤 했죠. 이들 중 일부가 성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들의 대위가 저를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며 사죄했답니다. 그래서 그 대위와 부대원들은 제로姆와 로잘리가 살았던 별관에서 묵으며 식사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파울에게서 소식이 없군요. 저도 그에게 편지를 쓰려 하지 않아요. 제가 모든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16년 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나는 찾고, 연구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먼 곳에서 포성이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대장은 이쪽에서 적의 공격이 있을 징후가 없다고 말해 주었다."

"방금 전, 작은 문 근처 숲에서 파수 서 있던 병사가 칼에 찔려 죽었다. 그 문은 시골로 통한다. 병사가 공원을 빠져나가려던 한 남자를 막으려다 죽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남자는 어떻게 들어왔을까?"

"무슨 일이에요? 이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긴 사건인데,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비슷한 일들이 또 있는데, 왜 그런지는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정말 당황스럽기만 해요. 제가 만난 대위와 병사들은 이 일에 대해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어요. 오히려 서로 농담까지 주고받을 정도죠. 하지만 저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처럼, 무언가 큰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혀요. 아마도 신경 과민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폴은 말을 멈췄다. 이 글이 적힌 페이지의 하단부와 다음 페이지가 모두 찢겨 나간 상태였다. 대위가 엘리자베트의 일기를 훔친 뒤, 자신의 목적에 따라 그녀가 쓴 설명 부분의 페이지들을 일부러 잘라냈다고 봐야 할까? 일기는 다시 이어졌다.

"저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대위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죽은 나무, 덩굴이 감싸고 있는 그 나무 옆으로 데려가 누워 귀를 기울이게 했습니다. 그는 매우 인내심을 가지고, 또 세심하게 청취를 시도했죠.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시 실험해 보았을 때도, 제가 틀렸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부인. 모든 것이 완전히 정상입니다.’

‘대위님, 저는 지난그저께 그 나무에서, 정확히 그 자리에서 희미한 소리가 났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몇 분간 이어졌어요.’

그는 살짝 미소 지으며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그 나무를 베어내는 건 쉬울 겁니다. 하지만 마담, 우리 모두 신경이 날카롭게 긴장된 상태라 실수를 하거나, 일종의 환각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소리는 대체 어디서 나는 건가요?”

“네, 분명히 그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어제 밤, 독일군 장교 두 명이 끌려와 공동주택 끝부분의 빨래방에 갇혔습니다.”

“오늘 아침, 그 빨래방에서는 그들의 제복만 남았습니다.”

“문이 깨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카피탱의 수사 결과, 그들은 프랑스군 제복을 입고 도망쳤으며, 코르비니로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속이며 감시병들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누가 저들에게 제복을 제공했을까? 더 중요한 건, 저들이 암호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야… 그 암호를 누가 알려준 걸까?”

"어제부터 며칠 연속으로 계란과 우유를 가져다 준 여인이 있었대. 옷차림이 좀 지나치게 단정했고, 오늘 그 여인은 보이지 않는다네. 하지만 그녀가 범인과 공모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어."

"대위가 저에게 서둘러 떠나라고 강력히 권했어요. 지금 대위는 더 이상 웃지 않아요.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이에요."

"우리를 감시하는 정찰병들이 둘러싸고 있대요. 게다가 곧 공격을 받을 징후도 보입니다. 코르비니로 진격로를 뚫는 대규모 공격은 아니에요. 성을 급습하는 작은 공격일 뿐이죠. 하지만 제 의무상 미리 말씀드려야 합니다. 언제든 코르비니로 철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기서 기다리는 것은 자살이나 다름없어요."

나는 대위에게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 결심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르롬과 로잘리도 간곡히 말렸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떠나지 않을 테니까.

한 번 더 폴은 발걸음을 멈췄다. 일기장 그 부분의 페이지가 한 장 빠져 있었다. 이어지는 8월 18일 페이지는 양끝이 찢겨 나간 채, 그날 젊은 여자가 남긴 일기의 단편만 간신히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방금 폴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이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폴은 제가 오르네캉에 머물러 있을 거라는 사실과, 그 결정의 이유만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품고 있는 희망은 절대 모르게 해야 해요."

"그 희망은 아직 흐릿하고, 그토록 사소한 디테일 하나에 기대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나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 디테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중요함을 느꼈다.

아, 대위가 얼마나 발버둥치고 순찰을 늘이며, 병사들이 총을 닦고 싸우고 싶다고 아우성치든 말든.

적군이 에브르쿠르에 주둔했다는 소문이 퍼지든 말든. 내게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었다.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였다. 나는 출발점을 찾았는가? 나는 올바른 길로 들어서 있는가?

"자, 생각해보자."

그 페이지는 찢겨 있었다. 엘리자베트가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가려던 바로 그 부분이었다.

하만 중위가 일부러 찢어놓은 것일까? 의심할 여지 없이 그랬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

화요일 페이지의 첫 절반도 찢겨 나갔다. 8월 19일, 알렉스들이 오르네캥을 점령하기 하루 전, 그리고 코르비니와 그 일대가 무너진 날이었다. 그 수요일 오후, 젊은 여성은 무슨 글을 적었을까? 그녀는 무엇을 발견했을까? 그림자 속에서 어떤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을까?

공포가 파울을 집어삼켰다. 그는 목요일 새벽 두 시, 코르비니 상공에서 첫 대포 소리가 울렸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먹먹해지며 페이지의 두 번째 부분을 읽어나갔다.

나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다. 사방에서 개들이 짖어댔다. 서로 짖어대다 멈추고는, 마치 듣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더니 다시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듯이 울부짖었다.

개들이 잠잠해지면, 정적이 놀라울 정도로 깊어졌다. 그때면 나도 귀를 기울였다. 그 개들을 깨워 둔 알 수 없는 소리를 잡아내려 했다.

"나도 그 소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와는 차원이 달라. 보통 밤의 고요함을 깨는 소리와는 전혀 다르거든.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알 수 없지만, 내 느낌이 너무 강렬하고 혼란스러워서 자문자답하게 돼. 내 심장 소리를 과잉 반응으로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한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를 귀로 듣는 건지."

"아, 내가 미쳐버린 게 분명해. 군대가 행진한다니! 우리 국경의 전초기지는 어디 있나? 성 주변 파수병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만약 진짜 전투라면 총격전도 오갔을 텐데…"

"나는 창문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았다. 개들은 더 이상 짖지 않았다. 모든 것이 잠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나무들 사이에서 누군가 나타나 잔디밭을 가로질러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 그림자가 우리 군인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그림자가 내 창문 아래로 지나갈 때, 하늘에는 내게 여성의 실루엣을 분간할 만큼의 빛이

있었다. 나는 로자리를 떠올렸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 실루엣은 키가 크고, 걸음걸이가 가볍고 빨랐다.

"나는 제롬을 깨우고 경보를 울릴 뻔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림자는 테라스 쪽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갑자기 이상하게 들리는 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하늘에 빛이 하나 날아올랐다. 마치 땅에서 솟구쳐 오르는 유성처럼."

"그리고 나서,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 다시금 침묵이 찾아왔고, 사물들은 움직임을 멈췄다.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이제껏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있다. 무언지 모를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지평선 곳곳에서 위기가 솟구쳐 오른다. 그들은 다가와 나를 에워싸고, 감금하고, 숨 막히게 하고, 짓눌러 온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다. 무서워…… 무서워……"

파울은 손톱이 박히도록 굳게 쥐고 있던, 엘리자베트가 자신의 근심을 털어놓았던 비참한 일기를 내려다보았다.

'불쌍한 여자여. 그녀가 얼마나 고통받았을까! 그리고 그것은 아직 죽음으로 이르는 길의 시작일 뿐이야……'

그는 더 이상 앞을 읽기를 두려워했다. 엘리자베트에게 찾아올 고문 같은 시간들이, 위협적이면서도 냉정하게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소리쳐 외치고 싶었다.

'가버려! 운명과 맞서지 마! 나는 과거를 잊겠소.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이미 늦었다. 가혹한 자신의 손으로 그녀를 지옥으로 내몬 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그는 끝까지 그 고통의 모든 과정을 지켜봐야 했다. 그가 이미 알고 있던, 가장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마지막 순간까지도.

갑자기 그는 책장을 넘겼다.

먼저 세 장의 빈 페이지가 있었다. 8월 20일, 21일, 22일 날짜가 적힌 곳들. 그녀가 글을 쓸 수 없었던 격변의 날들이었다. 23일과 24일 페이지는 빠져 있었다. 아마도 그 페이지에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침략에 대한 단서가 담겨 있었을 것이다.

일기는 찢겨 나간 한 장의 페이지, 즉 화요일인 25일짜리 페이지 중간부터 다시 이어졌다.

"……그래, 로잘리. 나 정말 괜찮아. 너의 간호에 감사해."

"그럼, 열은 완전히 내렸다는 거야?"

"아니요, 로잘리. 끝났어요."

"어제 마담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열이 또 올랐어요. 아마 그 방문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오늘 그 방문은 없어요. 내일만 되면요. 마담께 알리라는 지시를 받았거든요. 내일 오후 다섯 시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항해 봐야 무슨 소용이랴. 앞으로 들어야 할 굴욕적인 말들 중,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보다 더 큰 상처를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잔디밭은 온통 짓밟혔고, 말들이 줄에 묶여 있으

며, 길가에는 트럭과 탄약차가 가득하다. 나무 반은 베어졌고, 장교들이 잔디 위에 드러누워 술을 마시며 노래한다. 그리고 내 창문 발코니 바로 앞에는 독일기가 내걸려 있다. 아, 불쌍한 것들아!

"눈을 감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더 끔찍했어요. 아, 그 밤의 기억이라니… 그리고 해가 뜬 아침, 쏟아져 있는 시체들의 광경.

그들 중에는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괴물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춤을 추는 사이, 저는 죽어가는 이들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제발 다 죽여달라고 호소하는 소리였죠.

그리고 그다음… 그다음은… 하지만 더 이상 생각하기 싫습니다. 제 용기와 희망을 무너뜨릴 만한 일은 이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폴, 이 일기를 쓰는 내내 네 생각이 났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넌 이 일기를 읽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나는 이 일기를 계속 써 내려갈 힘을 가져야 해. 그리고 매일 너에게 상황을 알려야 해.

아마 넌 내가 써 내려간 이야기를 통해, 내가 아직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이미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과거와 현재, 옛날의 범죄와 그 이틀 밤의 불가해한 공격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나는 알 수 없다.

나는 사건들을 세세하게 설명했고, 내 추측도 적었다. 이제 너 차례다. 결론을 내리고 진리의 끝까지 파고들어가라."

"성 안에서 소동이 심하네. 여기저기 사람들이 오가고, 특히 내 방 아래층 살롱에서 발길 소리가 잦아들지 않네. 이제 한 시간쯤 전부터 반 타운의 트럭과 같은 수의 승용차가 잔디밭으로 몰려왔지. 트럭은 비어 있었고, 리무진마다 두세 명의 여자가 뛰어내렸네. 큰 손짓을 하며 시끄럽게 웃는 독일 여자들이었어. 장교들이 달려가 맞이했고, 기쁨에 찬 포옹이 오갔지. 그러자 그 무리들이 모두 성 안으로 들어갔어.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지만 복도에서 발길 소리가 들리는군… 이미 다섯 시가 지났네.

문 두드리는 소리…

그들이 다섯 시에 들어왔네. 그가 먼저였고, 뒤이어 아첨하며 허리를 굽힌 네 명의 장교가 따라왔지.

그가 프랑스어로 차갑게 말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방과 부인 전용 아파트 안에 있는 물건은 절대 만지지 마십시오. 나머지는 두 개의 큰 살롱을 빼고 모두 드립니다. 필요한 것은 그대로 두고, 마음에 드는 것은 가져가십시오. 전쟁 중이니, 전쟁의 권리입니다."

그가 "전쟁의 권리다!"라고 말할 때의, 어이없을 정도로 진심 어린 어조를 보십시오. 그는 다시 한번 덧붙였다.

"부인 전용 아파트는요, 맞죠? 그곳의 가구는 하나도 움직이면 안 됩니다. 예의란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제 그가 나를 바라본다. 그의 눈빛이 말해준다.

'어때? 내가 얼마나 기사도적이냐? 다 가져갈 수도 있었지. 하지만 나는 독일인이야. 독일인으로서 예의를 지키는 법을 알고 있어.'

그는 감사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약탈이 시작되는 겁니까? 트럭이 온 이유를 알겠군요."

"전쟁법에 따라 내 소유인 것은 약탈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다면 전쟁법이 두 개의 살롱에 있는 가구나 미술품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오?"

그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러자 내가 웃음을 터뜨렸다.

"알겠소. 이건 당신 몫이오. 정말 잘 골랐네. 값비싼 보물들뿐이요. 쓸모없는 것들은 하인들이 나눠 가졌겠지."

장교들이 분노에 찬 눈으로 돌아보았다. 그는 더욱 붉어졌다. 그는 동그란 얼굴에 너무 곱게 빗어 올린 금발 머리를 가졌고, 머리카락 한 올도 어긋나지 않게 가운데로 가르마를 탔다. 이마는 낮았고, 그 이마 뒤에서 나는 그가 어떻게 변명할지 머리를 짜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침내 그가 내게로 다가와 triumphant한 목소리로 말했다.

"프랑스군은 샤를루아에서 패했고, 모랑에서 패했다. 온통 패배뿐이다. 모든 전선에서 후퇴하고 있다. 전쟁의 승패는 이미 정해졌다."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를 테지만, 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다. 내 눈빛이 그를 도발하는 것이다. 나는 속삭였다.

'역겨운 놈!'

그가 비틀거렸다. 그의 동료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 칼집 손잡이에 손을 올리는 병사가 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할까? 무슨 말을 할까? 그가 당황하고 있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위신에 금이 간 것이다.

'부인, 내가 누구인지 모를 테지요?' 그가 말했다.

'아닙니다, 각하. 당신은 콘라트 왕자입니다. 카이저의 아드님 중 한 분이시고요. 그게 어떻다는 거죠?'

"이번엔 또 다른 품위 시위였다. 그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의 협박과 분노를 기다렸지만, 아니었다. 내게 돌아온 것은 웃음소리였다. 그것은 무심한 귀족의 웃음으로, 모욕받을 만큼 경멸적이면서도, 화를 낼 만큼 어리석지 않은 지적인 웃음이었다.

"'작은 프랑스 아가씨!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으셨나요?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군요. 바로 파리 여자의 그 우아함과 장난기 가득한 모습입니다.'

그는 넓은 제스처로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 후 한 마디도 덧붙이지 않은 채, 그는 농담조로 자리를 떠났다.

"'작은 프랑스 아가씨! 아, 여러분, 이 작은 프랑스 아가씨들이여!'

"하루 종일 이사 준비로 바빴다. 트럭들은 전리품으로 가득 실린 채 국경을 향해 달렸다.

"그것은 내 불쌍한 아버지의 혼례선물이었어요. 인내심과 사랑으로 하나하나 모은 그의 모든 수집품들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파울과 내가 살아갈 장소였는데 말이에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전쟁 소식은 좋지 않아요. 저는 많이 울었어요."

"콘라드 공작이 찾아왔어요. 저는 그를 맞이해야만 했죠. 로잘리가 경고했거든요. 만약 제가 그의 방문을 받지 않으면, 오르네캉 주민들이 그 결과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요."

일기를 쓰던 엘리자베트는 다시 말을 멈췄다. 이틀 후, 29일 날짜의 항목에서 그녀는 다시 글을 이어갔다.

그가 어제 왔습니다. 오늘도 또 왔죠. 그는 재치 있고 교양 있는 모습을 보이려 애씁니다. 문학이나 음악, 괴테와 바그너 같은 이야기를 꺼내곤 하죠. 하지만 그는 혼자 말하고 있고, 그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도대체 대답 좀 해 보세요! 프랑스 여자라고 해서 콘라드 왕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치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자는 감시자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당신은 감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천만에요!"

"이 성에서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공원에서는 산책할 수 있습니다……"

"즉, 네 벽 안에 갇힌 죄수처럼 지내라는 말씀이시군요."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원하시죠?"

"여기를 떠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습니다. 예를 들어 코르비니에서요."

"즉, 나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라는 말씀이시군요."

나는 침묵을 지켰다. 그러자 그는 몸을 약간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나를 증오하는군요, 그렇지 않나요? 음, 내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나는 여자를 잘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증오하는 건 콘라드 공작이지, 내가 아닙니다. 그 독일인…… 승자 말입니다. 어차피 그 남자 자체가 당신에게 싫은 존재는 아닐 테니까요. 지금 문제는 바로 그 남자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호감을 사려 애쓰고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렇다면……"

나는 그와 마주 서서 일어섰다. 나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눈빛에 담긴 혐오감을 그는 분명히 보았을 것이다. 그는 말 중간에 멈춰 섰고, 얼굴은 완전히 멍청해졌다.

그리고 본능이 다시 그를 지배했다. 그는 거칠게 주먹을 휘두르며 나갔다. 문을 세게 닫고, 욕설을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일지에는 두 페이지가 빠져 있었다. 파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겪어 본 어떤 고통도 이토록 그를 태우지 못했다. 가엾고도 사랑하는 엘리자베트가 아직 살아 있고, 자신의 시선 아래에서 몸부림치며,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을 느끼고 있는 것만 같았다.

9월 1일 쪽의 한 페이지에 적힌 절박함과 사랑의 외침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를 깊이 뒤흔들었다.

"파울, 내 파울아. 두려워하지 마. 응, 그 두 페이지를 찢은 건, 네가 그런 추악한 일을 알게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게 나를 떠나게 하지는 않을 거지, 그렇지? 야만인이 나를 모욕했다고 해서,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건 아니잖아? 응?"

"오, 그가 내게 한 말들이야, 파울… 어제까지만 해도… 그의 모욕과 끔찍한 협박, 그보다 더 비열한 약속들… 그리고 그의 분노까지… 아니, 그걸 네게 다시 말하고 싶지 않아."

"이 일기에 내일을 맡기며, 나는 매일의 생각과 행동을 네게 맡기는 줄 알았어. 여기에는 내 고통의 증언만 담길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야. 용기가 나지 않아… 내 침묵을 용서해 줘. 그 모욕만 알면, 나중에 나를 대신해 복수할 수 있을 거야. 더 이상 묻지 말아 줘…”

사실 그 후 며칠 동안, 그 젊은 여성은 콘라드 왕자의 일일 방문을 더 이상 상세히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적의 끈질긴 존재감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이전처럼 마음껏 털어놓지 못했다. 짧은 문장들로, 페이지 사이에 무질서하게 끼워 넣으며, 날짜를 생략해도 상관없다는 듯이 스스로 날짜를 표시했다.

파울은 떨리는 손으로 그 글을 읽었다. 그리고 새로운 폭로들이 그의 공포를 더욱 키웠다.

“로잘리는 매일 아침 그들을 묻습니다. 프랑스군의 후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패주라고도 합니다. 파리는 버려졌다고 하더군요. 정부는 도망쳤습니다. 우리는 끝장입니다.”

그는 평소처럼 내 창문 아래를 거닐고 있다. 그 옆에는 이미 여러 번 먼발치에서 본 여인이 함께한다. 그녀는 항상 큰 시골 여성용 겉옷을 두르고 있고, 레이스로 된 스카프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다.

하지만 그가 잔디밭 주변을 거닐 때 대부분 함께하는 사람은 마요르라는 이름의 장교다. 그 역시 회색 코트의 높은 칼라를 세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얼굴을 감추고 있다.

군인들이 잔디밭 위에서 춤을 추고, 독일 군악대가 행진곡을 연주하며, 오르네캉의 종소리가 온 힘을 다해 울려 퍼진다. 그들은 자신들의 군대가 파리에 입성했음을 축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불행히도, 그들의 기쁨이 바로 이 진실의 가장 확실한 증거다.

"엄마의 초상화가 있는 작은 거실과 제 방 사이에는 엄마가 살던 방이 있어요. 그 방은 현재 마요르가 사용하고 있죠. 그는 왕자와는 각별한 사이인 데다, 군인들 사이에서도 '마요르 헤르만'이라는 이름으로 통할 만큼 권위 있는 인물이라고 해요.

그는 다른 장교들처럼 왕자 앞에서 겸손하게 굴지 않아요. 오히려 왕자에게 어느 정도 친근하게, 심지어는 편하게 말을 걸기까지 합니다.

지금 두 사람은 산책로에서 나란히 걷고 있어요. 왕자는 마요르 헤르만의 팔에 기대 있고요. 그들이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의견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마요르 헤르만이 화가 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제 추측은 빗나가지 않았어. 로잘리가 두 사람 사이에서 격렬한 다툼이 있었음을 알려주었거든."

« 그들 모두의 태도에 묘한 기색이 감돈다. 공작과 소령, 장교들은 신경이 곤두선 듯하다. 병사들은 더 이상 노래하지 않는다. 대신 싸우는 소리가 들려온다. 우리 편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걸까? »

« 소동은 점점 커지고 있다. 사신이 끊임없이 도착한다는 소문이다. 장교들은 짐의 일부를 독일로 돌려보냈다. 나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

« 오, 내 사랑스러운 폴아, 네가 그 방문들의 고통을 알면 얼마나 놀랄까! 그는 이제 처음의 다정한 남자가 아니다. 가면을 벗어던졌다…… 아니, 그건 말하지 않는 게 좋겠지. »

« 오르네캉 마을 전체가 독일로 피신했다. 그들은 내가 너에게 말했던 끔찍한 밤에 일어난 일에 단 한 명의 증인도 남기지 않으려 한다. »

"패배야. 파리를 멀리 뒤로한 후퇴지. 그 녀석이 스스로를 드러냈어. 이를 갈며 분노를 터뜨리면서 내게 대한 복수심을 내비쳤지. 나는 그에게 보복을 당할 인질일 뿐이야…"

"폴, 전장에서 그 녀석을 만나면 개처럼 쏴 죽여라. 그런데 저들이 정말 싸움을 하는 게 맞나? 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군. 머리가 혼란스러워. 왜 내가 이 성에 남아 있었을까? 폴, 너는 나를 억지로라도 데려와야 했어…"

"폴, 그자가 무슨 짓을 꾸몄는지 알아? … 아, 비겁한 놈… 오르네캉 주민 열두 명을 인질로 잡아뒀어. 그들의 생사는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거야… 그 공포가 이해가 가? 내 처신에 따라 그들은 살거나 총살당할 거야. 하나씩 말이지… 이런 치졸한 짓을 믿을 수 있겠어? 정말 나를 무서워하게 하려는 건가? 아, 이 비열한 협박! 지옥 같은 일이야.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 죽는다? 왜 죽어야 해? 로잘리가 왔어. 그녀의 남편이 오늘 밤 작은 문, 즉 예배당 너머 쪽에서 경비를 설 병사 한 명과 사전에 의논을 했지.

"새벽 세 시에 로잘리가 나를 깨우면, 우리는 도망쳐. 제롬이 숨을 곳을 아는 접근 불가한 큰 숲으로 말이야. 주님, 우리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왜 내가 일어났을까? 이건 모두 악몽일 뿐이야. 확신해. 그런데도 나는 열이 나는 듯 떨리고, 글씨를 제대로 쓰기도 힘들어. 그리고 책상 위의 그 물 한 잔은? 왜 평소 잠 못 이루는 시간에 마시던 습관대로, 그 물을 마시려 하지 않는 걸까?

"아, 끔찍한 악몽이여! 내가 잠들었을 때 본 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분명히 잠들었다. 도망치기 전에 잠시 쉬려고 침대에 누웠으니까. 그리고 그 여자의 유령을 본 것은 꿈속이었다. 유령? 맞아. 빗장이 채워진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건 오직 유령뿐이야. 그리고 그녀가 마루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갈 때 내는 발소리는 거의 없었어. 나는 그녀의 치맛자락이 스치는 미세한 소리만 들렸을 뿐이지."

그녀가 거기서 뭘 하려던 걸까?

야간등 불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을 나는 또렷이 보았다. 그녀는 식탁을 돌아서 내 침대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다. 머리는 어둠 속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눈을 다시 감았다. 그녀가 내가 잠든 줄 믿게 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그녀의 기척과 다가오는 발소리는 내 안에서 점점 더 선명해졌다. 나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가장 또렷하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내 위에 몸을 굽혔다. 그리고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나를 알지 못해 내 얼굴을 자세히 관찰하려는 듯했다.

그런데 어째서 그녀는 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

나는 그녀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숨을 쉬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인가?

그녀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그녀는 내 몸을 살피는 일을 멈추고 물러섰다. 하지만 아주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속눈썹 사이로 그녀는 내 곁에 굽신거리며 앉아 무언가 조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시간이 흐르자, 그녀는 더 이상 나를 관찰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고, 나는 눈을 뜨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단 한 순간이라도 좋았다.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그녀의 손짓을 보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눈을 떴다.

세상에, 나는 온몸에서 터져 나올 듯한 비명을 어떻게 참아냈을까?

야간등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또렷이 보였다. 바로 그곳에 서 있던 여자는……

"아니, 그런 경멸할 만한 말을 쓰지는 않겠소. 만약 그 여인이 제 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면,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짓는 그 부드러운 얼굴을 보았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저는 죽은 자의 예상치 못한 모습 앞에서 떨지 않았을 거요.

하지만 그 표정은 경련처럼 일그러져 있었소. 증오와 악의가 극에 달한, 야만적이고 지옥 같은 얼굴이었죠. 세상 그 어떤 광경도 저를 이토록 공포에 떨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일 거요. 너무도 과장되고 초자연적인 그 광경 때문에, 저는 비명을 지르지 못했고, 지금도 거의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눈이 그 장면을 바라보는 순간, 이미 저는 악몽의 포로가 되었음을 깨달았으니까요."

"엄마, 엄마. 당신은 그런 표정을 결코 지니지 못하셨어요. 가질 수도 없었을 거예요. 맞죠? 당신은 착하셨죠? 미소 짓는 분이셨죠? 만약 살아 계셨다면, 지금도 그 자비롭고 다정한 얼굴을 하고 계셨겠죠. 사랑하는 엄마. 폴이 당신의 초상화를 알아본 그 끔찍한 밤 이후로, 나는 그 방에 자주 들렀어요. 엄마의 얼굴을 기억하기 위해. 잊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너무 어렸으니까요, 엄마!

화가님이 그토록 원하던 표정과는 다른 모습을 그렸다면, 속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방금 전 그 악하고 사나운 표정은 아니었잖아요. 왜 저를 미워하시겠어요? 저는 당신의 딸이에요. 아빠는 종종 말씀하셨어요. 엄마와 내가 같은 미소를 가지고 있다고, 나를 바라보면 엄마의 눈이 자애로움으로 젖었다고요.

그럼… 그럼… 당신은 저를 미워하지 않으시죠? 내가 헛된 꿈을 꾸었던 거죠?"

"아니면, 내가 방에서 여인을 본 게 꿈이 아니라면, 그 여인이 네 얼굴을 하고 있을 때 나는 꿈을 꾸고 있었던 걸까. 환각이었나, 광기였나. 네 초상을 계속 보고 너를 생각하다 보니, 나는 낯선 여인에게 내가 아는 얼굴을 부여한 것이다. 그 표정이 혐오스러웠던 건 너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여인이었다."

"그러니 나는 그 물을 마시지 않겠다. 그녀가 부은 건 분명 독약일 것이다. 아니면 나를 깊이 잠들게 해 공작에게 넘기려는 약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공작과 가끔 산책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해할 수도 없다. 지친 뇌속에서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을 뿐이다."

"곧 세 시가 된다. 로잘리를 기다린다. 밤은 고요하다. 성 안팎으로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

"세 시가 되었네. 아,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다! 자유가 그리워!"

파울 델로즈는 불안한 마음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탈출 계획이 무사히 끝날 거라는 희망을 품은 듯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새로운 고통의 충격이었다. 이튿날 아침에 쓰인, 거의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흐릿한 필체의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배신당했다. 밀고자가 있었지. 스무 명이나 되는 놈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어. 그들은 짐승처럼 우리에게 덤벼들었지. 이제 나는 정원의 별장에 갇혔어. 옆의 작은 방에는 제롬과 로잘리가 감금되어 있어. 그들은 묶이고 입도 막힌 채야. 나는 묶이지는 않았지만, 문 앞에는 병사들이 서 있어.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군."

"파울, 너에게 편지를 쓰기가 정말 어렵구나. 수비병이 틈만 나면 문을 열고 나를 감시하거든. 나는 신변 수색을 받지 않았기에 일기장 페이지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어둠 속에서 서둘러, 조금씩 적어 내려간다……

'…… 내 일기장! 파울, 너는 그걸 찾아낼 수 있을까? 내가 겪은 모든 일과, 내가 지금 어떤 신세가 되었는지 알아낼 수 있을까? 제발 그들이 그걸 빼앗아 가지 않기를……

'…… 그들은 나에게 빵과 물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로잘리와 제롬과 떨어져 있다. 그들은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있다.'"

"로잘리가 입마개를 벗어던졌어요. 갇혀 있는 곳에서 반쯤 속삭이듯 저에게 말을 건넸죠. 우리들을 감시하는 독일 군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고 해요. 콘라드 공작이 어제 밤 코르비니로 떠났고, 프랑스군

이 가까워지고 있어서 이곳이 매우 긴장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는 저항할까요, 국경 쪽으로 후퇴할까요? … 도주 계획을 무산시킨 건 하만 대위예요. 로잘이는 우리가 끝장났다고 말해요."

"로잘이와 저는 대화를 중간에 끊어야 했어요. 방금 그녀가 무슨 뜻인지 물었죠. 왜 우리가 끝장난다는 거죠? … 그녀에 따르면 하만 대위는 악마 같은 존재라고 해요.

'네, 악마 같아요. 그녀가 반복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우리를 대적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유야, 로잘이?'

"잠시만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죠. 하지만 콘라드 공작이 우리 구하러 제때 코르비니에서 돌아오지 못하면, 헤르만 대위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셋을 총살할 겁니다."

이 끔찍한 단어를 가엾은 엘리자베트의 손으로 쓴 것을 본 폴은 본능적인 비명을 지르듯 울부짖었다. 그 단어는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었다. 그 뒤로는 종이를 가로질러 무작위로, 분명히 더듬거리며 쓴 몇 마디가 남아 있을 뿐이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최후의 신음 같은 문장들이었다.

"… 종소리… 바람이 코르비니에서 그 소리를 실어 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프랑스 군대일까요…? 폴, 폴, 당신도 그들과 함께 있는 걸까요…?"

"… 두 명의 병사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끝났어, 여자는 끝났어… 셋 다 끝났어… 헤르만 대위가 끝났다고 했어…'"

"……혼자만 남겨진 채……. 우리는 죽을 거야……. 하지만 로자리는 나에게 말하고 싶어 해……. 망설이고 있을 뿐이지……."

"……프랑스 대포 소리……. 포탄이 성 주변에서 터져 나가지……. 아, 하나만 나에게 명중했으면 좋겠어……. 로자리의 목소리가 들려……. 그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어떤 비밀을 엿들었을까……."

"……아, 끔찍하다! 아, 추악한 진실이여! 로자리는 말을 해버렸어. 주님, 저에게 글을 쓸 시간을 좀만 더 주십시오……. 파울, 당신은 절대 상상하지 못할 거야…….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해……. 파울……."

그 페이지의 나머지 부분은 찢겨 나갔고, 그 뒤의 페이지들은 월말까지 모두 하얗게 비어 있었다. 엘리자베트는 로자리의 고백을 옮겨 적을 시간과 기력이 있었을까?

이 문제는 폴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가 알 바 아니었다. 이제 다시, 영원히 어둠에 싸여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된 진실을, 그리고 그로 인해 드러난 모든 것들이 그에게 무슨 상관이랴.

복수라든가, 콘라드 공작, 하만 대위, 그리고 여성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야만인들까지. 그 모든 것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엘리자베트는 죽었다. 그는 거의 눈앞에서 그녀가 숨을 거두는 것을 목격한 셈이었다.

이 현실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할 가치도, 노력할 가치도 없었다. 그는 순간적인 비겁함에 짓눌려 기운이 빠진 채,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 신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신문에는 불쌍한 여자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고문의 과정을 하나하나 기록해 두었던 것이다. 그는 점차 자신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대한 갈망에 빠져들고 있었다.

엘리자베트가 그를 불렀다. 지금 더 이상 싸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왜 그녀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좋을까?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치는 것이었다. 한 손이 그의 손에 쥔 권총을 낚아챈다. 베르나드가 그에게 말했다.

"그것은 손대지 마, 폴. 만약 네가 지금 군인이 자살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내가 다 들은 후에 네게 그 권리를 주겠다."

파울은 반박하지 않았다. 죽음의 유혹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건 거의 의식 밖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아마도 한순간의 광기 속에 그는 그 유혹에 굴복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다시금 현실로 돌아온 정신 상태에 있었다.

"말해."

"오래 걸리지 않아. 설명하는 데 삼 분이면 충분해. 들어봐."

베르나르가 말을 시작했다.

"글씨체를 봐서는, 네가 엘리자베트가 쓴 일기를 되찾았나 보다. 그 일기가 네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잘 증명해 주는군?"

"엘리자베트가 그 일기를 썼을 때, 그녀와 제롬, 로잘리는 모두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었지?"

"그리고 셋 다 우리 둘이 코르비니에 도착한 바로 그날, 즉 16일 수요일에 총살당했다."

"다시 말해, 어제 저녁 다섯 시에서 여섯 시 사이, 그리고 우리가 이오르네캉 성에 도착하기 하루 전 목요일 밤이라는 뜻이오?"

"네,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시오?"

"왜요? 자, 파울. 내가 너를 다시 만나게 됐고, 이제 내 손에는 그 포탄 파편이 있소. 네가 파빌리온 벽에서 주워 온 그 파편, 바로 엘리자베

스가 총살당한 자리 바로 그곳에서 말이오. 여기 있소. 머리카락 곱슬이가 아직 붙어 있었지."

"그래서?"

"그래서, 방금 전에 성을 지나가는 포병 중사와 이야기를 나눴소. 그의 검사와 대화 내용을 종합해 보니, 이 파편은 75밀리 포가 아닌, 155밀리 리마유 포에서 발사된 포탄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오."

"이해가 안 되오."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그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잊고 있기 때문이야. 방금 부관으로부터 들은 거야."

"코르비니의 그날 밤, 수요일 16일, 성채로 포격을 가해 몇 발의 포탄을 떨어뜨린 포대들은 모두 우리의 75밀리 포대들이었어. 155밀리 리마유 포들은 우리 부대가 성채를 향해 진격하던 다음 날인 목요일에만 발사했지."

"엘리자베스는 수요일 밤 6시쯤 총살당해 묻혔어. 따라서 리마유 포가 터뜨린 포탄 파편이 그녀의 머리에서 곱슬머리 고리를 날려 보냈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리마유 포들은 목요일 아침에만 쐈으니까."

"그럼 대체?"

파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림아요의 포탄 파편이 목요일 아침에 주워졌다는 사실과, 어젯밤 밤에 잘린 머리카락 고리 사이에 의도적으로 끼워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는가?"

"너 미쳤니? 그런 짓을 할 이유가 뭐야?"

베르나드가 미소를 지었다.

"글쎄, 엘리자베스가 총살당했다고 믿게 만들기 위해서지. 하지만 그녀는 총살되지 않았어."

파울이 그에게 달려들어 몸을 흔들며 외쳤다.

"너 무언가 알고 있는 게 있군, 베르나드! 그렇지 않았다면 너는 웃지 못했을 거야. 어서 말해 봐! 그리고 정자에 벽에 박힌 총알은? 그리고 그 철사 사슬은? 세 번째 고리는?"

"바로 그거야. 너무 과장된 연출이야. 총살이 일어나면 총알 자국이 그렇게 드러나?"

"게다가 엘리자베트의 시체는 네가 찾았어? 제롬과 그의 아내를 총살한 뒤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죽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아니면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을 수도 있고."

폴은 희미한 희망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하만 대령의 판결로 죽을 운명이었다 해도, 아마도 콘라드 공작이 총살 직전에 코르비니에서 돌아와 엘리자베트를 구해 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어눌하게 말했다.

"아마도… 맞아요, 아마도요. 그리고 이제 이렇습니다. 마요르 헤르만은 우리가 코르비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당신과 그 농부의 만남을 기억하시죠? 헤르만은 적어도 엘리자베스가 우리 앞에 죽어 있기를 원했고, 우리가 그녀를 찾기를 포기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래서 헤르만은 이런 장면을 연출한 거예요. 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베르나르가 그에게 다가가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희망이 아니라 확신을 가져왔네, 폴. 미리 준비시키려 그랬지. 이제 들어보게. 내가 그 포병 중사를 심문한 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

오전, 내가 머물던 오르네캉 마을에 독일인 포로들이 실려 온 게 있더군. 국경에서 온 거야. 그중 한 명과 잠시 말을 나눴는데, 그자는 성을 점령했던 수비대 소속이었어. 그러니까 그자도 봤지. 그자도 알고 있어.

엘리자베트는 총살당하지 않았어. 콘라드 공이 처형을 막았거든."

"뭐라고? 뭐라고?" 기쁨에 몸이 빠질 듯하던 폴이 외쳤다. "정말 확실해? 그녀가 살아 있다는 게?"

"응, 살아 있어. 독일로 데려갔지."

"그런데 그 이후로는?"

"마침내 하르만 대위가 그녀를 찾아내어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였을 테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포로로 잡힌 병사 때문이야. 그가 여기서 본 프랑스 여인이 오늘 아침 다시 목격됐거든."

"국경 근처, 에브르쿠르 근교의 빌라에서."

"그녀를 구해준 남자의 보호 아래 있지. 그 남자는 하르만 대위조차 감히 건드리지 못할 만큼의 실력을 가졌어."

"뭐라고?"

파울이 되물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내가 말한 건, 군인이라는 직업을 아마추어처럼 여기는 콘라드 공작이야.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는 바보로 통하거든. 그가 에브르쿠르에 사령부를 두고, 매일 엘리자베스를 찾아간다는 거지. 그러니 더 이상 걱정할 일은 없어."

하지만 베르나르가 말을 멈추고 놀란 눈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잖아."

폴은 매형의 어깨를 꼭 쥐고 힘주어 말했다.

"엘리자베스가 위기에 처했어. 콘라드 공작이 그녀에게 반했지. 기억나? 우리가 전에 들었던 이야기잖아. 이 일기는 절박한 비명 같은 거야. 그는 그녀를 놓지 않아. 이해해? 그는 어떤 수단이든 가리지 않을 거야."

"오, 폴, 믿을 수가 없어."

"어떤 수단이든 가리지. 내가 말하는데, 그는 멍청한 게 아니라 교활하고 추악한 자야. 이 일기를 읽어 보면 알 거야. 이제 말로만은 안 돼, 베르나르. 지금 필요한 건 행동이야. 생각할 시간도 없이 당장."

"무엇을 할 생각이야?"

"그 남자에게서 엘리자베트를 빼내야 해. 그녀를 구출해야 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니? 우리 아내가 그 해적의 손아귀에 묶여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내가 팔짱만 끼고 앉아 있을 줄로 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피가 흐르는 남자가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나! 일이나 시작하자, 베르나르. 망설이면 내가 혼자 갈 테니까."

"혼자 간다고? 어디로?"

"저기요. 나는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도움도 필요 없어요. 독일군 제복만 입으면 됩니다. 밤의 어둠을 틈타 침투할 거예요. 죽여야 할 적

은 죽이고, 내일 아침이면 엘리자베스가 여기, 자유의 몸이 되어 있을 겁니다."

베르나르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불쌍한 폴군."

"무슨 소리야? 무슨 뜻이지?"

"그건 네가 내 편이 되어 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엘리자베스를 구하러 나섰을 거라는 뜻이지. 위험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 하지만 불행히도……"

"불행히요?"

"그래, 폴. 여기서 더 공격적인 작전을 포기하기로 했어. 예비군과 영토군을 동원하느라 병력이 모자라거든. 우리도 떠날 거야."

"우리가요?" 폴이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떠나요?"

"그래, 오늘 밤이야. 오늘 밤 우리 부대가 코르비니에서 출항해. 어디로 갈지는 나도 몰라. 랭스일 수도 있고, 아라스일지도 몰라. 어쨌든 서부나 북부 지역으로 가는 거지. 알겠지, 불쌍한 폴아. 네 계획은 실현 불가능해. 용기를 내라. 그런 절망적인 표정 짓지 마라. 네 모습이 내 마음을 찢어놓는구나. 자, 어쨌든 엘리자베스는 위험하지 않아. 그녀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

파울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엘리자베트의 일기에 적힌 콘라드 공의 끔찍한 말이 맴돌았다.

"이건 전쟁이야. 전쟁의 권리요, 전쟁의 법칙이거든."

그는 그 법칙의 무거운 무게가 자신 위에 내려앉았음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법칙이 지닌 가장 고결하고 격려되는 측면, 즉 국가의 생존을 위해 개인이 바치는 희생을 통해 그 법칙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전쟁의 권리? 아니다. 전쟁의 의무다. 그 의무는 너무도 절박해서 논할 여지가 없다. 비록 잔인할지라도, 마음속 한구석에서 불평의 떨림이 살아 숨 쉬게 두어서는 안 된다.

엘리자베트가 죽음과 치욕 앞에 서 있는들, 그것은 상병 폴 델로즈의 일이 아니었다. 그에게 주어진 길을 한순간도 벗어나게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사람이기 전에 군인이었다. 그가 지켜야 할 의무는 오직 프랑스, 고통스럽고도 사랑스러운 조국에 대한 것뿐이었다.

그는 엘리자베트의 일기를 꼼꼼하게 접었다. 그리고 매형의 뒤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해가 지자, 그는 오르네캉 성을 떠났다.

툴, 바르르뒤크, 비트르르프랑수아…… 작은 도시들이 길게 늘어선 열차 행렬 너머로 스쳐 지나갔다. 열차는 베르나르와 파울을 태우고 프랑스 서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수없이 많은 기차들이 그들 앞뒤를 바쁘게 오갔다. 군대와 물자로 가득 찬 열차들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파리의 큰 교외에 도착했다. 이어 북쪽으로 올라섰다. 보베, 아미앵, 아라스.

그들은 반드시 먼저 도착해야 했다. 국경 너머에서. 영웅적인 벨기에군과 합류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가능한 한 북쪽,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했다.

길고 고된 정전(靜戰)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리라도 더 땅을 밟는다는 것은, 그 땅을 침략자로부터 떼어내는 일이었다.

이제 북쪽으로 향하는 행군을, 폴 델로즈 소위(그는 진급을 이 길에서 받았다)는 마치 꿈속에서처럼 해냈다. 그는 매일 전투를 치렀고, 매 순간 죽음을 무릅썼다. 그는 거스를 수 없는 열정으로 부하들을 이끌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의지의 자동 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듯이 모든 것을 해냈다.

베르나드는 웃으며 자신의 목숨을 건드리고, 그의 열정과 낙천주의로 동료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반면 폴은 침묵을 지키고 딴생각에 잠겨 있었다. 피로와 박탈감, 그리고 악천후조차 그에게는 무관심하게 느껴졌다.

그는 때로 베르나르에게 털어놓곤 했다. 전진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 깊은 쾌락이었음을.

그는 자신이 오직 자신에게 의미 있는 한 가지 목표, 즉 엘리자베트를 구해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꼈다.

그가 공격한 국경이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었다 해도, 그건 결국 그가 온갖 증오를 쏟아부은 적과 맞서 싸우는 것이었다.

어디서 적을 쓰러뜨리든 중요하지 않았다.

어떤 경우든 엘리자베트는 자유로워질 테니까.

"우린 반드시 도착할 거야." 베르나드가 말했다. "엘리자베트가 저 코감기 같은 적을 무찌를 거란 건 분명해. 그 사이 우리는 독일군을 우회해서 벨기에를 가로질러 돌진하고, 콘라드 장군의 배후를 급습해서 에브르쿠르를 단숨에 점령할 거야. 그 생각만 해도 웃기지 않아?"

"아, 알겠어. 넌 독일군을 쓰러뜨릴 때만 웃잖아. 그 때 너는 아주 날카롭게 웃거든. 그걸 보면 나는 '빵! 총알이 명중했구나' 혹은 '이제 그 놈을 포크에 꽂았구나'라고 생각하게 돼. 네가 포크를 다루는 법도 잘 알고 있으니까."

"아, 우리 중위여! 인간은 얼마나 야만적으로 변하는지! 죽이는 게 웃긴다고 웃고, 그 웃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다니!"

로아, 라스니, 쇼른… 그 뒤로는 바세 운하와 리스 강이 이어진다. 그리고 마침내 이프르, 이프르! 두 노선은 여기서 끝이 나며 바다까지 이어진다.

프랑스의 강들, 마른 강, 아즈네 강, 우아즈 강, 소름 강을 지나자, 이제 벨기에의 작은 시냇물이 젊은이들의 피로 물들 것이다. 이저르 강 전투가 시작된다.

베르나르는 곧 상사 계급을 얻었고, 폴 델로즈와 함께 그들은 12월 초까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았다.

그들은 파리 출신 반쯤 되는 이들과 자원입대자 두 명, 예비역 한 명, 그리고 로를레에서 탈출해 적과 싸우려면 프랑스 편에 합세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판단한 벨기에인 라스헨 등 여섯 명으로 작은 무리를 이루었다. 이 작은 부대는 불꽃조차도 피하는 듯했다.

폴이 지휘하던 중대의 나머지 병력은 오직 그들뿐이었다. 중대가 다시 채워진 뒤에도 그들은 여전히 서로 뭉쳐 지냈다.

위험한 임무는 언제나 그들이 자청했다. 그리고 언제나 임무가 끝난 뒤, 그들은 흠집 하나 없이 무사히 돌아왔다. 마치 서로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듯했다.

지난 이 주 동안, 연대는 최전방 정예 부대의 선두에 서서 벨기에와 영국의 부대들과 함께 싸웠다.

그곳에서는 영웅적인 돌격이 이어졌다.

심한 진흙탕과 홍수 물바닥에서 총검이 날카롭게 빛났다. 독일군은 수천, 수만 명씩 쓰러졌다.

베르나르는 환호성을 지르며 흥분했다.

"보라, 토미." 그는 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영국군 소년 옆을 걷다가 말했다. 소년은 프랑스어를 단 한 마디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계속했다.

"토미, 나만큼 벨기에 사람들을 존경하는 사람도 없어. 하지만 그들의 전투 방식이 나를 놀라게 하진 않아.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즉 사자처럼 싸우거든."

"나를 진짜로 경악하게 만드는 건 너희다, 알비온의 아들들.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야."

"너희는 일을 처리하는 독특한 방식이 있어. 정말 대단한 일이야. 흥분도, 광기 같은 분노도 없지. 그건 너희 내면 깊숙한 곳에 묻혀 있어. 하지만 후퇴할 때의 그 분노라니! 그때 너희는 무서운 존재가 돼. 너희는 후퇴할 때야말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곤 해. 그 결과, 독일군들은 으스러져 버리지."

그날 밤, 디스무드 인근에서 제3중대가 교전을 벌이고 있을 때였다. 두 사위에게는 매우 기묘한 일이 발생했다.

파울은 갑자기 오른쪽 허리 위쪽에서 날카로운 충격을 느꼈다. 그는 그 일에 대해 걱정할 겨를조차 없었다. 하지만 참호로 돌아와 보니, 총알이 권총 케이스 가죽을 뚫고 총신에 납작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파울이 서 있던 위치를 고려할 때, 이 총알은 반드시 그의 뒤에서 발사되었어야 했다. 즉, 그의 중대나 연대 소속 병사 중 한 명이었다. 우연이었을까? 실수였을까?

그 이틀 후, 이번에는 베르나드의 차례였다. 운명은 그 역시 지켜주었다. 총알이 그의 배낭을 뚫고 어깨뼈를 스쳐 지나갔다.

사흘 뒤, 파울의 모자에 총알이 뚫렸다. 이번에도 총성은 프랑스 진영에서 날아온 것이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두 사위 형제는 명백히 표적이 되었다. 적의 돈으로 일하는 배신자, 즉 도적이 프랑스군 진영 한가운데 숨어 있는 것이 분명했다.

"틀림없어." 베르나르가 말했다. "먼저 너를, 그리고 나를, 다시 너를 노리는 거야. 이 일에는 헤르만이라는 놈이 개입했어. 소장은 디크스마이드에 있을 거야."

"공작도 있을지 모르지." 파울이 덧붙였다.

"그럴 수도 있지. 어쨌든 그들의 요원이 우리 사이에 잠입했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대령에게 알릴까?"

"좋아요, 베르나르. 하지만 우리 이야기, 특히 대위와의 싸움에 대해서는 말하지 맙시다. 잠시 동안은 대령에게 경고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엘리자베트의 이름이 이 사건에 얽히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게다가 지휘관들을 경계하게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두 사위들에 대한 시도가 반복되지는 않았지만, 배신 행위는 매일처럼 계속되었습니다. 프랑스군의 포병 진지가 적에게 발각되고, 공격이 미리 막혔습니다. 이는 어디에서보다 훨씬 활발하게 작동하는 정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기어 중 하나인 하만 대위의 존재를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기 있잖아." 베르나드가 독일군 진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가 바로 그가 있는 곳이야. 지금 이 습지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가 오가고 있으니까. 그에게도 할 일이 많지. 게다가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도 여기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알지?" 폴이 반문했다.

베르나드가 쏘아붙였다.

"왜 모른다고 생각하지?"

어느 날 오후, 대령이 거처로 삼던 오두막에서 회합이 열렸다. 중대장과 대위들이 모인 자리였다. 폴 델로즈도 소명을 받아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는 중요한 소식을 들었다. 사단장이 운하 좌안에 있는 작은 집 한 채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평상시에는 나룻배 선장이 살던 곳이었다. 하지만 독일군이 그곳을 요새로 삼고 있었다.

나뉜 언덕 위에는 독일군의 중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 포들은 이 집이 있는 쪽을 향해 사격을 가했다. 이 블록하우스를 두고 며칠째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제 그 집을 반드시 빼앗아 와야 했다.

"그걸 위해," 대령이 덧붙였다. "아프리카 연대에서 자원병 백 명을 뽑아 오늘 밤 출정하게 했다. 내일 아침에 돌격을 감행할 예정이다. 우리 부대의 임무는 그들을 즉시 지원하고, 작전이 성공하면 적의 반격을 막는 것이다. 이 지점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므로, 적의 반격은 치열할 것이다. 이 지점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 그곳은 우리와 습지로 분리되어 있다. 아프리카 자원병들은 오늘 밤 그 습지를 통과할 것이다. 물이 허리까지 차오를 정도다. 하지만 습지 오른쪽에는 운하를 따라 나 있는 제방 길이 있다. 우리는 그 길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이 길은 양쪽 포병의 사정권 안에 있지만, 대부분은 안전하다. 그러나 건널목 집으로부터 오백 미터 지점에 오래된 등대가 있다. 이곳은 지금까지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방금 포격으로 파괴했다. 그들이 완전히 철수했는지? 우리가 선봉 부대와 마주칠 위험은 없는지?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다. 델로즈 씨, 내가 당신을 찾은 이유다."

"감사합니다, 대령."

"임무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섬세한 작업이고, 확실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밤에 출발하십시오. 만약 구형 등대가 점령되어 있다면 돌아오십시오. 아니라면, 튼튼한 병사 열두 명을 데려와 우

리 부대가 접근할 때까지 철저히 숨겨두십시오. 그곳은 훌륭한 거점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령."

파울은 즉시 움직였다. 파리에 있는 동료들과 자원자, 그리고 예비역 병사와 벨기에인 라슈겐을 모아 평소의 소부대를 꾸렸다. 그는 이들을 밤사이 필요로 할 것임을 미리 알렸다. 그리고 저녁 아홉 시, 그는 베르나르 뱅드빌과 함께 길을 나섰다.

적군의 투광등 불빛이 그들을 오랫동안 운하 가장자리, 뿌리째 뽑힌 거대한 버드나무 그루터기 뒤로 숨어들게 했다. 그러자 짙은 어둠이 그들을 감쌌다. 물결치는 수면의 선조차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들은 걷기보다 기어 다녔다. 뜻밖의 빛에 노출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진흙탕과 늪지 위를 살짝 스치는 바람이 있었다. 갈대들이 비명처럼 떨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섭군." 베르나드가 속삭였다.

"입 다물어."

"알겠소, 부관."

이유 없이 대포가 가끔씩 굉음을 질렀다. 불안한 침묵 속에서 소음을 만들어 내는 개들처럼. 그러자 곧 다른 대포들이 성나게 짖어댔다. 자신들도 잠들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한 듯했다.

그리고 다시 평정이 찾아왔다. 공간 속에 더 이상 움직이는 것이 없었다. 습지의 풀들조차 움직임을 멈춘 듯했다. 하지만 베르나르와 폴은 자신들과 함께 떠난 아프리카 자원봉사자들의 느린 진격을 직감했다. 그들은 얼음물 같은 물가에서 길게 쉬곤 했고,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었다.

"날이 점점 더 음산해져가." 베르나르가 신음하듯 말했다.

"오늘따라 너 유난히 예민하네." 폴이 지적했다.

"이저 강 때문이야. '이저, 가련한 이저'라고 독일놈들이 부르거든."

그들은 재빨리 몸을 낮췄다. 적군이 탐조등으로 길을 쓸고 있었고, 습지 안까지 조사하고 있었다. 그들은 두 번이나 경보를 받았지만, 결국 무사히 오래된 등대 근처에 도착했다.

시계는 열한 시 삼십 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들은 끝내지 않은 조심성을 다해 무너진 벽돌 더미 사이로 몸을 숨겼다. 곧 그들은 그 곳이 이미 버려진 진지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무너진 계단 아래로 열린 지하실 구덩이가 보였다. 사다리가 그 속으로 깊숙이 내려가 있었고, 어둠 속에서 검과 투구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위에서 손전등 불빛을 비추며 어둠을 뒤지던 베르나르가 말했다.

"걱정 마. 죽은 자들이야. 방금 있던 포격 뒤에 독일군이 던져둔 것 같아."

"그래." 폴이 말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찾으러 올 경우를 대비해야 해. 베르나르, 이저 강 쪽을 감시해."

"만약 그놈들 중 한 명이 아직 살아 있다면 어떡해?"

"내가 내려가 볼게."

"주머니를 뒤져라." 베르나르가 자리를 뜨며 말했다. "그리고 여권도 가져와라. 정말 흥미진진하단 말이다. 그들의 영혼, 아니 위장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니까."

폴은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다. 바닥에는 여섯 구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 모두 움직이지도, 따뜻함도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몸이었다.

버나드의 조언에 따라 폴은 시체들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지갑과 수첩을 하나하나 살폈지만, 눈에 띄는 것은 없었다. 하지만 여섯 번째 병사, 얼굴을 제대로 맞고 쓰러진 야윈 병사의 재킷에서 폴은 한 가지 걸렸다.

그것은 로젠탈이라는 이름의 지갑이었다. 안에는 프랑스와 벨기에 지폐가 들어 있었고, 스페인, 네덜란드, 스위스에서 우표가 찍힌 편지 더미도 있었다. 편지들은 모두 독일어로 쓰여 있었다.

이 편지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독일 정보원에게 보내졌고, 그 정보원이 다시 이 로젠탈이라는 병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였다. 폴은 이 사실을 깨달았다. 이 병사는 이 편지들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각하'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진 제3자에게 전달해야 할 임무를 띠고 있었던 것이다.

"첩보부대라니. 폴이 그 서류들을 훑어보며 중얼거렸다. '비밀 정보… 통계 자료라니. 대체 무슨 놈의 무리들이냐!'"

하지만 폴은 다시 지갑을 열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내 찢어 열었다.

그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폴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다.

사진 속 여인은 오르네탱의 밀실에서 그가 본 초상화와 똑같은 여자였다. 레이스 스카프를 똑같은 방식으로 매고 있었고, 미소가 단호함을 가리지 못하는 그 특유의 표정까지 일치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바로 안드빌 백작부인, 엘리자베트와 베르나르의 어머니인 에르미느 백작부인이 아니었는가?

사진에는 베를린의 우표가 찍혀 있었다.

폴이 사진을 뒤집어 보니, 그의 놀라움은 더 커졌다. 사진 뒷면에는 몇 마디의 글이 적혀 있었다.

‘스테파네.’

그것은 안드빌 백작의 이름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1902년, 즉 에르미네 백작부인이 죽은 지 사 년 후에 엘리자베트와 베르나르의 아버지에게 베를린에서 보내진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 앞에 서게 되었다.

하나는 사진이 에르미네 백작부인이 살아 있을 때 찍혔지만, 안드빌 백작이 받은 해도를 그대로 적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에르미네 백작부인이 아직 살아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의외로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했다. 막스 하만의 이름이 그의 어지러운 머릿속을 맴돌았다. 방치된 방의 초상화가 그를 떠올리게 했던 것처럼, 이 사진도 하만을 생각나게 했다. 하만! 에르민!

그리고 이제, 그는 이 에르민의 초상화를 독일 간첩의 시신 위에서 발견했다. 바로 그 요새, 간첩단의 두목이 분명히 하만 대위일 것이라고 의심되는 이저 강변에서였다.

“폴!”

“폴!”

그는 처제 남편의 부름이었다. 폴은 벌떡 일어나 사진을 숨겼다. 그는 그 일에 대해 절대 입을 닫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리고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어떻게 된 거야, 베르나르?"

"독일군 소부대가 있어요. 처음에는 교대하는 정찰대로 생각했어요. 다른 쪽으로 가서 머물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보트 두 척을 보내서 운하를 건너고 있어요."

"맞아요. 들리네요."

"쏘아볼까요?" 베르나드가 물었다.

"아니요. 그러면 경보를 울리는 셈이죠. 관찰하는 게 좋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임무잖아요."

그때였다. 베르나드와 폴이 따라온 제방 길에서 가느다란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배에서는 같은 톤으로 화답하는 휘파람 소리가 돌아왔다. 두 사람은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두 번 더 신호를 주고받았다.

교회 시계가 자정을 알렸다.

"약속 장소인 것 같아요." 폴이 말했다. "이제 재미있어지네요. 갑시다. 아랫쪽에다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에서도 놀라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방과 벽돌로 막힌 뒷다락방 사이에 난 틈을 쉽게 지나쳤다. 그 틈은 천장과 벽에서 떨어진 돌멩이들로 금방 막아 버렸다.

막 작업을 끝내자마자,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독일어 말소리도 섞여 내려왔다. 적군이 꽤 많은 듯했다. 베르나르는 자신의 총 끝을 돌맹이로 쌓은 방어벽의 구멍에 갖다 대었다.

"뭐 하는 거야?" 폴이 물었다.

"만약 그들이 올라온다면? 준비해 둔 거지. 우리는 제대로 된 공방전도 치를 수 있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베르나르. 일단 들어보자. 아마 몇 마디쯤 알아들을 수도 있을 거야."

"너라면 모르지, 폴. 하지만 난 독일어 한 마디도 모르는데?"

강렬한 빛이 지하실을 가득 채웠다. 한 병사가 내려가 벽의 못에 큰 전등 하나를 걸어 달았다. 열 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합류했고, 두 사위 형제는 곧 상황을 파악했다. 이들은 시체를 옮기러 온 것이었다.

작업은 생각보다 빨랐다. 십오 분도 지나지 않아 지하실에는 로젠탈 경관의 시체 하나만 남았다.

위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명령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우리가 올 때까지."

"카를, 네가 먼저 내려가."

사다리의 위쪽에서 누군가 모습을 드러냈다. 파울과 베르나르는 붉은 바지, 이어 푸른 코트, 그리고 마침내 프랑스 군인 전체 차림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남자는 땅에 내려서며 외쳤다.

"여기 있습니다. 각하. 이제 차례입니다."

그때 그들은 벨기에인 라슈를 보았다. 아니, 정확히는 라슈라고 불렸던, 그러나 실제로는 가짜 벨기에인이었다. 그는 폴의 분대 소속이었다. 이제야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 쏘았던 총알 세 발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있었다. 배신자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빛 아래서 그들은 그의 얼굴을 또렷이 분간할 수 있었다. 사십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의 얼굴이었다. 얼굴은 퉁퉁 붓고 살이 많이 쪄 있었으며,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사다리의 양쪽 난간을 꽉 잡으며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했다. 한 명의 장교가 조심스럽게 내려왔다. 그는 목이 높은 회색 코트를 두르고 있었다.

그들은 그 사람이 하만 중위임을 알아봤다.

즉각적으로, 그리고 그 순간 분노에 휩싸여 즉각적인 복수를 하고 싶게 만들었던 본능에도 불구하고, 폴은 베르나르의 팔에 손을 얹어 그를 진정시켰다. 조심하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 악마를 바라보는 순간, 그 자신은 어떤 분노에 사로잡혔던가!

그의 눈에 아버지와 아내에게 저지른 모든 죄악의 화신이었던 바로 그 남자가, 이제 자신의 권총 총구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파울은 움직일 수 없었다.

더욱이 상황은 그를 막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몇 분 뒤면 그 남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러 떠날 것이 분명했다. 그를 저지를 방법은 없었다.

"좋아, 칼."

대위가 독일어로 말했다. 그리고 가짜 라셴을 향해 계속했다.

"약속 장소에 정확히 도착했군. 자, 새로 나온 일은 뭐가 있나?"

"일단 말씀드리자면, 각하." 카를이 대답했다. 그는 장교에게 보이는 그 특별한 존경심과 친밀감이 섞인 태도로, 동시에 동맹자이자 상사인 그에게 허락을 구하듯 말을 이었다.

그는 푸른 코트를 벗어 던지고, 시체 중 한 명이 입고 있던 재킷을 입었다. 그러고는 경례를 하며 한숨을 쉬었다.

"후우! 보세요, 각하. 저는 착실한 독일인입니다. 어떤 일도 싫어하지 않죠. 하지만 그 군복은 숨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네가 도망친다는 말이냐?"

"각하,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프랑스 농부의 겉옷이라면 모를까, 프랑스 병사의 코트는 절대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저를 따라가야 하는데, 독일 총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두 사위들은 어떡하죠?"

"세 번이나 그놈들 뒤에다 총을 겨눴지만, 세 번 모두 빗나갔지. 도무지 소용이 없더군. 그놈들은 운이 좋은 게 틀림없어. 결국 내가 잡힐 판이었어. 그래서 말이지, 네가 하듯 나도 탈출하기로 했지. 로잔탈과 내가 오가던 아이를 이용해 너와 만나기로 한 거야."

"로잔탈이 그 편지를 본부로 다시 보내줬다네."

"그런데 사진도 함께 보냈어. 아시다시피 그 사진 말이지. 그리고 프랑스 측 정보원들이 보내온 편지 더미도요. 내가 발각될 때, 그런 증거물이 내身上에서 발견되면 안 되니까."

"로잔탈이 직접 가져다줘야 했는데, 말이지."

"불행히도 그는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소."

"무슨 짓을요, 각하?"

"대포 파편에 맞아 죽었다는 거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 시체가 네 발 앞에 있소."

카를은 어깨를 으쓱일 뿐이었고, 이렇게 말했다.

"바보 같은 놈!"

"맞아요. 그는 늘 제 힘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했어요." 대위가 덧붙이며 조상을 마무리했다. "칼, 지갑을 찾아봐. 양모 조끼 안주머니에 넣곤 했지."

간첩이 몸을 굽혔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없습니다, 각하."

"장소를 바꿨겠지. 다른 주머니도 뒤져봐."

"다른 곳에도 없습니다." 칼이 명령대로 뒤진 뒤 단호하게 말했다.

"뭐라고? 이건 큰일이다. 로젠탈은 지갑을 절대 떨어뜨리지 않았다. 잠잘 때도 곁에 두었으니, 죽을 때도 지갑을 품에 안고 있었을 거다."

"각하께서 직접 찾아보십시오."

"그럼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동안 누군가 이 곳에 찾아와 지갑을 가져갔습니다."

"누구? 프랑스인들인가?"

간첩이 몸을 일으켰다. 잠시 침묵하다가, 대장에게 다가가 천천히 말했다.

"프랑스군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프랑스인 한 명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야?"

"대장, 델로즈가 방금 전 형제자매 관계인 베르나르 드안드빌과 함께 정찰을 나갔습니다. 어느 쪽으로 갔는지요? 처음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등대 유적을 조사하던 중 시체들을 발견했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성가신 일이군." 대장이 투덜거렸다. "확실해?"

"물론입니다. 그가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한 시간 전쯤이면요. 아니요," 카를이 웃으며 덧붙였다. "아마 지금도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딘가에 숨어 있겠죠."

두 사람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습관적인 동작일 뿐, 그들 마음속에 심각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대위가 다시 생각에 잠긴 듯 입을 열었다.

"결국 우리 요원들이 받아낸 편지 더미, 주소도 이름도 없는那些 편지들.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진은 사정이 다릅니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각하! 1902년에 찍힌 사진이라니. 우리가 벌써 열두 해째 찾고 있는 사진이죠. 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아십니까. 드디어 전쟁 중 안드빌 백작이 집에 남겨둔 서류들 속에서 그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형사는 숨을 고르며 계속했다.

"그리고 그 사진은 각하께서 안드빌 백작에게 무모하게 건넸다가, 다시 빼앗으려던 바로 그 사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진은 미스 안드빌의 남편이자 각하의 원수인 폴 델로즈의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느님! 저도 잘 압니다!" 대위가 분한 듯 소리쳤다. "이렇게까지 일일이 설명해 줄 필요는 없어요."

"각하,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폴 델로즈를 대하신 당신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시선과 조사, 그리고 증오가 당신 자신이 아닌 마요르 헤르만에게로 향하도록 하려던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을 위해, 헤르만의 이름이 새겨진 단검을 여러 개 만들어 그의 주의를 끌고, 유명한 초상화가 걸려 있던 판넬에 '마요르 헤르만'이라고 서명까지 하셨죠.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마요르 헤르만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릴 때 폴 델로즈가 자신의 적을 잃었다고 생각하게 하고, 더 이상 당신을 쫓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이 사진과 함께, 그가 결혼하던 날 밤 보았던 그 유명한 초상화와 마요르 헤르만 사이에 존재하는 결정적인 연관성을 증명하는 증거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즉, 현재와 과거가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아무 죽은 사람 시체에서 나온 사진이 뤼팽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려면, 그는 그 사진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해. 예를 들어 안드빌의 사위를 볼 수 있다면 말이지."

"안드빌의 사위는 파울 델로제로부터 세 리(里) 떨어진 곳에서 영국군에 참전해 싸우고 있어."

"그 사실을 알고 있어?"

"아니. 하지만 우연히 만날 수도 있지. 게다가 베르나드와 그의 아버지는 편지를 주고받고 있어. 베르나드는 성에서 일어난 일들, 적어도 파울 델로제와 그가 복원할 수 있었던 사건들을 아버지에게 말했을 거야."

"그래서? 다른 사건들은 모른다면 어때? 그게 핵심이야."

"엘리자베트를 통해 그들은 우리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 추측할 거야. 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죽은 줄 알기 때문에 그녀를 찾지 않을 거야."

"정말 확신하십니까, 각하?"

"뭐라고?"

공범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 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친 채로. 대위는 불안하고 화가 난 눈빛이었고, 간첩은 약간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다.

"말해라. 무슨 일이냐?" 대위가 말했다.

"각하, 방금 전에 델로즈의 가방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아,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몇 초 정도요. 하지만 두 가지를 볼 수는 있었습니다."

"서두르라."

"첫째, 그 원고의 산문입니다. 각하는 중요한 페이지들은 미리 태워 없애셨지만, 불행히도 전체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셨죠."

"그 아내의 일기장 말입니까?"

대위는 욕설을 내뱉었다.

"저 지옥에 떨어지리라! 이런 경우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게 상책이야! 아, 만약 내가 그 멍청한 호기심을 품지 않았다면! 그리고 다음?"

"그 다음, 각하? 음, 거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포탄 파편 하나요. 네, 작은 포탄 파편이죠. 하지만 이 파편이 각하께서 지시하신 대로, 엘리자베트의 머리카락을 벽에 붙인 뒤 정자에 벽에 박으라고 하신 그 파편인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하?"

대위는 분노에 발을 구르며, 폴 델로즈의 머릿속에 새로운 저주와 저주를 쏟아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하?" 간첩이 되물었다.

"당신이 맞소." 대위가 외쳤다. "그의 아내의 일기를 통해, 그 사나운 프랑스인이 진실을 눈치챌 수 있소. 그리고 그 포탄 파편을 손에 쥐었다는 건, 그에게 그의 아내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증거가 되는 거요. 바로 그걸 막고 싶었던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에게 평생 시달려야 하겠소."

그의 분노는 더욱 격렬해졌다.

"아, 카를. 저 녀석이 나를 귀찮게 하네. 저와 그 조카뻘 되는 처제랑, 정말 골치 아픈 놈들이야. 신이여, 내가 생각하길, 우리가 성으로 돌아와 그들의 방에 들어갔을 때 벽에 적힌 이름을 보고는 그들을 처리해 줄 거라 믿었어. 그런데 이제 그 작은 아이가 죽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자,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들은 그녀를 찾을 거고, 결국 찾을 거야. 게다가 그녀는 우리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어! … 카를, 그녀를 없애야 했어!"

"그리고 공작은요?" 간첩이 비웃으며 물었다.

"콘라드는 바보야. 이 프랑스인 가족은 모두 우리에게 불운을 가져올 거야. 특히 콘라드가 가장 먼저 불운을 겪을 텐데, 그는 요란한 여자

를 사랑에 빠질 정도로 충분히 멍청해. 카를, 나는 너에게 그녀를 즉시 없애라고 명령했잖아. 공작의 귀환을 기다리지 말고."

강렬한 빛 아래에 서 있는 헤르만 대위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도적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얼굴이 무서운 것은 외모의 기형이나 특별히 추한 점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표정이 혐오스럽고 야만적이어서 공포를 자아냈다.

파울은 그 얼굴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에르민 백작부의 초상화와 사진에서 보았던 표정을 다시 발견했다. 다만 그 야만성은 극한까지 치닫아 있었다.

실패한 살인을 떠올리자 헤르만 대위는 천 번 죽는 듯한 고통을 겪는 듯했다. 그에게 살인은 곧 생존의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갈았고, 눈은 핏발로 가득 찼다.

그는 어딘지 딴전에 빠진 듯한 목소리로, 동반자의 어깨를 꽉 쥐고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는 프랑스어로였다.

"카를, 도대체 우리가 저들을 잡을 수 없는 이유가 뭘까. 뭔가 기적이라도 일어나 우리를 막는 것 같아. 요즘 너는 세 번이나 실패했지. 오르네캉 성에서는 대신 두 명을 죽이기도 했고. 나도 한 번은 놓쳤어. 공원 작은 문 근처에서 말이야. 그리고 그 공원이었지. 같은 예배당 옆에서. 너 기억나지? 16년 전, 그가 아직 아이였을 때 네가 칼을 꽂았던 그날. 바로 그날부터 너는 실수를 저지르기 시작했어."

간첩은 비웃듯, 그리고 거만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무엇을 원하시죠, 각하? 저는 아직 이 길에 발을 들인 지 얼마 안 된 초년생이어서, 각하那样的 숙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하고 아이를 십 분도 채 모르던 사이였어요. 그들이 한 짓이라곤 황제를 귀찮게 했다는 것뿐이죠. 저는 손이 떨려버렸습니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각하는 달랐습니다. 아, 그 아버지를 각하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요. 작은 손길 한 번, 후! 끝장났죠."

이때는 폴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리볼버의 총구를 틈새 중 하나로 집어넣었다. 카를의 진술을 들은 지금, 그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소장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바로 저 인간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의 공범이었던 자는, 과거에도 이미 그의 공범이었다. 바로 아버지가 숨을 거두는 순간, 자신인 폴을 죽이려 했던 부하였다.

베르나르는 폴의 손짓을 보자 귀에 대고 속삭였다.

"결심했지? 쏴 버릴 거야?"

"내 신호를 기다려. 너는 그를 쏘지 마. 스파이를 쏴."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의문으로 가득했다. 하만 대장과 베르나르 안드빌, 그리고 그의 여동생 엘리자베트를 연결하는 알 수 없는 끈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의로운 일을 베르나르가 저질렀을 거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그 자신도 한 발짝을 떼지 못하고 주저했다. 행위의 전모를 알지 못한 채 내리는 판단이기에, 누구나 그러하듯 그는 망설였다.

그 도적은 대체 누구인가? 그에게 어떤 정체성을 부여해야 할까?

오늘날 그는 독일 정보부의 수장이자 하만 대장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콘라드 공작의 쾌락 동맹자였으며, 오르네캉 성에서 전능한 권력을 휘둘렀다. 시골 여인으로 변장해 코르비니를 배회하기도 했다. 예전에는 살인자이자 황제의 공범, 오르네캉의 영주 부인이기도 했다.

이 모든 정체성은 실은 한 명의 인물이 보여준 다양한 모습일 뿐이다. 그중에서 진정한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파울은 사진 속을 응시했던 것처럼, 그리고 닫힌 방 안의 에르민 드 앙드빌 초상화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열렬히 대위를 바라보았다.

헤르만…… 에르민…… 두 이름이 그의 머릿속에서 뒤섞였다.

그는 그 손의 섬세함을 눈여겨보았다. 하얗고 작은 손은 여자의 손 같았다. 가느다란 손가락에는 보석이 박힌 반지들이 빛났다. 부츠를 신은 발도 섬세했다.

얼굴은 매우 창백했고, 수염 자국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적인 외모는 거칠고 쉰 목소리, 무거운 동작과 걸음걸이, 그리고 진정한 야만적인 에너지로 인해 완전히 부정되었다.

대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몇 분 동안 생각에 잠겼다. 카를은 그를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주인이 과거의 범죄를 떠올리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해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주인은 나른함에서 깨어나 그를 향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오직 증오만이 떨리고 있었다.

"그들이 불쌍해. 우리 길을 막으려는 자들 모두 마찬가지야. 나는 아버지를 없앴고, 그것은 옳은 판단이었지. 언젠가 아들의 차례가 올 거야. 이제 문제는 그 아이야."

"제가 처리해 드리죠, 각하?"

"아니, 난 네가 여기 있어야 해. 나 역시 그 자리에 남아야 해. 일이 아주 안 좋아지고 있거든. 하지만 일월 초순이면 그곳으로 갈 거야. 열날 아침, 난 에브르쿠르에 있을 거야. 이틀 뒤면, 일이 끝났으면 해. 그리고 끝날 거야. 그걸 네게 맹세하네."

다시 그가 말을 멈췄다. 반면 간첩은 폭소를 터뜨렸다.

파울은 총구 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었다. 더 오래 망설였다가는 죄가 될 터였다. 마저를 죽이는 건 더 이상 복수도, 아버지의 살인자를 처단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범죄를 저지하는 것, 그리고 엘리자베트를 구하는 것이었다. 어떤 결과가 따르든, 행동해야만 했다. 그는 결심했다.

"준비됐나?" 그가 베르나르에게 아주 낮게 물었다.

"네. 신호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는 차갑게 조준했다. 방아쇠를 당길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다.

그때 카를이 독일어로 입을 열었다.

"대장, 건널목 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아십니까?"

"무슨 일?"

"공격입니다. 아프리카 연대 자원병 백 명이 이미 늪지를 건너 오고 있습니다. 새벽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본부에 알리고 대비책을 세우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대비는 끝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장?"

"내가 말했잖아, 그들은 이미 포획됐다고. 다른 경로를 통해 정보를 입수했어. 그리고 건널목을 장악한 적에게 강공을 가할 계획이라, 새벽 다섯 시에 부대 지휘관에게 병력 300명을 파견해 달라고 전화를 걸었지. 아프리카 자원부대가 그 함정에 빠질 거야. 살아 돌아오는 자는 아무도 없겠지."

대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며 가볍게 웃었다. 그리고 코트를 여미며 덧붙였다.

"더욱이 안전을 위해, 나도 직접 그곳에 머물며 밤을 새울 생각이라네. 설마 부대 지휘관이 이쪽으로 병력을 보내 로젠탈의 서류를 압수했

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거든. 그는 로젠탈이 죽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만 수다 떨자. 로젠탈 일을 처리하고 떠나라."

"전하, 제가 동행해 드릴까요?"

"필요 없어. 보트 한 척이면 운하를 따라 갈 수 있어. 집까지 사십 분쯤 걸릴 뿐이야."

간첩의 신호에 세 병사가 내려왔다. 그리고 시체는 위쪽 구멍으로 끌어 올려졌다.

카를과 대위는 사다릿대 아래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카를은 손에 들었던 랜턴을 구멍 쪽으로 향시켜 빛을 비춰 주었다.

베르나르가 속삭였다.

"저격할까요?"

"아니." 폴이 대답했다.

"내가 말렸는데…"

작업이 끝났을 때, 대위가 명령했다.

"랜턴을 더 밝게 비춰. 그리고 사다리는 절대 움직이지 않게 해."

그는 올라갔고, 이내 사라졌다.

"됐어!" 그가 외쳤다. "서두르세요."

다음으로 간첩이 올라갔다.

그들의 발소리가 지하실 위쪽에서 들렸다. 발소리는 운하 쪽으로 멀어졌고, 이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래, 대체 뭐야?" 베르나르가 외쳤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건 천금 같은 기회였어. 그 두 괴물은 단숨에 무너졌잖아."

"우리가 망하는 거야." 폴이 말했다. "저 위에 열두 명이 있었어. 우리는 이미 준비가 끝났지."

"하지만 엘리자베트는 구원받았어. 폴, 정말로 네 말이 이해가 안 돼. 우리 총알 사정거리 안에 이런 괴물들이 있었는데, 네가 그들을 놓쳐버렸다고? 네 아버지의 살인자, 엘리자베트를 괴롭힌 살인자가 바로 거기 있는데, 정작 네 생각은 어디에 있는 거야?"

"버나드, 파울 델로즈가 말했다. 네가 그들 사이에 오간 마지막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모양이야. 적군은 우리의 공습과 건널목 부근의 집에 대한 계획을 이미 눈치챈 거야. 곧 습지에 숨어 있는 아프리카 자원대 100명이 저지른 함정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그러니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 그들뿐이야. 무엇보다 그들을 구해야 해. 우리가 아직 완수해야 할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죽을 수는 없지. 내 말이 맞지?"

"맞아요, 버나드가 말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정말 좋았어요."

"우린 다시 그 기회를 잡을 거야. 아마 곧일지도 모른다고, 파울이 말했다. 그는 이미 건널목 부근의 집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곳으로 마요르 헤르만이 향할 테니까."

"결국 네 계획이 뭐야?"

"저는 자원병 부대에 합류합니다. 지휘관인 소위가 제 생각에 동의한다면, 7시에 공격을 시작하는 대신 바로 돌입합니다. 저도 그 현장에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저는요?"

"대령에게 돌아가서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이송부 대저택이 오늘 아침 점령될 것이며, 우리 군이 증원 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전하십시오."

그들은 더 이상 말 없이 헤어졌다. 폴은 망설임 없이 늪지대로 뛰어들었다.

그가 맡은 임무는 그가 예상했던 것처럼 어려운 장애물은 아니었다. 40분간 꽤 고된 행군을 한 끝에, 그는 낮은 목소리들의 수군거림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암호를 외치고는 소위에게로 인도되었다.

파울의 설명은 순식간에 장교의 마음을 움직였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이 작전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당장 실행에 옮기거나 둘 중 하나뿐이었다.

부대는 앞으로 나아갔다.

오후 세 시. 농부 한 명이 길을 안내했다. 그는 군인들이 무릎 깊이까지만 물에 잠기는 비탈길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들키지 않고 집 근처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 명의 파수병이 경보를 울렸고,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 공격은 전쟁 중 가장 빛나는 전과 중 하나다. 너무 잘 알려진 사건이라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다. 하지만 그 격렬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적군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들은 거침없이 반격했다. 철조망이 엉키고, 함정이 곳곳에 깔려 있었다.

집 앞, 그리고 집 안까지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 결국 프랑스군이 승리하고, 집을 지키던 독일군 83명을 사살하거나 포로로 잡았을 때, 프랑스군 역시 절반이 넘는 인명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

첫 번째, 폴은 집 왼쪽을 감싸며 반원형으로 이어진 Yser 강 쪽으로 뻗은 참호로 뛰어들었다. 그는 뚜렷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적의 공격이 성공하기 전에, 도망치는 자들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해야 했다.

처음에는 밀려났지만, 그는 강둑으로 자리를 옮겨 세 명의 자원군을 따르게 한 뒤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운하를 거슬러 올라가 집 뒤쪽으로 돌아나갔고, 예상대로 여기에도 뗏목 다리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때 그는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 가는 한 실루엣을 목격했다.

"여기서 기다려.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게 해."

그는 스스로 몸을 날려 다리를 건너 달리기 시작했다.

프로젝터 빛이 강둑을 밝히자, 다시 그 실루엣이 50보 앞을 걷고 있는 것이 보였다.

1분 후, 그가 외쳤다.

"멈춰! 안 그러면 쏜다."

도망치는 자가 계속 달리는 것을 보고, 그는 총을 쐈다. 하지만 명중시키지는 않았다.

남자는 멈춰 섰다. 그리고 권총을 네 발이나 쏘아댔다. 그 사이 폴은 허리를 굽혀 남자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어 그를 넘어뜨렸다.

적은 저항하지 않았다. 폴은 그의 몸을 코트 속에 감싸 안고 목을 조였다.

그리고 자유로운 손으로 손전등 불빛을 남자의 얼굴에 그대로 비췄다.

그의 직감이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는 바로 하만 대령을 붙잡은 것이었다.

폴 델로즈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손목을 등 뒤로 묶은 포로를 앞세워, 그는 다시 다리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짧은 빛줄기들이 스쳐 지나갔다.

공격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도주하려던 병사들이 다수 있었고, 다리를 지키던 자원봉사자들이 총을 난사하며 그들을 막았다. 독일군은 포위당했다고 생각했고, 이 기습은 그들의 패배를 재촉했다.

파울이 도착했을 때, 전투는 이미 끝난 뒤였다. 하지만 적의 반격은 임박했다. 사령관에게 약속된 증원군이 그 반격을 받칠 터였다. 즉각 방어 태세가 갖춰졌다.

독일군이 철저히 요새화하고 참호로 둘러싼 강도들의 집은 지상층과 그 위에 얹힌 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세 개의 방이 하나로 합쳐져 넓은 공간이 되었지만, 끝부분에는 나무 계단 세 개를 오르면 닿는 다락방이 있었다. 예전에는 하인의 방으로 쓰이던 그곳은, 마치 작은 방처럼 막혀 있었다.

파울은 이층의 관리를 맡고 있었다. 그는 그곳으로 죄인을 끌고 갔다. 죄인을 바닥에 눕히고 밧줄로 묶은 뒤, 빗장에 단단히 고정했다. 그 과정에서 파울은 분노에 휩싸여 죄인의 목을 쥐어짜듯 했다.

그는 자신을 다잡았다. 왜 급해해야 하겠는가. 이 남자를 죽이거나, 그를 벽에다 고정시켜 버릴 군인들에게 넘기기 전에, 그와 직접 대화하며 설명을 듣는 것만큼 큰 묘미가 어디 있겠는가.

소위가 들어왔을 때, 그는 모든 이, 특히 중위를 향해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소위님, 이 악당을 꼭 감시해 주십시오. 그 정체가 바로 중위 하만입니다. 독일 첩보부문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죠. 저는 그 증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후퇴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소위는 미소 지었다.

"불가능한 가정입니다. 우리는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건물을 날려버릴 테니까요. 그러니 중위 하만도 함께 날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두 장교는 방어 대책을 논의한 뒤,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먼저 배다리를 해체했다. 운하를 따라 참호를 파고, 기관총의 방향을 바꾸었다. 2층에서는 폴이 모래주머니를 건물 앞뒤로 나르며 벽을 보강했다. 받침대 역할을 하는 기둥을 아치형으로 세우고, 가장 약해 보이는 벽 부분을 단단하게 고정했다.

오후 다섯 시 반, 독일군의 투광등 밝은 빛 아래에서 여러 발의 포탄이 근처에 떨어졌다. 그중 한 발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큰 포가 제방길을 쓸어내기 시작했다.

새벽이 되기 조금 전, 그 제방길로 급파된 자전거 부대가 나타났다. 베르나르 드앙드빌이 그들을 이끌고 있었다.

그가 설명하기를, 두 개 중대와 공병 한 분대가 보병 한 개대보다 앞서 출발했지만, 적의 포격에 방해받아 강둑길 아래 습지대를 따라 흙막이 비탈 뒤로 숨어 진격해야 했다고 했다. 진격 속도가 그만큼 느려졌으니, 그들을 기다리려면 적어도 한 시간은 걸릴 것이다.

"한 시간이라니." 중위가 말했다. "제법 긴 시간이군.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그럼…"

그가 새로운 명령을 내리고 사이클리스트들에게 각자 맡은 자리를 정해 주는 사이, 폴은 다시 올라왔다. 그리고 막 하르만 대령의 포획 사실을 버나드에게 알리려던 찰나, 그의 처남이 이렇게 말했다.

"알고 있나, 폴? 아빠가 여기 나와 있어."

폴이 놀라 몸을 떨었다.

"네 아버지가 여기? 아버지가 너와 함께 왔다는 말이야?"

"완벽하군.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말이야. 그 녀석이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거야, 얼마 전부터 말이야."

"아, 참. 그 녀석이 통역 소령으로 임명됐대."

파울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만 반복할 뿐이었다.

'앙드빌 씨가 여기 있군. 에르미느 백작부인의 남편이지.'

‘그가 모르는 게 있을 리가 없어. 에르미느는 살아있나, 죽었나? 아니면 그 여자의 계략에 완전히 속아, 사라진 여자를 여전히 기억하고 사랑하고 있는 걸까?’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사진이 있으니까. 4년 뒤에 찍은 사진이, 그리고 그 사진이 베를린에서 보내졌잖아. 그러니 그는 알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폴은 심란한 기색이 역력했다. 스파이 카를의 고백은 단번에 드앙드빌의 모습을 낯선 빛으로 물들였다. 그리고 지금, 막 하만 대위가 체포된 그 순간, 드앙드빌이 폴 앞에 나타난 것이다.

폴은 다락방 구석으로 고개를 돌렸다. 대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얼굴을 벽에 꼭 붙인 채였다.

“아버님께서는 밖에서 기다리셨군요?” 폴이 처제를 향해 물었다.

“네, 자전거를 빌려 타셨어요. 우리 옆을 지나가던 사람이었는데, 다리가 살짝 다쳤거든요. 아버님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데려오게. 만약 중위가 괜찮다고 하면 말이야…”

그때 갑자기 포탄이 터졌다. 파편이 그들 앞에 쌓아둔 자루들을 쑤셔 뚫었다.

해가 뜨기 시작했다.

백 미터 밖, 어둠 속에서 적 부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준비해라!" 아래서 중위가 외쳤다. "내 명령 전엔 총도 쏘지 마라. 누구도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

사십 분의 일 시간이 지나고, 고작 사오 분 동안에야 폴과 당드빌 씨는 겨우 몇 마디 말을 나눌 수 있었다. 하지만 대화가 너무 단절되어 있어, 폴은 엘리자베트의 아버지를 앞에 두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고민할 여유조차 없었다.

과거의 비극, 그리고 에르미느 백작 부인의 남편이 그 비극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바로 블로크하우스를 방어해야 한다는 임무와 뒤섞여 있었다. 서로에 대한 애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수는 거의 무심한 듯했다.

폴은 작은 창문을 매트 하나로 막고 있었다. 베르나드는 방 반대편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당드빌 씨가 폴에게 물었다.

"당신은 버틸 수 있다고 확신하나요?"

"물론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요."

"네, 꼭 그래야 해요. 어제 저는 통역관으로 파견된 영국 장군과 함께 부대에 있었는데, 그때 그 공격을 결정했죠. 그 지점은 말 그대로 최전방이고, 반드시 그곳을 지켜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파울, 당신을 다시 만날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했죠. 당신의 연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명된 부대에 동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소리가 끊겼다. 포탄 하나가 지붕을 뚫고 지나가, 운하 쪽 반대편 벽을 무너뜨렸다.

“다친 사람은 없나?”

“없습니다.”

잠시 후, 안드빌 씨가 다시 말을 이었다.

“가장 신기한 건, 오늘 밤 당신의 대령 부대에서 베르나드를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쁨에 자전거를 타는 이들 속에 섞여 들어갔죠. 제 작은 베르나드 곁에 좀 더 머물고, 당신에게 악수를 나누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게다가 가녀린 엘리자베트에게서 연락이 끊겨 있었거든요. 베르나드가 그 이야기를 해줬죠.”

“아!” 폴이 재촉하듯 말했다. “베르나드가 성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말해줬나?”

“알 수 있는 한은 다요. 그리고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에 따르면, 당신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군요. 예를 들어, 왜 엘리자베트는 오르네캉에 남았을까요?”

“그녀가 원해서였습니다.” 폴이 대답했다. “그 결정에 대해 제가 알게 된 건 나중에 서신을 통해서였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폴?"

"오르네캥을 떠날 때, 그녀가 곧장 떠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뒀소."

"그래. 하지만 그녀 없이 오르네캥을 떠나서는 안 됐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 비롯된 거야."

앙드빌 씨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폴이 침묵하자 그는 재차 물었다.

"왜 엘리자베트를 데려가지 않았소? 베르나르가 말하길, 아주 심각한 일이 있었고, 당신도 특별한 사건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고 하더군. 혹시 설명해 줄 수 있겠소?"

폴은 앙드빌 씨에게서 미묘한 적대감을 느꼈다. 지금 그의 행동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기만 한데, 그런 사람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자 더 짜증이 났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할 적기라고 보시오?"

"당연하지.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파울은 그 말을 끝내게 두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 외쳤다.

"당신이 옳습니다, 각하. 끔찍한 생각입니다. 제가 당신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당신이 제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엘리자베트의 운명이 우리가 지금 내뱉을 몇 마디 말에 달려 있을

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숨기고 있으니 말입니다. 한 마디의 말로 진실이 드러날 수 있고,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당장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의 감정에 파르빌 각하는 놀랐다. 그는 물었다.

"베르나드를 부르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파울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이 일을 알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파르빌 각자는 점점 더 의아한 눈으로 물었다.

한 남자가 총알에 맞아 그들 곁에 쓰러졌다. 폴이 재촉했다. 이마를 맞은 그 남자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리고 총알 두 발이 폴이 부분적으로 막아낸 너무 큰 틈새로 들어왔다.

그를 도와주었던 드앙드빌 씨는 대화를 이어갔다.

"당신은 버나드가 들으면 안 된다고 했죠. 무슨 일 때문이라고요?"

"어머니 문제라서요." 폴이 대답했다.

드앙드빌 씨는 외쳤다.

"어머니? 어떻게 된 일이지? 어머니 문제라니…… 내 아내 문제란 말인가? 이해가 안 가."

구멍을 통해 적군 세 부대가 보였다. 그들은 침수된 평야 위를 지나, 집 건너편 운하로 수렴하는 좁은 제방을 따라 다가오고 있었다.

"적들이 수로에서 이백 미터쯤 떨어지면 사격합니다." 자발적 지원군을 지휘하는 중위가 방어 공사를 점검하러 왔다가 말했다. "다만 그들의 대포가 우리 오두막을 너무 망가뜨리지는 않길 바랄 뿐이죠."

"우리 증원 부대는요?" 폴이 물었다.

"삼십에서 사십 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그전까지 75미리 포가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죠."

공중에서 포탄들이 서로 교차했다. 독일군 진영 한복판으로 떨어졌는가 하면, 블록하우스 주변으로도 쏟아졌다.

폴은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병사들을 독려하고 지시를 내렸다.

가끔씩 다락방으로 다가가는 척하며 마요르 헤르만에게 시선을 주곤 했다. 그러곤 곧장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전사로서 짊어진 의무에서 단 한 순간도 마음을 떼지 않았다. 동시에 안드빌 후작에게 해야 할 말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강박관념이 뒤섞이자 그의 머리는 흐려졌다. 장인어른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도무지 풀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안드빌 후작이 여러 번 그를 물었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중위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심해! … 조준! … 사격!"

이 명령이 네 번이나 반복되었다.

총탄에 수십 명이 쓰러진 가장 가까운 적 부대는 잠시 주저하는 기색을 보였으나, 다른 부대들이 합세하면서 다시 진형을 갖추었다.

독일 포탄 두 발이 저택에 떨어졌다. 지붕이 통째로 날아갔고, 정면 벽면 몇 미터가 무너져 내렸다. 세 명의 남자가 짓눌려 죽었다.

폭풍이 잠시 잦았다. 하지만 폴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위기가 얼마나 선명했는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안드빌 씨를 향해 나섰다. 전말을 설명할 시간도 없이, 그는 곧장 물었다.

"먼저 한 마디만 하죠. 제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안드빌 백작부인이 정말 죽었나요?"

그리고 곧이어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네, 제 질문이 미친 듯이 들리시겠죠. 그렇다고 느끼는 건,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제게 그 질문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걸 이해하고, 성심껏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르민 백작부인은 죽었습니까?"

앙드빌 씨는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폴이 원하는 마음가짐으로 자신을 맞추려 애썼다. 그러곤 단호하게 말했다.

"제 아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매우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반박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앙드빌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내 품에서 아내가 죽었소. 입술 아래로 느껴졌던 그녀의 차가운 손, 사랑할 때면 더욱 끔찍한 죽음의 냉기 말입니다. 그녀의 유지를 따라, 저는 직접 그녀를 신부 예복에 싸드렸고, 관 뚜껑이 못질되는 순간에도 그 자리에 있었소. 그 후라니?"

파울은 생각에 잠겨 들었다.

'진실을 말한 걸까? 물론 진실일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후라니?" 안드빌 부인이 더 단호한 어조로 되물었다.

"그 후, 제가 묻고 싶은 다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파울이 말했다. "안드빌 백작부인의 작은 거실에 걸려 있던 초상화가, 과연 백작부인의 그림이었습니까?"

"물론이지. 전신 초상화였소."

"어깨에 검은 레이스 스카프를 두른 모습으로요?" 파울이 물었다.

"네. 그녀가 즐겨 걸치던 바로 그 스카프였소."

— 그리고 앞면에는 금빛 뱀이 둘린 카메오가 장식되어 있었습니까?

— 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오래된 카메오였습니다. 아내가 결코 떼지 않던 것이죠.

충동적인 본능이 폴을 들뜨게 했다. 당데빌의 말은 자백처럼 들렸다. 그는 분노로 몸이 떨리며 단호하게 말했다.

— 선생님, 아버지가 살해당하셨다는 사실을 잊으셨나요? 저희 둘이 자주 이야기한 일입니다. 그는 선생님의 친구였죠. 그분은 바로 저를 죽인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제 뇌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여인은 어깨에 검은 레이스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고, 금빛 뱀이 둘린 카메오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초상화를 선생님의 아내 방에서 찾아냈습니다. 네, 결혼식 날 저녁에요. 그 초상화를 보았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하시죠?

두 사람 사이에는 처참한 정적이 흘렀다. 안드빌 씨는 총을 꽉 쥐고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도대체 왜 떨까?'

폴은 의문이 커져만 갔다. 그 의문은 곧 확신, 아니 비난으로 변해갔다.

'이 떨림은 죄책감인가, 아니면 정체가 드러난 데 대한 분노인가? 그렇다면 나는 그의 아내를 공범으로 봐야 하나? 결국…'

그때였다. 팔이 거세게 비틀리며 꽉 잡혔다. 안드빌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당신 감히! 내 아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당신은 취했군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성자였던 내 아내가요! 당신이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 아, 내가 지금 당신 얼굴을 박살낼 참이라니."

폴이 거칠게 몸을 뿌리쳤다.

두 사람은 싸움의 소음과 그들의 다툼이 가진 미친 듯한 기분에 격화된 분노에 떨고 있었다. 총알과 포탄이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와중에도 그들은 곧장 몸싸움을 시작할 뻔했다.

벽의 한쪽 면이 또 무너져 내렸다.

폴이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그는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헤르만 소령을 생각했다. 그는 안드빌 경을 범인처럼, 공범자와 대면하게 하는 죄인처럼 헤르만 소령 앞에 끌고 갈 수 있었다.

그런데 왜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는 문득 무언가를 기억해 냈다. 그리고 독일인 로젠탈의 시체에서 찾아낸 에르미네 백작부인의 사진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이거 아십니까?" 그가 물으며 사진 한 장을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위에는 날짜가 적혀 있죠. 1902년. 그런데도 백작 부인 에르미느가

죽었다고 주장하시나요? 대답하세요! 베를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녀가 죽은 지 사 년이 지난 뒤, 당신 부인이 보내준 사진이죠!"

앙드빌 씨는 몸을 비틀며 균형을 잃었다. 그의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끝없는 경악으로 바뀌는 듯했다.

파울은 그에게 압도적인 증거를 내보였다. 바로 그 작은 카드 조각이었다.

그는 파울의 말을 들으며 중얼거렸다.

"이걸 누가 훔쳐갔지? 내 서류들 속에 있었어. 파리에서 말이야… 그런데 왜 찢어두지 않았을까…"

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 에르미느. 내 사랑하는 에르미느여!"

그것이 시인인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토록 죄악과 추악함으로 얼룩진 여인에 대한 다정한 고백을 담은 시인은 대체 무엇을 의미한 것인가?

지하실에서 중위가 고함을 질렀다.

"전원, 전방 참호로 이동하라. 단 열 명만 남는다. 델로즈, 최고의 사수들을 거느리고 마음껏 사격하라!"

자원병들은 베르나르의 지휘를 받아 급히 계단을 내려갔다. 사상자가 속출했지만, 적군은 여전히 운하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미 좌우로 끊임없이 교체되는 공병 부대들이 강둑에 표류한 배들을 모아들이느라 분주했다. 임박한 돌격을 막기 위해 자원병 중위는 최전방에서 병사들을 수습했고, 집안 사수들은 포격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멈추지 않고 사격에 임했다.

한 명, 두 명, 다섯 명의 사수들이 차례로 쓰러졌다.

파울과 드앙드빌 씨는 지시를 내리고 행동을 취하는 방법을 의논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병력이 현저히 열세였기에 저항으로 승산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증원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는 것은 가능했다. 만약 그렇다면, 블록하우스를 지킬 수 있었다.

전투가 격화되자 프랑스 포병은 효과적인 사격이 불가능해져 포화를 멈췄다. 반면 독일군은 집을 목표로 삼아 포격을 계속했다. 포탄이 끊임없이 폭발했다.

또 한 명의 부자가 발생했다. 그는 마요르 헤르만 곁의 다락방으로 옮겨졌지만, 곧 숨을 거두었다.

바깥에서는 물 위와 물속, 배 위와 배 주변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격렬한 몸싸움, 소란스러운 혼란, 증오의 비명과 고통의 아우성, 공포의 비명 그리고 승리의 함성이 뒤섞였다.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 파울과 당드빌 경은 총알을 제대로 맞추기조차 힘들었다.

파울이 장인인 당드빌 경에게 말했다.

"우리가 구조받기 전에 무너질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중위가 이 집을 날려버릴 준비를 해뒀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건 우연히 계신 거고, 전투원으로서의 자격이나 의무를 주신 임무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프랑스인으로서 여기 있습니다." 당드빌 경이 맞받아쳤다. "마지막 순간까지 남겠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마칠 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 마디라도 제가 궁금해하시던 부분을 밝혀준다면, 즉시 말씀 끊어주십시오."

그는 자신과 그 사이에 헤아릴 수 없는 어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아내의 동조자든 혹은 속아넘어간 희생자든, 드앙드빌 씨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 사실은 사건을 충분히 설명해야만 비로소 명확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말을 시작했다. 차분하고도 평정심을 잃지 않은 어조였다. 드앙드빌 씨는 묵묵히 그의 말을 들었다.

둘은 멈추지 않고 총을 쐈다. 총을 장전하고, 어깨에 메고, 조준하고, 다시 장전했다. 마치 군사 훈련을 받는 듯 차분하게. 그들의 주변과 위에서는 죽음이 멈추지 않고 잔인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파울은 엘리자베스와 함께 오르냉에 도착한 일, 밀실로 들어간 일, 그리고 초상화를 보고 느꼈던 공포를 간신히 털어놓으려던 찰나였다.

그때였다.

머리 위에서 거대한 포탄이 폭발했다.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 오르며 그들을 덮쳤다.

네 명의 자원병이 모두 부상을 입었다. 파울도 목을 맞고 쓰러졌다.

아직 고통은 느끼지 못했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이 점점 안개 속으로 가라앉아가는 것을 느꼈다. 생각들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이미 정신은 흐려지고 있었다.

그는 끝까지 의지를 발휘했다. 간신히 남은 에너지로 몇 가지 생각과 느낌을 붙잡아 둘 수 있었다.

그가 본 것은 무릎을 꿇고 자신 곁에 앉아 있는 장인어른의 모습이었다.

파울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엘리자베트의 일기장…… 내 가방에 있을 겁니다. 야영지에서요. 제가 쓴 몇 페이지도 함께 있어요. 그걸 보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먼저…… 저기 저 독일 장교를 봐요. 묶여 있죠? 그건 스파이예요. 감시하세요. 죽이세요. 안 그러면 1월 10일…… 하지만 당신은 저를 죽일 거죠, 그렇지 않나요?"

파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게다가 그는 드앙드빌 씨가 무릎을 꿇고 자신을 듣거나 치료하기 위함이 아님을 깨달았다. 오히려 그

자신도 부상을 입어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두 주름을 접어 구부린 채 결국 비명 같은 신음소리를 내며 웅크리고 말았다.

넓은 방 안에는 잠시 깊은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 고요함 너머로 총성들이 빗발쳤다.

독일군의 대포는 더 이상 쏘지 않았다. 적의 반격은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파울은 몸을 움직일 수도 없이 그 자리에 서서, 소령이 예고했던 거대한 폭발을 기다렸다.

그는 엘리자베트의 이름을 여러 번 입에 올렸다.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위협할 위험은 없을 거라 생각했다. 마요르 에르만도 곧 죽을 테니까. 게다가 그녀의 오빠 베르나르가 그녀를 잘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안도감은 서서히 사라졌다. 안심이 불편함으로 바뀌었고, 이내 고통으로 변했다. 매초마다 고통은 더 깊어졌다.

꿈인가? 병적인 환각이 그를 괴롭히는 것인가?

그것은 그가 마요르 에르만을 끌고 간 다락방 위쪽, 그리고 그곳에 누워 있는 병사의 시체 쪽에서 벌어지는 일 같았다.

끔찍했다. 그는 마요르가 묶인 줄을 풀고 몸을 일으켜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것 같았다.

파울은 온 힘을 다해 눈을 떴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눈을 감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점점 짙어지는 그림자가 그들을 감쌌다. 그 어둠 너머로, 마치 밤하늘 아래 흐릿하게 보이는 광경처럼, 그는 대위가 옷을 벗어 던지는 모습을 보았다. 대위는 시체 위로 몸을 굽혔다. 그리고 푸른 양모 코트를 벗겨냈다.

대위는 그 코트를 자신의 몸에 걸쳤다. 죽은 자의 모자를 머리에 썼다. 목에는 시체의 넥타이를 두르고, 총과 총검, 탄약을 챙겼다. 이렇게 변장한 대위는 나무 계단 세 단을 내려갔다.

끔찍한 광경이었다. 파울은 의심하고 싶었다. 자신이 열병과 환각 속에서 본 유령일 뿐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 광경의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에게 이는 지옥 같은 고통이었다. 대위가 도망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파울은 지금의 상황을 차분히 헤아릴 힘이 없었다. 마요르가 자신과 안드빌 씨를 죽일 생각인가? 두 사람이 다쳐 꼼짝 못 하는 곳에 있다는 걸 마요르가 알고 있는가? 파울은 이런 질문들을 떠올릴 여유조차 없었다.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은 하나뿐이었다. 헤르만 마요르가 도망친다는 사실이었다.

제복을 입은 그는 자원병들 틈에 섞일 수 있었다. 신호만 있으면 독일군과 합류할 테고, 그렇게 되면 그는 자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에리자베트를 향한 박해와 죽음의 작업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아, 만약 폭발이 일어났다면! 여관 주인집이 날아갔다면, 마요르는 끝장이었을 텐데.

아직도 무의식 속에 남아 있던 그 희망에 매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성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생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파고들었다. 더 이상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 어둠 속으로…

삼 주 후, 군 총사령관 장군은 노르망디 북부, 불로뉴 지방의 오래된 성채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 그곳은 이미 군사 병원으로 변해 있었다.

행정 장교가 현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델로즈 소령에게 제 방문 사실을 알렸습니까?"

"네, 장군님."

"그 방으로 모셔가시오."

폴 델로즈는 이미 일어났다. 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얼굴은 차분했고 피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위대한 지휘관이 계신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은 그는 곧장 경례 자세를 취했다. 그의 에너지와 냉철함이 프랑스를 구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장군이 그에게 손을 내밀며 다정하고도 힘찬 목소리로 외쳤다.

"앉으시오, 델로제 중위여… 잘 들으시오, 중위라고요. 어제부터 그 계급이 되었으니까요. 아니, 감사를 표하지 마시오. 오히려 우리가 당신에게 빚진 셈이오. 그리고 이미 일어나셨다고?"

"네, 장군님. 상처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내 지휘관들 모두 자랑스럽군. 하지만 말이지, 너 같은 녀석은 한두 명이 아니다. 네 대대장이 너에 대해 특별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 안에 기록된 업적이 너무 놀라워. 내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규칙을 깨고, 이 보고서를 공개할까 고민할 정도야."

"아니요, 장군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너도 옳지, 친구. 영웅주의란 본디 익명으로 빛나는 법이야. 지금 프랑스가 그 영광을 독점해야 해. 그러니 나는 너를 다시 한번 군 전체에 표창하고, 이미 추천되었던 훈장을 수여하기로 하지."

"장군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게다가 친구여,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기쁨을 드릴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파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토록 다정하고 솔직한 태도에 그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만약 제가 너무 요구가 심하다면요, 장군님?"

"언제든 말씀하십시요."

"좋습니다, 장군님.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선 이병 휴가 두 주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날짜는 1월 9일 토요일입니다. 즉, 제가 병원을 떠나는 날부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건 특혜가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죠."

"네, 장군님. 하지만 그 휴가는 제가 원하는 곳에서 보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보다 더합니다. 장군님, 장군님의 친필로 된 이동 허가증을 제 주머니에 넣게 해 주십시오. 이 허가증이 있으면 저는 프랑스군 진영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필요할 때 어떤 도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군은 잠시 동안 파울을 바라보더니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델로즈."

"알고 있습니다, 장군님. 하지만 제가 시도하려는 일 역시 중대합니다."

"좋소. 알겠소. 그리고 그 다음은?"

"장군님, 제 처남인 베르나르 당드빌 하사가 저와 함께 통역관 집 사건에 관여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부상을 입어, 그는 아마 저와 동시에 이 병원에서 퇴원할 것입니다. 그에게도 같은 휴가를 주고, 저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소. 그 다음은?"

"버나드의 아버지, 스테파네 드안드빌 백작은 영국군 통역 소위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날도 저와 함께 부상을 당했죠. 그의 상처는 심각했지만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며, 영국군 병원 중 하나로 이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인지는 제가 알 바 아닙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그가 회복되면 즉시 이곳으로 불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맡은 임무를 보고할 때까지 그의 상태를 지켜봐 주십시오."

"좋소. 그게 다요?"

"거의 다요, 장군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구금 중인 프랑스인 포로 스무 명의 명단을 주세요. 특별히 신경 써 주시는 분들이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뤼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뒤따르는 말은 장군을 놀라게 하기 충분했다.

"이 포로들은 이십 일 이내에 모두 석방될 예정입니다."

"뭐라고?"

장군은 평소의 냉정함에도 불구하고, 살짝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다시 물었다.

"이십 일 후면 자유로운 신분이 된다는 뜻인가? 죄다 스무 명이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제가 말한 대로 될 것입니다."

"죄인들의 계급이 어떻든,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네, 장군님."

"그리고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어떤 이의异议도 제기할 수 없는 방법으로요."

장군은 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사람을 판단하고 그 가치를 정확히 헤아리는 데 익숙한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그는 폴이 허세를 부리

는 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는 결단하고 실행하는 남자였다. 앞만 보고 직진하며, 자신이 한 말은 반드시 지켰다.

장군은 이렇게 답했다.

"좋아, 친구. 그 목록은 내일 건네주마."

1월 10일 일요일 아침, 델로즈 중위와 앙드빌 일병은 코르비니 역에 내려서 주둔지 지휘소를 방문했다. 그리고 차를 한 대 빌려 오르네캉 성으로 향했다.

"정말이지." 베르나르는 마차 안에 몸을 편히 기대며 말했다. "내가 이베르 강과 여관 사이에서 파편에 맞았을 때,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때는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다. 파울, 내 말 믿어라. 만약 우리 구원 부대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오분만 더 지났어도 우리는 끝장났을 거다. 정말 운이 좋았어."

"맞아, 정말 운이 좋았지." 파울이 대답했다. "그건 다음 날 아침, 프랑스 구급차 안에서 눈을 뜨면서 실감했어."

"참으로 분한 일이야." 베르나르가 다시 입을 열었다. "바로 그 마저 Hermann의 탈옥이지. 네가 그를 체포했다고? 그리고 그가 묶인 채에서 벗어나 도망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그 녀석은 정말 감히 대담하군. 틀림없이 아무런 방해 없이 깔끔하게 빠져나갔을 거야."

파울은 낮게 중얼거렸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 그리고 그가 엘리자베트를 향해 내민 협박을 반드시 실행에 옮길 것 같아."

"흥, 괜찮아. 우리에게 사십팔 시간이 남아 있어. 그가 동조자 칼에게 보낸 편지에서 도착일을 1월 10일로 정했고, 실제로 행동하기까지는 이틀이 더 필요하니까."

"그런데 만약 오늘 당장 움직인다면?" 파울의 목소리가 떨리며 반박했다.

하지만 그 불안에도 불구하고, 여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다. 드디어 그는 목표에 다가가고 있었다. 네 달 동안 매일 멀어지기만 하던 그 목적지를, 이번엔 진짜로, 현실적으로 말이다.

오르네캉. 그곳이 국경이었다. 국경에서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에브르쿠르가 있었다.

그는 에브르쿠르에 도착하기 전, 에브르쿠르의 은신처를 찾아내기 전, 아내를 구하기 전까지 닥칠 장애물들에 대해 생각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살아 있었다. 에브르쿠르도 살아 있었다. 그녀와 그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르네캉 성, 혹은 그 잔해가 있었다. 성 자체의 폐허조차 11월 새로운 폭격으로 더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이 폐허에는 국경선을 따라 첫 번째 전선을 형성한 지역 부대 병사들의 주둔지가 들어섰다.

이쪽 전선은 별로 치열하지 않았다. 양측 모두 전술적 이유로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어선은 서로 균형을 이루었고, 양쪽 모두 감시를 매우 철저히 하고 있었다.

파울은 이 정보를 지상군 중위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얻었다.

"친애하는 동지여." 장교가 결론을 내렸다. 파울이 자신의 임무 목적을 털어놓은 뒤였다. "저는 당신을 완전히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르네캉에서 에브르쿠르로 넘어가는 일이 문제라면, 단언컨대 당신은 절대 그곳을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통과할 겁니다."

"그럼 공중으로 가는 건가요?" 장교가 웃으며 물었다.

"그렇다면 지하로 가는 길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잘못 생각하셨군요. 우리는 지뢰와 도하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여기는 오래된 암반 지대라 파고들 방법이 없거든요."

파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친구, 잠시만 협조해 주시오.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곡괭이와 삽을 든 튼튼한 사내 네 명만 빌려주면, 오늘 밤 나는 에브르쿠르에 도착할 수 있소."

"무슨 말씀이시오? 암반을 뚫고 10킬로미터 터널을 파려면, 사내 네 명과 한 시간이라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오. 게다가 저는 철저한 비밀을 요구합니다. 이번 시도와 그로 인해 반드시 드러날 흥미진진한 발견들 모두요. 보고서는 제가 직접 총사령관에게 올릴 테니, 그분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게 해 주십시오."

"알겠소. 사내 네 명은 제가 직접 고르겠소. 어디로 모셔다 드려야 합니까?"

"테라스, 성루 근처입니다."

이 테라스는 리종 강 위 40미터에서 50미터 높이에 자리 잡고 있다. 강이 굽이치는 지형 탓에 정면으로 코르비니가 바라보인다. 멀리 성당 첨탑과 주변 언덕이 시야에 들어온다.

성루는 거대한 기초 부분만 남아 있다. 그 위에 자연 암석이 섞인 기초 벽이 우뚝 서서 테라스를 받치고 있다. 라일락과 화살나무 덤불이 담장 끝까지 이어지는 정원이 펼쳐져 있다.

파울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는 몇 차례나 광장을 거닐며 강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담쟁이넝쿨에 덮인 성루 잔해들을 샅샅이 점검했다.

그때 중위가 부하들과 함께 나타났다.

"그래, 여기가 출발점인가? 하지만 우리는 국경과 정반대 방향을 보고 있다. 미리 말해두지만."

"하하, 뤼팽." 폴이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답했다. "모든 길은 베를린으로 통하니까."

그는 말뚝으로 땅에 원을 그렸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작업에 착수하라고 권했다.

"가자, 친구들."

사람들은 지름 약 3미터 원주를 따라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 20분 만에 깊이 1미터 50센티미터의 구덩이를 파냈다. 하지만 그 지점에서는 단단히 붙은 돌층을 만나야 했다. 작업은 훨씬 어려워졌다. 시멘트 같은 물질이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기 때문이다. 균열에 곡괭이를 끼워 넣지 않고서는 돌을 떼어낼 수 없었다.

폴은 불안한 눈빛으로 작업을 지켜보았다.

"그만!"

한 시간이 지난 뒤, 그가 외쳤다.

그는 혼자서 구덩이로 내려가 digging을 계속했다. 하지만 속도는 느렸고, 내리치는 매번의 타격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살피듯 파냈다.

"됐군." 그가 일어나며 말했다.

"무슨 일이야?" 베르나르가 물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땅은, 옛 성채 주변에 있던 광활한 건물들의 한 층에 불과해. 그 건물들은 수백 년 전에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 이 정원이 만들어졌지."

"그러면?"

"그렇잖아, 땅을 파다가 옛날 방들 중 하나의 천장을 뚫은 거야. 봐."

그가 돌멩이 하나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좁은 구멍 한가운데에 돌을 끼워 넣었다가 놓아주었다. 돌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곧이어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입구를 넓히기만 하면 됩니다. 그사이 사다리와 불을 준비합시다. 가능한 한 많은 불을요."

"우리에겐 송진이 든 횃불이 있습니다." 장교가 말했다.

"좋군."

파울은 맞았다. 사다리가 들어오고, 파울이 중위와 베르나르와 함께 내려가자, 그들은 매우 넓은 방을 보게 되었다. 방의 천장은 거대한 기둥들이 받치고 있었는데, 마치 불규칙한 교회당처럼 두 개의 넓은 중앙 통로와 그 옆의 좁은 측랑으로 공간을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파울은 곧 동료들의 시선을 바닥으로 돌렸다.

"콘크리트 바닥을 보십시오. 그리고 보세요, 제가 예상한 대로 한쪽 칸막이 안에 레일이 두 개 놓여 있네요. 다른 칸막이에도 레일이 두 개 더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죠?" 버나드와 중위가 소리쳤다.

"단순히 말해서, 우리는 코르비니와 그 두 요새가 함락된 그 거대한 수수께끼의 명백한 해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코르비니와 그 두 요새가 단 몇 분 만에 무너졌죠? 코르비니가 국경에서 여섯 리(약 24km)나 떨어져 있고, 적의 포성이 국경을 넘지 못했는데도, 그 포성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여기, 이 지하 요새에서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기가 바로 거대한 포신 두 대가 움직였던 레일입니다. 그 포탄으로 폭격을 가했죠."

"잠깐만요. 동굴 안에서 어떻게 폭격을 해요? 구멍이 어디 있죠?"

"레일이 그 길을 알려줄 거예요. 버나드, 잘 비춰봐요. 저기요, 회전식 플랫폼이 하나 있네요. 크기가相当하죠? 그리고 다른 쪽 플랫폼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멍은요?"

"당신 앞에 있죠, 버나드."

"벽이에요…."

"그 벽이요? 그 벽과 언덕의 바위 자체가 리제롱 테라스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코르비니를 마주 보는 곳이죠. 그리고 그 벽에는 두 개의 원형 구멍이 뚫렸다가, 나중에 막혔습니다. 아직 선명하게, 거의 새것처럼 보일 정도로 보강 공사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어요."

버나드와 중위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지만 이건 엄청난 일이야!" 장교가 말했다.

"정말 거대하죠!" 폴이 대답했다. "하지만 너무 놀라지 마세요, 동지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 이 작업이 시작된 지 이미 열여섯, 일곱 해가 지났습니다. 게다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업의 일부는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오르네킨의 옛 건물 지하에 있었으니까요. 그곳을 찾아내고, 목적에 맞게 조금만 손보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들이 여기서 두 개의 포신을 가져오기 위해 만들어야 했던 터널 말입니다."

"터널?"

"당연하죠. 그 포신들이 대체 어디로 들어왔겠어요? 레일을 거꾸로 따라가 보면 곧장 그곳에 닿을 겁니다."

사실 조금 뒤쪽에서 두 선로는 다시 하나로 합쳐졌다. 그들은 약 이미 오십 센티미터 너비에 같은 높이를 가진 터널의 헐거운 입구를 발견했다.

터널은 아주 완만한 경사로 지중으로 파고들었다. 벽은 벽돌로 되어 있었다. 벽에서는 습기가 조금도 스며나오지 않았고, 바닥도 완전히 마른 상태였다.

"에브르쿠르 선이야." 폴이 웃으며 말했다.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열 킬로미터 구간이지. 이렇게 해서 코르비니 요새는 우리 손에 들어온 거야."

먼저 수천 명의 병력이 움직였다. 오르네킨의 작은 주둔군과 국경의 초소들을 무자비하게 베어 죽인 뒤, 그들은 곧장 도시로 진격했다.

동시에 거대한 포대 두 문이 끌려 나왔다. 미리 정해진 위치로 이동해 조준을 마친 포들은 단숨에 임무를 완수했다. 포가 물러나자 땅에 난 구멍은 다시 메워졌다.

이 모든 과정은 두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두 시간의 승리를 위해, 프로이센 국왕은 열일곱 해를 바쳤군요." 베르나르가 말했다.

"결국 그 열일곱 해는 우리를 위해 쓴 거예요." 폴이 결론을 내리며 말했다. "프로이센 국왕이요."

"축하하고, 출발하자!"

"제가 병사들을 보내드릴까요?" 중위가 물었다.

"고맙지만, 우리 형제끼리 혼자 가는 게 낫습니다. 만약 적이 터널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면, 그때는 도움을 요청하러 다시 올 테지만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는 터널이 발각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신이 다시 사용할 수도 있으니 그대로 남겨뒀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후 세 시, 베르나르가 말한 대로 두 형제는 제국 시대 터널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무장을 철저히 하고 식량과 총알도 충분히 챙겼으며, 이 모험을 끝까지 밀어붙이기로 각오하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확히 이백 미터쯤 더 나아갔을 때, 손전등 빛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계단 단계를 비췄다.

"분기점 하나. 폴이 적었다. 내 계산으로는 적어도 세 개가 더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계단은 어디로 이어져?"

"당연히 성으로. 성의 어느 부분인지 묻거든? 초상화가 있는 방이라고 할 거야. 마요르 헤르만은 공격이 있던 날 밤, 분명히 그곳으로 성에 들어왔어. 그의 동맹자 칼이 함께했지."

"벽에 우리 이름을 보고, 그 방에서 자고 있던 자들을 칼로 찔렀어. 바로 제리플루르 병사와 그의 동료였지."

베르나르 댕드빌이 발을 멈췄다.

"자, 들어봐, 폴. 방금부터 넌 나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어. 넌 마치 예언자라도 된 듯, 그리고 선명하게 내다보는 눈이라도 가진 듯 행동하고 있잖아.

무슨 곳을 파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치 목격자라도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예상해 내고 있어. 진심으로 말하지만, 넌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인 줄 몰랐어!

혹시 헐록 숌즈를 만나본 적 있어?"

"아르센 뤼팽까지요? 아닙니다." 폴이 다시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다만 저는 아팠고, 그 틈을 타 깊이 생각했습니다. 엘리자베트의 일기 중, 그녀가 놀라운 발견을 언급한 대목들이 제게 경종을 울렸죠. 왜 독일군이 성 주변을 완전히 고립시키려 그렇게 많은 조치를 취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추론에서 추론으로, 과거와 현재를 질문하며, 독일 황제를 만났던 일과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수많은 사건들을 떠올렸습니

다. 그 결과, 국경 양쪽 사이에는 비밀스러운 통로가 존재하며, 그 통로는 정확히 코르비니를 향해 총격을 가할 수 있는 지점으로 이어져 있을 거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장소는 당장 생각해도 테라스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그 테라스에서 아이비로 감싸인 죽은 나무를 보았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엘리자베트가 그 나무 근처에서 지하의 소리를 들었다고 믿었던 바로 그 곳이었죠. 이제 남은 일은 오직 실행뿐이었습니다."

"목표가 뭐야?" 베르나르가 물었다.

"엘리자베트를 구하는 것뿐이야."

"계획은?"

"아직 없어. 상황은 그때그때 달라지겠지만, 나는 내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확신해."

사실 그의 추측은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다. 열 분쯤 걸었을까, 그들은 교차점에 다다랐다. 오른쪽으로 또 다른 터널이 갈라져 나왔고, 그곳에도 레일이 깔려 있었다.

"두 번째 분기점이야." 폴이 말했다. "코르비니 도로 쪽으로 가는 길이지. 이 길로 독일군이 진격해 와서, 우리 군대가 아직 집결하기도 전에 기습을 가했어.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당신이 저녁에 마주쳤던 그 농부 아가씨도 지나갔지. 출구는 아마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을 거

야. 어쩌면 그 농부 아가씨가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농장 근처일 수도 있고."

"그럼 세 번째 분기점은?" 베르나르가 물었다.

"여기 있습니다." 폴이 대답했다.

"또 계단인가?"

"네. 이 계단이 예배당으로 이어진다고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 아버지가 피살되던 날, 독일 황제가 파견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당시 그는 제 아버지의 명으로,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여인의 지휘 아래 진행 중이던 공사를 시찰하러 왔습니다.

당시는 공원을 둘러싼 벽이 없었죠. 그러니 이 예배당은 우리가 따라온 비밀 네트워크의 주요 통로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폴은 주변을 둘러보며 두 개의 또 다른 분기로를 발견했다. 위치와 방향을 볼 때, 이 통로들은 국경 근처에서 끝날 것이었다. 이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정찰과 침투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정말 놀랍군." 베르나드가 말했다. "이게 바로 '문화'야. 내가 뭐라고 할 수준은 아니지만."

"저 사람들은 전쟁의 감각이 분명해. 작은 요새를 폭격할 수 있도록 20년 동안 터널을 파는 발상이 프랑스인이라면 절대 떠올리지 못할 거

야. 그런 걸 해내려면 우리가 감히 도모할 수 없는, 한 차원 높은 문명화가 필요하지. 아, 저 개자식들!"

그가 터널 상부에 환기용 굴뚝이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챈 뒤, 그의 열기는 한층 더 고조되었다. 하지만 폴은 끝내 그에게 침묵을 권하거나, 적어도 목소리를 낮추라고 일렀다.

"그들이 통신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길이 프랑스군에게 쓰이지 않도록 했을 거야. 에브르쿠르도 그리 멀지 않잖아. 아마도 감청용 설비나 적재적소에 배치된 감시병들이 있을 거야.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운에 맡기지 않지."

파울의 이 지적이 설득력을 가진 이유는, 레일 사이에 놓인 주철 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판들은 미리 준비된 광산 폭발물의 덮개 역할을 했고, 전기 스파크만으로도 폭발할 수 있었다. 첫 번째 판에는 번호 5가, 두 번째에는 번호 4가 새겨져 있었고, 그 뒤로도 번호가 이어졌다. 그들은 그 판들을 조심스럽게 피하며 걸었다. 등불을 켤 때마다 짧은 깜빡임으로만 비추었기 때문에, 걸음걸이도 더뎠다.

일곱 시쯤 되자, 그들은 땅속에서 위쪽으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아니, 들리는 것 같았다. 땅 위에서는 삶과 움직임이 빚어내는 소란스러운 잡음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들은 두 사람은 큰 감동을 느꼈다. 바로 위에는 독일 땅이 깔려 있었고, 그 땅에서 일어나는 독일인의 삶에서 비롯된 소리들이 메아리가 되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 이상하군." 파울이 말했다. "이 터널이 제대로 감시되지도 않았고, 우리가 이렇게나 멀찍이까지 아무런 방해 없이 걸어올 수 있다니."

"그들이 실수한 거야." 베르나르가 말했다. "문화가 결여된 증거지."

하지만 벽면을 따라 더 세찬 바람이 불어왔다. 외부의 공기가 시원한 숨결로 밀려들어왔고, 그들은 그림자 속에서 멀리 있는 한 줄기의 빛을 발견했다. 그 빛은 움직이지 않았다. 주변은 고요하기 그지없었다. 마치 철도 선로 근처에 설치된 고정 신호등처럼 보였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 빛이 전기 전구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전구가 터널 입구 바로 밖에 세워진 작은 건물 안에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빛은 하얀 절벽과 모래와 자갈더미 위에 비추고 있었다.

파울이 속삭였다.

"저건 채석장이야. 터널 입구를 여기에 둔 덕분에, 전쟁이 없을 때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공사를 계속할 수 있었지. 그所谓的 채석장이라는 곳은 사실 폐쇄된 공간에서, 노동자들을 가둔 채로 조용히 일을 진행했을 거야."

"무슨 '문화'라는 거지!" 베르나드가 되뇌었다.

그때 파울의 손이 그의 팔을 세게 쥐는 것을 느꼈다. 빛을 스치며 무언가가 지나갔다. 마치 서 있다가는 순간 쓰러지는 그림자 같았다.

그들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굴러가서 막사에 다다랐다. 그리고는 반쯤 몸을 일으켜, 눈높이가 창문과 맞물리도록 했다.

여기에는 여섯 명쯤 되는 병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 겹쳐 누운 채, 마치 짐승처럼 뒹굴고 있었다. 빈 병과 더러운 접시, 기름진 종이 조각, 소시지 찌꺼기들이 그들 주변을 어지럽게 뒤덮고 있었다.

이들이 바로 터널을 지키는 감시병들이었다. 그들은 완전히 취해 있었다.

"또 '문화' 탓이군." 베르나르가 말했다.

"우린 운이 좋았어." 폴이 답했다. "지금 감시가 느슨한 이유도 알 것 같아. 오늘이 일요일이거든."

테이블 위에는 전신기가 놓여 있었다. 벽에는 전화기가 걸려 있었고, 폴은 두꺼운 유리판 아래에 있는 표지판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다섯 개의 구리 레버가 있었는데, 이 레버들은 전선을 통해 터널 안에 준비된 다섯 개의 광산용 폭발물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분명했다.

베르나르와 폴은 철로를 따라 좁은 협곡을 빠져나갔다. 바위 사이로 파인 그 길은 곧 넓은 공간으로 이어졌고, 그곳에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눈앞에는 병영 건물들이 늘어선 마을이 펼쳐졌다. 이곳에는 군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군인들의 오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마을을 돌아서 나갔다.

그때 자동차 소리와 두 개의 헤드라이트가 쏘아 올리는 강한 빛이 그들의 시선을 끌었다. 울타리를 넘어 덤불숲을 지나자, 온통 불빛으로 가득 찬 큰 저택이 나타났다.

자동차는 문전과 호위 병사들, 그리고 하인들이 서 있는 계단 앞에 멈춰 섰다. 두 명의 장교와 모피 코트를 입은 한 부인이 내렸다.

돌아올 때, 헤드라이트의 빛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넓은 정원을 비추었다.

"맞아요, 제가 예상한 대로입니다." 폴이 말했다. "여기는 오르네크 성의 정반대 경우예요. 출발지나 도착지나 마찬가지죠. 사내들이 지켜보는 것을 피하며 작업할 수 있는 튼튼한 담장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기 역이 지하가 아니라 야외에 있지만, 적어도 채석장이나 공사장, 병영, 주둔군, 참모부의 별장, 정원, 차고 등 이 군사 시설 전체는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감시 초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그때, 두 번째 자동차가 세 명의 장교를 태우고 도착해 차고 쪽에 첫 번째 자동차에 합류했다.

"축제라도 있는 모양이네요." 베르나르가 말했다.

그들은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기로 했다. 집 주변을 감싸고 있는 길 양옆에 심은 수풀이 울창해서, 숨어서 움직이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다.

그들은 꽤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러다 뒤쪽 1층에서 함성과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연회가 열리는 방이 그곳이며, 손님들이 식탁에 앉기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노래 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왔다.

하지만 밖은 여전히 고요했다. 정원은 텅 비어 있었다.

"여기는 한산하군." 폴이 말했다. "나를 좀 도와줘. 숨어 있다가 내가 신호하면 움직여."

"어떤 창문 모서리에 올라가라는 거야? 하지만 창문 닫개는?"

"그다지 튼튼해 보이지 않아. 중간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오더라고."

"그래도 도대체 네 계획이 뭐야? 왜 하필 이 집이야? 다른 집은 왜 안 되는 거지?"

"그래. 네가 직접 들은 말인데, 부상자의 증언에 따르면 콘라드 공작이 에브르쿠르 근처의 빌라에 머물고 있다고 했지. 그런데 그 빌라는 마치 요새처럼 둘러싸인 지역 한복판에 있고, 터널 입구 바로 옆에 있어. 적어도 이건 무언가를 시사하는 단서야."

"그리고 그 잔치 분위기가 정말 왕족스럽잖아." 버나드가 웃으며 말했다. "네 말이 맞아. 벽을 타고 올라가자."

그들은 길가를 가로질러 지나갔다. 버나드의 도움으로 폴은 한층 아래를 받치고 있는 돌출된 부분을 손쉽게 잡을 수 있었고, 돌로 된 발코니 위로 힘차게 몸을 올렸다.

"잘 올라갔어." 폴이 말했다. "저기로 돌아가. 만약 위험한 기미가 보이면 휘슬을 불어."

발코니 난간을 넘은 그는 손가락을, 이어 손바닥을 두 창문 사이의 틈새로 집어넣어 한쪽 창문을 살살 흔들어 댔다. 그리고 마침내 잠금 고리의 고리를 잡아당겨 열었다.

안쪽에 겹쳐진 커튼이 그를 숨겨주었다. 밖에서는 그를 볼 수 없는 구조였다. 하지만 위쪽이 제대로 겹쳐지지 않아 작은 삼각형 모양의 틈이 생겼다. 그 틈으로 밖을 내다볼 수 있었다. 단, 발코니에 올라서야 했다.

그는 그렇게 했다. 몸을 굽혀 밖을 내다보았다.

그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도 끔찍했다. 그는 순간 놀라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방 안의 세 창문과 평행하게 길게 늘어선 식탁이 있었다. 병과 카라프, 잔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 과자와 과일 접시를 놓을 자리조

차 겨우 남을 뿐이었다. 샴페인 병을 받침대로 삼아 쌓아 올린 케이크 조각들. 리큐어 병 위에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스무 명의 손님들이 있었다. 그중 여섯 명은 밤의 파티를 위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이었고, 나머지는 화려한 장신구와 훈장을 단 군인들이었다.

정중앙, 창문을 등진 자리에는 콘라드 공작이 연회를 이끌고 있었다. 그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각각 한 명씩 여성이 앉아 있었다. 바로 이 세 사람, 논리라는 것의 정반대인 불가해한 이유로 한자리에 모여 있는 그들의 모습은, 폴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통이었다.

두 여성 중 한 명이 그곳에 있었던 것은 이해가 갔다. 황태자 오른쪽에 서 있던 그 여자는 갈색 양복 차림에 단단히 굳어 있었다. 검은 레이스 스카프가 짧은 머리를 반쯤 가리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달랐다. 콘라드 황태자가 거칠게 과시하듯 그 여자를 향해 몸을 돌리고 있었다. 파울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며, 두 손으로 꼭 쥐어 질러버리고 싶었다.

그 여자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엘리자베트가 어디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술에 취한 장교들과 반쯤 수상한 독일인들 한가운데서. 콘라드 황태자 곁에서.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며 쫓아다니는 그 괴물 같은 존재 곁에서.

"안드빌 후작부인 에르민! 안드빌의 엘리자베트! 어머니와 딸!"

파울은 두 여인에게 붙일 만한 합당한 호칭이 오직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했다. 그리고 그 호칭이 얼마나 끔찍한 현실을 의미하는지, 곧이어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이 증명해 보였다.

콘라드 공작이 일어서서 샴페인 잔을 들고 외쳤다.

"건배! 건배! 건배! 우리 vigilant한 친구에게 건배! 건배! 건배! 에르민 후작부인의 건투를 빕니다!"

공작의 끔찍한 말이 터져 나갔고, 파울은 그 소리를 또렷이 들었다.

"건배! 건배! 건배!"

참석한 손님들이 떼를 지어 소리쳤다.

"에르민 후작부인에게!"

코미트가 잔을 들어 단숨에 비우고는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말소리는 폴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잔을 기울이며 경청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열의는 술기운에 더해진 것이었다.

에리자베트도 경청하고 있었다.

폴이 잘 아는 회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매우 단정하고 목이 높게 올라간 심플한 디자인이었으며, 소매는 손목까지 내려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에는 가슴 위로 네 줄의 큰 진주가 늘어져 있었다. 그 놀라운 진주 목걸이는 폴이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비천한 여인! 비천한!'

그가 헛소리를 내뱉었다.

에리자베트는 미소 짓고 있었다. 맞다. 그는 젊은 여인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았다. 그 미소는 콘라드 공작이 그녀에게 몸을 숙이며 건넨 말에 의해 유발된 것이었다.

그때 공작이 너무도 시끄럽게 웃음을 터뜨렸다. 계속 말을 하던 에르민 백작부는 부채로 그의 손을 툭 치며 그를 조용히 시켰다.

파울에게 이 모든 광경은 공포 그 자체였다.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그를 태웠고, 그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도망치는 것, 더 이상 보지 않는 것, 싸움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과 기억에서 저 비참한 아내를 완전히 쫓아내는 것.

'에르민 백작부의 딸이 맞구나.'

그는 절망에 찬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가 떠나라는 생각에 몸을 돌리려던 찰나, 작은 한 가지 사실이 그를 발걸음 묶어 두었다. 엘리자베트가 손바닥에 쥔 구겨진 손수건을 눈가에 대고, 흘러내릴 듯이 맺힌 눈물을 슬쩍 닦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그는 그녀가 놀라울 정도로 창백해졌음을 깨달았다. 그 창백함은 그가 지금까지 빛의 강렬함 탓이라고 여겼던 가짜 창백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 그 자체의 창백함이었다. 그녀의 불쌍한 얼굴에서 모

든 피가 빠져나간 듯했다. 그리고 왕자가 던진 농담에 답하며 입꼬리를 비틀던 그 슬픈 미소야말로, 참으로 비참한 것이었다.

'그럼 대체 그녀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폴이 스스로 물었다. '내가 그녀를 유죄라고 믿고, 그 눈물이 죄책감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믿을 권리가 없는가? 살아남고 싶은 욕망, 두려움, 협박이 그녀를 비겁하게 만들었고, 이제야 그녀는 울고 있는 것이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욕했지만, 견디기 힘든 시련을 감당할 힘이 없었던 그녀를 향한 깊은 동정이 조금씩 그의 마음을 채워가고 있었다.

하지만 에르민 백작부인은 자신의 연설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술을 들이켰다.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잔을 뒤로 던지며, 연이어 술을 따라 마셨다. 장교들과 그들의 아내들도 그녀를 따라 했다.

열렬한 환호가 오갔다. 애국심에 취한 한 순간, 공작이 자리에서 일어나 '독일 만세'를 불렀다. 다른 이들도 마치 광기라도 든 듯 따라 불렀다.

엘리자베트는 팔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마치 자신만 따로 격리되고 싶은 듯했다.

그러나 공작은 여전히 서서 큰 소리를 지르며, 그녀를 향해 다가가 팔을 잡아챘다. 그리고 거칠게 팔을 벌렸다.

"장난치지 마, 아름다운 여인!"

그녀는 혐오스러운 몸짓으로 그를 밀쳤다. 그 행동이 공작을 완전히 격분시켰다.

"뭐라고? '불평'이라니, 더구나 '하소연'이라니! 여보게, 여주인님 말씀이 너무 과하군. 하지만, 천만에! 무얼 보았는가? 여주인의 잔이 아직 가득 차 있군!"

그는 잔을 집어 들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엘리자베트의 입술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내 건배야, 아이고. 그리고 주군인 나의 건배!"

그가 물었다.

"거절한다고? 알겠군. 이제 샴페인은 싫다는 뜻이지. 샴페인은 물러나라! 너에게 필요한 건 라인 강 포도주겠지, 아이고? 네 고향 노래를 기억하지? '우리가 네 독일 라인 강을 얻었네. 그 강은 우리 잔 안에 들어왔지…' 라인 강 포도주라니!"

순간, 장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함성을 지르며 노래했다.

'라인 강을 지켜라.'

'그들은 까마귀처럼 굶주린 목소리로 외칠지언정, 독일 라인 강을 결코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이 그걸 얻지는 못하게 하겠소." 공작이 격분하며 말했다. "하지만 너는 마셔야 해, 아이야!"

다른 잔이 채워졌다. 공작은 다시 엘리자베트에게 잔을 입가에 대라고 강요했다. 그녀가 밀쳐내자, 그는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액체가 그녀의 드레스에 튀었다.

방 안이 고요해졌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두 지켜보았다. 엘리자베트는 더 창백해져서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녀 위에 몸을 굽힌 공작의 얼굴은 야수 같았다. 위협하고, 애원하고, 명령하고, 모욕하는 표정이 교차했다. 역겨운 광경이었다. 파울은 엘리자베트가 반항의 충동에 사로잡혀 모욕자를 칼로 찌르길 바라며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젖히고 눈을 감았다. 기절할 듯 쓰러질 듯한 모습으로 잔을 받아들고 몇 모금을 마셨다.

왕자는 잔을 들어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그대로 입술을 대고 한 모금에 다 비웠다.

"호! 호!"

그가 중얼거렸다.

"일어나라, 동지들! 의자에 올라서서 한 발은 책상 위에 올려라. 세계의 승자들아, 일어나라! 독일의 힘에 찬사를 보내자! 독일의 정숙함에도 찬사를 보내자."

그가 노래하듯 외쳤다.

"용감한 젊은이들이 우아한 소녀들을 사귄 한이 있기에, 자유로운 라인 강은 결코 독일의 것이 되지 못하리라."

"엘리자베스, 네 잔에서 라인 와인을 마셨다. 엘리자베스, 네 마음을 안다. 사랑의 마음이라, 동지들! 내가 주인이다. 오, 파리 여인아… 작은 파리 여인아… 우리가 필요한 건 파리다. 오, 파리! 오, 파리…"

그는 비틀거렸다. 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병목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다. 그는 접시와 유리가 깨지는 소음을 동반하며 식탁 위에 무릎을 꿇었고, 리큐어 병 하나를 움켜쥐고는 바닥으로 쓰러지며 중얼거렸다.

"파리가 필요해… 파리랑 칼레…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 개선문… 앙글레 카페… 큰 16번가… 무랭드루주!"

소음이 갑자기 그쳤다. 에르민 백작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명령했다.

"저리 가라! 모두 제 집으로 돌아가라. 서둘러, 선생님들. 제발."

장교들과 부인들은 재빨리 자리를 피했다. 밖으로 나가 집 다른 쪽 면을 향해선 여러 차례 휘파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의 동시에 차고에서 자동차들이 쏟아져 나왔다. 일제히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백작부가 하인들에게 손짓했다. 그리고 콘라드 공작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를 방으로 모셔가."

순식간에 공작은 들어 올려졌다.

그제야 에르민 백작부가 엘리자베스에게 다가가 앉았다.

공작이 테이블 아래로 쓰러진 지 오 분도 채 지나지 않았다. 잔치 소란이 멈춘 뒤, 어수선한 방 안은 고요함만 가득했다. 두 여성만이 혼자 남아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다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어깨를 떨며 흐느꼈다. 에르민 백작부가 그 곁에 앉아 팔을 가볍게 건드렸다.

두 여자는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기이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서 똑같은 증오가 느껴졌다.

파울은 그들의 눈에서 한 번도 시선을 떼지 못했다. 두 사람을 지켜보며 그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 두 여자는 이미 만난 적이 있다는 것과, 이제 오갈 말들은 이전의 설명과 결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지만 어떤 설명이었을까? 엘리자베트는 에르미느 백부인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그녀는 이 여자를 어머니로 받아들였을까? 엘리자베트는 그녀를 몹시 싫어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다른 외모를 띠고, 더구나 정반대의 성격을 드러낸 적은 없었다.

그런데도 그들을 단단히 묶어 주는 증거의 줄은 얼마나 강고했던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너무나 생생한 현실의 요소들이었다. 폴은 그 사실들을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게다가 안드빌 씨가 베를린에서 찍은 백작부인 사진 앞에서 보인 당황스러움은, 그 사진이 백작부인의 '사망' 몇 년 후에 촬영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안드빌 씨가 그 가짜 죽음의 공범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아니, 그는 아마도 다른 수많은 일들의 공범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때로 돌아와서, 폴은 어머니와 딸의 처참한 조우가 남긴 숙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엘리자베트는 그 모든 것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수치와 추악, 배신과 살인이라는 괴물 같은 진실 앞에서 그녀는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녀는 어머니를 비난했을까? 아니면 끔찍한 죄악들의 무게에 짓눌려, 자신의 비겁함까지도 어머니 탓으로 돌렸을까?

'그래, 당연한 일이지.' 폴이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토록 깊은 증오는 왜일까? 죽음만이 그 증오를 가라앉힐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리고 엘리자베트의 눈빛에서 살의의 불꽃은, 그녀를 죽이러 온 자의 눈빛보다 더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폴은 그 느낌이 너무 선명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움직일 것 같아, 그는 엘리자베스를 구할 방법을 궁리했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에르민 백작부인이 주머니에서 자동차 운전사들이 쓰는 대형 지리도를 꺼냈다. 지도를 펼친 뒤, 그녀는 한 점을 가리키더니 붉은색으로 표시된 도로를 따라 다른 점까지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멈춰 선 그녀는 몇 마디 말을 건넸다. 그 말은 엘리자베스를 기쁨으로 들뜨게 만들었다.

엘리자베스는 백작부인의 팔을 꽉 잡고 열정적으로 말을 걸었다. 웃음과 눈물이 섞인 목소리였다. 백작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알았어요. 우리 의견이 일치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두 진행될 거예요."

폴은 엘리자베트가 자신의 원수에게 손을 잡으려 할 것 같았다. 그녀가 기쁨과 감사로 넘쳐흐르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폴은 불안한 마음으로 생각했다. 불쌍한 소녀가 또다시 어떤 함정에 빠진 것인가.

그때 백작부가 일어났다. 그녀는 문 쪽으로 걸어 가서 문을 열었다.

그녀는 손짓을 하고 다시 돌아왔다.

누군가 들어왔다. 제복을 입은 남자였다.

폴은 깨달았다. 에르민 백작부가 들여보낸 남자는 스파이 카를이었다. 그녀의 공범이자, 그녀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실행자였다. 바로 그

녀가 엘리자베트를 죽이게 한 자였다. 젊은 여자의 마지막 시간이 찾아온 것이었다.

카를은 고개를 숙였다. 에르민 백작부가 그를 소개했다. 그리고는 길을 가리키며 지도 위의 두 점을 짚었다. 그녀는 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설명했다.

그는 시계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약속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정해진 시각에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에리자베트는 백작부인의 눈짓에 따라 방을 나섰다.

파울은 그 사이에 오간 단 한 마디도 듣지 못했다. 하지만 이 짧은 장면은 그에게 가장 명확하고도 끔찍한 의미로 다가왔다.

백작부인은 자신의 무제한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콘라드 공이 잠든 틈을 타 에리자베트에게 도주 계획을 제안했다. 아마도 자동차를 타고 미리 정해진 인근 지역으로 향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에리자베트는 뜻밖의 구원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도주는 카를의 지도와 보호 아래 이루어질 것이었다.

덫은 너무도 완벽하게 깔려 있었다. 고통에 절망한 젊은 부인은 그 덫을 믿고 발길도 끊어질 듯이 뛰어들었다. 두 공범자는 혼자 남게 되자,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사실 일이 너무 쉽게 풀리고 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성공하는 데는 별다른 실력도 필요 없었다.

아직 아무 말도 오가기 전, 두 사람 사이에는 짧은 눈빛 교환이 있었다. 두세 번의 제스처뿐이었지만, 그 속에는 지옥 같은 냉소가 담겨 있었다.

카를은 카운트ess를 응시하며 도르만(군복)을 살짝 젖혔다. 그리고 칼집에 꽂여 있던 피스톨을 반쯤 빼내 보였다. 카운트ess는 고개를 저어 반대하는 뜻을 나타냈다. 그리고 그 비굴한 자에게 작은 약병 하나를 건넸다.

카를은 약병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어깨를 으쓱거렸다.

"당신 마음대로요. 난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열띤 대화를 나눴다. 백작부인이 지시를 내리면 카를이 그것을 승인하거나 반박했다.

파울은 공포를 억누르지 못하면, 심장이 제멋대로 뛰는 것을 멈추지 못하면 엘리자베트가 망한다고 느꼈다. 그녀를 구하려면 절대적인 냉철함이 필요했다. 상황을 보며 즉각적으로, 생각할 틈도, 주저할 틈도 없이 결단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그는 적의 계획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에, 그 결단들은 그저 운에 맡기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권총을 장전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여자가 준비를 마치고 나오면,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그 간첩과 함께 떠날 거라고.

하지만 잠시 후, 백작 부인이 종을 울렸다. 그러고는 나타난 하인에게 몇 마디 지시를 내렸다. 하인이 나갔다.

파울은 휘슬 소리가 두 번 나는 것을 들었다. 그 뒤로 자동차의 굉음이 점점 가까워져 왔다.

카를은 반쯤 열린 문틈으로 복도를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백작 부인을 돌아보며 마치 이렇게 말하는 양이었다.

"이제 떠나는군. 내려가고 있어."

파울은 즉시 깨달았다. 엘리자베트가 바로 자동차로 향하고, 카를이 그곳에서 그녀를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다면 이제 행동해야 했다. 지체 없이.

잠시 그는 망설였다. 칼이 아직 근처에 있는 틈을 타 방으로 돌입해,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 헤르민과 함께 권총으로 두 괴물을 처단하는 것이 좋을까? 엘리자베트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오직 그 두 괴수만이 그녀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그처럼 대담한 시도가 실패할까 봐 두려웠다. 그는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버나드를 불렀다.

"엘리자베트가 자동차로 떠납니다. 칼이 함께 타고 있어 독을 먹이려 할 거예요. 저를 따라오세요. 권총을 쥐고요."

"무슨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건 나중에 보자고."

그들은 빌라 주변을 돌아, 길가 수풀 사이로 몸을 숨기며 숨죽여 이동했다. 사실 이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다.

"들어봐요," 버나드가 말했다. "자동차가 떠나는 소리예요."

처음에는 매우 불안해하던 폴이 반박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엔진 소리일 뿐이야."

드디어 본관 정면이 눈에 들어왔다. 현관 계단 앞에는 리무진 한 대가 멈춰 서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군인들과 하인 열여덟 명이 군집을 이루고 있었다. 자동차 전조등이 정원의 나머지 부분을 환하게 비췄지만, 폴과 베르나드가 숨어 있던 곳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한 여성이 계단을 내려와 리무진 안으로 사라졌다.

"엘리자베트." 폴이 속삭였다. "그리고 카를도 있군."

간첩은 마지막 계단에서 발을 멈췄다. 운전수 역할을 하던 병사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렸고, 폴은 그 말의 일부만 간신히 들을 수 있었다.

출발 시간이 가까워졌다. 단 한 분의 시간만 더 지나면, 폴이 막지 않는 한 자동차는 살인자와 그 희생자를 싣고 달아날 것이다.

엄혹한 순간이었다. 폴 델로즈는 자신의 개입이 가져올 모든 위험을 절감하고 있었다. 그 개입은 효과조차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칼의 죽음이 에르민 백작부인의 계획을 멈추게 하지 않을 테니까.

버나드가 중얼거렸다.

"당신은 엘리자베스를 납치할 생각은 아니죠? 여기 경계 병력들이 가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칼을 쓰러뜨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면 우리 둘이 사로잡히겠지. 심문이 있고, 조사가 벌어지고, 스캔들이 일어나고…… 콘라드 공작이 이 일에 개입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총살당하겠지. 솔직히 말해, 당신의 계획은……"

"나에게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나?"

그가 말을 멈췄다. 분노한 스파이 카를이 운전사를 향해 거친 욕설을 퍼부었고, 폴은 그 말들을 또렷이 들을 수 있었다.

"바보 같은 놈! 또 이런 실수를 하다니. 연료가 떨어졌다고? 오늘 밤에 어디서 연료를 구할 거라고 생각하냐? 창고에라도 있겠지? 어서 가

서 확인해 봐, 멍청이. 그리고 내 모피는요? 그것도 잊어버렸군? 빨리 달려가서 가져와. 내가 직접 운전할 테니."

"너 같은 바보와 함께 있으면 위험이 너무 커."

병사는 곧장 달리기 시작했다. 폴은 즉시 깨달았다. 자신이 직접 창고로 가더라도, 희미하게 빛나는 창고의 불빛을 따라가면 어둠 속을 벗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 어둠이 자신을 보호해 주고 있었다.

"자, 가자." 폴이 베르나르에게 말했다. "네가 이해할 만한 생각이 하나 생겼어."

발소리가 잔디밭에 묻혀 조용해지자, 그들은 마구간과 자동차 차고로 쓰던 부속 건물 쪽으로 향했다. 외부에서는 그들의 그림자조차 발견할 수 없는 곳이었다.

한 병사가 열려 있는 뒷문 안쪽에 있었다. 숨어 있던 두 사람은 그가 벽에 걸린 고리에서 거대한 염소 가죽을 벗겨내 어깨에 던지는 모습을 보았다. 이어 그는 기름통 네 개를 챙겼다.

짐을 싼 병사는 창고 밖으로 나와 폴과 베르나르 앞을 지나갔다.

작전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병사가 비명을 지을 새도 없이, 그는 쓰러뜨려져 손발을 묶이고 입은 막혔다.

"일이 끝났군." 폴이 말했다. "이제 그의 외투와 모자를 줘 봐. 이 변장을 하고 싶진 않았어. 하지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도 가리지 않는 법이지."

"그럼, 너도 모험을 감수하는 거야?" 베르나르가 물었다. "만약 카를이 네 운전사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쩌지?"

"그는 내 얼굴을 볼 생각도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네게 말을 걸면 어때?"

"나는 대답하지 않을 거야. 게다가 우리가 성채를 벗어나면, 나는 더 이상 그에게서 두려울 게 없어."

"그리고 나?"

"너는 죄수를 단단히 묶어서 어딘가에 가두고, 다시 발코니가 있는 창문 뒤의 덤불로 돌아가. 한밤중쯤에 엘리자베스와 함께 그 곳에 합류할 테고, 그러면 우리 셋은 터널로 가는 길을 함께 떠날 수 있을 거야. 만약 내가 돌아오는 걸 보지 못하면…"

"그럼 어떡해?"

"그럼 해가 뜨기 전에 혼자 떠나."

폴은 이미 자리를 뜨고 있었다. 그는 이미 결심한 행위에 대해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상태였다. 오히려 일들이 그의 편이었다. 카를은 그

를 욕으로 맞이했지만, 자신이 경멸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조연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간첩은 운전석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다. 폴은 그 옆에 앉았다.

차량이 막 출발하려던 찰나, 현관 쪽에서 한 목소리가 내렸다.

"카를! 카를!"

폴은 잠시 불안해졌다. 그 목소리는 에르민 백작부인이었다.

백작부인은 간첩에게 다가와 프랑스어로 속삭였다.

"카를, 너에게 부탁이 있어…… 하지만 운전사는 프랑스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그렇지?"

"독재자님, 독일어는 겨우 입문 단계입니다. 그건 멍청이예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좋아. 병에서 물방울을 딱 열 방울만 떨어뜨려. 그렇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독재자님. 그리고 다음?"

"여덟 날 뒤에 잘 됐는지 편지를 써. 파리 우리 주소로 보내. 그전에는 쓰지 마. 쓸 필요가 없거든."

"그럼 독재자님은 프랑스로 돌아가시는 겁니까?"

"그래. 계획이 완성됐어."

"아직도 같은 계획인가요?"

"그래. 날씨가 유리해. 며칠째 비가 오고 있고, 참모부가 자기도 움직일 거라고 알려줬어. 그래서 내일 밤이면 나도 그곳에 있게 되지. 약간의 도움만 주면……"

"아, 그건 내가 직접 준비했어. 완벽해. 하지만 독재자님은 첫 번째 계획을 보완할 다른 계획에 대해 말씀하셨죠. 솔직히 말해서, 그건……"

"필요한 일입니다. 운이 우리 편에서 돌아섰습니다. 제가 성공한다면, 이 검은 일련의 사건은 끝이 납니다."

"황제의 허락을 받으셨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입에 올리지 않는 법입니다."

"이번 일은 위험하고도 끔찍한 일입니다, 각하."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서는 제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각하?"

"아니요. 아이를 처리해 줍니다. 당분간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작별입니다."

"작별합니다, 각하."

간수가 기어를 낮추자, 자동차는 출발했다.

중앙 잔디밭을 둘러싼 길은 정문과 경호실로 쓰이는 별장으로 이어졌다. 양쪽으로는 높은 성벽이 우뚝 솟아 있었다.

한 장교가 별동에서 나왔다. 카를이 암호를 외쳤다.

"호엔슈타우펜."

철조망 문이 열리고, 자동차는 작은 마을 에브르쿠르를 지나 낮은 구릉지 사이로 구불구불하게 달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밤 열한 시, 폴 드를로즈는 고요한 시골길에 혼자 남았다. 엘리자베스와 간첩 카를과 함께였다.

그는 간첩을 제압할 자신이 있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면 엘리자베스는 해방될 터였다.

이제 남은 일은 돌아와서, 다시 암호를 사용해 콘라드 공작의 저택에潛入해 베르나르를 찾는 일뿐이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폴의 계획대로라면, 그 터널이 세 사람을 모두 오르네캉 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었다.

폴은 밀려오는 기쁨에 몸을 맡겼다. 엘리자베스가 바로 곁에 있었다. 그의 보호 아래 있었다.

물론 시련의 무게에 그녀의 용기는 꺾였지만, 그녀가 불행한 것은 모두 그의 탓이었다. 그러니 그는 관용을 베풀어야 했다.

폴은 드라마의 추잡했던 모든 단계를 잊으려 했다. 잊고 싶었다. 오직 다가올 결말, 승리의 순간, 아내의 해방만을 생각했다.

그는 되돌아올 때 길을 잃지 않도록 도로를 주의 깊게 살폈다. 그리고 공격 계획을 세웠다. 적어도 한 번은 멈춰야 할 지점을 정해 그곳에서 공격하기로 했다.

그는 스파이를 죽이기로 작정하지 않았다. 주먹 하나로晕眩하게 만든 뒤, 제압하고 묶어 숲속 어딘가에 던져버릴 생각이었다.

그들은 큰 마을을 지나 두 개의 작은 마을을 거쳐, 차의 서류를 보여줘야 하는 한 도시까지 도달했다.

그 뒤로는 다시 시골 풍경이 이어졌다. 차가 지나갈 때마다 나무들이 빛나는 작은 숲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이때 헤드라이트의 빛이 약해지자, 카를은 속도를 줄였다.

그가 투덜거렸다.

"바보 같은 놈아, 헤드라이트 관리도 못 해? 카바이드를 채웠나?"

파울은 대답하지 않았다. 카를은 계속 불평을 늘어놓다가, 욕설을 내뱉으며 브레이크를 밟았다.

"미친놈들아!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자, 일어나서 불을 켜."

파울은 좌석에서 뛰어내렸고, 자동차는 도로 가장자리로 붙었다. 이제 행동할 차례였다.

일단 등대 쪽에 신경을 쓰면서, 동시에 간첩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빛이 비치는 곳에는 절대 서 있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했다.

카를이 내려가 리무진 문짝을 열었다. 폴은 들을 수 없는 속삭임을 나누는 듯했다. 그리고 카를은 다시 차 옆으로 올라갔다.

"그래, 멍청이, 다 끝났어?"

폴은 등을 돌린 채 일에만 몰두했다. 간첩이 두 발짝 다가와 손이 닿는 거리에 들어오는 그 찰나를 노리고 있었다.

1분이 흘렀다. 폴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필요한 동작을 정확히 계산해 두었고, 곧바로 실행하려던 찰나였다.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 툭 치고 들어왔다. 폴은 저항할 틈도 없이 그대로 쓰러졌다.

"아! 저주할!"

간첩이 무릎으로 그를 누르며 외쳤다.

"그래서 네가 대답을 안 했구나! 나도 좀 전에 네 옆에 앉은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꼈거든. 그리고 나도 그건 생각지 못했어. 지금 막, 네 옆모습을 등불이 비춰준 거야."

그가 숨을 고르며 물었다.

"이 녀석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프랑스 개 같은 놈이로구나?"

폴은 온몸에 힘을 주었다. 잠시 동안 그는 그 포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상대의 힘이 조금씩 빠지는 것을 느꼈고, 그는 점차 상대를 압도해 나갔다. 그러자 그는 소리쳤다.

"맞다, 프랑스 놈이야. 폴 델로즈라고 해. 네가 예전에 죽이려던 그 놈, 엘리자베스의 남편, 네 희생자의 남편이지."

그가 다시 말했다.

"나야, 그리고 네가 누구인지도 알아. 가짜 벨기에인 라셴, 간첩 카를!"

그는 입을 다물었다. 간첩은 칼을 뽑으려고 몸을 굽혔던 순간을 빼고는 단 한 번도 주춤한 적이 없었다. 그는 이제 그 칼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아, 폴 델로즈……. 천벌이 내려라. 이번 원정은 정말 보람이 있겠군. 두 명이나 한꺼번에…… 남편이요, 아내요. 하! 네가 내 발톱에 걸려들다니. 받아라, 친구야."

폴은 자신의 얼굴 위를 스쳐 지나가는 칼날의 빛을 보았다. 그는 엘리자베트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잠시 후, 연이어 세 번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 두 대립각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 뒤에서 누군가가 총을 쏜 것이다.

간첩은 끔찍한 욕설을 내뱉었다. 그의 꽉 조르던 힘이 풀렸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엎드려 쓰러졌다.

"아, 저 여자는 정말… 정말 못된 여자가 틀림없어… 차 안에서 목을 조르면 될 걸…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

그는 더 낮은 목소리로 떨며 중얼거렸다.

"나 이제 완전히 속았군. 아, 저 여자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는 말을 멈췄다. 몸이 몇 번 경련하더니, 숨이 턱 막히는 비명 같은 신음이 한 번 울렸고,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

파울은 벌떡 일어났다. 자신을 구해 준 여자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여전히 손에 권총을 쥐고 있었다.

"엘리자베트!" 그는 기쁨에 사로잡혀 외쳤다.

하지만 그는 팔을 뻗은 채 멈춰 섰다. 어둠 속의 그 여자의 실루엣은 엘리자베트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키가 크고 건장한 여성의 형상처럼 보였다.

그는 끝없는 불안에 떨며 더듬거렸다.

"엘리자베트… 너야? 정말 너야?"

그때, 그는 곧 들을 대답이 무엇인지 깊은 직관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

"아니요." 여자가 말했다. "델로즈 씨는 우리보다 조금 앞서 다른 차를 타고 떠났어요. 카를과 저는 그 차를 따라잡으려 했죠."

파울은 그 차에 대해 떠올렸다. 버나드와 함께 빌라를 돌 때, 분명히 그 차의 엔진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았다. 하지만 두 차가 떠난 시간은 고작 몇 분 차이였다. 그는 낙담하지 않았다.

"그럼 서둘러야 해." 파울이 외쳤다. "속도를 높이면 분명 따라잡을 수 있어."

하지만 여자는 즉시 반박했다.

"따라잡는다고요? 불가능해요. 두 차는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목적지가 같다면요. 델로즈 씨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죠?"

"에르미느 백작부인이 소유한 성으로요."

"그 성이 어디에 있나요?"

"모르겠소."

"모른다고? 끔찍하군요. 적어도 이름이라도 아시죠?"

"카를이 말해 주지 않았소. 나도 몰라."

이 말에 파울은 깊은 절망 속으로 떨어졌다. 콘라드 공작이 벌인 잔치를 보던 순간과 똑같은, 즉각적인 반동이 필요했다.

물론 모든 희망은 사라졌다. 경보가 울리기 전에 터널을 이용하려던 그의 계획은 무너졌다. 설령 엘리자베스를 만나 구해 낸다 해도, 그것은 이미 불가능에 가까웠다. 게다가 그때가 언제가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리고 어떻게 적을 피해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아니, 이제 그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거대한 적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의 패배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더 이상 할 일은 체념하고, 처형의 일격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한 번 흔들리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를 밀어붙였던 그 열정은 멈출 수 없었고, 오히려 더 거세게 이어져야 했다.

그는 스파이에게 다가갔다. 여자는 등에서 꺼낸 등불 중 하나에 비춰져 시신을 살펴보고 있었다.

"죽었죠? 맞죠?" 그가 물었다.

"네, 죽었어요. 등 뒤에 총알 두 발이 명중했죠."

그녀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제 잘못이 너무 커요. 제가 그를 죽였어요. 형사님, 이건 살인이 아니죠? 제가 그렇게 할 권리가 있었나요… 그래도 너무 끔찍해요. 카를을 죽였다니…"

젊고 제법 이쁜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평범한 그 여자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죽은 시체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듯했다.

"당신은 누구요?" 폴이 물었다.

그녀는 흐느끼며 대답했다.

"저는 그의 친구였어요. 그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죠. 아니, 오히려 더 나쁜 사이였다고 해야 할까요. 카를은 저와 결혼하겠다고 맹세했어요. 하지만 카를의 맹세라니요! 그토록 거짓말을 잘하고, 그토록 비겁한 남자라니요! 제가 아는 그의 모든 면모가……."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고 있는 동안 점점 그의 공범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가 무서웠기 때문이죠.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떨면서 그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에는 그토록 증오하

면서요. 그리고 그가 그 증오를 느끼고 있었죠. 그는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언젠가 네가 나를 목 베어 죽일 수도 있겠구나.'"

"아니에요, 선생님.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지만, 결코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방금 전, 그가 당신을 때리려 한다는 걸 보고 나서야, 특히 당신의 이름을 들었을 때야 비로소……."

"내 이름? 왜?"

"당신은 델로즈 부인의 남편이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럼 나도 그 여자를 안다. 오늘 처음 알게 됐지. 오늘 아침, 벨기에에서 온 카를이 내가 사는 도시를 지나가다 나를 태워 콘라드 공작 댁으로 데려갔어. 우리 앞에 놓인 임무는 프랑스인 부인을 시중들게 하는 것이었지. 그 부인을 성으로 모셔야 했거든."

"그게 무슨 뜻인지 난 금방 이해했어. 또다시 나는 동조자가 되어야 했고, 신뢰를 얻어야 했지. 그런데 그 프랑스인 부인을 봤을 때, 나는 마음이 흔들렸어. 그녀가 울고 있었거든. 너무도 다정하고 착한 여자라, 그녀의 눈물이 내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놓았지. 나는 그녀를 구해 주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구원 방식은 아니었어. 카를을 죽임으로써."

그녀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며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죽거나 제가 죽거나… 그가 죽은 건, 오히려 다행이죠. 후회하지 않아요. 세상에 그보다 더한 악당은 없으니까요. 그런 자들과는 주저할 틈이 없죠.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파울이 물었다.

"그는 에르미느 백작부인에게 충성을 다했던 것 아닙니까?"

그녀는 오한이 일 듯 몸을 떨며 목소리를 낮춰 답했다.

"아, 그 여자에 대해서는 말하지 맙시다. 제발요. 그 여자는 더 무서운 존재예요. 그리고 아직 살아있죠. 아, 만약 그녀가 나를 의심한다면!"

"그 여자는 누구인가?"

"누가 알겠어요? 그녀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있는 곳마다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요. 사람들은 그녀에게 황제처럼 복종하죠. 모두 그녀를 두려워합니다. 그녀의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라고?"

"네, 하르만 대령이요."

"뭐? 하르만 대령이 그녀의 오빠라고?"

"물론이죠. 외모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에르민 백부인과 똑같거든요."

"하지만 두 분을 함께 뵌 적도 있으셨나요?"

"음…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 그러시는 거죠?"

시간은 너무도 소중했다. 폴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 여자가 에르민 백부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물었다.

"그녀는 공작 댁에 살고 있나요?"

"지금은 그래요. 공작님은 뒤쪽 1층에 사시고, 그녀는 앞쪽 1층에 계시죠."

"만약 제가 카를의 사고 소식을 전하러 온 운전사라고 소개하면, 그녀를 만나게 해 줄까요?"

"물론이죠."

"카를의 운전사, 즉 제가 대리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그녀가 알고 있나요?"

"아니요. 카를이 벨기에에서 데려온 병사예요."

파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나를 도와줘."

그들은 시신을 길가 도랑으로 밀어 넣고, 그곳에 내려놓은 뒤 마른 나뭇가지로 덮었다.

"나는 빌라로 돌아가겠소. 당신은 계속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만나시오. 사람들을 깨우고, 운전사가 카를을 살해했다는 것과 당신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리시오. 경찰에 신고하고, 당신을 심문하고, 빌라에 전화를 거는 데 걸리는 시간은 충분히 충분하소."

그녀는 놀라 물었다.

"하지만 에르민 백부인은요?"

"그쪽은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그녀를 꼼짝 못하게 만들지 않는다 해도, 어떻게 그녀가 당신을 의심하겠소? 모든 혐의는 나 혼자에게로 돌릴 테니까. 게다가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소."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핸들을 잡은 채 차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자의 절박한 간청을 무시한 채, 그는 차를 몰아 나갔다.

그의 운전은 마치 자신이 세운 새로운 계획의 요구사항을 수행하듯 열정적이고 단호했다. 그는 그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을 이미 결정했고, 그 작전이 성공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카운트리스를 만나자.' 그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만약 카를의 안부가 걱정되어 나를 그에게 데려가라고 한다면, 혹은 별다른 방에서 나를 맞이한다면, 어떤 수단을 써서든 내가 엘리자베트가 감금된 성의 이름을 말하게 만들어야지. 그녀로 하여금 엘리자베트를 구하고 탈출시킬 방법을 내놓게 해야 해.’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막연했다. 장애물이 얼마나 많았는가.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상황이 그렇게 순종적이어서 백작부가 눈이 멀고, 이후 모든 도움을 차단당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그녀의 기개를 가진 여성은 말에 속거나 협박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폴은 의심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의 계획 끝에는 성공이 있었고, 그 성공에 더 빨리 다다르기 위해 그는 속도를 높였다.

그는 자동차를 폭풍처럼 시골길을 내달리게 했고, 마을과 도시를 지날 때도 거의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호엔슈타우펜!”

성벽 앞 초소 앞에 서 있는 병사에게 그가 외쳤다.

파수병은 그를 심문한 뒤, 현관 옆에 서 있던 하사관에게 넘겼다. 그 하사관만이 빌라 안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고, 그를 통해 백작부인에게 소식이 전해질 것이었다.

"좋습니다." 폴이 말했다. "일단 차를 차고에 대고 오죠."

차고에 도착한 그는 헤드라이트를 끄고 빌라 쪽으로 걸어가다가 문득 생각났다. 하사관을 만나기 전에 버나드를 찾아봐야겠다고. 처남이 무엇을 눈치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빌라 뒤쪽, 발코니 창문 앞에 자리 잡은 화단 너머에서 버나드를 찾았다.

"너만 있니?" 버나드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응. 일은 실패했어." 폴이 대답했다. "엘리자베트는 다른 차에 실려 갔지."

"이런, 무슨 소리야! 너무 끔찍한데!"

"그래도 아직 막을 수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아직 정확히는 몰라. 너부터 말해 봐. 상황은 어때? 운전자는?"

"안전해. 아무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 거야. 적어도 오늘 아침까지. 다른 기사들이 마구간으로 올 때까지는."

"좋아. 그 외에는?"

"한 시간 전, 공원에서 순찰이 있었어. 나는 숨을 썼지."

"그다음?"

"그다음, 터널 쪽까지 살짝 들렀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게다가 그들을 다시 단단히 붙잡아 준 일도 있었지. 정말 무서운 일이야."

"무슨 일?"

"우리에게 친숙한 한 여자의 갑작스러운 출현. 코르비니에서 만났던 그 여자, 헤르만 대령과 너무나도 닮은 그 여자가."

"그녀가 순찰을 돌고 있던 거야?"

"아니야. 그녀는 떠나고 있었어."

"그래, 알고 있어. 그녀는 떠날 수밖에 없었지."

"그녀는 이미 떠났어."

"잠깐, 믿기 어렵군. 그녀가 프랑스행으로 떠난다고 해서 당장 떠나지는 않았을 텐데."

"그 출발을 내가 직접 목격했어."

"어디서? 어떤 길로?"

"그럼, 터널 이야기를 해볼까? 그 터널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니? 그녀는 그 길을 택했지. 내 눈앞에서, 아주 편안한 조건으로 말이야. 전기로 움직이는 기관차가 끄는 작은 수레를 타고."

"당연하지. 그녀의 목적지가 프랑스라면, 코르비니 분기점으로 궤도를 돌려 보냈을 거야. 두 시간 전쯤이었지. 그 작은 수레가 돌아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

에르미느 백작부인의 실종은 폴에게 또 한 번의 타격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면 그녀를 찾아내고, 어떻게 에리자베트를 구할 수 있을까? 그의 모든 노력이 재앙으로 끝나는 어둠 속에서, 그는 어떤 실마리를 잡아야 할까?

그는 몸을 굳혔다. 의지의 용수철을 당겨 쥐고, 성공할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는 버나드에게 물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못 봤어?"

"전혀요."

"들나들이는?"

"아니요. 하인들은 이미 잠들었어요. 불도 다 껐고요."

"모든 불을?"

"다만 하나만은 켜져 있었어요. 아, 저기요. 우리 머리 위에."

그것은 1층에 있었다. 그리고 그 창문은 폴이 공작 콘라드의 저녁 식사를 지켜본 창문 바로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버나드가 계속 말했다.

"제가 발코니에 올라간 사이에 그 불이 켜진 거예요?"

"네, 마지막 무렵에요."

폴이 중얼거렸다.

"내 정보로는, 저곳이 공작 콘라드의 방인 것 같아. 그도 취해서 올라갔대."

"정말 그 순간 그림자가 보였어. 하지만 그 후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지."

"당연하지. 샴페인에 취해 있는 거야. 아, 만약 그 방 안을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침투할 수 있다면!"

"쉽습니다." 베르나르가 말했다.

"어디로?"

"옆방으로요. 세면장일 테고, 창문이 살짝 열려 있네요. 아마 공기를 들이려고 일부러 열어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다리가 필요할 텐데……"

"저는 하나 알고 있어요. 창고 벽에 걸려 있는 사다리 말입니다. 가져올까요?"

"네, 네." 폴이 재촉했다. "빨리."

폴의 머릿속에서는 새로운 작전이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었다. 이 작전은 이미 세운 전투 태세와도 연결되어 있었고, 이제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빌라 주변, 좌우가 비어 있는지, 그리고 초병 중 어느 누가 현관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베르나르가 돌아오자마자 사다리를 길에 세우고 벽에 기대었다.

그들은 올라갔다.

살짝 열린 창문은 분명 화장실이었다. 옆 방에서 비치는 빛이 그 안을 환하게 밝혔다. 그 방에서는 코 고는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파울이 고개를 내밀었다.

콘라드 공주는 침대 위에 널브러져 잠들어 있었다. 군복을 입은 채였지만, 가슴팍은 얼룩으로 더러웠다. 인형처럼 늘어져 있는 그의 모습은 깊은 잠에 빠졌음을 보여줬다.

파울은 주저하지 않고 방 안을 살폈다. 작은 복도 같은 공간이 방과 복도를 나누고 있었다. 파울은 두 개의 문을 밀고, 자물쇠를 두 번이나 돌려 잠갔다. 이제 그들은 공주와 함께 고립된 상태가 되었다.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자, 시작하자." 파울이 말했다. 그들은 각자의 임무를 분배한 후였다.

그는 뭉친 수건을 왕자의 얼굴에 눌러붙였다. 끝부분을 입속으로 밀어넣으려 애쓰는 동안, 베르나르는 다른 수건으로 왕자의 다리와 손목을 꽁꽁 동였다. 모든 과정은 고요하게 진행되었다. 왕자는 저항도,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 그는 눈을 뜨고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바라보았지만,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위험을 자각할수록 두려움이 점점 더 깊게 그를 잠식해 갔다.

"용감하군, 빌헬름의 후계자라니." 베르나르가 비웃었다. "겁이 다 났네. 자, 젊은이, 정신을 차려라. 소금물 병은 어디 있나?"

파울은 마침내 수건 절반을 왕자의 입속으로 밀어넣었다.

"이제 가자." 그가 말했다.

"너, 뭐 할 거야?" 베르나르가 물었다.

"그를 데려가는 거야."

"프랑스로?"

"프랑스로?"

"당연하지! 우리가 그를 붙잡았잖아. 그에게 도움을 받아보자고."

"그가 도망치는 건 못 하게 할 거야."

"그럼 터널은?"

"안 돼! 지금 감시가 너무 심해."

"그래, 보자고."

그가 권총을 집어 들어 콘라드 공작을 향해 겨누었다.

"들으시오. 당신은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제 질문을 이해할 수 없군요. 하지만 권총은 다릅니다. 저절로 이해되는 언어죠. 술에 취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라도 알 수 있는 아주 명확한 언어라고요."

"자, 만약 당신이 조용히 따라오지 않고, 발버둥 치며 소음을 일으킨다면, 그리고 제 동료와 제가 잠시라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당신은 끝장입니다."

"당신의 측두부를 누르고 있는 브라우닝 총구가 당신의 머리를 날려버릴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공작은 머리를 저었다.

"완벽하군요." 폴이 결론을 내렸다. "베르나르, 그의 다리는 풀되, 팔은 몸통에 단단히 묶으시오. 잘됐군. 출발합시다."

내려가는 길은 순조로웠다. 그들은 덤불 사이를 지나, 병영으로 통하는 넓은 울타리까지 무사히 걸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왕자'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마치 한 뭉치의 짐처럼 건넸다. 그리고 처음 도착했을 때와 같은 길을 따라 다시 진군해, 구덩이 지대에 도착했다.

밤하늘은 충분히 밝아 방향을 잡기에 충분했다. 그들 앞에는 터널 입구에 있는 초소에서 올라오는 듯한 희미한 빛이 퍼져 있었다. 실제로

초소 안에서는 모든 불이 켜져 있었고, 병사들은 막사 밖에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터널 앞에서는 한 병사가 소총을 어깨에 메고 거닐고 있었다.

"우리 둘이 대 여섯 명이라니. 총소리가 울리면, 여기서 오 분 거리에 주둔하고 있는 독일군 수백 명이 합류할 거야. 싸움은 조금 불공평하지 않니?"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 것은, 그들이 실제로는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이라는 점이었다. 게다가 그들에게 가장 큰 발목이 잡힌 것은 포로였다.

그와 함께라면 달릴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어떤 꾀를 내야 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걸었다. 발밑의 돌이 굴러가지 않도록, 그리고 왕자의 발걸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말이다.

그들은 빛이 닿지 않는 곳을 돌아서 한 시간쯤을 이동했다. 그리고 마침내 터널 근처에 다다랐다. 그들은 터널의 첫 번째 받침돌이 기대진 바위 경사면 근처에 이르렀다.

"거기 그대로 있어." 폴이 말했다. 목소리는 매우 낮았지만, 공작이 분명히 들릴 만큼은 컸다. "내 지시를 잘 기억해. 우선 네가 공작을 맡아. 권총을 들고 왼손으로 그의 옷깃을 꼭 잡는 거야. 만약 저항하면, 머리를 박살 내. 우리나 그나 둘 다 망하는 거야. 내 쪽에서는 막사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돌아가, 초소에서 온 다섯 명을 유인할 거야. 그때 아래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 병사가 동료들과 합류하면, 네가 공작을 데리고 지나갈 수 있어. 만약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너는 그에게 총을 쏴서 부상을 입히고… 그 사이를 지나가."

"알겠어. 나는 지나가지만, 독일군들이 나를 쫓아올 거야."

"물론이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따라잡는 거야."

"그들은 너희를 따라잡지 못할 거야."

"그걸 확신해?"

"확실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럼 결정된 거죠. 당신도 마찬가집니다, 공작님." 폴이 공작에게 말했다. "이해하셨죠? 절대적인 복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 하나, 오해 하나도 당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베르나르가 매제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밧줄 하나 주워왔어요. 목에 감아둘 거예요. 조금만 삐끗하면, 짧게 당겨서 현실을 일깨워주죠. 하지만 폴, 하나 미리 말해둡니다. 만약 그가 몸부림치려 들면, 저는…… 차갑게…… 그를 죽일 자신이 없어요."

"걱정 마. 그는 너무 무서워서 몸부림칠 생각조차 못 할 거야. 그가 너를 따라올 거다. 터널 끝까지 개처럼."

"그리고 나중에는?"

"도착하면, 오르네캥 유적지에 가두세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그의 이름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나야, 폴?"

"내 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위험은 우리 둘에게 똑같아. 이제 시작할 일은 끔찍할 정도로 치명적이고, 우리가 질 확률이 훨씬 높아. 하지만 이겨낸다면, 엘리자베트의 생명이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 마음껏 달려보자. 곧 봐, 베르나르. 10분 안에 모든 게 결정될 거야. 승이든 패든."

그들은 오랫동안 포옹을 나누었고, 폴은 발걸음을 떼었다.

폴이 말했듯, 이 마지막 시도는 오직 대담함과 신속함으로만 성공할 수 있었다. 절박한 작전처럼 실행해야 했다.

단 10분만 더. 그리고 이 모험의 결말이 나온다. 단 10분만 더. 그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지, 총살당할지 결정된다.

그가 그 순간부터 행한 모든 행동은 마치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작전 계획을 세우고, 피할 수 없는 성공을 미리 보장이라도 한 듯 정확하고 체계적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비극적인 상황들이 닥쳐올 때마다, 그는 즉흥적으로 하나씩 결정을 내려가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우회로를 택했다. 모래 채취 작업으로 생긴 언덕들의 경사면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하며, 채석장과 군대 주둔지가 이어지는 협곡으로 향했다. 마지막 언덕 위에서, 그는 우연히 돌덩이 하나를 건드렸다. 돌이 흔들렸다. 그는 더듬어 보았다. 그 돌덩이가 뒤쪽에 쌓인 모래와 자갈들을 모두 지탱하고 있는 것이었다.

'필요한 건 바로 이거야.' 그는 생각도 하지 않고 곧장 결론을 내렸다.

그는 거친 발차기로 덩어리를 강하게 차올렸다. 덩어리는 곧바로 골짜기 오목한 곳을 따라 급류처럼 떨어졌고, 산사태가 일어나는 듯한 굉음을 울리며 협곡 속으로 사라졌다.

파울은 재빨리 돌무더기 사이로 뛰어 들어가 배를 바닥에 붙인 채 드러누웠다. 그리고는 사고를 당한 사람처럼 구조를 외쳤다.

그가 누운 자리에서는 협곡의 굽이굽이 때문에 병영에서는 들리지 않았지만, 최소한 백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터널 막사까지는 소리가 전달될 만했다. 실제로 병사의 무리가 재빨리 달려왔다.

그는 적어도 다섯 명을 세었다. 그들은 그에게 달려와 그를 부축하며 무수히 질문했다. 그는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하사관에

게 대답했다. 대답은 일관성이 없고 숨이 찬 말투였다. 듣는 이로 하여금 그가 콘라드 공작의 명을 받아 에르민 백작 부인을 찾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할 정도였다.

파울은 자신의 계략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통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버나드가 그 사이 여섯 번째 감시자를 처리하고 콘라드 공작과 함께 탈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은 소중했다.

아마도 그 감시자도 곧장 이곳으로 올지도 모른다. 아니면 버나드가 총을 사용하지 않고 그 감시자를 처리할 수도 있었다. 총성 없이 일을 처리한다면, 소음을 피할 수 있었을 테니까.

파울은 목소리를 조금씩 높이며,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더듬거렸다. 부사관은 그 말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화가 났다.

그때 멀리서 총성이 뚝 끊기더니, 이어 두 발의 방음이 이어졌다.

부사관은 당황했다.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병사들은 파울을 치우고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을 헤치고 앞으로 나섰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그가 사라지는 줄도 모른 채 있었다.

첫 번째 코너를 돌자 그는 달리기 시작했다. 몇 번의 도약으로 그는 이미 막사에 도착해 있었다.

한눈에 그는 서른 걸음 앞, 터널 입구에서 베르나르가 콘라드 왕자와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왕자는 탈출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 근처에서는 파수병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폴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선명하게 파악했다. 베르나드를 도와 탈출을 시도하는 것은 자살이나 다름없었다. 적들이 그들을 쫓아올 것이 분명했고, 어쨌든 콘라드 공작은 구출될 테니까.

중요한 것은 진창지대 끝에서 이미 모습을 드러낸 병사들의 무리를 막는 것이었다. 그리고 베르나드가 공작과 결판을 내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일이었다.

그는 막사에 반쯤 몸을 숨긴 채 권총을 겨누며 외쳤다.

"멈춰!"

하사관은 따르지 않았다. 그는 조명 아래로 들어섰다. 폴이 총을 쐈다. 독일인이 쓰러졌지만, 단지 다친 것이었다. 그는 야수 같은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앞으로! 그 위에 뛰어올라! 어서 가, 겁쟁이들아!"

남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파울은 그들이 막대기들을 모아 만든 빛줄기 근처에 놓인 총을 낚아챘다. 그는 그들을 조준하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버나드가 드디어 콘라드 공주를 제압하고, 터널 깊은 곳으로 그를 끌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다섯 분만 버티면 돼.'

파울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버나드가 최대한 멀리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

그는 그토록 침착해 있었다. 자신의 맥박이 규칙적으로 뛰는 소리를 세어, 그 다섯 분을 정확히 잴 수 있을 정도였다.

"앞으로! 그들을 덮쳐! 앞으로!"

하사관은 멈추지 않고 외쳤다. 그는 콘라드 공주를 정확히 알아채지는 못했을지언정, 도망치는 두 사람의 실루엣은 분명히 발견한 것이 분명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총을 쏘았다. 파울은 총알 한 발로 그 부사관의 팔을 부러뜨렸다. 하지만 부사관은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앞으로! 두 명이 터널로 도망쳤어! 앞으로! reinforcements가 왔어!"

소음에 이끌려 병영에서 달려온 반쯤 되는 병사들이었다. 파울은 막사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그는 작은 창문의 유리를 깨고 세 번을 쐈다. 병사들은 몸을 피했지만, 다른 병사들이 도착해 부사관의 지시를 받고 흩어졌다. 파울은 그들이 근처 언덕을 올라 자신을 포위하려 한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몇 발 더 총을 쐈다. 하지만 무슨 소용이랴? 더 오래 저항할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끝까지 버텼다. 적들과 거리를 유지하며 쉬지 않고 총을 쏘아, 가능한 한 최후의 순간까지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그는 적들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적들은 그를 우회한 뒤 터널 쪽으로 향하고, 도망치는 자들을 쫓으려 한다는 것을.

폴은 몸집을 낮추고 매달렸다. 흐르는 매초마다, 그리고 그 소중히 세어지는 매초마다 베르나르와의 거리가 벌어지는 것을 그는 명확히 의식했다.

세 명의 남자가 벌어진 구멍으로 뛰어들었다. 이어 네 명, 다섯 명.

게다가 총알이 오두막 위로 빗발치기 시작했다.

폴이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베르나르는 지금 육백에서 칠백 미터쯤 갔겠지. 그를 쫓는 세 사람은 오십 미터쯤 뒤였다가… 이제 칠십오 미터쯤 됐군. 상황은 괜찮아.'

독일군들이 뭉쳐서 막사로 밀려오고 있었다. 파울이 혼자 갇혀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는 게 명백했다. 그가 몸을 사리지 않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 때문이었다. 이번에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때가 됐군. 베르나드는 위험 지대를 벗어났어.'

그는 갑자기 조작반으로 달려갔다. 터널 속에 뚫린 광산용 노드에 연결된 레버들이 달린 곳이었다. 총검으로 유리창을 강타해 산산조각 낸 뒤, 첫 번째와 두 번째 레버를 내려쳤다.

땅이 떨리는 듯했다. 터널 아래에서 천둥소리 같은 굉음이 울려 퍼졌고, 반사된 메아리처럼 길게 이어졌다.

베르나르 드앙드빌과 그를 쫓는 사냥개들 사이에는 길이 막혀 있었다. 베르나르는 콘라드 공을 무사히 프랑스까지 모셔갈 수 있었다.

그때 파울이 오두막에서 나와 팔을 벌리며 기쁜 목소리로 외쳤다.

"동무! 동무!"

열 명의 남자가 이미 그를 에워쌌고, 그들을 지휘하던 한 장교가 분노에 휩싸여 비명처럼 소리쳤다.

"총살해라! 당장… 당장… 총살해라!"

어떻게 잔인하게 대우해도 파울은 단 한 번도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절벽의 수직 벽면에 격렬하게 몸을 밀착당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계산을 하고 있었다.

"두 번의 폭발은 각각 300미터, 4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다는 건 수학적으로 확실해. 그러니 베르나르와 콘라드 공주가 그 너머에 있고, 그들을 쫓는 병력들은 이쪽 더 안쪽에 있다는 것도 확실하다고 볼 수 있어. 결론적으로 모든 게 최선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그는 순종적인 태도로, 어딘지 모르게 냉소적인 미소를 띤 채 자신의 처형을 준비하는 일들에 몸을 맡겼다. 이미 전기 투광등이 밝게 비추는 아래로 열두 명의 병사들이 일렬로 진을 쳤고, 오직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다.

격투 초반에 부상을 입었던 부사관이 기어와서 이를 갈며 말했다.

"총살해! … 총살해! … 더러운 프랑수아놈!"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아니, 일이 그렇게 빨리 끝나진 않을 거야."

"총살당했다." 남자가 다시 말했다. "헤르르 루트나트가 그렇게 말했지."

"그럼 헤르르 루트나트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루트나트 소위는 터널 입구에서 급하게 조사를 하고 있었다. 터널 안으로 들어갔던 병사들이 돌아왔지만, 폭발 가스에 질식해 반쯤 기절해 있었다. 베르나드가 처리해야 했던 감시병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더 이상 정보를 뽑아내는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병영에서 연락이 왔다. 빌라에서 급사를 보내온 소식에 콘라드 공자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지휘관들에게는 초병을 두 배로 늘리고, 특히 터널 주변을 철저히 경계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물론 폴은 이런 식의 분열, 혹은 그와 비슷한 어떤 수단이 자신의 처형을 미루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해가 막 밝아오기 시작했다. 콘라드 공작이 방에서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두고, 그의 하인 중 한 명이 그를 감시하라는 임무를 맡았을 것이라고 폴은 생각했다.

그 하인이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경보를 울린 것이다. 그래서 즉각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이었다.

하지만 파울이 가장 놀란 것은, 터널을 통해 왕자가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의식을 잃은 병사는 입을 열 수 없었고, 사람들은 멀리서 본 두 피고인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끌고 갔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결국 사람들은 왕자가 살해당했다고 믿었다. 가해자들이 시신을 석회암 채석장 어딘가에 던져두고 도망쳤으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중 두 명은 탈출에 성공했고, 셋째는 붙잡혔다. 하지만 그 사건이 가진 과감함이 상상을 초월했다는 이유로, 그런 계획이 세워졌을 가능성은 단 한 순간도 떠올리지 못했다.

어쨌든 사전 조사 없이, 그리고 그 조사 결과가 상부에 보고되지 않는 한, 파울을 총살할 수는 없었다.

그는 빌라로 끌려갔다. 독일제 코트를 벗기고 철저하게 수색한 뒤, 튼튼한 네 명의 병사들이 지키는 방에 갇혔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졸음을 쫓으며 지냈다. 그는 이 쉼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모른다. 게다가 마음은 아주 평온했다. 칼이 죽었고, 에르민 백작부인은 자취를 감췄으며, 엘리자베트는 안전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일은 자연스러운 사건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뿐이었다.

열 시쯤, 한 장군이 그를 찾아와 심문했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대답을 듣지 못한 장군은 화를 내기 시작했다. 다만 그 화에는 일종의 거리

두기가 섞여 있었다. 폴은 그 속에서 명성 있는 범죄자에 대한 특별한 존중 같은 것을 읽어냈다.

'괜찮아.' 그가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건 단지 한 단계일 뿐이야. 곧 더 진지한 대사, 어쩌면 특사 같은 사람이 올 거야.'

장군의 말에서 그는 공작의 시체가 여전히 수색 중임을 알 수 있었다. 성벽 밖에서도 수색은 계속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황이 수사의 범위를 크게 넓혔기 때문이다. 폴과 베르나르가 차고에 감금했던 운전사의 발견과 진술, 그리고 관제소에서 보고한 자동차의 출퇴근 사실이 그것이었다.

정오가 되자 폴에게 든든한 식사가 나왔다. 대우도 더 좋아졌다. 맥주와 커피도 나왔다.

'총살당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소한 예우를 받아야 해. 누가 나라는 그 수수께끼의 인물인지,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거뒀는지 세상에 정확히 알려준 다음에야 비로소 총살당해야 해. 그런데 그 정보는 나밖에 모르지.'

그는 자신의 지위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상대가 자신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협력해야 하는지 선명하게 느꼈다. 그래서 한 시간 뒤, 빌라의 작은 거실로 끌려가 두 명의 호화로운 차림새를 한 인물 앞에 서 있게 되었을 때,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다시 한번 수색한 뒤, 유례없이 과도한 주의사항을 다하며 그를 단단히 묶어놓았다.

‘적어도 황제국의 수상이라도 내 편을 들어주는 게겠지… 아니면…’

상황을 볼 때, 그는 마음속으로 더 강력한 개입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총리 이상의 권위가 동원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때였다. 빌라 창가 아래에서 자동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이 내리는 모습을 본 그는, 그들이 어딘가 어수선해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의 계산이 완벽하게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두 사람이 등장하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군인처럼 단정하게 자세를 잡았다. 병사들은 더 굳건히 서서, 마치 인형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

문이 바람처럼 쾅 열리며, 칼날과 발등 장식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다. 들어온 남자는 재촉하듯, 그리고 떠나야만 할 듯한 조급함을 한몸에 담고 있었다. 그가 여기서 해내야 할 일은 단 몇 분 안에 끝내야만 했다.

그가 손짓하는 순간,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 줄지어 빠져나갔다.

황제와 프랑스 장교만이 서로를 마주 보고 남았다.

황제는 곧장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너는 누구냐? 왜 여기 왔느냐? 동무들은 어디 있느냐? 누구의 명령으로 움직였느냐?"

그의 모습은 사진이나 신문 삽화에서 보던 이미지와 사뭇 달랐다. 얼굴은 완전히 늙어버린 듯했고, 주름이 깊게 패인 가면 같은 얼굴은 누렇게 얼룩져 있었다.

파울은 분노로 몸이 떨렸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었다. 자신의 고통을 되새기며 일어난 감정보다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범죄자에 대한 혐오와 경멸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그는 관례와 겉치레의 존중을 지키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입을 열었다.

"제 묶음을 풀어주십시오."

황제는 놀라 뒤로 물러섰다. 이런 식으로 대하는 이는 처음이었다.

"당신은 잊고 있군. 내 말 한마면 당신을 총살할 수 있다는 것을! 감히 조건을 내걸다니!"

파울은 침묵을 지켰다.

황제는 안방을 왔다 갔다 했다. 한 손으로는 칼자루를 쥐고 있었고, 칼끝은 카펫 위를 끌고 다녔다. 두 번이나 멈춰 서서 파울을 바라보았지만, 파울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황제는 다시 걸음을 재촉하며 분노를 키웠다.

그때 갑자기 그는 전기 벨의 버튼을 눌렀다.

"풀어주시오!" 그가 부른 쪽으로 사람들이 달려가자, 그가 명령했다.

속박에서 풀려난 파울은 일어서서, 상급자 앞의 군인처럼 자세를 바로 잡았다.

다시 방 안은 비어졌다. 그러자 황제가 다가왔다. 그는 파울과 자신 사이에 책상이라는 방패를 남겨둔 채, 여전히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콘라드 공작?"

파울이 대답했다.

"콘라드 공작은 죽지 않았습니다, 폐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카이저는 안도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여전히 핵심적인 질문은 피하며 말했다.

"당신에게 해당되는 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폭행……, 간첩 행위……. 그것뿐만 아니라, 제 최측근 중 한 명을 살해한 일도 있습니다……."

"스페인 왕비 폐하, 스파이 카를이 맞습니까? 그를 죽인 것은 자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죽였잖소. 그렇다면 이 살인과 나머지 모든 죄목으로 인해, 당신은 총살형을 받게 될 것이오."

"아닙니다, 폐하. 공작 콘라드의 생명이 제 생명을 보증해 줍니다."

황제는 어깨를 으쓱하며 고개를 저었다.

"공작 콘라드가 살아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겠소."

"아닙니다, 폐하.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독일 땅에 내 수색을 피할 피신처는 어디에도 없소!" 그가 주먹을 휘두르며 단언했다.

"공작 콘라드는 독일에도 없습니다, 폐하."

"뭐? 무슨 소리요?"

"공작 콘라드는 독일에도 없습니다, 폐하."

"그렇다면 그는 어디에 있소?"

"프랑스에 있습니다."

"프랑스에!"

"네, 폐하. 프랑스 오르네캉 성에서, 제 친구들의 감시 하에 있습니다. 내일 저녁 여섯 시까지 제가 그들과 합류하지 못하면, 콘라드 왕자는 군사 당국에 인도됩니다."

황제는 숨이 막힐 듯한 충격을 받았다. 분노가 순식간에 꺾였고, 그 충격의 강도를 감추려 하지도 않았다. 아들이 포로가 될 경우 자신과 왕조, 제국에 닥칠 치욕과 수치, 그리고 그 소식이 전해질 때 전 세계가 터뜨릴 조롱의 웃음소리. 그런 인질 하나를 손에 쥔 적이 가질 오만한 기세. 이 모든 것이 그의 불안한 눈빛과 구부정해진 어깨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파울은 승리의 전율을 느꼈다. 그는 이 남자를 무릎 아래에 누른 패배자를 단단히 쥐어짜듯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힘의 균형은 그에게 유리하게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심지어 황제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하는 순간에도 파울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다.

황제는 그 밤에 벌어진 드라마의 단서들을 어렴풋이 꿰뚫고 있었다. 터널을 통한 진입, 터널을 통한 납치, 그리고 공격자들의 탈출을 보장하기 위해 터뜨린 광산 폭발.

그리고 그 모험의 무모한 대담함이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황제가 중얼거렸다.

"당신은 누구인가?"

파울은 조금씩 경직된 태도를 풀었다. 그의 한 손이 떨리는 대로 그들을 가로막는 탁자에 올려졌고,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황제 폐하, 16년 전 9월 어느 오후의 일입니다."

"뭐라고? 무슨 뜻이냐?" 황제는 이 서두에 당황하며 물었다.

"폐하께서 물으셨으니, 답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금 엄숙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스승님, 16년 전 9월 어느 오후, 스페인 국경 근처 에브르쿠르-코르비니 터널 공사를 견학하러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스승님은 오르네캥 숲에 있는 작은 예배당에서 나오던 찰나, 부자(父子) 프랑스인 두 명을 만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스페인 국경 근처 에브르쿠르-코르비니 터널 공사를 견학하러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스승님은 오르네캥 숲에 있는 작은 예배당에서 나오던 찰나, 부자(父子) 프랑스인 두 명을 만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 만남은 스승님께 몹시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화가 난 스승님의 언동이 튀어나왔죠.

10분 후, 스승님을 모시던 여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스승님과 면담할 기회가 있다며, 프랑스인 중 아버지를 독일 영토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인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아들의 눈앞에서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델로즈였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카이는 점점 더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파울에게 카이의 얼굴빛에서 담즙이 더 섞여 나오는 것 같았다. 그러나 파울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카이는 굳건히 버텼다. 그에게 이 델로즈 씨의 죽음은 황제가 잠시도 머물지 않을 사소한 사건 중 하나였다. 그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을까?

자신이 분명히 명령하지 않았지만, 범죄자에 대한 그의 관용이 그를 공범자로 만드는 이 범죄에 대해 설명하기를 거부한 카이는 침묵 후 다음과 같은 말을 던졌다.

"헤르민 백작부인은 그녀의 행동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에게만 책임을 집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나라의 법정이 그녀에게 그 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파울이 지적했다.

황제는 어깨를 으쓱였다. 독일의 도덕 문제나 고등 정치 따위에 논쟁을 붙일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듯이 말이다. 그는 시계를 확인하고 종을 불렀다. 곧 출발할 것임을 알린 뒤, 파울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콘라드 공자를 납치한 거군?”

“아닙니다, 폐하. 그건 헤르미네 백작부인과 제 사정입니다. 하지만 콘라드 공자와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공자가 오르네캉 성에 머물던 시절, 성에 살던 한 젊은 여성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녀가 거절하자, 공자는 그녀를 납치해 여기 자신의 빌

라로 데려왔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제 성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를 데리러 온 것입니다."

황제의 태도로 보아 그는 이 일에 대해 전혀 모르는 듯했다. 아들의 난폭한 행위에 크게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었다.

"당신은 확신합니까?" 그가 물었다. "그 여자가 여기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르미네 백작부인이 그녀를 없애기로 작정하고, 제 아내를 스파이 카를에게 맡겼습니다. 카를은 콘라드 왕자가 찾는 것을 막아 그 불쌍한 여자를 제거하라는 임무를 받았죠."

"거짓말이다! 끔찍한 거짓말!" 황제가 소리쳤다.

"에르미네 백작부인이 스파이 카를에게 건넨 이 병이 증거입니다."

"그다음은? 그다음!" 황제는 성난 목소리로 재촉했다.

"그다음은 어찌되었습니까, 폐하? 간첩 카를이 죽었고,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었기에 저는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콘라드 공주는 잠들어 있었죠. 제 친구와 함께 그의 방에서 내려 프랑스행 터널로 보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셨단 말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폐하."

"물론 콘라드 공주의 석방과 맞바꿔, 당신 아내의 석방을 요구하는 것이겠지?"

"네, 폐하."

"하지만!" 황제가 소리쳤다. "나는 그녀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그녀는 에르미네 백작부인이 소유한 성에 있습니다.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폐하. 자동차로 몇 시간 거리인 성이라면, 최대 이백 킬로미터, 많아야 오백 킬로미터 이내일 것입니다."

침묵하던 황제는 검의 손잡이로 테이블을 격하게 두드리고 있었다.

"그게 당신이 요구하는 전부입니까?" 그가 물었다.

"아닙니다, 폐하."

"그럼 또 뭐가 있습니까?"

"프랑스군 사령관이 건네준 명단에 있는 프랑스인 죄인 스무 명의 석방입니다."

이 말을 듣자 황제는 벌떡 일어났다.

"당신 미쳤습니까? 죄인 스무 명, 그리고 아마도 장교들이겠지요? 부대 지휘관들, 장군들까지?"

"명단에는 일반 병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하."

황제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황제의 분노는 제멋대로인 몸짓과 일관성 없는 외침으로 분출되었다. 그는 파울을 쏘아보듯 응시했다. 포로 신세인 이 작은 프랑스 소령의 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처럼 군림하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불쾌감은 황제로 하여금 견디기 힘든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 무례한 적을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그와 논쟁을 벌이고 그의 제안이라는 모욕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출구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고문으로도 꺾이지 않을 듯한 사나운 상대와 맞서야 했기 때문이다.

그때 파울이 다시 입을 열었다.

"폐하, 제 아내의 자유와 콘라드 왕자의 자유를 바꾼다면, 그 거래는 너무 불공평합니다. 폐하께선 제 아내가 감옥에 있든 자유이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콘라드 왕자를 석방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대가가 수반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인 포로 스무 명쯤이야 결코 과한 숫자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 일을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시면 프랑스 포로들을 독일군 포로와 등급이 맞교환하는 것처럼, 한 명씩 나누어 프랑스로 돌려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에는 아이러니가 서려 있었다. 패배의 쓴맛을 누그러뜨리고, 양보하는 척하며 제국주의 자존심에 가해진 타격을 숨기려는 의도였다.

파울은 이런 순간의 맛을 깊이 음미했다. 자존심에 살짝 상처를 입었을 뿐인데도, 그토록 큰 고통을 겪는 이 남자가 자신의 거대한 계획이 무산되는 것과 운명의 무거운 무게에 짓눌리는 것을 보고 얼마나 더 고통스러워할지 상상하며 말이다.

'그래, 내가 충분히 복수했군.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항복은 코앞이었다. 황제가 말했다.

"보겠다… 명령을 내리마."

파울이 항의했다.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폐하. 콘라드 공자의 체포 소식이 프랑스에 알려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콘라드 공자를 데려오게. 당일 중으로 당신의 부인을 돌려보내겠소."

하지만 파울은 단호했다. 그는 온전한 신뢰를 요구했다.

"폐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 부인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녀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죠. 저는 지금 바로 그녀 곁으로 가길 원합니다. 오늘 밤, 그녀와 저는 프랑스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는 가장 단호한 어조로 이 말들을 반복한 뒤, 덧붙였다.

"프랑스인 포로들은 폐하께서 원하시는 조건에 따라 인계하겠습니다. 그들의 구금 장소가 적힌 명단입니다."

파울은 연필과 종이를 집었다. 그가 막 작업을 끝내자 황제는 그 명단을 손에서 빼앗았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의 얼굴이 격분으로 일그러졌다.

이름 하나하나가, 거의 모든 이름이, 그를 무력한 분노로 떨게 했다. 그는 종이를 찌그러뜨려 공처럼 뭉쳤다. 마치 모든 협상을 끊어버리겠다는 의지인 양.

하지만 그는 결국 참다 못했다. 급작스러운 동작으로, 이 성가신 일을 빨리 끝내버리고 싶다는 열광적인 조급함이 섞인 그 움직임으로, 그는 전기 벨을 세 번이나 누른다.

명령장교가 재빠르게 들어와 그의 앞에 섰다.

황제는 잠시 더 생각에 잠겼다.

그가 명령을 내렸다.

"델로즈 중위를 자동차로 힐덴슈타인 성으로 모셔 가시오. 거기서 그와 그의 부인을 에브르쿠르 전선으로 데려오게."

"그리고 여드레 뒤, 같은 지점에서 만나시오. 콘라드 공작이 동행할 것이고, 당신은 이 목록에 적힌 프랑스인 포로 스무 명을 데리고 오게.

교환은 델로즈 중위와 상의해 신중하게 진행하시오. 끝. 개인 보고로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알려주시오."

그는 단호하고 권위 있는 어조로, 마치 제국이 아무런 압력 없이 오직 자신의 의지만으로 내린 일련의 조치들인 양 명령을 쏟아냈다.

그렇게 일을 정리한 그는 고개를 든 채, 승리의 검과 울리는 박차를 들고 나갔다.

"이번에도 승리를 하나 더 챙겼군. 참으로 극적인 인간이야."

파울은 입 밖으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 모습은 수행 장교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때, 황제의 자동차가 엔진음을 울리며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다.

면담은 열 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잠시 후, 파울 역시 길을 나섰다. 그는 힐덴스하임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행운의 여정이여! 파울 델로즈는 어떤 설렘으로 그 길을 달렸는가. 드디어 그는 목표에 다다랐다. 이번엔 실패할 확률이 높은 모험이 아니었다. 끝에는 보통 잔인한 실망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 그는 논리적인 결말과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얻게 될 것이다.

그의 마음에는 불안의 그림자조차 스칠 수 없었다. 어떤 승리는 그 뒤를 따라 모든 장애물을 무력화시킨다. 그가 황제에게서 거둔 승리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

엘리자베트는 힐덴스하임 성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성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를 막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해가 밝자, 그는 밤새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던 풍경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낯익은 마을, 작은 읍, 지나쳤던 강물까지. 이어 작은 숲들이 이어지는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 그는 카를이라는 간첩과 몸싸움을 벌였던 도랑도 발견했다.

그는 한 시간도 더 걸려 히덴하임의 중세 성채가 우뚝 선 언덕에 도착했다. 성 앞에는 넓은 해자가 둘러쳐 있었고, 그 위로는 인양교가 놓여 있었다. 의심을 품은 경비원이 나타나자, 장교의 몇 마디 말로 성문은 활짝 열렸다.

성에서 두 하인이 달려나왔다. 파울의 물음에 그들은 프랑스 여인이 연못 쪽을 거닐고 있다고 답했다.

길을 알려받은 파울은 장교에게 말했다.

"나는 혼자 갈게. 곧 출발할 테니."

비가 내린 뒤였다. 흐린 구름 사이로 희미한 겨울 햇살이 스며들어, 잔디밭과 수풀을 비추고 있었다.

파울은 온실 옆을 지나 인공 암벽을 넘었다. 거기서는 폭포수 한 줄기가 뚝뚝 떨어졌고, 검은 소나무들 사이로 넓은 연못이 펼쳐져 있었다. 연못에는 백조와 야생 오리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연못 끝자락에는 석조 의자와 조각상들이 놓인 테라스가 있었다.

엘리자베트가 거기에 있었다.

파울은 숨이 막힐 듯한 충격을 받았다. 전쟁이 시작된 그날 이후, 엘리자베트는 그에게 완전히 사라진 존재나 다름없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끔찍한 시련들을 겪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을 견딘 이유는 하나뿐이었다. 남편인 파울의 눈에 흠집 하나 없는 여성으로,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흠집 하나 없는 딸로 비추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그는 그녀를 다시 찾았다. 하지만 시기가 너무 늦었다. 카운티스 에르미네에게 가해진 모든 비난을 무효화할 수 없는 때였다. 게다가 엘리자베트 자신도 콘라드 공작의 만찬에 참석한 사실이 파울로 하여금 깊은 분노를 느끼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먼 과거였는가. 얼마나 사소한 일이었는가. 콘라드 공작의 추악한 행실, 에르민 백작부인의 범죄들, 두 여성을 묶을 수 있는 혈연의 인연, 그리고 폴이 치러낸 모든 싸움, 그의 모든 걱정, 모든 반발, 모든 증오……. 이제 그가 스무 발짝 앞에서 불행한 자신의 연인을 바라보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모두 하찮은 디테일에 불과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그녀가 흘린 눈물뿐이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오직 그 야윈 모습, 겨울바람에 떨고 있는 그 실루엣에만 고정되었다.

그가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이 길가의 자갈 위에서 삐걱거렸고, 젊은 여성이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손짓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에서 그는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는 꿈의 안개 속에서 나타나는 유령과 같았고, 그 유령은 종종 그녀의 환각적인 눈앞을 떠돌았다는 것을.

그녀는 오히려 그에게 미소까지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도 비참해서, 폴은 손을 모으고 거의 무릎을 꿇을 뻔했다.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그가 더듬거렸다.

그러자 그녀는 몸을 일으키며 가슴에 손을 대었다. 그리고 어제 밤, 콘라드 공작과 에르미네 백작부인 사이에서 보였던 것보다도 더 창백해졌다.

그 상이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현실이 그녀의 눈앞과 뇌리에서 또렷하게 선명해졌다.

이번엔 그녀는 폴을 보고 있었다.

그녀가 쓰러질 것 같아 그가 재촉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손을 내밀어 그의 접근을 막으며, 그를 깊이 바라보았다. 마치 그의 영혼의 어둠 속까지 파고들어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싶은 듯했다.

파울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사랑으로 심장이 쿵쾅거렸기 때문이다.

그녀가 속삭였다.

"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겠어. 너는 나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어. 이제 나는 확신해."

그녀는 여전히 장애물처럼 팔을 뻗은 채였다. 그도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인생과 행복이 모두 시선 속에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열정적으로 섞이는 동안, 그녀는 계속 말했다.

"그들이 당신을 감금했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얼마나 간곡히 애원했는지 모릅니다. 당신을 만나게 해달라고요. 내가 얼마나 낮아졌는지요. 그들의 식탁에 앉아 그들의 농담에 웃어야 했고, 그들이 강요하는 보석과 진주 목걸이를 걸어야 했죠. 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은 항상 약속만 했어요. 그러다 결국 밤에 여기까지 데려왔고, 또다시 나를 속였나, 아니면 새로운 함정이었나, 아니면 마침내 나를 죽이려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여기 계시다니요! 당신이 계시다니요! 내 사랑스러운 폴이여!"

그녀는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더니, 갑자기 절망에 빠졌다.

"하지만 또 떠나지 않겠지? 내일까지는, 그렇지? 몇 분 만에 다시 내게서 빼앗아 가지도 않겠지? 네가 남는 거지, 응? 아, 폴, 나는 이제 용기가 없어… 나를 떠나지 마…"

그가 미소 짓는 것을 보고 그녀는 매우 놀랐다.

"무슨 일이에요, 주님이나 계셔요?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그는 웃음을 터뜨렸고, 이번에는 거스를 수 없는 권위로 그녀를 자신의 품에 끌어당겼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카락, 이마, 볼, 입술에 차례로 키스를 하며 말했다.

"웃는 거야. 할 일이 웃는 것과 너에게 키스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터무니없는 상상을 많이 했거든. 어제 저녁 저녁식사 때 말야. 너를 멀리서 봤는데, 그 순간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긴 것 같았어. 너를 알 수 없는 죄로 몰아세우다니. 정말 바보 같지?"

그녀는 그의 기쁨을 이해할 수 없었다. 다시 물었다.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니?"

"내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뭐 있겠어?" 폴은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자, 생각해 봐. 우리는 재앙을 겪은 끝에 다시 만나. 아트리드 가문에 닥친 비극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슬픔이었지. 우리는

이제 함께 있고, 아무것도 우리를 떨어뜨릴 수 없어. 내가 기뻐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야?"

"이제 우리를 갈라놓을 건 아무것도 없군요?" 그녀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물론이지.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

"당신은 저와 함께 계신 거죠? 여기서 함께 살게 되는 건가요?"

"아, 아니, 그건 아니야… 무슨 생각이에요? 짐을 싸서 곧장 떠납시다."

"어디로요? 물론 프랑스죠. 생각해보니, 아직까지도 그곳이 가장 편한 곳이잖아요."

그녀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그가 말했다.

"자, 서둘러요.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베르나르에게 약속했거든요. 네 오빠 베르나르 말이에요. 내가 그에게 오늘 밤 그들과 합류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준비됐니? 어째, 왜 그토록 놀란 표정이니?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랑하는 내 여인아, 우리가 서로에게 설명해야 할 이야기는 수시간은 걸릴 거야. 네가 황태자를 홀렸다는 거, 총살당했다는 거, 그리고…… 음, 어쨌든! 내가 너를 따라오게 하려고 사람을 불러야 할까?"

그녀는 그가 진지하게 말하고 있다는 걸 갑자기 깨달았다. 눈을 떼지 않은 채 그녀가 물었다.

"진짜요?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물론이지. 완전히 자유야."

"우리는 프랑스에 돌아가는 거죠?"

"바로 직행으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건가요?"

그때 그녀의 어깨가 쑥 내려갔다. 이어 그녀도 웃음을 터뜨렸다. 제멋대로 흩어지는 기쁨에 휩싸여 아이처럼 장난을 치고, 터무니없는 짓을 일삼는 그 순간이었다. 조금만 더 밀어붙였으면 그녀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눈물은 줄줄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자유다! … 끝났다! …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 아니야, 아니라고! … 아, 네가 내가 총살당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 내게 맹세하건대, 그건 생각만큼 끔찍하지 않았어. 나중에 다 들려줄게.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 너도 내게 이야기해 줘. … 근데 어떻게 해냈어? 네가 그들보다 더 강해? 그 위대한 콘라드보다, 황제보다 더 강해? 세상에, 정말 웃기다! 세상에, 정말 웃기다!"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갑자기 힘을 주어 그의 팔을 꽉 잡았다.

"갑시다, 제발. 여기서 한참 더 있으면 미친 짓이에요. 저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들의 약속은 믿을 게 못 돼요. 속임수꾼이요, 범죄자들이에요. 갑시다… 제발 갑시다…"

그들은 떠났다.

여행 중 별일 없이 순조로웠다. 저녁 무렵, 그들은 에브르쿠르 맞은편 전선 라인에 도착했다.

전권 위원인 장교가 반사등을 켜게 했고, 직접 흰 깃발을 흔들라고 명한 뒤, 나타나는 프랑스 장교에게 엘리자베트와 파울을 인도했다.

프랑스 장교는 후방 연락부에 전화를 걸었다. 곧 자동차 한 대가 보내졌다.

아홉 시, 엘리자베트와 파울은 오르네킨의 대문 앞에서 멈췄다. 파울은 버나드를 불렀고, 그는 버나드를 맞으러 나갔다.

"너야, 베르나르?" 그가 물었다. "잘 들어. 시간이 없으니 간단히 말하지. 엘리자베트를 태우고 가는 중이야. 차 안에 있어. 우리는 코르비니로 떠날 거고, 너도 함께 가야 해. 내 짐과 네 짐을 가져오는 동안, 콘라드 공자를 면밀히 감시하라는 명령을 내려. 그 자는 안전하지?"

"그럼 서둘러야지. 어젯밤 터널로 들어가는 것을 본 그 여자를 따라잡아야 해. 그녀가 프랑스에 있다면, 사냥을 시작해야지."

"파울, 우리 스스로 터널로 돌아가 코르비니 근처에서 터널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찾는 게 더 나지 않겠니?"

"시간 낭비야. 우리는 이제 단계를 뛰어넘어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야 할 시점에 서 있어."

"자, 폴. 엘리자베트는 구출됐으니 싸움은 끝났어."

"이 여자가 살아 있는 한, 싸움은 끝나지 않아."

"도대체 그 여자가 누구란 말이야?"

폴은 대답하지 않았다.

열 시가 되자 세 사람은 코르비니 역 앞에 내려섰다. 이미 마지막 열차는 떠나버린 뒤였다. 마을은 온통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파울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군용 초소로 달려가 당직 부사관을 깨웠고, 역장까지 불렀다. 매표소 여직원까지 소환해 꼼꼼히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월요일 아침에 안토냉이라는 이름의 정식 통과증을 지닌 한 부인이 샤또티에리로 가는 표를 끊어 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외에는 아무도 혼자 떠나지 않았다.

그 여자는 적십자회 복장을 하고 있었다. 키와 얼굴 생김새가 모두 에르민 백작부인과 일치했다.

"맞아요." 폴이 말했다. 옆 호텔에 방을 잡고, 엘리자베트와 베르나르와 함께 묵기로 한 뒤였다. "그분 맞아요. 코르비니를 떠날 수 있는 길은 그곳뿐이었죠. 그리고 내일 화요일 아침, 같은 시간에 우리도 그곳으로 떠날 거예요. 그녀가 프랑스에서 실행하려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이길 바라요. 어쨌든 이건 우리에게 유일한 기회예요. 놓치지 말아야죠."

베르나르가 되물었다.

"그래도, 대체 그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폴이 답했다.

"누구냐고? 엘리자베트가 직접 말해줄 거야. 우리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시간이 한 시간쯤 남아 있어. 다 끝난 뒤엔 쉬자. 우리 셋 다 쉴 필요가 있으니까."

다음 날, 드디어 떠나는 날이 왔다.

파울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에르민 백작부가 어떤 계획을 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자신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잃지 않았다. 실제로 여러 차례, 적십자사 간호사 한 명이 혼자서 1등석 기차를 타고 전날 같은 역들을 거쳐 지나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후 늦게 샤또티에리에 도착했다. 파울은 곧장 정보를 알아냈다. 전날 밤, 기차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적십자사 자동차가 그 간

호사를 태워 갔다. 그 자동차의 서류를 살펴본 결과, 소아송 뒤쪽에 배치된 구급차 중 한 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구급차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이 정도 정보면 파울에게 충분했다. 소아송은 바로 전선, 즉 전투의 한복판이었기 때문이다.

"갑시다." 그가 말했다.

그가 지니고 있던 총사령관 서명 명령서 덕분에, 그는 자동차를 징발하고 전투 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저녁 식사 시간에 소아송에 도착했다.

포격으로 폐허가 된 외곽 지역은 고요했다. 도시 자체도 대부분 버려진 듯했다. 하지만 중심가에 가까워질수록 거리에서 어느 정도 활기가 감지되었다. 부대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 대포와 탄약 수레가 말들을 재촉하며 달렸고, 그들이 안내받은 광장 옆 호텔에는 많은 장교들이 머물고 있었다. 그곳은 분주했고, 사람들이 오가며 약간의 혼란이 느껴졌다.

파울과 베르나르는 상황을 파악했다. 며칠 전부터 아른 강 건너편, 소아송 맞은편 구릉지를 공격해 성공을 거두었다는 대답이었다. 그 이틀 전에는 사냥병과 모로코 부대가 132번 봉우리를 돌격해 점령했다. 하루 전에는 이미 확보한 진지를 굳건히 지키며, 크루이 이빨의 적 진지를 무너뜨렸다.

그런데 직전 밤, 적군이 격렬하게 반격하던 순간, 묘한 일이 벌어졌다. 폭우로 수위가 오른 아른 강이 범람해 빌뇌브와 소아송의 모든 다리를 쓸어갔다.

아이스느 강의 범람은 정상적인 현상이었다. 하지만 그 수위가 높다고 해서 다리가 무너진 것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다리가 끊어진 것은 독일군의 반격과 시기를 같이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의심스러운 수단에 의한 것으로 보였고, 그 진상을 밝히려는 시도도 진행 중이었다. 이 사건은 프랑스군의 상황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증원을 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프랑스군은 모래톱 지대를 고수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힘들었으며, 많은 희생을 치르고서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프랑스군은 대포의 일부를 아이스느 강 우안으로 옮기고 있었다.

폴과 베르나르는 주저할 새도 없었다. 이 모든 일에는 에르민 백작부의 손길이 느껴졌다.

교량 파괴, 독일군의 공격. 이 두 사건이 그녀의 도착과 같은 밤에 연이어 일어났으니, 그녀가 구상한 계획의 결과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특히 실행 시기가 아즈나 강이 불어날 때를 맞춰 준비된 점으로 보아, 백작부와 적군 참모부 사이의 공조 관계는 확실해 보였다.

폴은 빌라 현관 앞에서 백작부와 스파이 칼이 주고받은 대화도 기억하고 있었다.

"프랑스로 갑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참모부도 미리 알려주었어요. 내일 밤에는 도착해 있을 거예요. 그냥 약간의 도움만 있으면 되죠."

그녀가 마지막 한 방을 날렸다.

카를이나 그의 돈으로 먹은 정찰병들이 미리 다져놓은 모든 다리가 무너져 내린 것이다.

"당연히 그녀가 맞지." 베르나르가 말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불안한 표정이야? 오히려 기뻐해야지. 이제 논리적으로 그녀를 잡을 수 있게 됐잖아."

"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제때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카를과의 대화에서 더 심각한 위협을 내뱉었어요. 제가 그대로 전한 그 말, 기억하시죠?

'운이 우리 편을 떠나고 있어… 내가 성공하면, 그 검은 연쇄가 끝장날 거야.'

공범이 황제의 허락을 받았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답했어요.

'필요 없어. 이 사업은 말로 꺼내지 않는 종류의 일이야.'

베르나르, 너도 알다시피 이건 독일군의 공격이나 교량 폭파 같은 게 아니야. 그런 건 정당한 전쟁 행위로, 황제도 이미 알고 계셔.

그녀가 노리는 건 다른 거야. 그건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과 정확히 맞물려, 모든 사건의 의미를 완성해야 해.

이 여자가 단 두 킬로미터의 진격 정도가 '검은 연쇄'를 끝낼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할 리가 없어.

그럼 대체 뭐라는 거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모르겠어. 바로 그 점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그날 밤과 수요일, 13일 내내 폴은 도시 거리와 아즈느 강변을 누비며 조사를 벌였다. 그는 군 당국과도 연락을 맺었고, 장교들과 병사들이 그의 수색에 동참했다. 그들은 여러 가정을 수색하고 주민들을 심문했다.

베르나르가 동행하겠다고 나섰지만, 폴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아니요. 그 여자는 당신을 알지 못하겠지만, 당신의 누이를 만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엘리자베트 곁에 머물러 그녀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고, 잠시도 눈을 떼지 말고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상대하는 적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형제자매는 그날 종일 창문에 바짝 붙어 지냈다.

파울은 끼니를 거르지 않기 위해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희망으로 몸이 떨릴 지경이었다.

"저기 있군." 그가 말했다. "저녀석은 아마 차를 타고 동행한 자들과 함께 간호사 복장을 벗어던졌을 거야. 그리고 어떤 구석진 곳에 숨어 있을 테지. 마치 거미가 그물에 숨듯이. 전화를 들고 온갖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선명히 그려지는군. 그들 역시 저녀석처럼 숨어 있어 보이지 않을 테지만."

"하지만 그녀의 계획을 조금씩 파악해 가고 있어. 그녀보다 내가 유리한 점이 있지. 그녀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으니까. 동료 칼이 죽었다는 사실은 물론이고, 황제를 만났다는 것, 엘리자베스가 구출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거야. 그 끔찍한 여자를 잡았어. 잡았다고."

그러나 전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후퇴하는 군세는 강 왼쪽 둑을 따라 계속 밀려났다. 크루이에서 모로코 병사들의 돌진은 막혔다. 치열한 전투로 인한 막대한 손실과 진흙투성이의 지형이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기 때문이다. 급히 만들어 놓은 부교는 떠내려가고 있었다.

저녁 여섯 시쯤, 폴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소매 끝에서 피가 한 방울 떨어졌다. 엘리자베스는 깜짝 놀랐다.

"괜찮아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어디서 긁힌 자국인 것 같네요."

"하지만 손이요, 손이요. 피가 나요!"

"아니야, 내 피가 아니야. 걱정 마. 다 괜찮아."

버나드가 물었다.

"총사령관이 오늘 아침부터 소아송에 있다는 거 아세요?"

"네, 들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분께 그 간첩과 무리들을 선물로 드리면 좋겠어요. 아주 멋진 선물이 될 테니까요."

그는 한 시간 더 자리를 비켰다. 그러다 다시 돌아와 저녁 식사를 청했다.

"이제 확신이 서는 모양이군." 베르나르가 말했다.

"누가 절대 확신할 수 있겠나? 그 여자는 악마 그 자체야."

"그녀의 거처는 알고 있나?"

"알고 있다고. 그럼 너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아홉 시까지. 그전까진 쉴 거야. 아홉 시 조금 전에 깨워줘."

먼 밤하늘에서 대포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때때로 포탄이 도시 위로 떨어지며 굉음을 울렸다. 군대들이 사방으로 움직였다. 그러다 전쟁의 소리가 잠시 멈춘 고요한 시간이 찾아오곤 했는데, 아마도 그런 순간들이 가장 무서운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폴은 스스로 깨어났다.

그는 아내와 베르나르에게 말했다.

"자네들도 이번 작전에 참여하게 됐네. 쉽지 않을 거야, 엘리자베트. 정말 힘들 거야. 넌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나?"

"오, 폴… 그런데 당신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얗소?"

"네, 조금 긴장되긴 하죠. 하지만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은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도망칠까 봐 조마조마할 뿐입니다."

"그런데…"

"아, 실수라도 하나 하면, 불운이 겹치면 경보가 울리고 모든 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죠. 버나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권총을 챙기는데요?"

"쓸 데 없어."

"뭐요?" 젊은이가 놀라며 물었다. "당신의 작전에서는 총을 들고 싸우지 않는 건가요?"

파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평소처럼 행동으로 말하거나, 행동이 끝난 후에야 입을 열었다. 버나르는 아무 말 없이 권총을 챙겼다.

그들이 큰 광장을 지나갈 때, 아홉 시 종소리가 막 끝나는 소리였다. 닫힌 가게 창문에서 새어 나온 가느다란 빛줄기가 어둠을 뚫고 비추는 가운데, 그들은 걸어가고 있었다.

성당 앞마당. 그 거대한 그림자가 두 사람 위를 덮고 있었다. 그곳에 병사들이 떼를 지어 모여 있었다.

파울이 손전등을 들어 그들을 비추며, 지휘관에게 물었다.

"새로운 소식 없어요, 상사?"

"없습니다, 중위. 아무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상사가 가볍게 휘파람을 불었다. 거리 한가운데에서 두 명의 남자가 어둠을 가르고 나와 병사들 쪽으로 다가왔다.

"집 안에서 소리는 없었나요?"

"없습니다, 상사."

"셔터 너머로 빛은 보이지 않았나요?"

"없습니다, 상사."

폴은 걸음을 재촉했다. 다른 이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발소리를 죽인 채 뒤따랐다. 그는 주저 없이, 늦은 밤 집에 돌아가는 산책객처럼 당당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좁은 집 앞에 멈춰 섰다. 밤의 어둠 속에서 지하실은 거의 구분할 수 없었다. 문은 계단 세 개 위로 올라간 곳에 있었다. 폴은 작은 소리로 네 번 문을 두드렸다. 동시에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현관으로 들어선 폴은 손전등을 다시 켰다. 동료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는 현관 바닥 타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울 쪽으로 향했다.

그는 거울 네 군데를 가볍게 두드리더니, 옆면을 눌러 밀었다. 거울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의 입구를 가리고 있었는데, 그는 곧장 계단 구석으로 빛을 비췄다.

이것은 신호일 터였다. 정해진 세 번째 신호였다.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성 목소리였으나 거칠고 쉰 목소리였다.

"여기 계신 분, 월터 씨 맞습니까?"

이제 행동할 차례였다.

폴은 대답 대신 계단을 몇 번의 도약으로 내려갔다.

그가 도착했을 때쯤, 거대한 문이 닫히려는 찰나였다. 지하실로 들어가는 길이 막히려는 순간이었다.

무거운 문이 힘차게 닫혔다. 폴은 그 틈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섰다.

어둠 속, 계부인 에르미느가 그곳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도, 주저하지도 않는 듯했지만, 이내 그녀의 모습은 달라졌다.

그녀는 갑자기 지하실 반대편으로 달려가 테이블 위에 놓인 권총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는 몸을 돌리며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

스프링이 '딸각' 하고 울렸다. 하지만 총성은 없었다.

그녀는 세 번이나 다시 시도했다. 세 번 모두 결과는 같았다.

"소용없어요. 이 총은 이미 탄환이 빠져나갔죠."

파울이 비웃듯 말했다.

백작부는 분노에 찬 비명을 지르며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다른 권총을 꺼내 연달아 네 발을 쐈다. 여전히 총성은 없었다.

"역시 소용없군요." 파울이 웃으며 말했다. "이 총도 비어 있고, 두 번째 서랍에 있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사실 이 집 안의 모든 무기는 다 똑같아요."

그녀는 어찌 할 바를 몰라 경악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하는 눈빛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며 단 두 마디를 던졌다. 그 말에는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다.

"파울 델로즈."

지하실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지만, 샹파뉴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넓은 천장 구조의 방처럼 보였다. 벽은 깨끗했고, 바닥은 평평했으며, 그 위에 벽돌로 만든 길이 이어져 있었다. 공기는 따뜻했고, 두 개의 통 사이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다. 그곳에는 좌석과 가구, 카펫까지 갖춰져 있었다.

이곳은 포탄으로부터 안전한 안식처이자, 남의 시선을 피하려는 자들에게 확실한 피난처였다. 동시에 편안한 주거 공간이기도 했다.

파울은 이저 강변에 있는 오래된 등대의 폐허와 에브르쿠르의 오르네캉 터널을 떠올렸다. 싸움은 여전히 지하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참호전과 지하실전, 간첩전과 꾀병전이 펼쳐졌다. 언제나 변함없는 음흉하고 부끄럽고 모호하며 범죄적인 수법들이었다.

폴은 등불을 끄고 없었다. 덕분에 방 안은 천장에 매달린 석유 램프의 희미한 빛으로 간신히 비쳐졌다. 불투명한 갓이 빛을 아래로만 가두었기에, 하얀 동그라미가 바닥에 드리워졌고 그 중앙에 두 사람만 홀로서 있었다.

에리자베트와 베르나르드는 그림자 속에 남아 뒤쪽에 섰다.

하급 간부와 그의 부하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계단 아래에서 그들의 발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백작부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콘라드 공작의 빌라에서 저녁 식사를 나눈 날 밤과 똑같은 차림이었다.

무서움이나 당혹감은 더 이상 그녀의 얼굴에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깊은 사색의 흔적이 역력했다. 지금 자신에게 드러난 상황의 모든 결과를 계산해 내려는 듯했다.

'폴 델로즈?'

그가 공격을 감행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물론이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생각이 백작부인 에르미느의 표정을 조금씩 누그러뜨리고 있었다. 그는 아내를 구출하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독일에 감금된 엘리자베스. 자신을 위한 교섭 카드라니.

그녀는 함정에 빠졌지만, 아직 상황을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버나드가 손짓에 따라 앞으로 나섰다. 폴이 백작부인에게 말했다.

"제 매형이요. 전수부에서 근무하던 때의 헤르만 대령이라면 아마 저를 보았을 테고, 저도 그분을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에르미네 백작부인, 즉 안드빌 백작부인은 아들을 알지 못하거나, 적어도 잊어버린 상태죠. 그 아들의 이름은 베르나르 드 안드빌입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안심한 듯했다. 마치 자신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사람처럼 당당해 보였다. 그래서 베르나르 앞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볍고 여유로운 어조로 말을 이었다.

베르나르 안드빌은 자매인 엘리자베스와 많이 닮았다. 그 여자는 내가 계속 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나랑 그 여자는 콘라드 공작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콘라드 공작은 엘리자베스를 매우 아끼는데, 그건 당연한 일이다. 그녀가 너무 매력적이고 친절하니까. 나는 정말로 그녀를 매우 좋아한다!

파울과 베르나르는 같은 제스처를 취했다. 만약 그들 사이의 증오를 억누르지 못했다면, 그들은 바로 백작부인 앞으로 뛰어들었을 것이다. 파울은 자신의 형제자매인 베르나르를 밀어냈다. 그는 베르나르의 격분하는 기운을 느꼈고, 상대방의 도전에 대해 매우 경쾌한 어조로 대답했다.

"하지만 네, 난 알고 있어… 나도 거기 있었어. 심지어 그녀의 출발도 목격했지."

"정말?"

"정말이야. 네 친구 칼이 내게 그의 자동차에 탈 수 있는 자리를 제안했어."

"그의 자동차에?"

"완벽합니다. 우리 모두는 당신네 힐덴슈타인 성으로 떠났죠. 정말 아름다운 저택이라, 만약 더 깊이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그곳은 살기 위험한 곳입니다. 종종 치명적이죠. 그래서…"

백작부는 점점 더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적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백작부는 먼저 그를 놀라게 해 보려 했다. 거친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다.

"맞아요. 그곳은 살기 위험한 곳이에요. 거기는 누구에게나 좋지 않은 공기를 마시게 하죠."

"독이 섞인 공기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자베트를 걱정하시나요?"

"음, 그렇죠. 이 불쌍한 아이의 건강은 이미 위태로워져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녀가 죽어야만 마음이 놓이는 건가요, 맞죠?"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파울의 귀에 그 말의 무게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또렷하게 대답했다.

"네, 그녀가 죽은 뒤요. 이미 죽었을 수도 있고, 죽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긴 침묵이 흘렀다. 다시 한번 그 여자를 마주한 파울은 전과 같은 충동을 느꼈다. 살인의 욕구, 증오를 풀려 하는 절박한 마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의무는 죽이는 것이었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곧 죄악이었다.

엘리자베트는 그림자 속에 그대로 서 있었다. 세 걸음 뒤에서 말이다.

파울은 말 없이, 느린 동작으로 몸을 돌려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팔을 들어 손전등의 스프링을 누르며 빛을 그녀 쪽으로 비췄다. 젊은 여성의 얼굴이 환한 빛 속에 드러났다.

폴은 그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에르민 백작부인에게 이렇게 격렬한 충격을 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런 여자는 실수할 수 없었다. 환각에 시달리는 것이라고 믿지도 않았고, 외모가 비슷한 남자를 오인한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즉각 깨달았다. 폴이 자신의 아내를 구해냈다는 것을, 그리고 엘리자베트가 바로 눈앞에 서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할까?

삼 일 전, 카를의 손에 넘겨졌던 엘리자베트가? 지금쯤이면 죽었거나, 이백만 명의 병사가 지키는 독일 요새에 갇혀 있어야 할 엘리자베트가?

그녀가 정말로 여기 있는단 말인가?

삼 일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카를을 따돌리고 힐덴슈타인 성을 탈출해, 이백만 명의 독일군 진지를 가로질러 왔다는 것인가?

헤르민 백작부는 얼굴이 일그러진 채, 방패 삼아 사용하던 그 책상 앞에 털썩 앉았다. 그리고는 분노에 찬 듯, 굳게 쥔 주먹을 볼에 대고 눌러 붙였다.

그녀는 지금 처한 상황을 깨달았다. 더 이상 장난칠 때가 아니었다. 도발할 수도 없었다. 협상할 거래도 아니었다. 그녀가 치르는 이 끔찍한 게임에서 승리의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이제 승자의 법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리고 그 승자는 바로 폴 델로즈였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도대체 무슨 뜻이죠? 무슨 목적인가요? 저를 죽이려는 건가요?"

그가 어깨를 으쓱였다.

"우리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받게 될 형벌은, 변론할 기회까지 주어진 합법적인 심의를 거쳐 내려질 것입니다."

그녀는 전율하며 몸을 떨었다.

"당신들이 나를 심판할 권리는 없어. 당신들은 판사가 아니니까."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듯하던 공포가 그녀의 마음속으로 밀려들어 왔다.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당신들은 판사가 아니야…… 나는 반대해. 당신들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어."

그때 계단 쪽에서 왁자지껄한 소음이 일었다. 누군가 "고정!"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문이 열렸다. 문은 아직 살짝 비껴난 채로 남아 있었는데, 세 명의 장교가 큰 코트를 두른 채 안으로 들어섰다.

파울은 재빨리 그들을 맞으러 나갔다. 그리고 빛이 닿지 않는 구석의 의자들에 그들을 앉혔다.

네 번째 인물도 나타났다. 파울이 그를 맞이했고, 그는 다른 곳, 좀 더 떨어진 곳에 혼자 앉았다.

엘리자베스와 베르나르는 서로 가까이 붙어 섰다.

폴은 테이블 옆 앞자리에 다시 자리 잡으며 일어섰다. 그리고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 권한 밖의 일을 하려 하지도 않죠. 당신을 심판할 사람들은 여기 있습니다. 저는 고소합니다."

그 말은 날카롭고 거친 어조로, 극도의 에너지가 실려 튀어나왔다.

그는 망설임 없이, 마치 미리 준비해 둔 기소장을 단호하고도 감정 없이 읽어내리려는 듯 입을 열었다.

"당신은 힐덴슈타인 성에서 태어났소. 할아버지가 청지기 일을 하던 곳이고, 1870년 전쟁 이후 아버지의 것이 되었지. 진짜 이름은 에르민, 에르민 폰 호엔촐레른이오."

"호엔촐레른이라는 성을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여겼소. 정당한 권리는 아니었지만, 구 황제의 각별한 총애를 입었기에 누가 감히 이의를 제기했겠소. 아버지는 70년 전쟁에 대령으로 참전했고, 그 과정에서 전례 없는 잔혹함과 약탈로 이름을 떨쳤지."

"힐덴슈타인 성을 장식한 모든 보물은 프랑스에서 가져온 것이오. 더구나 각 물건에는 출처와 원래 주인을 적어둔 표가 붙어 있어, 도둑질한 증거를 드러내고 있었소."

"현관에는 대리석 비석이 하나 서 있소. 금자로 새겨진 글에는, 그 '각하' 대령의 명으로 불태워진 프랑스 마을 이름이 적혀 있었지."

"카이저가 이 성에 자주 들렀소. 비석을 지나갈 때마다 그는 항상 경례를 했다고 하오."

백작부인은 딴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 이야기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이 언급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폴이 계속 말했다.

"당신은 아버지에게서 두 가지 감정을 물려받았소. 한 가지는 호엔촐레른 왕가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이요. 우연히도 황제의 기개 같은 충동, 아니 오히려 왕실의 충동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들과 연결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그 왕말이오. 다른 하나는 프랑스에 대한 야수 같은 증오였소. 아버지는 프랑스에게 충분히 해를 끼치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하셨죠."

"왕가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당신이 결혼하자마자 현재의 왕에게로 집중되었소. 그 정도가 어떠했는지 아시오? 왕좌를 차지하리라는 터무니없는 희망을 품었던 당신이었지만,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용서했소. 결혼조차, 그리고 당신의 은혜를 잊은 태도조차 말이지. 당신은 그의 몸과 영혼을 바쳐 그를 섬겼소."

"그가 당신을 오스트리아 왕자에게 시집보냈소. 그 왕자는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이 세상을 떠났고, 이어 러시아 왕자에게 재혼했소. 역시 그 왕자도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었죠. 당신은 어디에서든 당신의 우상인 그를 위해 일했소."

"영국과 트란스발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당신은 트란스발에 있었소. 러일전쟁이 시작되었을 때는 일본에 있었죠. 빈에서 로돌프 왕자

가 피살되었을 때도, 베오그라드에서 알렉산데르 국왕과 드라가 여왕이 암살되었을 때도 당신은 그곳에 있었소."

"하지만 당신의 '외교적' 역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소. 나는 당신에게 20년 동안 프랑스를 상대로 저지른 당신의 주요 행위에 대해 말하고 싶소."

에르미느 백작부의 얼굴에 악의 어린, 거의 행복한 표정이 스쳤다.

사실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아끼던 작품이었다.

그녀는 모든 힘을 다 바쳤고, 모든 사악한 지혜를 쏟아부었다.

"그리고요, 수정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폴이 말했다. "당신이 지휘한 거대한 준비 작업과 간첩 활동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북쪽의 어느 작은 마을, 종탑 꼭대기까지 따라가서 당신 이니셜이 새겨진 칼을 든 동료를 발견했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은 당신이 기획하고, 조직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제가 모은 증거들, 당신의 편지와 상대방의 편지 모두 이미 법원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르네캉 성과 관련된 당신의 행동입니다. 길지 않을 겁니다. 범죄로 연결된 몇 가지 사실들, 그것뿐입니다."

또 한 번의 침묵이 흘렀다. 백작부는 불안한 호기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폴이 입을 열었다.

"당신이 황제에게 에브르쿠르에서 코르비니까지 터널을 뚫자는 계획을 제안한 건 1894년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의 조사 결과, 이 '거대한' 공사는 오르네캉 성을 소유해야만 가능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당시 성주의 건강은 매우 나빴죠.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가 죽음을 서두르지 않자, 당신은 코르비니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덟 날 뒤, 그는 죽었습니다. 첫 번째 살인."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 백작부인이 비명처럼 외쳤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증거를 대보라고 도전합니다."

파울은 대답 없이 계속했다.

성채가 경매에 부쳐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어떤 광고도 하지 않았다. 거의 숨죽인 채로 말이다.

문제는, 당신의 지시를 받은 사무 대리인이 너무 서투르게 움직였다는 점이었다. 그 결과 성채는 안드빌 백부에게 낙찰되었고, 그는 이듬해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정착했다.

이 일로 분노와 당황이 일었고, 결국 우리는 어쨌든 작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당시 공원 밖쪽에 자리한 작은 예배당 부지에 첫 시추를 진행한 것이다.

황제는 에브르쿠르에서 여러 차례 방문했다. 어느 날, 그가 예배당을 나서던 중, 아버지와 내가 그를 발견하고 식별해냈다.

열 분 뒤, 당신이 아버지를 막아섰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는 쓰러졌다. 두 번째 살인 사건이었다.

"당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백작부인이 다시 소리쳤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한 달 뒤," 폴은 여전히 매우 차분한 어조로 계속했다. "안드빌 백작부인은 건강이 악화되어 오르네캉을 떠나야 했다. 그녀는 남쪽으로 가서, 결국 남편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아내의 죽음은 안드빌 백작에게 오르네캉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그곳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당신의 계획은 즉시 실행된다. 성이 비었으니 이제 본거지를 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경비원 제롬과 그의 아내를 매수하는 것이다. 바로 그 매수가 내가 속았던 이유다. 나는 그들의 정직한 얼굴과 친근한 태도에 속아 넘어갔던 것이다.

당신은 그 두 비열한 자를 사들인다. 그들은 자신의 배신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 채, 그리고 자신이 알자스 사람이 아니라 외국 출신이라는 변명 아래 그들을 비호한다. 이 두 비열한 자는 그와 같은 거래를 받아들인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집에 있게 되었고, 마음대로 오르네캉에 드나들 수 있다. 당신의 지시에 따라 제롬은 진짜 에르민 백작부인의 죽음을 숨기기까지 한다.

당신도 에르민 백작부인이라 불렸고, 외롭게 살던 진짜 드안드빌 백작부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었다.

"당신은 경계심도 과잉이군요. 그중 하나가 저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경위와 그의 아내가 공모했다는 점만큼이나 말이죠."

"안데빌 백작부인의 초상화는 그녀가 살던 작은 서재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와 똑같은 크기의 초상화를 만들어, 백작부인의 이름이 적힌 액자 틀에 딱 맞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상화 속의 당신은 백작부인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옷차림도 머리 스타일도 같았죠."

"요약하자면, 당신은 처음부터 그러려던 대로 변신한 셈입니다. 안데빌 남작이 아직 살아계실 때부터 그의 복장을 모방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결국 당신은 오르네캉에 머무는 동안 안데빌 백작부인 에르미네가 된 셈입니다."

"위험은 하나뿐입니다. 당디빌 씨가 뜻밖에도 돌아올 가능성이지요. 그걸 확실하게 막으려면 범죄 말고 다른 해법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디빌 씨를 알아내려 했겠죠. 그래야 그를 감시할 수 있고,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당신 같은 여성에게서는 상상도 못 할 감정이, 당신이 희생자로 정한 남자에게 서서히 싹튼 거죠."

"나는 증거 자료에 당신 사진을 넣었습니다. 베를린에서 당디빌 씨에게 보낸 것이죠. 그때 당신은 그를 결혼으로 이끌려 했죠. 하지만 그는 당신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 도망치며 관계를 끊었습니다."

백작부인은 눈썹을 찌푸렸다. 입술이 일그러졌다. 그녀가 겪은 수치심과 그로부터 간직하고 있는 원한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동시에 그녀는 부끄러움보다는 놀라움을 느꼈다. 자신의 삶이 사소한 세부사항까지 낱낱이 폭로되고, 그녀가 매장된 줄 알았던 과거의 범죄들이 갑자기 어둠 속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쟁이 선포되었을 때, 파울이 다시 말을 이었다. 당신의 계획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에브르쿠르 빌라, 터널 입구에 숨어 계셨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일리와 결혼한 일, 오르네캉 성에 갑자기 나타난 일, 그리고 제 아버지를 죽인 여인의 초상화를 앞에 두고 당황한 일. 이 모든 것은 제롬을 통해 당신에게 알려졌습니다. 당신도 당황하셨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저를 유인해 죽이려던 함정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원령이 내려져서 당신은 저를 치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음껏 행동할 수 있게 된 거죠. 삼 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코르비니가

폭격당했고, 오르네캉은 점령당했으며, 제일리는 콘라드 공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당신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시간을 보냈죠. 당신에게 그것은 복수였지만, 동시에 당신 덕분에 이루어진 위대한 승리이자, 거의 실현된 꿈이었으며, 호엔촐레른 가문의 극치였습니다. 이틀만 더면 파리는 함락되고, 두 달만 더면 유럽은 패배할 것입니다. 그 얼마나 황홀한 순간이었습니까!

그 시절 당신이 내뱉은 말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당신이 쓴 편지들도 읽었죠. 그곳에는 진정한 광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만심의 광기, 무제한적인 권력에 대한 광기, 잔혹함에 대한 광기, 야만적인 광기, 불가능함과 초인적인 것에 대한 광기 말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명처럼 깨어났다. 마른 강 전투가 일어난 것이다! 아, 그때 또 내가 당신에게서 쓴 편지를 봤소. 당신의 지성을 가진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눈에 알 수 있었을 일. 바로 모든 희망과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당신도 그걸 정확히 꿰뚫고 있었지.

당신은 황제에게 그 사실을 편지로 썼소. 네, 분명히 썼다고! 내가 그 사본을 가지고 있단 말이오.

하지만 어쨌든 방어해야 했소. 프랑스 군대가 다가오고 있었으니까. 당신의 매제 버나드를 통해, 내가 코르비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에리자베트를 구할 수 있을까? 에리자베트, 당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그 여자를.

아니, 그녀는 죽어야 해. 당신은 그녀의 처형을 명령했지. 모든 준비가 끝났어. 만약 그녀가 콘라드 왕자의 도움으로 구제된다면? 아니면 그녀의 죽음 대신, 내 추적을 끊기 위한 가짜 처형으로 만족해야 한다면? 어쨌든 그녀는 노예처럼 끌려갔지.

그리고 두 명의 희생자가 당신을 위로했어. 제롬과 로자리. 당신의 공범들이었지. 에리자베트의 고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그들은 그녀와 함께 도망치려 했어. 그들의 증언이 두려웠지. 그래서 그들은 총살당했어. 세 번째와 네 번째 살인이야.

그리고 다음 날, 또 다른 두 명이 있었어. 당신에게 버나드와 내가 잘못 인식된 두 명의 병사들이었지. 당신은 그들을 암살하도록 했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살인.

드라마의 비극적인 장면들이 사건과 살인의 순서대로 다시 재구성되었다. 수많은 죄악을 저지른 그 여자가, 죽을 원수들을 마주 보고 지하실 깊숙이 감금된 채 처참한 광경을 연출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다.

그런데도 어찌 된 일인지, 그녀는 모든 희망을 잃은 듯 보이지 않았다. 사실 그녀는 여전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베르나드가 그것을 눈치챈 것이다.

"저 여자를 잘 보게." 베르나드가 파울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그녀는 두 번이나 시계를 확인했어. 마치 기적이 찾아올 것처럼, 아니 그보

다 더 확실한 구원이 정해진 시각에 반드시 올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 봐, 그녀가 무언가를 찾고 있어.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

"계단 아래 있는 병사들을 모두 불러들이시오." 폴이 대답했다. "내가 할 말을 그들이 듣지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소."

그리고 그는 백작부인을 향해 몸을 돌렸다.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어 갔다.

"드디어 결말에 다다랐군요. 이 싸움의 한쪽은 당신이 '헤르만 대위'라는 가면을 쓰고 이끌었습니다. 군대를 쫓아다니고, 최고 간첩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그쪽이 훨씬 수월했죠. 헤르만, 에르민… 필요할 때 당신의 오라버니로 위장했던 헤르만 대위, 바로 당신, 에르민 백작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저는 아이저 강변 등대 폐허에서 가짜 라슈엔, 혹은 정확히 말해 간첩 카를과 대화하는 장면을 엿들었습니다. 또 당신을 건널목 나루집의 다락방에서 붙잡아 매달아 두기도 했죠."

"아, 그날 당신은 정말 멋진 기회를 놓쳤군요. 세 명의 적을 부상으로 손아귀에 넣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을 보지도, 처치하지도 않은 채 도망쳤습니다. 당신은 우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우리는 당신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죠.

1월 10일, 일요일. 에브르쿠르에서의 만남. 카를과 맺은 그 불길한 약속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당신은 카를에게 엘리자베트를 없애겠

다는 완고한 의사를 밝히며 말입니다. 그리고 1월 10일, 나는 그 약속 장소에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콘라드 공자의 저녁 식사 자리에 내가 있었죠. 식사가 끝난 뒤, 당신이 카를에게 독약이 든 병을 건넬 때도, 그리고 자동차 뒷좌석에 앉아 카를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릴 때도, 나는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카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밤, 나는 콘라드 공자를 납치했습니다. 그다음 날, 즉 재작일. 나는 이런 인질을 손에 쥔 채 황제와 협상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내 조건을 읽어주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엘리자베트의 즉각적인 석방이었습니다. 황제는 굴복했고, 이렇게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수많은 말들 중에서도, 각기 카운트스 헤르민에게 그가 얼마나 잔인하게도 쫓겨났는지를 보여준 말들 중에서도, 한 마디가 그녀를 뒤흔들었다. 가장 끔찍한 재앙처럼 말이다.

그녀는 더듬거렸다.

"죽었다? 카를이 죽었다는 말이야?"

"그가 저를 죽이려던 순간, 연인이 총을 쏘아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폴은 다시금 증오에 사로잡혀 외쳤다. "광기에 찬 짐승처럼 말입니다! 네, 간첩 카를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도 그는 평생 배신자였듯, 끝까지 배신자였습니다."

"증거를 물으셨죠? 그건 카를의 주머니에서 찾았습니다!"

"그의 수첩에서 당신의 범죄 기록을 읽었고, 당신의 편지 사본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실제 편지들도요."

카를은 언젠가 당신의 계획이 완성되면, 당신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리 복수했습니다.

그 복수의 방식은 경비원 제롬과 그의 아내 로잘리가 당신 명령으로 총살당하기 직전, 엘리자베스에게 오르네크 성에서 당신의 수수께끼 같은 역할을 폭로한 것과 같았습니다. 바로 당신의 공범들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죽이지만, 그들은 당신을 파멸시킵니다. 더 이상 제가 당신을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편지와 증언은 이미 판사들의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당신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폴은 그녀와 거의 붙어 섰다. 테이블 한쪽 끝이 그들을 간신히 갈라놓을 뿐이었다. 그는 온갖 분노와 증오를 담아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벽 쪽으로 후퇴했다. 옷걸이 아래였다. 거기에 옷과 가운, 그리고 그녀가 변장할 때 입었을 일용할 복장들이 걸려 있었다.

비록 벽에 막혀 꼼짝할 수 없었고, 함정에 빠진 상태였으며, 수많은 증거에 의해 당황하고 정체가 드러져 무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에게 있어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은 듯했다. 그녀는 여전히 유효한 카드를 몇 장 보유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저는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범죄를 저지른 여자에 대해 말하고 있군요. 하지만 저는 그 여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증명해야 할 것은 에르미네 백작부가 간첩이자 범죄자라는 사실이 아니라, 제가 바로 에르미네 백작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파울이 심판관 역할을 하라고 지목한 세 명의 장교와는 별도로, 한 명의 장교가 더 있었다. 그는 이들과 동시에 들어와 같은 침묵과 같은 고요함으로 경청하고 있었다.

그 장교가 앞으로 나섰다.

램프의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백작부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스테파네 다르드빌…… 스테파네……"

그는 엘리자베트와 베르나르의 아버지였다.

그는 매우 창백했고, 입기 시작한 상처들 때문에 몸이 약해져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꼭 안았다. 베르나드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 드디어 오셨어요, 아빠."

"그래, 총사령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지. 폴의 부름에 응해 달려왔어. 네 남편, 엘리자베트, 정말 무서운 놈이야. 방금 전, 소아송 거리에서 다시 만났을 때도 이미 내게 모든 상황을 알려주더군. 그리고 지금 이야말로 그가 그 독사를 박살내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행동했는지 깨닫게 되었어."

그는 백작부인 앞에 앉아, 곧 나올 말의 중대함을 온몸으로 드러냈다. 잠시 동안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곧 눈빛이 다시 도발적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녀는 입을 열었다.

"당신도 나를 비난하러 온 거요? 당신에게 나를 비난할 말이 있단 말인가? 거짓말이오? 아니면 저속한 중상모략이오?"

그는 긴 침묵이 그 말들을 덮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일단 저는 증인으로서 왔습니다. 방금 전 당신이 요구했던, 당신의 신분을 입증하는 증명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전에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저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죠. 이후 당신이 저와 더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 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진정한 정체를 밝히며 저를 당신의 작위와 혈연으로 압도하려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단언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 호엔촐레른 공작부인 에르미네가 맞다는 사실을요. 당신이 저에게 보여준 문서들은 모두 진품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호엔촐레른 공작부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당신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 관계가 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저에게는 고통스럽고 불쾌한 것이었죠. 이것이 제가 증인으로서 하는 말입니다."

"역겨운 짓이군요!" 그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거짓말쟁이의 역할이라니, 내가 이미 말했잖아. 증거라곤 하나도 없어!"

"증거가 하나도 없다니?" 안드빌 백성이 그녀에게 다가가며 격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몸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베를린에서 당신이 보내고, 당신이 서명한 이 사진은 무엇인가? 내 아내와 똑같이 차려입은, 그 망령 같은 사진 말이다."

"맞아요, 당신이에요! 당신이 한 짓이죠!"

"당신이 내 사랑하는 아내의 사진과 당신의 사진을 나란히 붙여, 나에게 당신에게 유리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당신이 깨닫지 못했나요? 그것은 나에게 가장 큰 모욕이었고, 죽은 자에게 가장 큰 모욕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들 이후에 당신이 감히 저지른 짓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방금 전 폴 델로즈가 그랬듯, 백작도 그녀 곁에 서서 위협적인 태도로, 증오로 가득 찬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는 어딘지 어색한 듯 중얼거렸다.

"그래, 왜 안 되지?"

그가 주먹을 꽉 쥐며 다시 말했다.

"맞아요. 왜 안 되겠어요? 당시에는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과거의 그 비극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에야 모든 사실을 연결해 보았습니다."

"과거에 제가 당신을 본능적인 혐오감으로 밀어냈다면, 이제는 당신을 전례 없는 증오로 비난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확실히 알았을 때요."

"이미 아내가 죽어갈 때, 여러 차례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병이군요. 기관지염이요, 폐렴이요,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증상들 말입니다. 왜 숨기겠습니까? 중독 증상입니다.'"

"당시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 가능성은 불가능하다고요. 아내가 중독이라니요. 누가? 바로 당신, 에르민 백작부인이요!"

"지금 저는 단언합니다. 당신 때문이요! 영원한 구원을 걸고 맹세합니다. 증거라니요? 당신의 인생 자체가, 당신의 모든 것이 당신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폴 델로즈가 제대로 밝히지 못한 부분이지요. 그는 왜 당신이 그의 아버지를 죽일 때, 내 아내와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그 시점에서 내 아내의 죽음이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앙드빌 백작부인과 당신' 사이의 혼동을 일으키려 했죠. 이 증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 아내는 당신에게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녀를 죽였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가 죽으면 내가 오르네캉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고, 그래서 내 아내를 죽인 것입니다!… 폴 델로즈, 당신은 여섯 가지 범죄를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일곱 번째입니다. 앙드빌 백작부인 살해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백작이 두 주먹을 들어 자르민 공작부인의 얼굴 바로 앞에 내밀었다.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그의 모습은, 곧바로 그녀를 때릴 듯했다.

그녀는 여전히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새로운 비난에 대해 그녀는 반박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이 그녀에게 무관심해진 듯했다. 예상치 못한 이 비난도, 그녀를 짓누르던 다른 모든 비난들처럼 말이다.

모든 위험이 그녀에게서 멀어졌다. 그녀가 대답해야 할 것들에 대한 집착도 사라졌다. 그녀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녀는 이 말들을 듣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듣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보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베르나르가 지적했듯이, 그녀는 자신의 처참한 상황보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 그녀는 무엇을 바라고 있었을까?

세 번째로 그녀는 시계를 확인했다.

한 분이 흘렀다. 또 한 분이 지나갔다.

그때, 지하실 어딘가, 윗부분에서 소리가 났다. 뭔가 장치가 작동하는 소리였다.

카운테스가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온 신경을 집중해 경청했다. 그 표정이 너무도 열렬해서, 아무도 그 거대한 정적을 깨뜨리지 못했다.

본능적으로 파울 델로즈와 드앙드빌 씨는 테이블 쪽으로 물러섰다. 카운테스 에르미네는 듣고 있었다. 계속 듣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 바로 위, 두꺼운 천장 속 깊이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단 몇 초 동안이었다. 네 번의 동일한 신호.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

그 소리의 불가해한 진동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반전은 에르미네 백작부의 격렬한 승리의 몸짓에서 비롯되었다. 그녀는 야성적인 기쁨의 비명을 지르더니, 갑자기 터져 나오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다. 더 이상 불안은 없었다. 더 이상 답답하게 머리를 싸매는 긴장감도 없었다. 대신 거만함이, 확신이, 경멸이, 그리고 도를 넘은 자만이 가득했다.

"바보들!" 그녀가 비웃듯 말했다. "바보들! …그래서 너희는 믿었냐? 프랑스인들은 정말 순진하기 짝이 없군! …너희는 내가 함정에 빠질 거라고? 내가? 내가 말이야!"

더 이상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말이 너무 많았고, 너무 급박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몸을 굳혔다. 의지를 다해 눈을 잠시 감았다. 그리고는 오른팔을 뻗어 안락의자를 밀어냈다.

그곳에는 작은 마호가니 판이 드러났다. 그 위에는 황동으로 된 손잡이가 있었다. 그녀는 눈을 계속 파울 쪽, 안드빌 백작 쪽, 자신의 아들 쪽, 그리고 세 장교 쪽으로 향한 채, 손잡이를 더듬어 잡았다.

그리고는 쩌렁쩌렁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신을 두려워할 것이 있나요? 호엔촐레른 백작부인 에르미네 말인가요? 내가 맞는지 묻고 싶으신 거죠? 네, 맞아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고백합니다.

당신이 어리석게도 범죄라고 부르는 모든 행위, 네, 제가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황제에 대한 제 의무였죠. 더 큰 독일, 그 조국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간첩이라고요? 아닙니다. 독일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독일인이 조국을 위해 하는 일,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과거의 쓸데없는 말과 수다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금과 미래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 모두를 내가 다시掌控하게 되었죠. 맞아요, 당신 덕분에 저는 사건의 주도권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웃을 차례입니다."

"무엇을 알고 싶습니까? 최근 며칠 동안 여기서 일어난 모든 일은 제가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강이 쓸어간 다리들, 그 기초를 파헤친 것도 제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을 후퇴시키기 위한 초라한 결과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선포할 필요가 있었죠. 승리가 맞든 아니든, 그건 선포될 것이고, 그 효과는 확실할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하지만 제가 원했던 것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몸을 기울이며 경청하는 이들을 향해 더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후퇴와 군내의 혼란, 그리고 적의 진격을 막고 증원을 끌어오기 위한 조치.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최고 사령관이 이곳에 와서, 장군들과 함께 전략을 논의해야만 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수개월째 나는 그를 쫓아다녔다. 다가갈 수도 없었고, 계획대로 실행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든? 그냥 그를

내 쪽으로 끌어오면 되는 거였다. 내가 그에게 갈 수 없다면, 그가 내게 오게 만들면 되니까.

그를 유혹해 내가 정한 장소로 끌어들이자. 그곳에서는 내가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왔다. 준비도 끝났다. 이제 내가 원할 뿐이다. 오직 원할 뿐!

그는 지금 여기 있다. 그가 소아송에 올 때마다 머무는 작은 빌라 중 한 방에서. 그는 분명 그 안에 있다. 나는 안다. 내가 보내둔 한 명의 요원이 나에게 신호를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신호를 방금 너도 들었지. 그러니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내가 쫓고 있던 남자는 지금 내가 잘 알고, 그리고 폭파 준비를 해둔 한 건물에서 장군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그 근처에는 한 군단장,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고의 실력을 가진 군단장이 있다. 세 명이 함께 있다. (주변의 하찮은 사람들은 제외하고 말이다.) 이 세 명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다. 이해했는가? 단 한 번의 손짓, 이 레버를 올리는 것만으로. 그러면 그들은 그들을 감싸고 있는 건물과 함께 날아갈 것이다.

내가 그 손짓을 해야 할까?

방 안에서 짧은 '탁' 소리가 났다. 베르나르 드안드빌이 권총을 조준하고 있었다.

"저 여자를 죽여야 해! 비열한 년이!" 그가 외쳤다.

파울이 그 앞에 몸을 던지며 소리쳤다.

"입 다물어! 움직이지도 마!"

백작부인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속에는 악의에 찬 희열이 가득 서려 있었다.

"당신이 옳아요, 폴 델로즈. 당신이 이 상황을 이해하죠. 그 멍청한 녀석이 총알을 쏘아올리더라도, 제가 레버를 올릴 시간은 항상 충분하죠.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피해야 할 일 아니에요? 바로 그걸, 이분들과 당신도 죽기보다 싫어하시죠. 제 자유를 희생해서라도 말이에요. 슬프게도, 우리는 이미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 완벽한 계획이 무너졌으니까요. 제가 당신들 손아귀에 잡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당신들 장군 세 명과 맞먹는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 자신을 구하기 위해 그들을 살릴 권리가 분명히 있죠."

"그렇다면 우리 의견이 일치하는 거군요? 제 생명과 그들의 생명, 맞교환입니다! 당장요!"

"폴 델로즈, 당신에게는 이분들과 상의할 시간이 딱 일 분밖에 없어요. 일 분 안에, 당신과 그분들의 이름을 대고, 당신께서 저를 자유인으로 인정하며, 제가 스위스로 건너갈 수 있도록 모든 보호를 해줄 것이라고 단언하는 말을 듣지 못하면…… 음, 그러면 '작은 빨간 모자' 속 말처럼 '방전 코일이 떨어질' 거예요."

"아! 내가 너희 모두를 쥐고 노니는구나!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서두르세요, 델로즈 친구. 당신의 단언이 필요해요. 하지만 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다름 아닌 프랑스 장교의 신조라니! 하하하!"

그의 웃음, 신경질적이고 경멸적인 그 웃음이 큰 침묵 속으로 길게 이어졌다. 하지만 이내 그 웃음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다.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듯했고, 갑자기 멈추어 버렸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폴 델로즈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방 안의 어느 장교나 병사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며 그들을 위협했다.

"서둘러라! 프랑스 여러분, 당신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분뿐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10초마다 지난 시간을 외쳤다.

40초째, 그녀는 말을 멈췄다.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돌았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은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에 사로잡혀 몸을 떨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과한 말씀이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제 말을 믿지 못하시나요? 아, 알겠습니다. 여

러분은 제 말을 믿지 않으시는군요.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는 생각지 못하시고, 제가 과연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는 상상조차 못 하시는군요.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아닙니다. 단지 의지와 끈기, 그리고 끊임없는 생각의 연결일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군인들이 있었죠. 네, 바로 그 군인들이 제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본부가 있는 저택과 우체국 사이에 전화선을 깔아주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요. 제 요원들은 그 전화선에 연결하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일은 끝났습니다. 저택 아래에 파놓은 광산용 화약통이 바로 그 지하 저장고와 연결되어 있었던 셈이죠.

지금이야말로 제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목소리가 갈라져 나갔다. 숨이 차고 쉰 목소리였다. 점점 선명해져 가는 불안이 그의 얼굴을 망가뜨리고 있었다.

왜 저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 걸까? 왜 그의 명령을 무시하는 걸까?

그들이 용서해 주기는커녕,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한 걸까?

"자, 뭐라고?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분명히 이해하고 있잖아?" 그녀가 속삭였다. "아니면 이건 미친 짓이네. 자, 생각해 봐. 당신의 장군들은요? 그들의 죽음이 초래할 영향은요? 우리의 위력을 보여줄 엄청난 효과는요?

그리고 어떤 혼란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군대가 후퇴할 거예요. 최고 사령부가 무질서해지겠지요. 자, 자!"

그녀는 그들을 설득하려는 듯했다. 그 이상이었다. 자신의 시각에 서서, 자신이 내린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간청하는 듯했다. 그녀의 계획이 성공하려면, 그들은 논리에 따라 움직여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그녀는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를 낮추며 행한 이 굴욕적인 간청에 반발했다. 그리고 다시 위협적인 태도를 되찾고, 그녀는 소리쳤다.

"그들 탓이오! 그들 탓이라고! 그들을 심판한 건 바로 당신들이오! 자, 정말로 그렇게 하시겠소? 우리 의견이 일치한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야 잡혔다고 생각하나 보군? 헛소리에요! 당신이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에르미네 백작부인은 아직 마지막 말을 하지 않았소! 그분을 모르시오, 에르미네 백작부인은… 그분은 절대 항복하지 않아요… 에르미네 백작부인은… 에르미네 백작부인은…"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쳤다. 그녀는 마치 미친 듯이 사로잡힌 듯했다. 경련을 일으키고, 분노에 몸부림치며, 추하고도 스무 살은 더 늙어 보였다. 지옥의 불꽃에 타오르는 악마의 형상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욕설을 퍼부었고, 신을 모독했으며, 저주를 날렸다. 심지어 그녀는 자신이 저지를 행동이 불러올 재앙을 생각하며 웃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안 됩니다! 이건 당신들의 짓입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살인자예요! 아, 미쳤네! 정말 미쳤어!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걸 요구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완전히 미쳤어! 장군들을, 지휘관들을! 도대체 정신이 나간 게 뭐야! 기꺼이, 자진해서 자신들의 영웅인 장군들을, 지휘관들을 희생시키다니! 이유도 없이, 바보 같은 고집 때문에! 잘됐어, 그들이 원한 대로 되겠지! 그들이 원한 대로! 당신들이 원한 거야! 당신들이 원한 거야! 나는 당신들을 책임지게 할 거야. 문제는 한 마디였어. 그리고 그 한 마디…"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였다. 거칠고 단호한 표정으로, 그녀는 불굴의 명령에 복종하는 듯 굳어 있는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들 중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죽음을 앞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악의에 찬 쾌감에 사로잡힌 듯했다. 그 공포를 잊을 정도였다. 그녀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그리고 우리 황제가 승리하기를!"

눈빛은 고정되고 몸은 굳어졌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레버를 들어 올렸다.

순간이었다. 천장을 뚫고, 공기를 가로질러, 멀리서 터진 폭발음이 지하실까지 울려 퍼졌다. 땅이 진동하는 듯했다. 지구의 속살까지 충격이 전달된 것만 같았다.

그리고 정적.

에르민 백작부인은 몇 초 더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 번 중얼거렸다.

"우리 황제가 승리하기를!"

그 순간, 그녀는 팔을 힘껏 뒤로 빼내며 몸부림쳤다. 등 뒤로 기대고 있던 옷들과 블라우스 사이로 몸을 구겨 넣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그녀는 정말로 벽 속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다.

무거운 문이 닫히는 굉음이 울렸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지하 저장고 한가운데서 총성이 터졌다.

베르나드가 그더미로 쏜 것이었다. 그가 숨겨진 문 쪽으로 달려가려던 찰나, 폴이 그를 붙잡아 꼼짝 못 하게 고정시켰다.

베르나드는 그의 포효에 몸부림쳤다.

"하지만 저자가 우리 손에서 빠져나갔잖아! … 넌 그냥 내버려뒀어? 도대체 뭐야! 에브르쿠르 터널과 전선 시스템이 뭐였는지 분명히 기억나지? … 똑같은 경우잖아! … 그리고 저자는 이미 달아났어!"

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자매도 마찬가지였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바로 그 악독한 여자가 그들의 어머니를 죽이고, 어머

니의 이름과 자리를 빼앗았건만, 그 여자를 그냥 놓아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엘리자베스가 소리쳤다.

"폴, 폴! 저자를 쫓아야 해요… 저자를 무너뜨려야 해요… 폴, 저자가 저지른 일을 모두 잊었나요?"

그녀는 잊지 않았다. 오르네캉 성, 콘라드 공작의 빌라, 샴페인 잔을 비워야 했던 그 밤, 강요당한 거래, 그리고 모든 수치와 고통을 그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폴은 형의 말에도, 자매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장교들과 병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같은 지시를 받은 듯 무표정을 유지했다. 어떤 사건도 그들을 흔들 수 없었다.

두세 분이 지나갔다. 그 사이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몇 마디 나누었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감정의 여파로 기운이 빠져버린 엘리자베스는 울고 있었다.

동생의 통곡에 신경이 거슬렸던 베르나르는, 자신이 끔찍한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꿈속에서 가장 끔찍한 광경을 보면서도 반응할 힘도, 능력도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과 똑같았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이 자연스러운 일인 양 여긴 일이 벌어졌다. 오직 베르나르와 엘리자베스만 예외였다.

옷감 사이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보이지 않던 문이 경첩을 돌아가며 열렸다. 옷자락이 흔들리더니, 한 인간의 형체가 드러났다. 그 형체는 마치 한 뭉치의 짐처럼 바닥에 던져졌다.

베르나르 안드빌이 기쁨에 찬 외침을 지른다. 엘리자베스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다.

그녀는 에르민 백작부인이었다. 끈으로 단단히 묶이고 입은 막혀 있었다.

그 뒤로 세 명의 군경이 들어섰다.

"자, 바로 이겁니다." 한 명이 굵직한 목소리로 농담조로 말했다. "아, 정말 저희도 머리가 빠질 지경이었어요, 대위님. 대위님이 맞다고 하셨지만, 정말 그걸로 끝장날 줄 알았거든요. 그녀가 어디로 도망칠지 도무지 감이 안 왔으니까요."

"하지만, 천벌 받을 년아, 정말 고생이었어. 그 년이 우리를 얼마나 골탕 먹였는지 몰라. 정말 미친 듯이 굴었지. 악취 나는 짐승처럼 물었고, 소리는 또 얼마나 지르던지. 그 개새끼야!"

그리고 그는 다른 병사들을 향해 말을 이었다. 그의 말에 병사들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동지들, 지금껏 잡으려던 사냥감에 또 한 마리라도 더 붙다니. 하지만 진정으로 훌륭한 사냥감이지. 델로즈 중위가 발자국을 잘 따라왔

어. 이제 그림이 완성됐군. 단 하루에 독일인 무리를 다 잡다니! 어이, 중위님, 뭐 하시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이 짐승은 이빨이 있답니다."

파울은 간첩 여자에게 몸을 기울였다. 그녀가 고통스러워 보이는 입속의 천을 풀어주었다. 곧이어 그녀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나오는 소리는 막힌 음절들이었다. 그러나 파울은 그 속에서 자신의 반박을 불러일으킬 몇 마디를 알아챌 수 있었다.

"아니요,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런 만족감조차요. 이번 작전은 실패했군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끔찍한 형벌이죠. 원했던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고 죽는 것. 그리고 그 악행이라니!"

그는 일어나 장교들 무리 쪽으로 다가갔다.

세 사람은 이미 심문 임무를 마친 뒤였다. 그중 한 명이 파울에게 말했다.

"잘했군, 델로즈. 내 축하를 받아라."

"감사합니다, 장군님. 저는 이 도주 시도를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그녀가 저지른 범죄를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모아 그녀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녀가 현장에서 적발되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장군은 말했다.

"그래, 그 여자는 정말 무자비하군! 네가 없었다면, 델로즈, 내 부하들뿐 아니라 나까지 함께 날아갔을 거야. 그런데 말인데, 우리가 들었던 그 폭발음은 대체 뭐였지?"

"불필요한 구조물입니다, 장군님. 이미 포탄에 의해 허물어진 곳이라, 요새 사령부에서도 치우려던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여기서 뻗어나가는 전선을 살짝 방향만 틀어준 것뿐입니다."

"그럼, 무리 전체를 모두 붙잡은 셈인가?"

"네, 장군님. 방금 전 우연히 붙잡은 공범 중 한 명의 도움 덕분입니다. 그 녀석이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해 주었죠. 그에게서 헤르민 백작부인의 계획과 모든 공범들의 이름을 낱낱이 들은 뒤, 우리는 이곳에 침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십 시, 만약 장군님이 별장에서 작업을 하고 계셨다면, 그 녀석이 이 종을 울려 백작부인에게 알리려 했을 겁니다. 실제로 종소리는 울렸지만, 제 지시에 따라 우리 병사 한 명이 울린 것입니다."

"좋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 델로즈."

장군이 빛의 동그라미 안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키가 크고 건장했다. 입술을 덮을 정도로 굵고 하얀 수염이 그의 얼굴을 단정하게 만들어 주었다.

관중들 사이에서 놀람의 움직임이 일었다. 베르나르 당데빌과 그의 자매가 서로 가까이 다가섰다. 병사들은 군복 자세를 취했다. 그들은

최고 사령관을 알아본 것이다. 군단 사령관과 군단 지휘관이 그를 따랐다.

그들 맞은편에서, 헌병들은 스파이를 벽 쪽으로 밀어냈다. 그들은 그녀의 다리를 풀어주었지만, 그녀를 부축해야 했다. 그녀의 다리가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 얼굴에서 공포보다 더 강렬했던 것은,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악이었다.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그녀는 자신이 죽이려 했던 남자를, 그리고 이미 죽은 줄 알았던 남자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 남자는 살아 있었고, 곧 그녀에게 피할 수 없는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었다.

파울이 되물었다.

"원하는 악행을 저지르지 못한 채 죽는 것. 그게 바로 무서운 거죠, 그렇지 않나요?"

대원수가 살아 있었다!

끔찍하고 거대한 음모가 실패로 끝난 것이었다!

그는 살아 있었고, 그의 동조자들도 모두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 스파이의 적들도 모두 살아 있었다. 파울 델로즈, 스테파네 드앙드빌, 베르나르, 엘리자베스…… 그녀가 끝없는 증오로 쫓아다녔던 그들이 바로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행복하게 만나게 된 끔찍한 광경을 안고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과 함께 죽어갈 참이었다. 평생 품어 온 큰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에르미네 백작부가 사라지자, 호엔촐레른 가문의 영혼까지 함께 스러져 갔다. 그녀의 황홀한 눈빛에서 광기의 빛이 스치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었다.

장교 한 명이 동료에게 물었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그 무리를 총살할 계획입니까?"

"네, 장군님. 오늘 밤 바로 실행합니다."

"그럼 그 여자부터 시작해라. 지금 당장. 여기서."

간첩이 몸을 떨었다. 억지로 얼굴을 찌푸리며 입에 막힌 천을 밀어내자, 간청의 말과 신음 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가자." 총사령관이 말했다.

그때 뜨거운 두 손이 자신의 손을 꼭 쥐는 것을 느꼈다. 엘리자베트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간청하고 있었다.

파울이 아내를 소개했다. 장군은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여보시게, 당신도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군요. 당신에게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보시게. 맞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죽어갈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죠. 하지만 그런 자들에게, 혹은 그런 종족에게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미 인간성을 저버렸고, 우리는 결코 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어머니가 되면, 프랑스가 미처 알지 못했던 감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의 우리를 지켜줄 방패가 될 테니까요. 바로 '야만인에 대한 증오'라는 감정이죠."

그는 친근한 제스처로 그녀의 팔을 잡고 문 쪽으로 이끌었다.

"모시겠습니다. 델로즈 씨도 함께 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로 많이 지치셨을 테니 쉬셔야 합니다."

그들은 나갔다.

간첩이 비명처럼 외쳤다.

"자비로워하십시오! 자비로워요!"

이미 병사들은 반대편 벽을 따라 줄을 서고 있었다.

백작과 폴, 베르나르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녀는 백작 안드빌의 부인을 죽였다. 베르나르의 어머니와 폴의 아버지를 죽였다. 엘리자베스를 고문했다. 비록 그들의 영혼은 혼란스러웠지만, 그들은 정의의식이 주는 위대한 평화를 느꼈다. 그들을 격분시키는 증오는 없었다. 복수하려는 생각도 그들의 가슴에서 뛰지 않았다.

그녀를 부축하기 위해 헌병들은 그녀의 허리띠를 못에 묶어 매달아 두었다. 헌병들이 물러섰다.

폴이 그녀에게 말했다.

"저기 있는 병사 중 한 명이 신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하지만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듣지도 않았다. 오직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만 보고, 끝없이 더듬거렸다.

"자비여!… 자비여!… 자비여!"

세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났다. 계단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한 번의 명령이 들려왔다.

"조준!"

들리지 않게 하려고, 파울은 현관문과 거리 쪽 문을 재빨리 닫았다. 밖은 넓은 공기와 맑고 신선한 공기였다. 숨을 깊이 들이마실 수 있는 공기였다. 군대들은 노래를 부르며 행진하고 있었다. 그들은 전투가 끝났고, 우리의 진지가 완전히 확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도 에르민 백작부인은 실패했다…

며칠 후, 오르네캉 성에서, 열두 명의 병사를 따르던 베르나르 드앙드빌 소위는 콘라드 공자가 감금된, 건강하고 잘 난방된 감옥 같은 방으로 들어섰다.

테이블 위에는 병들과 푸짐한 식사 후 남은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옆 침대에서는 공이 잠들어 있었다. 베르나르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용기를 내십시오, 폐하."

죄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용기를 내십시오, 폐하. 때가 됐습니다."

공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더듬거렸다.

"용기라니?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주님! 정말일까요?"

베르나르가 단호하게 말했다.

"세상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일어나야 할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특히 재앙은 더 그렇죠."

그리고는 물었다.

"기운을 차리시라고 럼주 한 잔 드릴까요? 담배라도 피우시겠습니까?"

"주님, 주님!" 공은 나뭇잎처럼 떨며 반복할 뿐이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베르나르가 건네는 담배를 받아 들었다. 하지만 첫 모금을 들이마시자마자 담배는 입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주님! … 주님!"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그가 팔 아래 총을 끼고 기다리고 있는 열두 명의 남자를 보고는, 그의 절박함은 배가 되었다. 새벽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가운데, 단두대의 실루엣을 알아보는 사형수의 광기 어린 눈빛을 그에게서 볼 수 있었다. 그는 벽 한쪽 앞, 테라스까지 들어 올려져야 했다.

"앉으십시오, 폐하." 베르나르가 말했다.

불쌍한 남자는 서 있을 능력조차 잃어 있었다. 그는 돌 위에 주저앉았다.

열두 명의 병사가 그의 정면에 위치를 잡았다. 그는 그들을 보지 않기 위해 고개를 숙였고, 온몸은 줄을 당기는 인형처럼 떨리고 있었다.

잠시 시간이 흘렀다. 베르나르는 우정 어린 어조로 물었다.

"앞을 보고 죽으시겠습니까, 뒤를 보고 죽으시겠습니까?"

공작은 완전히 기절할 듯이 주저앉아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그가 소리쳤다.

"그래요, 폐하. 좀 창백해 보이시는데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시간도 충분하잖아요. 파르 드를로제 소위가 오기까지 십 분은 더 걸릴 테니까요. 그는 이 작은 의식을 반드시 지켜보려 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음, 참관하려 하죠. 정말로 폐하의 얼굴빛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초췌하시군요, 폐하."

그는 여전히 깊은 관심을 보이며, 마치 공작의 주의를 돌리려는 듯 이렇게 말했다.

"뭘 해드릴까요? 당신의 친구인 에르민 백작부인의 죽음에 대해 말씀드릴까요? 아하, 그러자마자 귀가 쫑긋 서시네요. 네, 맞아요. 그 분은 며칠 전 소아송에서 처형당했어요. 정말로 당신만큼이나 초췌한 모습이었죠. 사람들이 부축해 주지 않으면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비명도 지르고, 자비를 구하기도 하고. 전혀 체면이란 게 없었어요. 품위랄 것도 없었죠! 하지만 아, 당신이 다른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네요. 어쩐지 답답하군요. 어떻게 하면 당신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요? 아,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책자를 꺼냈다.

"마시네, 제가 대신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경 같은 것이 더 적절하겠지만,手头에는 없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잠시 잊고 쉬게 해 드리는 거죠. 자랑스러운 조국과 군대의 무공을 자랑하는 훌륭한 독일인분께 이 작은 책보다 더 위안이 될 만한 건 없습니다. 함께 음미해 보시죠. 제목은 '독일인의 증언으로 본 독일의 범죄'입니다. 이 책은 동포들이 쓴 여행 일기입니다. 독일 과학이 존경심을 담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자료죠."

그가 책을 펼치고 무작위로 한 구절을 읽어 내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마을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집집이 벽에 피가 뒤범벅되었고, 죽은 이들의 얼굴은 더없이 비참했습니

다. 60구 시신을 모두 곧장 매장했습니다. 그중에는 노부부와 임산부, 그리고 서로 몸을 부둥켜안고 죽은 아이 세 명이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모두 쫓겨났고, 저는 네 명의 어린 소년이 두 개의 지팡이에 유모차를 메고, 그 안에 다섯 달에서 여섯 달 된 아기를 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을은 약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아이를 데린 한 어머니도 목격했습니다. 한 아이는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고, 한쪽 눈은 꺼져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군요, 폐하."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8월 26일. 아르덴의 구에다소스라는 훌륭한 마을이 불탔다. 그 마을은 무고한 곳이었다. 내 생각엔 말이다. 한 자전거 탄 사람이 넘어지면서 총이 우연히 발사됐다고 한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사격을 가했고, 결국 마을의 남자들을 불 속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더 아래를 읽어라."

"8월 25일(벨기에). 마을 주민 300명이 총살당했다. 총격을 견뎌 살아남은 사람들은 무덤 파는 일꾼으로 끌려갔다. 그때 여성들의 모습을 꼭 봐야 했다……."

버나드가 평온한 목소리로 유익한 해설을 곁들이며 읽어나갔다. 마치 역사책을 설명하듯 담담했다. 반면 콘라드 공작은 기절할 뻔했다.

폴이 오르네캉 성에 도착해 차에서 내려 테라스로 향했을 때, 그에게 펼쳐진 광경은 베르나드가 벌인, 다소 음울한 작은 연극임을 한눈에 보여줬다. 왕자의 모습, 열두 병사의 배치, 모든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폴은 나무라는 어조로 항의했다.

"오, 베르나르……"

젊은 남자가 무죄를 주장하듯 외쳤다.

"아, 폴이구나! 어서 와. 모네귀와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드디어 이 일을 처리하게 되겠군."

그는 왕자로부터 열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던 병사들 앞에 나섰다.

"준비되셨습니까, 폐하? 아, 역시 정면 구도가 좋군요. 정말 완벽합니다. 역시 정면에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친근하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리 좀 더 단단히 세워 주시겠어요? 힘 좀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소도요, 맞죠? 주의하세요…… 카운트 시작합니다. 일, 이…… 제발 미소 지어 주십시오, 천하의 신사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가슴에 작은 사진기를 꼭 안고 있었다. 거의 즉시 셔터가 딸랑 소리와 함께 내려졌다.

"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폐하, 정말 감사합니다. 이토록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협조해 주시다니요. 미소가 약간은 억지스럽고, 입술은

사형수의 찌푸린 표정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눈빛은 시체처럼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표정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파울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콘라드 왕자는 농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하지만 위험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모든 불행을 비웃을 듯한 위엄으로 견디는 신사처럼 몸을 굳히려 애썼다.

파울 델로즈가 그에게 말했다.

"폐하, 이제 자유입니다. 황제의 부관 중 한 명과 제가 지금 세 시에 전선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인 포로 스무 명을 데리고 올 예정입니다. 제가 폐하를 그에게 인도하겠습니다. 이 자동차로 올라타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콘라드 왕자는 파울의 말을 한 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다. 전선에서의 만남, 특히 스무 명의 포로라는 말은 그의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어색한 문장들일 뿐이었다.

그가 자동차에 몸을 실어, 차가 잔디밭을 천천히 돌아갈 무렵, 그는 한 장면을 보았다. 그 광경은 그를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에리자베트 드앙드빌이 풀밭 위에 서서, 미소를 띠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환각이었다. 그는 어리둥절해하며 눈을 비볐다. 그 제스처가 그의 심정을 너무도 잘 드러냈기에, 베르나르가 말했다.

"잘못 생각하셨네요, 폐하. 바로 엘리자베트 드안드빌입니다. 제가 봐도 폴 드를로즈나 저나, 그녀를 독일에서 직접 데려오는 게 낫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바로 바이데커르 여행 가이드를 들고 나섰죠. 황제께 면담을 청했고, 평소의 너그러움으로 황제께서 직접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 그런데 폐하, 아버지께 혼나실 각오 하셔야 합니다. 황제께서 정말 화가 나 계세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큰 소동이라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정말 큰일 났네요, 폐하."

정해진 시간에 교환이 이루어졌다.

프랑스인 포로 스무 명이 석방되었다.

폴 드를로즈는 전령 장교를 따로 불러냈다.

"선생님, 황제께 전하십시오. 호엔촐레른의 에르민 백작부가 소아송에서 총사령관을 암살하려다 저에게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고요. 총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총살당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문서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제께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친필 편지들이죠."

"오르네캉 성이 모든 가구와 수집품을 되찾는 날, 그 편지들을 돌려보내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선생님."

일단락이 끝났다. 파울은 전선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는 엘리자베트를 구해냈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 독일 첩보 부대의 핵심을 타격했고, 사단장에게 한 약속을 모두 지켰다. 그는 프랑스 장교 스무 명의 석방을 요구하며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업적에 대해 마땅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베르나드가 물었다.

"그래, 방금 내가 너를 당황하게 했어?"

"당황이라니, 웃기지 마." 파울이 웃으며 말했다. "화났지."

"분노하다니, 정말로! 분노라니!"

"젊은 멍청이가 내 아내를 빼앗으려 했더니, 감옥에 며칠 갇혀 있는 것으로 끝이란다. 살인과 약탈을 일삼는 두목 중 한 명이 집으로 돌아가 또다시 약탈과 살인을 저지를 거라는 말이야. 말이 안 돼."

"이 전쟁을 원했던 왕족들과 황제들, 그리고 그 아내들을 생각해 봐. 그들은 전쟁의 위대함과 비극적인 아름다움만 알지,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전혀 모른단다. 그들은 자신에게 닥칠 처벌을 두려워하며 정신적으로 고통받지만,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아. 다른 이들은 죽어 가는데,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지."

"이토록 완벽한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저들과 그 동조자들을 복수하고, 그들이 우리의 자매와 아내들을 처형하듯 그들을 냉정하게 처형할 수 있는 기회야. 그런데 내가 그에게 단 10분간 죽음의 전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아니, 그렇지. 인간적이고 논리적인 정의라면 최소한의 형벌을 가해야 마땅해. 그가 평생 잊지 못할 만한 고통을 말이야. 예를 들어 귀를 잘라내든, 코끝을 잘라내든."

"당신이 옳아요. 천 번이나 옳다고요."

"보잖아, 내가 코끝을 잘라버릴 걸 그랬어! 너도 내 말에 동의하잖아! 정말 후회돼. 나는 바보라서, 그가 내일 아침이면 잊어버릴지도 모를 하찮은 교훈만 줬어. 나는 정말 멍청한 놈이었어.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게 있어. 사진을 찍었거든. 그 어떤 문서보다 귀중한 자료야. 죽음과 마주한 호엔촐레른가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지. 아니, 그 얼굴을 본 적 있니? 정말로!"

자동차는 오르네캉 마을을 지나고 있었다. 마을은 텅 비어 있었다. 야만인들은 모든 가옥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모두 데려갔다. 마치 노예 떼를 몰아내듯.

그런데 그들은 폐허 사이에 앉아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다. 헐벗은 옷을 입은 그 남자는 미친 사람처럼 어리둥절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곁에서 한 아이가 그들을 향해 팔을 내밀었다. 손가락 하나 없이 잘려 나간, 가엾은 작은 팔들이었다.